

2016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결과보고서

본 사업은 서울YWCA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수행단체의 의견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 2016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보고

1.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_03
2. 사업개요 _04
3. 사업추진결과 _05
4. 모니터링 결과요약 _23
5. 종합평가 및 제언 _32

II. 모니터링 결과

1. 정기모니터링
 - 1) 드라마 _37
 - 2) 오락예능 _104
 - 3) 인터넷기사 _143
 - 4) 신문 _175
 - 5) 잡지 _184
2. 이슈모니터링
 - 1) 성폭력사건 모니터링을 통해 본 뉴스미디어와 성폭력 _198
 - 2) 2016 리우올림픽 중계방송의 성차별성 _233
 - 3) 온라인 속 성차별적 사례 _244

III. 부록

1.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_263
2. 양성평등기본법 _282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개요 _296

I . 2016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보고

1.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2. 사업개요
3. 사업추진결과
4. 모니터링 결과요약
5. 종합평가 및 제언

I. 2016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보고

1.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1) 사업의 필요성

| 양성평등 사회 정착을 위한 미디어의 영향력 주목

대한민국은 현재 성차별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젊은 여성들의 성역할 모델과 가치관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는 여전히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고정관념적이고 불평등한 성역할 가치관을 확대·재생산하고 있으며 성차별적인 메시지를 유포하여 성 평등 사회를 조성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서구의 여러 사회조차 여전히 미디어가 여성을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뿌리 깊은 가부장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미디어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하게 한다.

| 미디어의 성역할 고정관념 재현의 위험성 인지

미디어는 사회의 '재현체계'로서 사회적 현실을 그 재료로 사용하는 동시에 사회의 기존 고정관념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특히,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의 여성에 대한 소외는 미디어의 생산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제한되고 남성 중심적 시각이 투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성의 현실을 왜곡시켜 재현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가부장적 사회의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별화 된 미디어로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는 성의 상징적 질서를 재현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미디어를 통해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강조하거나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서 표현하고 대상화하는 등 왜곡된 남·여 역할의 재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통한 양성평등 미디어 문화 확산 필요

미디어가 여성을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즉 여성에 대해 어떤 언어를 사용하여 어떤 담론을 유통시키느냐에 따라 향후 여성관련 문제의 내용과 방향이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미디어에 대한 감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성이 남성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살아가는 사회를 앞당기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차별 없는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미디어의 영향력이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 긍정적으로 발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내용에 나타난 각종 성차별적 요소들을 바로잡는 노력과 함께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운 솔한 성 규범과 성 담론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젠더에 대한 관점과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중매체가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왜곡된 남·여 관계의 이데올로기와 성 상품화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니터링 하고자 하였다.

2) 목적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대중매체에 대한 성 인지 관점의 미디어모니터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 비하, 폭력 등을 조장하는 부정적 사례를 발굴하고 시정을 추진하며 성평등한 사례 발굴·홍보를 통한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3) 기대효과

- 양성평등 미디어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양성평등 미디어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성평등 사회조성에의 시민참여 기회 확대
- 방송 제작자의 양성평등 인식 변화의 필요성과 공감대 확산
- 시민의 시청자 주권의식과 양성평등 의식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의식 저변 확대

2. 사업개요


1) 사업명 : 2016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2) 사업기간 : 2016년 2월~12월

3)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기획 및 준비	○ 사업계획 수립 ○ 모니터링 전문기관 선정 ○ 전문가협의회 구성
사업추진	○ 모니터단 구성 및 교육 ○ 미디어모니터링 ○ 월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발간 및 배포 ○ 심의개선요청활동 ○ 정기협의체 운영 ○ 양성평등미디어교육 ○ 양성평등미디어문화 확산 간담회 ○ 미디어 속 성평등/성차별 찾기 캠페인
평가 및 결과보고	○ 평가워크숍 ○ 종합보고서/사례집 발행 및 공유

4) 역할체계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사업총괄 및 관리, 교육지원 및 홍보, 활용 촉진	모니터단 운영, 모니터링 및 보고서 제작, 교육, 간담회, 캠페인 등 사업운영

3. 사업추진결과

1) 모니터단 구성 및 교육

(1) 서울YWCA 양성평등미디어모니터회 구성

총 15명으로 구성된 서울YWCA 양성평등미디어모니터회는 2010년부터 양성평등 관점을 기반으로 미디어모니터링 활동 전개

2016년 모니터 활동가 명단	강훈덕 김윤정 이수정 류영주 류용희 박미경 이범자 임지연 장지영 전소영 정모아 정진숙 정희경 천우신 하진욱
------------------	--

(2) 모니터 전문교육

① 기본교육(6회기)

일자	교육내용	강사	비고
4/14(목)	미디어와 젠더 이해	신주진 작가	기본교육
4/21(목)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흐름과 방향 이해	전길양 부장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4/28(목)	미디어환경 개선체계의 이해	김현희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	
5/12(목)	대중매체별 양성평등 미디어모니터링 기법	김언경 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심화워크숍
5/19(목)	모니터링 실습 및 피드백	김언경 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5/26(목)	모니터링 분석 기법	김언경 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② 사이버교육(4시간)

- 기간 : 2016년 4-5월 중
- 장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 내용 : 정규특화과정 '대중매체와 양성평등'
 - 성평등적 미디어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현황
 - 드라마와 성평등
 - 뉴스, TV광고가 보여주는 젠더 표상
 - 성인지적 모니터링

③ 전문가멘토링

- 일시 : 2016년 5월 26일, 6월 16일(목) 14:00-17:00
- 장소 : 서울YWCA
- 내용 : 미디어모니터링 OJT(모니터링 방법 및 피드백)
- 강사 : 김언경 사무처장(민주언론시민연합)



④ 보수교육

- 일시 : 2016년 11월 22일(화) 14:00-15:00
- 장소 : 서울YWCA
- 내용 :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콘텐츠 모니터링 방법
- 강사 : 이성우 차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⑤ 정기연구모임

- 일시 : 매주 둘째 목요일 14:00-17:00(월 1회, 총 8회)
- 장소 : 서울YWCA
- 내용 :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점검
 - 익월의 모니터링 방향 및 방법(체크리스트) 점검
 - 전문가 멘토링
 - 여성가족부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제안 논의



2) 미디어모니터링

(1) 정기모니터링

시 기	기 간	장 르	매 체	모니터링 대상
5월	5/11-17	드라마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20개 프로그램, 64편
6월	6/1-7	드라마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22개 프로그램, 68편
	6/1-7	인터넷기사	인터넷기사	네이버 뉴스스탠드 내 35개 매체
8월	8/1-7	오락/예능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30개 프로그램
9월	9/1-7	오락/예능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32개 프로그램
	9/1-7	신문	신문	5대 일간지(25개)
10월	10/1-7	잡지	잡지	6개 남성, 여성지

(2) 이슈모니터링

시 기	기 간	장 르	주 제	모니터링 대상
7월	7/2-8	TV뉴스, 일간지온라인판, 인터넷기사	뉴스 미디어와 여성폭력	18개 뉴스미디어
8월	8/6-22	올림픽 중계방송	리우올림픽 중계방송 성차별성	577개 프로그램
11월	11/24-30	온라인	온라인 속 성차별 사례	12개 온라인커뮤니티

- 「방송심의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2015. 9, 여성가족부)」를 통해 개발된 양성평등 모니터링 표준화 도구를 활용함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잡지’와 ‘이슈모니터링’ 체크리스트는 정기협의체 및 자문을 통해 구성하여 활용

3) 월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발행 및 배포

- 시기 : 5-12월 중 매월
- 내용 : 월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발행(매월 70부), 우편 및 이메일로 발송
- 배포처 : 언론사 및 유관기관 175곳



4) 심의개선요청활동

- 시기 : 5-12월 중 매월
- 내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등 심의요청
- 2016년 심의요청 현황: 25건

전체	방송 분야				신문	온라인	잡지
	드라마	예능	올림픽 중계	뉴스		인터넷 기사	
25건	3건	5건	8건	4건	1건	1건	3건

* 방심위 20건(동일 프로그램 병합 18건 처리), 신문윤리위원회 2건, 간행물윤리위원회 3건

** 방심위 결과: 권고(6), 의견제시(2), 문제없음(11), 각하(1)

*** 신문윤리위원회 결과: 주의(1), 기각(1)

**** 간행물윤리위원회 결과: 청소년유해간행물이 아닌 것(3)

○ 심의결과

번호	구분	요청기관 (요청일)	주요 내용	결과
1	잡지 (남성)	간행물 윤리위원회 (1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MAXIM / 2016년 10월호 •(내용) 국군의 날 특집 밀리터리 스페셜(p.7)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밀리터리룩을 착용한 여성의 사진을 게재.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가슴과 엉덩이를 강조하는 포즈를 취한 사진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임 •(관련조항)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기준 제4조(선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청소년유해간행물이 아닌 것/11.29 •(사유) 선정적 내용을 일부 수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표현 정도, 문맥, 분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청소년보호법 심의 기준에 저촉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
2	잡지 (남성)	간행물 윤리위원회 (1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MAXIM / 2016년 10월호 •(내용) 숨막히는 뒤테(p.178) 일본 게임 <투하트2>의 캐릭터 피규어 이미지를 소개. 피규어의 선정적인 포즈를 소개하며, '허리를 잔뜩 구부려 엉덩이 라인을 돋보이게', '가슴골 사이의 섬세한 도색은 중력을 거스르지 못한 바스트의 쓸림을 실감나게 보여 준다', '최고의 관전 포인트, 짝 끼는 얇은 의상을 입었을 때 엉덩이 골 부분' 등의 표현 사용. •(관련조항)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기준 제4조(선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청소년유해간행물이 아닌 것/11.29 •(사유) 선정적 내용을 일부 수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표현 정도, 문맥, 분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청소년보호법 심의 기준에 저촉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

번호	구분	요청기관 (요청일)	주요 내용	결과
3	잡지 (남성)	간행물 윤리위원회 (1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GQ / 2016년 10월호 •(내용) 다이아몬드는 영원히(p.256) 러시아 출신의 모델인 이리나 샤크(Irina Shayk)의 인터뷰와 화보를 소개. 노출이 심한 드레스와 속옷을 입은 이미지 뿐만 아니라 여성의 전라모습까지 담으며 선정성의 문제를 보임 •(관련조항)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기준 제4조(선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청소년유해간행물이 아닌 것/11.29 •(사유) 선정적 내용을 일부 수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표현 정도, 문맥, 분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청소년보호법 심의기준에 저촉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
4	방송 (예능)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1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TV조선 '애정통일 남남북녀 시즌2' / '16.9.2. •(내용) 가상 커플인 김은아·양준혁의 모습에서 남성이 여성의 머리를 쥐어박고, 질책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모션을 취하고 다리로 차려는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등 언어, 행동 면에서 여성을 폭력적으로 다룸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36조(폭력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문제없음 /12.22 •(사유) 관찰형 예능 프로그램의 특성과 기존 유사 심의사례 등을 고려
5	방송 (예능)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1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MBN '속풀이쇼 동치미' / '16.9.3. •(내용) 부부간의 잘 맞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자 “불만 끄면 다 잘 맞아”, “우리는 환한 데서는 안 맞아”, “불 끄고 안보여야 이렇게 (더듬더듬) 해야 맞아”라고 답하며 노골적으로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발언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35조(성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문제없음 /12.7 •(사유) 전체적인 방송의 맥락과 동 프로그램의 시청 등급 및 방송시간대, 기존 유사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 고려
6	방송 (예능)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1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KBS2 '해피선데이 1박2일 시즌3' / '16.9.4. •(내용) 게스트인 박보검과 1박 2일 멤버들의 외모 비교한 장면이 방송됨. 못생긴 얼굴을 무기로 표현하거나 게임 중 잘생긴 남성에게는 꽃잎 CG와 배경음악을 삽입. 또한 '못생김 주의', '얼굴 금수저', '돼지' 등의 자막을 사용하며 계속적으로 외모비하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문제없음 /12.15 •(사유)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과 유사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번호	구분	요청기관 (요청일)	주요 내용	결과
7	방송 (예능)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tvN '코미디빅리그' / '16.8.7. •(내용) '2016 하녀' 코너에서 여성의 눈가를 만지는 남성에게 여성이 "이거 애교살이야" 라고 하자 "너 좌약이라도 놓은 줄 알았지. 너 계속 실리콘 집어넣다가 죽어서 장기 기증할 때 실리콘 기증 해야돼"라고 하며, 성형한 여성의 외모를 희화화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권고 / 10. 14. •(사유) 성형한 여성을 과도하게 희화화하고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을 방송
8	방송 (예능)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tvN '코미디빅리그' / '16.8.7. •(내용) '할머니' 코너에서 개그우먼이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춤을 추고,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하는 동작을 하며 외모 비하와 성적이미지를 표현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프로그램으로 방송 심위 1건으로 병합
9	방송 (올림픽 중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9.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KBS '여자 펜싱 에페 8강' / '16.8.6. •(내용) 최인정 선수가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OOO 캐스터(남)가 "무슨 미인대회에 출전한 것처럼요. 계속해서 미소를 띠고 있는 최인정 선수입니다", "여성 선수가 저렇게 쇠로 된 장비를 다루는 걸 보니 인상적이네요" 라고 발언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문제없음/10. 31. •(사유) 장르적 특성과 생방송으로 진행된 점, 방송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와 전후맥락 등을 고려
10	방송 (올림픽 중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9.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SBS '여자 유도 48kg 이하 8강' / '16.8.6. •(내용) OOO캐스터(남)가 문크바트 선수(몽골)를 설명하며 "보기엔 야들야들한데 상당히 경기를 역 세계 치르는 선수" 라고 발언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문제없음/ 8. 31. *우리부 심의요청 전 '문제없음' 결정 •(사유) 해설내용 어느 정도 방송사의 재량이며 특위에서 '문제없음' 의견
11	방송 (올림픽 중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9.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SBS '여자 배영 100m 예선' / '16.8.8. •(내용) OOO해설위원(남)이 1위를 기록한 가우리카 싱(네팔) 선수를 보며 "박수 받을만 하죠. 얼굴도 예쁘게 생겨가지고" 라고 발언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문제없음 / 8. 31. * 우리부 심의요청 전 '문제없음' 결정 •(사유) 해설내용 어느 정도 방송사의 재량이며 특위에서 '문제없음' 의견
12	방송 (올림픽 중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9.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KBS '여자 유도 63kg 이하 32강' / '16.8.9. •(내용) OOO해설위원(남)이 "여자 선수, 여자에게는 그날의 컨디션이 중요하거든요" 라고 발언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문제없음/10. 31. •(사유) 장르적 특성과 생방송으로 진행된 점, 방송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와 전후맥락 등을 고려

번호	구분	요청기관 (요청일)	주요 내용	결과
13	방송 (올림픽 중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9. 13.)	<p>•(매체/일자) KBS '여자 배구 8강' / '16.8.9.</p> <p>•(내용) 000캐스터(남)와 가수 000(남), 배우 00(남)이 해설위원으로 출연한 모델 엄상미를 소개하며 "맥심 표지 모델을 했다고. 근대에서는 맥심이 최고죠", "맥심을 많이 봤다, 엄상미 씨가 최근 표지를 한 맥심 7월호도 찾아보겠다" 라고 발언</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p>•(결과) 각하 / 10. 31.</p> <p>•(사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된 것으로 방송법에 의거한 방송의 사후심의의 대상 아님</p>
14	방송 (올림픽 중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9. 13.)	<p>•(매체/일자) KBS '여자 골프 2라운드' / '16.8.18.</p> <p>•(내용) 000해설위원(여)이 빅토리아 러브레이디(브라질) 선수에게 "선수들 중 가장 여성스럽게 샷을 하는 것 같아요", 테레사 루(대만) 선수에게 "8월에 결혼한 새색시, 새신부", 박인비 선수에게 "여왕의 귀환" 이라고 발언</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p>•(결과) 의견제시/ 10. 31.</p> <p>•(사유) 성차별적인 표현으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p>
15	방송 (올림픽 중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9. 13.)	<p>•(매체/일자) KBS '여자 골프 3라운드' / '16.8.21.</p> <p>•(내용) 000 캐스터(남)가 "박인비 선수가 징징거리는거 남편이 받아줬을 것" 이라고 발언, 평산산(중국) 선수가 카메라에 잡히자 "저렇게 가까이 오면 얼굴 크게 나오죠" 라고 발언</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p>•(결과) 권고 / 10. 31</p> <p>•(사유)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표현, 성차별적인 표현으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p>
16	방송 (올림픽 중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9. 13.)	<p>•(매체/일자) KBS '여자 골프 3라운드' / '16.8.21.</p> <p>•(내용) 000 캐스터(남)가 금메달을 획득한 박인비 선수의 모습을 보며 "박인비 선수 안 우나요. 눈물을 안 보여주네요"라고 발언</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p>* 동일 프로그램으로 방송심위 1건으로 병합</p>
17	방송 (뉴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9. 13.)	<p>•(매체/일자) TV 조선 '뉴스쇼판' / '16.6.20.</p> <p>•(내용) '유명 아이돌,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피소' 보도에서 3D 재연 화면으로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성폭행을 가하려는 모습을 방송</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35조(성표현)</p>	<p>•(결과) 권고 / 11. 2.</p> <p>•(사유)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p>
18	방송 (뉴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9. 13.)	<p>•(매체/일자) SBS 'SBS 뉴스 8' / '16.6.28.</p> <p>•(내용) '5년 만에 드러난 여중생 집단 성폭행의 전모' 보도에서 피해정황을 매우 자세히 보도하며 사건의 내용전달 보다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35조(성표현)</p>	<p>•(결과) 문제없음/11. 10</p> <p>•(사유) 타 매체의 보도 내용 및 기준 유사심의 사례를 고려</p>

번호	구분	요청기관 (요청일)	주요 내용	결과
19	방송 (드라마)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KBS2 '구르미 그린 달빛'/'16.8.22. •(내용) 여주인공 홍라온(김유정 분)이 남장여자인 것을 숨기기 위해 천으로 가슴을 동여매며 여성성을 숨기는 장면 방송, 미성년자인 배우의 가슴 부분을 클로즈업하고 길게 묘사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제45조(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권고 / 10. 31. •(사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청소년을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출연시켜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
20	방송 (뉴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MBN 'MBN 뉴스 8'/'16.6.28. •(내용) '고교생 22명이 여중생 성폭행... 5년 만에 드러나' 보도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후 바지의 지퍼를 올리는 듯한 뒷모습 등 지나치게 선정적인 일러스트 삽화를 자료화면으로 사용하는 내용 방송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35조(성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문제없음 / 11. 2. •(사유) 해당 삽화 및 자료화면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님
21	방송 (뉴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채널A '채널A 종합뉴스'/'16.6.7. •(내용) '여교사가 꼬리쳤다 황당한 감싸기' 보도에서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인터뷰 내용 방송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문제없음 / 11. 2. •(사유) 일부 주민들의 부적절한 주장을 사회적으로 고발하고자 한 보도취지로 보임
22	인터넷 기사 (보도)	한국신문 윤리위원회 (8.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헤럴드경제/'16.6.2. •(내용) 엔터테인먼트 화제뉴스 "누드 유출 파문 켈리 브룩 컴백 난 안 죽어" 기사에서 신체부위를 필요 이상으로 세밀하게 표현하고 선정적인 사진 게시 등 •(관련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 제13조(어린이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주의 / 9. 2. •(사유)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신문윤리강령 제2조, 신문윤리실천강령 제3조4항 위반)
23	방송 (드라마)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7.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MBC '가화만사성'/'16.7.9. •(내용) 남편의 외도에도 부인이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표현하며,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치부하는 등 성별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내용 방송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35조(성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문제없음 / 9. 21. •(사유) 동 프로그램이 드라마라는 장르적 특성과 유사심의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번호	구분	요청기관 (요청일)	주요 내용	결과
24	방송 (드라마)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JTBC '마녀보감' / '16.5.14. •(내용) 무고한 여성에게 자신이 마시던 술잔을 던지며 자신의 분노를 폭력으로 풀어낸 장면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하는 내용 방송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의견제시 / 9. 7. •(사유) 여성 신체의 특정 부위를 강조하여 여성을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묘사(방송심의 규정 제30조2항 위반)
25	신문 (보도)	한국신문 윤리위원회 (5.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연합뉴스/ '16.4.27. •(내용) "비혼이 대세?...신붓감 없어 결혼 못하는 농촌총각엔 '비수'" 기사에서 여성을 총각 딱지를 떼기 위한 성적대상으로 치부하는 내용 보도 •(관련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3항(사회적 책임), 4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기각 / 6. 8. •(사유) 기사의 주된 내용과 취지로 비취볼 때, 제재조치를 받을 만큼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5) 전문가 정기협의체(자문회의)

날짜	안건	참석자
4/20(수)	양성평등 방송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논의, 신규매체(잡지) 모니터링 진행에 따른 제안	심미선 교수(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명은 서기관(여성가족부), 안기섭 과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윤소 사무국장(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전길양 부장, 신민재 대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민혜경 국장, 김예리 부장(서울YWCA)
6/28(화)	이슈모니터링 지표구성 및 분석방법 자문	이수연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7/26(화)	이슈모니터링 결과 검토, 양성평등 미디어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제안,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 자문	김언경 사무처장(민주언론시민연합), 이수연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수진 주무관(여성가족부), 전길양 부장, 민근식 팀장, 신민재 대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민혜경 국장, 김예리 부장(서울YWCA)
9/26(월)	오락, 예능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	김언경 사무처장(민주언론시민연합), 이수연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일환 사무관, 한수진 주무관(여성가족부), 이용수 차장, 안기섭 과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근식 팀장, 신민재 대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예리 부장(서울YWCA)
11/1(화)	이슈모니터링 지표구성 및 분석방법 자문	이수연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12/27(화)	이슈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검토 및 자문	이수연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12/20(화)	미디어모니터링 사업발전방안 제안	김언경 사무처장(민주언론시민연합), 강혜란 위원(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6) 양성평등미디어교육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MOU체결(2016년 4월)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초심의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미디어교육을 전년 대비 확대 실시함(총 5회, 264명)

일시	장소	대상	강사
4/29(금) 10:30	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지회기초심의원170명	심미선 교수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혜란 위원
9/23(금) 10:30	방심위 대구지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구지회기초심의원40명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김언경사무 처장
10/5(수) 10:30	방심위 광주지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주지회기초심의원30명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예리 부장
10/27(목) 10:30	제주YWCA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주지회기초심의원9명	(서울YWCA) 김예리 부장
12/12(월) 15:30	강릉YWCA	강릉YWCA 미디어모니터 15명	(서울YWCA)



7) 양성평등 미디어문화 확산 간담회

- 일시 : 2016년 12월 15일(목) 16:00-17:30
- 장소 : 서울YWCA
- 내용 : 2016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결과 보고, 모니터링 사업평가 및 제안, 양성평등 미디어 문화 확산방안 논의
- 참가자 : 20명
 이수연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허민숙 교수(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이윤소 사무국장(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예경옥 프로듀서(KBS편성팀), 차효인 사무관(여성가족부), 안기섭 과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근식 팀장, 신민재 대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민혜경 국장, 김예리 부장(서울YWCA), 서울YWCA 미디어 모니터회



8) 미디어 속 성평등/성차별 찾기 캠페인

○기간 : 2016년 11-12월 중

○내용 : 성차별미디어아카이브 페이스북 개설,




미디어 속 성평등/성차별이 드러나는 장면에 대한 시민 제보 캠페인

○참여인원 : 2,838명





■ 시민이 추천한 미디어 속 성평등

구분	제목	내용(제보자)
영화캐릭터	감시자들의 이실장(진경)과 하윤주(한효주)	 <p>범죄조직을 감시하는 감시반 팀장, 경찰 캐릭터로 작품에 어떠한 성적 비하 발언 또는 없이 목적에 충실한 일만 합니다. 여성이라는 부각 없이 일 잘하는 캐릭터로만 그려지는 작품이 잘 없기에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장주영)</p>



<p>만화캐릭터</p>	<p>꼬마의사 맥스터핀스</p>	 <p>꼬마의사 맥스터핀스에서 흑인 여자어린이가 인형들의 의사 역할을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남자가 아닌 여자가, 그리고 백인이 아닌 흑인도 의사가 될수있음을 보여준 평등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최봄)</p>
<p>광고</p>	<p>LG U+ 초보아빠 육아일기</p>	 <p>LG U+ 초보아빠 육아일기 광고편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엄마를 위해 이번엔 아빠가 고군분투 육아를 담당하며 IoT 서비스를 통해 직장에 있는 엄마와 통화를 하는 장면이 재밌었습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육아를 분담하는 모습이 한국사회가 많이 달라졌구나를 실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전외순)</p>
<p>드라마</p>	<p>워킹맘 육아대디(MBC)</p>	

		<p>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MBC에서 했던 일일드라마로 "워킹맘 육아대디"는 육아에 대한 성평등을 잘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은 여성에게만 어울리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졌던 인식에서 벗어나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보면서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과 여성이 느끼는 육아스트레스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사들을 통해 육아에 대한 양성평등 이미지를 심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정현준)</p>
	<p>질투의 화신(SBS)</p>	 <p>극중 남자주인공이자 앵커인 이화신(조정석)이 선배 여자(이미숙)의 보조석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항상 뉴스에서 봐왔던 나이 많은 남자 앵커와 옆에서 보조하는 젊은 여자 아나운서의 조합을 뒤집는 성평등 사례라 생각합니다.(박재권)</p>
<p>오락·예능</p>	<p>살림하는 남자들</p>	  <p>봉태규는 '살림은 돕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고 수 차례 강조합니다. 그 동안 가부장제 아래 규정되고 학습된 불평등한 성역할에 반발하는 발언들과 행동들을 보여줍니다.(박애솔)</p>

■ 시민이 추천한 미디어 속 성차별

구분	제목	내용(제보자)
만화캐릭터	뽀롱뽀롱 뽀로로	 <p>뽀로로에서 항상 분홍색 캐릭터인 루피만 요리를 하고 나머지는 먹기만 한다. 다른 캐릭터 목소리는 중성적인데 반해 루피 목소리는 얇고 높은 목소리라 여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 아이들에게 성 고정관념을 심어줄 것 같다.(최선)</p>
	헬로카봇	<p>주인공은 여느 애니처럼 남자고 여자 캐릭터는 보조입니다. 주인공 엄마는 아빠한테 존댓말 하지만 아빠는 엄마에게 반말을 합니다. 여자악당은 이쁜 얼굴과 몸매를 강조하지요. 애교는 물론이구요. 이런 내용을 어린이들이 보는 애니에 담는 것은 문제입니다. 내 아이에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우현수)</p>
	라인프렌드 캐릭터	 <p>브라운&코니 몰래데이트에서 브라운과 코니는 연인사이인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명품백 계산하게 하는 스티커로, 전형적인 된장녀 프레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직장 여성 코니의 회사생활에서는 회사 업무중 거울보고 셀카 찍고 가방, 화장 등 미용에만 신경 쓰고 업무에 집중하지 않는 여성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이예인)</p>

오락·예능	개그콘서트 '빠박캔트'	개그콘서트에 '빠박캔트'라는 코너가 있는데 여기서 여자친구는 항상 잘 빠치고 오해한다. 그런 여자친구의 잔소리 등을 듣지 않기 위해 남자친구는 늘 여자친구의 비위를 맞추는 말을 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며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라고 말한다. 마치 여자는 늘 잘 빠치고 오해하는 소심한 사람, 자신만의 감정으로 남자친구를 대하고 남자는 늘 그런 여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존재로 설정된 이 코너를 볼 때마다 여성의 성향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정지으며 남성보다 소심한 존재로서의 편견을 갖게 하는 것 같아 성불평등하다고 여긴다.(권혜진)
드라마	tvN 안투라지	동휘 : 아까 그 여자 몸매 후덜덜하더라. 그 여자가 하드캐리 다 하더라. 역시 여자는 골반! 광수 : 뭘소리야. 여자는 찌찌지. 기승전 찌! 동휘 : 젓먹이나? 왜 이렇게 찌찌에 집착을 해? 광수 : 남자가 진짜 힘들고 지쳤을 때 여자님 찌찌에 잠시 안겨있으면.. tvN 안투라지 대사 중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성차별 문제가 많은 드라마였으나 특히 이 대사는 실망을 넘어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김마리)
가요	나쁜X(래퍼 산이)	래퍼 산이 신곡 제목 "나쁜X" 정권비판에 왜 성차별에 관련된 여자를 비하하는 단어를 넣어야만 하는지, 그래야만 정권비판을 할 수 있는것인지... 래퍼 산이는 박근혜 대통령 비판 노래에서 병신년이라든지 네 눈 흥등가처럼 빨개 같은 단어를 사용했죠. 장애인·성매매 여성 혐오 표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임성민)
	하이어 댄 이센스(Higher Than E-Sens)	Mnet '쇼미더머니4' 등에 출연한 블랙넛의 'No Diss' 앨범에 수록된 노래 '하이어 댄 이센스(Higher Than E-Sens)'라는 곡의 가사를 보면 '너흰 강 여자들 바지 위 파인/도끼자국처럼 질-식사해.'... 껌딱지, 도끼 등의 단어로 여성 특정 신체부위를 비하하고 있습니다.(이가희)

<p>광고</p>	<p>보건복지부 공익광고포스터</p>	 <p>피임이 어째서 여성 혼자만의 문제인가요? (이수진) 피임은 남녀 모두의 책임인 사안인데, 마치 여성만이 꼭 해야만 하는 일처럼 그려진 모습이 불쾌합니다.(장소현) 피임은 남자의 의무가 아니니까 알아서 선프로 해라라는 내용이에요.(이진정) 피임 실패와 그에 따른 책임도 여성에게 있다는 뉘앙스를 품습니다.(박평화)</p>
	<p>출산장려포스터 (공익광고협의회)</p>	 <p>신사임당이 울곡을 날기 전 양육비부터 걱정했다면, 위대한 두 모자는 역사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p> <p>kobaco</p>

	<p>출산장려포스터 (공익광고협의회)</p>	<p>신사임당이 이이를 양육비가 무서워 출산하지 않았다면 두 모자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라는 광고를 요즘 봤습니다. 신사임당은 부잣집 딸이라 양육비 걱정이 없었고 출산 전부터 본인의 능력이 출중했으나 본인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기억되기보다 출산 후 오히려 **의 어머니 로 전락해버린게 문제라 보는데, 이 광고는 오히려 양육비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여성들의 죄책감을 만들어 내고, 강요한다고 봅니다.(김도연)</p>
<p>광고</p>	<p>미미박스 유두미백크림 광고</p>	 <p>유두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색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GROS BISOUS Point Whitening Cream 남대들이 좋아하는 핑크빛 유두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진한색상 유두 NO~~!!</p> <p>미미박스 광고에서 남자들이 선홍빛유두를 좋아한다는 내용으로 유두미백크림을 광고했어요. 무슨 여자가 남자의 기쁨을 위해 크림까지 발라가며 (기쁨조도 아니고..어휴..) 너무 불쾌했습니다!(윤여명)</p>
	<p>화이투벤</p>	

	<p>화이트벤</p>	<p>"감기엔 비타민같은 여친이 끓여주는 콩나물국이 직빵이라는 XXX님, 하지만 여친도 콩나물도 없다면?" - 화이트벤 씨플러스 광고. 비타민같은 여친이라는 비유, 콩나물국을 여친이 끓여줘야 한다는 듯 한 뉴앙스가 매우 불편하다.(김윤희)</p>
<p>광고</p>	<p>여성경구피임약</p>	<div data-bbox="683 488 1353 940" data-label="Image"> </div> <p>티비 광고 속 피임약 광고는 성차별적 인식이 나타난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피임약 광고의 대부분은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피임은 여성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성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피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피임 광고는 여성이 사용하는 경구피임약에 제한되어 있고 남성들이 사용하는 피임 도구에 대한 티비 광고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피임은 여성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임 광고 속 뿌리 깊은 성차별적 요소와 내용을 성평등적인 방향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강동휘)</p>

4. 모니터링 결과 요약

1) 드라마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케이블의 22개 드라마를 2회기에 걸쳐 모니터링 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드라마 제작자의 68%가 남성이었고, 작가의 경우 약 68.9%가 여성으로 조사되었다. 등장 인물의 성비는 1:1로 비슷하였다. 주인공의 연령대는 남성과 여성 모두 30대가 가장 높았고, 20대 주인공의 비율은 여성이 더 높았다. 드라마 주연과 조연배우는 30개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남성은 자영업자, 의사, 검사, 장관, 국회의원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전문직인 반면, 여성은 판매사원, 아르바이트, 주부, 공장노동자 등의 비전문직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갈등유발자 중 여성비율은 61.8%, 갈등해결자 중 남성비율은 64.2%로 나타났다. 성 평등적 내용은 42건, 성 차별적 내용은 108건으로 성 차별적 내용이 약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 차별적 내용에는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남성 의존성향을 강조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드라마 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드라마에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여성 캐릭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여성 캐릭터를 보여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었다. <옥중화>(MBC)의 옥녀(진세연), <굿바이 미스터 블랙>(MBC)의 김스완(문채원), <가화만사성>(MBC)의 봉해령(김소연), 같은 드라마의 한미순(김지호), <워킹맘 육아대디>(MBC)의 정현(신은정) 등의 캐릭터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여성의 삶을 보여줬다. 또한 <디어 마이 프렌즈>(tvN)의 주인공들은 70대 황혼의 여성들이지만 ‘황혼의 걸 크러쉬(Girl Crush)’라고 불릴 만큼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를 보여 주며 주목받았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육아 담당은 여성으로 그려지는 모습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육아가 여성의 몫만이 아닌 부부 공동의 몫으로 그려지는 모습이 증가하고 있었다. 집안일도 여성의 역할만이 아닌 가족 구성원 모두의 역할로 그려지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이었다. 특히 <워킹 맘 육아 대디>(MBC)는, 사회적으로 능력 있고 주체적인 아내를 지원하기 위해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남성이 전업주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과 일하는 엄마를 대신해 가정에서 능숙하게 육아와 살림을 담당하는 '프렌들리 대디(Friendly Daddy)'의 모습을 보여주며 미디어를 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육아와 살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삶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장면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천상의 약속>(KBS2, 5월 11일, 71회)에서 상견례 후, 50대 중반 남편인 장경원(이종원)이 아내 박유경(김혜리)에게 “피곤하냐, 물 받아줄까?”라고 묻는 장면은 드라마에서 주로 남편이 아내에게 “물 받아봐” 했던 장면과 대비되어 신선함을 주는 장면이었다. 또한 <마녀의 성>(SBS, 5월 13일, 103회)에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의 저녁 준비 모습에서 남편이 먼저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과 <내 사위의 여자>(SBS, 5월 17일, 97회)에서 백진주(한영)와 강부장(정경호)의 대화 중 강부장이 “평생 커피 타 줄지도 모른다”라며 진주에

게 이야기하자 진주가 “여자만 커피 타란 법 있나?”라는 대사를 던지는 장면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디어 마이 프렌즈>(tvN, 6월 3일, 7회)에서 문정아(나문희)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오충남(윤여정)의 주관 하에 여성들이 장례를 치루는 장면이 나왔는데, 장례는 남성이 주도하는 것과 달리 여성들이 장례를 치루는 모습을 보여주어 성역할 고정관념의 뿌리를 흔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드라마 모니터링의 경우 성평등적인 내용보다 성차별적인 내용이 훨씬 많았다. 성차별적 내용 중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과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남성 의존성향을 강조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낸 장면 중 대표적인 장면은 가사와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 그린 장면들이었다. <별난가족>(KBS1, 5월 11일, 8회)에서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공주가 신장병이 있는 걸 모르고 운동을 시켜 구공주가 쓰러지자 손도순(김예령)의 남편인 구경만(강인덕)이 손도순에게 “너는 선생님에게 중요한 것도 얘기 안 하고 뭐했노”라고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 부분은 육아는 여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같은 드라마 <별난가족>(KBS1, 5월 12일, 9회)에서 아들 구윤재(김진우)에게 화가 나 있는 손도순(김예령)은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 주방으로 들어가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러 들어오자 손도순이 “갑자기 너 부엌에 들어오고 그래? 장가가서 니 마누라에게 잘 보이려고 여행연습 하는 거니?”라고 발언했다. 주방의 일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든지 필요에 따라 해야 하는 일임에도 여성만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임을 심어줄 수 있어 아쉬움으로 남았다. <미녀의 성>(SBS, 5월 12일, 102회)에서 서로 맞벌이 하는 부부지만 아침에 깨워달라고 부탁하는 남편 문상국(최일화)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아내의 모습에서 아내도 일을 하지만 남편을 챙기는 내조도 함께 해야 한다는 장면, <내 사위의 여자>(SBS, 5월 16일, 96회)에서 박수철(설정환)이 오영심(이재은)과 육아문제 얘기 도중 “애기는 무조건 3살까지 엄마가 키워야 한다”라고 말해 육아를 꼭 엄마가 담당해야 한다는 장면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그대로 드러났다.

<워킹 맘 육아 대디>는 다수의 성평등적 장면을 보여주어 긍정적이었으나, 5월 12일, 14회 방송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장면이 나와 아쉬웠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 이해순(길해연)에게 아들 김재민(박건형)이 아내(홍은희)가 임신해 병간호가 어렵다고 하자 이해순은 “사내 새끼가 무슨 병간호를 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수발하는 건 당연한데”라고 하는 장면이 나왔다. 이는 여성이 임신과 육아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역할에 덧붙여 시부모 수발까지도 남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과 함께 며느리의 어려움을 고려해주지 않는 시어머니의 전형성을 고정화시킬 수 있었다. 사회적 산물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생물학적인 것으로 고정해 강화·재생산하는 시도도 문제일 뿐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여성의 관계를 항상 반복하고 갈등하는 관계로 그리고 있는 점이 아쉬웠다. 여전히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인식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와 우려를 낳았다. <워킹 맘 육아 대

디>(MBC)에서는 “입덧은 어떻노. 이번에는 아들 꼭 낳아라. 집안 대는 이어야지”, “어데 보자. 금쪽같은 내 손주, 얼굴이 왜 이리 파리하냐. 젖은 제대로 주고 있다. 저 들통에 미역국 한 통 끓여냈다. 그래야 젖이 쑥쑥 돌지, 우리집 종손 왔나”의 대사에서, <천상의 약속>(KBS2)에서는 “이제 세진이(며느리)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만 낳아주면 만사 오케바리네요”라는 대사에서 결혼한 여성을 집안의 대를 잇는 출산의 도구로 생각하고 아들선호사상을 드러내는 발언이 그대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해보였다.

또한 여성에게만 유독 외모를 비하하거나 외모지상주의를 강조하는 드라마들도 많이 보였다. <내 사위의 여자>(SBS)에서 “못 생긴 여자가 복스럽게 먹는 건 별론데, 이쁜 여자가 복스럽게 먹는 건 너무 좋아요”라는 대사에서 못 생긴 여자와 예쁜 여자를 대조적으로 비유해 여성의 외모지상주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들 수 있다. 또한 <또 오해영>(tvN)에서 주인공 오해영(서현진)이 다니는 회사에 고교동창인 같은 이름의 오해영(전혜빈)이 입사하게 되는데 맡은 일에 대한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중한 얼굴과 몸매, 애교, 입담이 실력이나 능력, 인품, 경우보다 우선시되는 장면, <운빨 로맨스>(MBC)에서 여자의 업무 능력이나 성격 등의 다른 요소가 아닌 외모가 예쁘면 모든 것이 다 좋다는 식의 남자들의 태도와 외모만을 부각시키는 성차별적인 언어(여신)를 쓰는 장면, <그래, 그런 거야>(SBS)에서 “여자는 그저 예쁘다, 예쁘다 해야 좋아해”와 같은 대사 등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장면들이었다.

성차별적 대사나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면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性)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였다. <워킹 맘 육아 대디>(MBC)에서 “남산만한 배 내밀고 다니는 거 보기 싫어 죽겠구만, 이게 배부른 김에 배째라야”라는 대사를 통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여기면서도 임신한 여성을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대상으로 여기며 언어적 폭력을 구사해 인권감수성을 무시한 언어폭력이 무차별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장면들은 불편한 부분들이었다. <좋은사람>(MBC)에서 ‘집사람’, ‘제비’와 같은 단어 사용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비하하는 단어이다. <내 마음의 꽃비>(KBS1)에서도 ‘날건달’, ‘강패놈’, ‘양아치’, ‘제비새끼’, ‘기생오라비’와 같은 남성 비하적 단어와 ‘도둑년의 애미’, ‘거지같은 기집애’, ‘여편네’, ‘불여시’, ‘기집질’과 같은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 수시로 나와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했다. 갈수록 중요해지고 우리 삶 속에서 녹여내야 하는 인권감수성이 드라마에서 품고 있지 못해 아쉬웠다.

드라마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가정 내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여성성과 남성성 강요, 성차별적인 대사 등이 많이 나왔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드라마를 통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학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드라마의 변화가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보다 시급해 보였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입각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방식을 극복하고 양성 평등에 입각한 대안적 묘사를 통해 건강하고 평등한 관계를 드라마 속에 담아내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2) 오락·예능

오락/예능프로그램은 총 2회기에 걸쳐 각 방송사 별 시청률 상위 기준 32개의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출연자 중 여성의 비율은 36.5%, 남성의 비율은 63.5%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진행자의 경우 남성이 67명, 여성이 32명으로 주로 남성이 오락/예능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 평등적 내용은 13건, 성 차별적 내용은 38건으로 성 차별적 내용이 약 3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 차별적 내용에는 성 역할 고정관념과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내용이 많았다.

예능·오락 프로그램 모니터링에서는 여전히 성평등적 내용보다는 성차별적 내용이 훨씬 더 많았으나 기존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한 다양성을 표현하려는 시도들이 많았다. <자기야 백년손님>(SBS, 8월 4일)에서는 중년의 남성이 사위와 함께 아내의 생일선물을 준비하는 모습 보여주어 기성세대 남성은 감정과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통념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님과 함께2 - 최고의 사랑>(Jtbc, 8월 2일)의 가상부부인 김숙·윤정수 커플의 방영분에서는 여행지식이 더 풍부한 아내 김숙이 여행을 기획하며 리드하고, 남편 윤정수는 이러한 아내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남녀의 가상 결혼생활을 콘셉트로 하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남녀관계를 남성이 주도하는 구도가 공식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해 어떤 일이든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었다. <집밥 백선생2>(tvN, 8월 2일)는 요식업계 유명 셰프인 백종원이 혼자 사는 남자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요리프로그램에 남성들을 등장시켜 주방이 더 이상 여성의 전유공간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글의 법칙>(SBS)에서 여성 출연자들이 정글에서 먹이를 찾아 숲속을 찾아다니고 거친 일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적인 모습, <비정상회담>(Jtbc)에서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성평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 등은 현실에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대중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 양성평등한 시민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소중한 장면들이었다.

반면 성차별적 내용으로는 <1박 2일>(KBS2, 9월 4일)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용돈을 버는 게임에서 손바닥 마주치기 게임을 하는데, 데프콘이 마주 서자 얼굴로 선제공격을 한다며 못생긴 얼굴을 무기로 표현하고, 게임 중 여성이 뒤로 밀려 박보검이 잡아주자 꽃잎을 CG로 넣고, 배경음악까지 넣어 비교했다. 또한 '못생김 주의', '얼굴 금수저', '돼지' 등의 자막을 사용해 외모를 비교, 비하하는 장면이 나왔다. <개그콘서트 [가족같은]>(KBS2, 9월 4일)에서는 김준호가 교통사고가 난 딸 이수지에게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냐고 화가 나서 물어보는 상황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인 안젤리나(예쁜 여자)가 들어오자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상황이 그려졌다.

이는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는 여성의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장면이다. <연예가중계>(KBS2, 9월 3일)에서는 김태진 리포터가 애니메이션 <달빛궁궐> 목소리를 연기한 이하늬, 권율, 김슬기의 이미지토크를 진행하면서 학창시절에 가장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 사람을 질문했다. 대답을 하는데 그 답의 이유가 “실물이 진짜 예뵤요”, “어쩔 저렇게 피부가 예쁜지 남자들이 엄청 많이 대시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잘 생겼으니까” 등으로 인기의 이유를 ‘외모’로 뽑았다. 인기가 많은 기준을 오로지 외모로 꼽으면서 사회적 기준의 미에 충족한 사람이 인기가 있을 것이라는 표현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올해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 요리프로그램이 많았고 시청자들로부터도 큰 인기를 얻었다. 요리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요리영역에 남성들을 등장시켜 주방이 더 이상 여성의 전유공간이 아님을 보여주어 긍정적인 면이 있었으나 성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난 장면도 있어 아쉬웠다. <삼시세끼>(tvN, 8월 5일)에서는 요리하는 남성(차승원)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긍정적이었으나, 노련한 요리솜씨를 발휘하는 차승원에 대해 자막 등으로 ‘엄마’라는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여전히 요리나 가사를 여성의 역할로 규정짓는 표현이 아쉬웠다.

또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존중되지 않고 여성의 성적 의사를 다르게 판단해, 성폭력까지 벌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의 Yes는 Yes고 No는 No라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몇 년 전부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개그콘서트[남랑특집]>(KBS2, 8월 7일)에서 남녀가 함께 여행을 하는 상황설정에서 남자는 1박을 하자고 하고 여자는 취소하고 돌아가지 요청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성에 대한 욕구를 바탕으로 남자가 1박을 요구하는 설정에서 여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는 상황은 여성의 거절은 진정한 거절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이 표현한 의사와 상관없이 남성의 뜻을 관철시켜도 된다는 통념이 드러나는 장면으로 문제가 있어보였다. 더불어 같은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의 [빼박캔트](KBS2, 8월 7일)에서는 미용실에 간 커플을 등장시키고, 여성이 남성의 말 끝마다 꼬투리를 잡으며 남성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화를 내는 여성에 대한 과장된 모습을 연출했다. 전반적으로 여성을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존재로 그리며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해 아쉬웠다.

3) 인터넷기사

포털 내 인터넷 신문 35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성 평등적 내용은 24건, 성 차별적 내용은 56건으로 성 차별적 내용이 2배 이상 많았다. 매체별로는 경향신문이 성 평등적 기사를 가장 많이 다루었고(10건, 41.7%), 헤럴드경제에 성차별적 기사가 가장 많이 게재되었다(12건, 21.4%).

인터넷기사 모니터링에서도 성차별적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인터넷기사의 성차별적 내용은 여성을 성적대상화 하는 내용이거나 내용을 선정적으로 다루는 기사들이 많았다. 포털사이트

의 인터넷기사는 인쇄매체를 대신해 다양한 기사를 빠르게 전달하고 있고, 사람들은 PC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방대한 기사 속에서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내용이나 제목의 왜곡과 과장이 이루어지고 더욱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스포츠 관련 매체는 메인화면 뿐만 아니라 세부 기사에서도 그렇게 배치하고 있었으며, 중앙일보, 헤럴드 경제, 코리아타임즈 역시 선정적인 이미지나 여성의 과도한 노출 사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강화된 모니터링과 규제방안이 시급히 요청됐다.

4) 신문

6대 일간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신문모니터링 결과, 총 보도 수 대비 여성관련 보도비율은 2.9%로 나타났으며, 경향신문의 여성관련 보도비율이 22건(4.7%)으로 가장 많았다. 외부기고는 남성이 76.4%, 여성이 23.6%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신문사 중 동아일보의 여성 기고가 비율이 32.6%로 가장 높았다. 성 평등적 내용은 5건, 성 차별적 내용은 6건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중앙일보는 성평등적 내용(2건)과 성차별적 내용(3건)의 기사가 발견되었다.

신문 모니터링의 경우 TV 모니터링과 비교해 성차별적 내용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생·강화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내용은 여전히 눈에 띄었다. 언론사 관계자들이 단순 사건을 보도하고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해석하고 양성평등적 관점의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는 데 신문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잡지

잡지모니터링을 신규 실시하였고 6개의 잡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편집장의 성비는 각 3명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성평등적 내용은 6건, 성차별적 내용은 9건으로 나타났는데, 성차별적 내용에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여성을 성적대상화 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성차별적 콘텐츠 9건 중 맥심코리아에서 6건(66.6%)이 발견되었고, 성차별적 이미지 수 역시 74건(45.1%)이 발견되어 맥심코리아의 성차별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잡지 모니터링에서는 여성의 건강함과 강인함을 보여주는 기사의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보였다. 또한 아이와 아빠가 함께 하는 모습을 다룬 기사 내용에서는 육아를 더 이상 여성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아빠의 역할과 영향력을 보여주어 '부부육아'라는 양성평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바느질을 여성이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 소양으로 표현하며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냈으며, 특히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되고 강조되는 이미지와 선정적인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다. 잡지는 콘텐츠, 내용, 이미지 등의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에 그런 요소들을 더욱 고려해 편집할 필요성이 있다.

6) 이슈모니터링1 : 뉴스 미디어가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방식

대한민국의 뉴스 미디어가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지상파와 종편의 7개 종합뉴스와 6개 일간지, 5개 인터넷신문사 총 18개 언론사의 4개 성폭력 사건 보도를 모니터링 하였다.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보도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성폭력사건 보도는 주로 종편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보도는 16건(9.0%)이 발견되었고, 성폭력을 선정적으로 표현한 보도는 27건(15.2%), 성폭력의 과정에 대한 지나친 상세보도도 15건(8.4%)이 발견되었다. 성 차별적 표현이 담긴 보도는 23건(12.9%)으로 나타났다.

이슈모니터링 결과 크게 ▲성폭력 보도의 선정성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성차별적인 보도 관행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졌다. 강남역 살인 사건 보도는 CCTV 녹화화면을 통해 범죄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했고, 중학생 성폭행 사건과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보도는 선정적인 삽화를 통해 성폭력을 성애화 했다. 흥미유발을 위한 선정적인 기사제목과 구체적인 범행모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상처를 덧입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자각과 물리적 언론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또한 성폭행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의 내용에 따라 사건과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보도가 있었다. 범죄가 늦은 밤 술집화장실에서 이루어졌다거나 피해 중학생들이 술을 마셨다거나, 피해여성이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등 피해자가 성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무분별한 보도나, 피해여성이 종사하는 업소직원의 인터뷰를 들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다'라는 도식을 담은 보도, 해당사건과 무관한 사건과 비교하여 보도하는 것은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상을 과도하게 노출하는 보도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 발생도 우려를 낳았다. 성폭행 사건에 대한 언론의 무분별한 취재와 보도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가족, 지역주민 등에 대한 2차 가해를 발생시켰다. 조현병 환자를 강력 범죄와 연결시킴으로 모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인 강력 범죄의 가해자로 만들고, 섬마을 지역주민의 인터뷰 내용을 비난조로 보도하거나 이미 지난 사건들을 재조명하여 지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며, 가해 부모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 공분을 사게 하는 등 사건의 핵심에서 벗어난 보도에 집중함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도가 사건의 제목에 '여중생', '여중업원', '여교사' 등 여성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해자의 성별을 부각하는 보도 형태는 가해자를 은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 특히 '~녀'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사건과 관련된 여성을 일컬을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임에도 피해자인 고소인을 고소녀로 표현하며 희화하는 보도가 있었다. 또한 인터뷰 시 여성의 신상은 노출하고, 남성의 신상은 감추어 남녀의 신상을 달리 다루는 경우도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7) 이슈모니터링 2 : 2016 리우올림픽 중계방송의 성차별성

2016 리우올림픽 중계방송의 성차별성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지상파 3사에서 방송한 577개 방송을 모니터링 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전체 중계진 1,200명 중 여성은 214명(17.8%), 남성은 986명(82.2%)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방송사별로는 MBC의 여성 해설위원수가 92명으로 가장 많았고, KBS의 여성 해설위원수가 38명으로 가장 적었다. 중계진의 연령대는 남성과 여성 모두 40대에 집중되어 있었고,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50-60대의 중계진이 없었다. 성차별적 발언은 KBS가 13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성차별 발언자 30명 중 남성은 25명(83.3%)으로 나타났다.

IOC에 따르면 리우올림픽 전 종목에 여성이 참가했고, 모든 참가국 선수 명단에 여성이 포함되고, 참가 선수 중 여성이 약 4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를 봤을 때 리우올림픽은 양성평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올림픽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 대한민국 올림픽 중계는 연일 무수한 성차별적 발언들을 쏟아내며 양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세계적인 흐름을 거슬렀다.

모니터링 결과, 선수의 능력과 기량보다 여성성을 강조하거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지닌 표현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섬세함', '여성스러움', '가녀린 소녀', '눈물' 등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선수 및 경기를 평가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이는 체육적 기량을 가진 국가대표 선수를 '여성'으로 이미지화한다는 점에서 성 차별적인 발언으로 보았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성차별적인 발언 또한 도를 넘었다. '미녀검객', '예쁘다'라는 표현은 예사일 뿐 아니라 '살결이 아들 아들한테 상당히 경기를 억세게 치르는 선수'라는 표현이나, '체중이 48kg 이상급인가요 이하급 인가요?'라며 몸무게를 화두로 삼는 표현, '스물여덟이라면 여자 나이론 많은 나이'라며 나이를 운운하는 표현 등,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며 여성 선수들을 여성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IOC 올림픽 헌장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국가·인종·종교·성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정신이 무색하게도 2016 리우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의 개인 기량이나 경기와는 관계없이 외모 평가, 나이와 몸무게에 대한 언급과 성적대상화 등 다양한 성 차별적인 발언이 연일 쏟아져 나왔고, SNS에서의 성차별 논란으로 불거졌다. 무분별한 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불편함을 시작으로 성차별적 발언의 기저에 있는 성별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 체육계의 남성 중심 문화,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소비하는 것에 대한 언론 및 시민사회의 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캐스터, 해설위원을 포함한 중계방송 관련 종사자에 대한 양성평등 의식 강화 교육이 시급해 보였다. 매번 중계되는 스포츠 경기에서 더 이상 참가선수 그 자체로서가 아닌 여자로 다뤄지거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평가되는 중계 행태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8) 이슈모니터링 3 : 온라인 속 성차별성

온라인 상 성차별성을 모니터링 한 결과 12개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11건의 성차별적 게시글과 48건의 댓글이 발견되었다. 성차별적인 게시글과 댓글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혐오/비난'이 36건(61.0%), '폭력/성적대상화'가 23건(39.0%)으로 나타났고, 일간베스트에서 성차별적 게시글/댓글(23건, 39.0%)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김치녀', '한남충' 등 한국여성과 한국남성에 대한 비하표현을 비롯하여 무차별적 혐오와 폭력을 드러내는 게시글과 댓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한국사회의 성 대결구도를 온라인상에서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여성혐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특정 집단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 없이 나타나는 무차별적인 혐오가 여전히 많은 부분 드러나고 있었다. '여자는 배우면 배울수록 병신이 된다'거나 '집에서 두들겨 맞으며 사는게 잘 맞는다'는 등 또한 성역할에 대한 비합리적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이성을 하나의 경멸적 속성으로 환원해 비난하거나 상대를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는 표현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좀 못생기고 몸매 비율 똥송해도 운동해서 탄탄하면 어느 정도 카바가 된다'거나 '역시 여자는 다리가 예뻐야한다'는 등 이성의 외모와 몸매를 폄하하거나 성기로 존재를 지칭하거나 성폭력 수준의 혐오를 드러내는 게시글 등 표현의 수위가 심각함을 확인하였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여성혐오 성향이 짙은 일부 커뮤니티와 여성혐오를 미러링하는 커뮤니티 간의 대결구도가 첨예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적, 역사적으로 합의된 혐오표현의 정의가 부재한 상황으로, 다양한 형태의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보호 아래에 놓여있다. 익명성의 그늘 아래 온라인커뮤니티의 폭력적인 혐오표현이 위험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 혐오표현에 대한 제제는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언어적 표현을 넘어 실제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은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TV, 신문 등의 매체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지만, 타 매체보다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은 훨씬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종합평가 및 제언

1) 종합평가

- 2016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사업은 드라마, 오락·예능, 인터넷신문, 신문, 잡지를 대상으로 한 정기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성차별성이 높은 드라마, 오락·예능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회에 걸친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성범죄 미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잡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신규 실시하였다.
- 보통 드라마의 경우 연속적인 내용으로 방영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 해당 내용만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전체 맥락에서 볼 때 한계점을 갖는다. 그러나 드라마의 특성상 극적인 전개를 위해 상반된 견해를 극단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더라도 지나친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대·재생산하는 요소는 지양해야 하며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제작진의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 더불어 사회의 주요한 성차별 이슈에 대한 이슈모니터링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대한민국에 여성혐오 화두를 던진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한 여러 성폭력 사건을 뉴스미디어가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이슈모니터링을 비롯하여, 리우올림픽 중계방송의 성차별성, 온라인 속 성차별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연간 사업 종료 후 일괄 인쇄하여 배포하던 보고서를 월 단위로 발행하여 언론사 및 유관기관에 배포함으로써 모니터링 결과의 시의성 있는 공유를 도모하였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 성차별성이 심각한 내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신문윤리위원회 등 심의기관에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권고, 의견제시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초 심의원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미디어교육을 전년 대비 확대 실시하였다. 방송심의규정의 양성평등조항의 개정안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초 심의원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 모니터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서울YWCA의 모니터활동가 15명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을 강화하였고, 정기연구모임을 통해 전문가멘토링 및 보수교육을 병행하였다. 또한 전문가 정기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이슈모니터링 지표구성과 분석방법, 미디어의 성차별성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지문 등을 진행하여 모니터링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성평등 미디어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연간사업을 면밀히 평가하고, 모니터링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미디어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
- 미디어 속 성평등/성차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시민제보를 수렴하기 위하여 성차별미디어아카이브를 제작하였고, 아카이브 및 제보채널을 통해 시민 2,838명이 미디어의 성평등/성차별 사례를 제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제언

Ⅰ 성차별적 방송에 대한 제재 강화

그 동안 방송심의규정이 선언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성차별적 방송에 대한 심의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올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등 심의기관에 양성평등조항 위배로 심의를 요청한 25건 중 권고, 의견제시, 주의 등의 처분을 받은 비율은 9건(3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2016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양성평등에 관한 조항(제30조)의 개정이 추진되었고, 향후 개정된 조항에 기반 한 더욱 적극적인 심의 요청을 통해 성차별적인 방송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보도영역에서도 보도준칙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강제성이 없어 준수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도준칙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Ⅰ 방송제작자의 양성평등 의식 강화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방송 제작자들이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미디어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방송제작자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양성평등 의식을 강화하고, 방송사 차원의 자체심의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이 좀 더 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방송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성차별적 방송에 대한 문제제기와 성평등적 방송에 대한 격려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방송 제작자들이 양성평등의 관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Ⅰ 성평등 관점의 미디어 모니터링 강화

미디어 제작자들이 성평등적 관점을 가지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대안이지만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중매체를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미디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성인지 관점이 높아짐에 따라 제작자 역시 양성평등한 방송제작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Ⅰ 온라인 매체의 성차별성 해소를 위한 접근 필요

온라인 속 성차별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그 어떤 매체보다도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정 집단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다. 또한 웹툰 등 대중으로부터의 선호가 검증된 온라인콘텐츠가 공중파 방송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방송의 성차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매체의 성차별성 해소를 위한 접근 또한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여권이 급속히 신장되는 나라일수록 여성혐오가 갈등으로 떠오르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2016년 대한민국은 양성평등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과도기를 겪었다고 볼 수 있다.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시민들의 성차별 감수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앞으로의 모니터링은 더욱 예리한 관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다매체·다채널 환경 속에서 모든 매체를 모니터링 하기는 불가능하다. 언론방송사, 심의기구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매개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모니터링의 결과가 미디어의 성차별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우리사회의 성차별 이슈를 제기하고 정책화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전문화해야 한다.

연일 성차별적인 방송이 공론화되는 상황에서 모니터링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한 해였다. 하지만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일지라도 양성평등한 미디어 문화가 정착되는 그 날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서울YWCA는 대중매체에 대한 관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II. 모니터링 결과

1. 정기모니터링

- 1) 드라마
- 2) 오락·예능
- 3) 인터넷기사
- 4) 신문
- 5) 잡지

2. 이슈모니터링

- 1) 성폭력사건 모니터링을 통해 본 뉴스미디어와 성폭력
- 2) 2016 리우올림픽 중계방송의 성차별성
- 3) 온라인 속 성차별적 사례

드라마 모니터링 보고서(5월)

I. 들어가며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드라마 속 성 평등적, 성 불평등적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2016년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지상파 3사(KBS1, KBS2, MBC, SBS), 종합편성채널(JTBC)과 케이블(tvN)의 드라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총 20개 프로그램이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고, 1주일간 총 64회분을 모니터링 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제안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드라마
- 모니터링 기간 : 2016년 5월 11일~17일(7일간)
- 모니터링 매체 : TV(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 대상 방송사 : KBS1, KBS2, MBC, SBS, Jtbc, tvN
- 프로그램 수 : 20개 프로그램, 64편
- 모니터인원 : 13명

[표1]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

No	제목	방송사	방영일시	모니터링 방송 수
1	별난가족	KBS1	월~금 오후 8:25	5
2	TV소설 내 마음의 꽃비		월~금 오전 9:00	5
3	동네변호사 조들호	KBS2	월, 화 오후 10:00	2
4	마스터 국수의 신		수, 목 오후 10:00	2
5	아이가 다섯		토, 일 오후 7:55	2
6	천상의 약속		월~금 오후 7:50	5
7	몬스터	MBC	월, 화 오후 10:00	2
8	굿바이 미스터 블랙		수, 목 오후 10:00	2
9	가화만사성		토, 일 오후 8:45	2
10	옥중화		토, 일 오후 10:00	2
11	좋은 사람		월~금 오전 7:50	5
12	최고의 연인		월~금 오후 7:15	5
13	워킹 맘 육아 대디		월~금 오후 8:55	5

14	대박	SBS	월, 화 오후 10:00	2
15	똥따라		수, 목 오후 10:00	2
16	그래, 그런거야		토, 일 오후 8:45	2
17	내 사위의 여자		월~금 오전 8:30	5
18	마녀의 성		월~금 오후 7:20	5
19	마녀보감	Jtbc	금, 토 오후 8:00	2
20	또 오해영	tvN	월, 화 오후 11:00	2
	20개 프로그램	6개 방송사		64편

Ⅲ. 결과분석

1. 양적분석

드라마모니터링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비

등장인물의 성비는 여성이 51.4%, 남성이 48.6%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제작자의 비율은 남성이 69.6%, 작가의 비율은 여성이 70.2%로 압도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1] 드라마 관련자 성비

(단위 : 명)

구분	등장인물		제작자		작가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전체인원	282	100.0	434	100.0	37	100.0
여성	145	51.4	132	30.4	26	70.2
남성	137	48.6	302	69.6	11	29.8

2) 주연(주인공) 연령대

주연배우의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대는 여자주인공의 수가, 30대는 남자주인공의 수가 더 많았다.

[표2] 주연배우(주인공) 연령대

(단위 : 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모름	합계
전체인원	3	10	20	1	2		2	2	40
여자주연	1	6	8		1		1	2	19
남자주연	2	4	12	1	1		1		21

3) 조연 연령대

각 드라마에서 역할의 비중이 높은 조연배우 2인씩을 뽑아 분석한 결과, 조연배우의 연령대는 주연배우보다 더 넓은 연령대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조연배우와 마찬가지로 30대 배우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 인원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3] 조연배우 연령대

(단위 : 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모름	합계
전체인원	6	4	15	5	7	2	1		40
여자조연	3	2	7	3	3	1			19
남자조연	3	2	8	2	4	1	1		21

4) 직업군

20개 드라마의 주연과 조연의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22개의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 중 사장을 비롯한 회사원이 39명(48.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평직원 중 남성은 6명, 여성은 11명으로 여성이 많았고, 대리 이상의 중간관리자와 대표 중 남성은 24명, 여성은 9명으로 남성이 훨씬 많았다. 그 밖에도 여성은 판매사원, 안내원, 아르바이트, 주부, 공장노동자 등의 비전문직으로 그려지고, 남성은 자영업자, 의사, 검사, 전문가, 국회의원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전문직으로 묘사되었다.

[표4] 주요 등장인물의 직업군

(단위 : 명)

직업번호	1	2	3	4	5	6	7	9	11	12	13	19	22	23	25	30	34	37	39	41	46	99
여주인공		2	2	4			1			1		1	1		1					1	1	4
남주인공	3	4	1	3					1	1				2				1				5
여자조연		3	2	7	3	3	1															
남자조연	1	4		3				2	1		1	1		1		1	1		1			4

※직업분류번호	
①	사장/대표
②	회사원(팀장/실장/국장/본부장급)
③	회사원(대리, 과장급)
④	회사원(평직원)
⑤	판매사원
⑥	안내원
⑦	아르바이트
⑧	서빙(접객서비스)
⑨	자영업자
⑩	요리사
⑪	의사
⑫	변호사
⑬	검사
⑭	판사
⑮	경찰(팀장급 이상)
⑯	경찰(경장/경위)
⑰	형사
⑱	공무원
⑲	기자
⑳	작가
㉑	교수
㉒	교사
㉓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㉔	무직
㉕	주부
㉖	연예인/방송인
㉗	PD
㉘	스튜어디스/스튜어드
㉙	무속인
㉚	학생
㉛	간호사
㉜	농부/어부
㉝	해녀/해남
㉞	국회의원
㉟	장관
㊱	비서/수행비서
㊲	매니저/로드매니저
㊳	회장사모님
㊴	범죄자(살인/납치/강도)
㊵	경비원
㊶	공장노동자
㊷	고시생/재수생/취준생
㊸	운동선수/감독
㊹	의료인
㊺	백수
㊻	모름 (99) 기타

5) 주요갈등유발자 및 해결자

주요갈등유발자는 여성이 43명(67.2%), 남성이 21명(32.8%)으로 드라마에서 주로 여성이 갈등 유발자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갈등 해결자는 여성이 16명(30.1%), 남성이 37명(69.9%)로 남성은 주로 갈등을 해결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었다.

[표5] 갈등유발자, 갈등해결자 성비 (단위 : 명)

구분	갈등유발자		갈등해결자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전체인원	64	100.0	53	100.0
여성	43	67.2	16	30.1
남성	21	32.8	37	69.9

6)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모니터링 결과 성 평등적 내용은 22건, 성 차별적 내용은 59건으로 성 차별적 내용이 성 평등적 내용보다 2배 이상 많이 발견되었다. 성 차별적 내용 중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이 16건(27.1%),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남성 의존성향을 강조하는 내용이 17건(28.8%)로 가장 많았다.

[표6]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10	성차별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16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6
	현실반영성	4		여성의 주체성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17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6
	다양성	8		외모지상주의 조장	7
				여성의 성적대상화	2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1
				선정성	4
	합계	22건		합계	59건

2. 질적분석(내용분석)

1) 성평등적 내용

드라마 모니터링 기간 동안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의 모습과 남성의 육아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한 사례와 남녀관계의 대안적 묘사를 찾아볼 수 있었다.

(1)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

〈옥중화〉(MBC, 5월 14일, 5회)에서는 주인공 옥녀(진세연)가 어머니가 옥사 앞에서 칼로 다치고 자신을 낳다가 죽은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체탐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어려운 무술 시험 통과 후 고문도 이겨내고 당당히 체탐인이 된 모습을 그려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해당 드라마가 시대극임을 감안할 때 주체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려는 긍정적 시도를 볼 수 있었다.



〈옥중화(MBC)〉

〈굿바이 미스터 블랙〉(MBC, 5월 11일, 17회)에서는 아버지의 부정을 안 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설득하는 여주인공 김스완(문채원)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거부장적 분위기로 아버지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던 딸의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적인 여성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화만사성〉(MBC, 5월 14일, 23회)에서 사고로 자식을 잃고 시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가정이 전부인양 인내하고 참고 살던 봉해령(김소연)이 이혼한 후,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삶의 주체로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려냈다.

또한 〈가화만사성〉(MBC, 5월 15일, 24회)에서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여 스무 살부터 일했던 시아버지의 중국 음식점인 가화만사성에서 쫓기듯 나와 두 딸의 양육권을 갖기 위해 자신의 가게를 열어 가화만사성 보다 더 유명한 식당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한미순(김지호)의 모습을 통해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여성 캐릭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가화만사성(MBC)〉

(2) 남성의 육아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 강조

〈워킹 맘 육아 대디〉(MBC, 5월 12일, 4회)에서 워킹 맘인 주예은(오정연) 대신 장을 직접 보고 배추를 씻으며 밝게 웃는 아빠 차일목(한지상)의 모습 속에 집안일은 여성, 사회일은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 극복할 수 있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또한 놀러온 방글이와 아들에게 맛있는 보쌈을 먹이며 아이와 아빠의 함께 기뻐하는 모습 속에 육아를 여성(엄마)의 전유물이 아닌 공동육아의 가치와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그려냈다.



〈워킹 맘 육아 대디(MBC)〉

〈워킹 맘 육아 대디〉(MBC, 5월 11일, 3회)에서 차일목(한지상)은 그릇을 소중히 여기며 집안일과 요리를 주도적으로 능숙하게 만들어 아들에게 “잡쉬봐”라고 하고, 아들 차민호(고승보)가 “알았어요. 여기에 꿀 넣었어요? 맛이 깊어졌어요”라고 말하자 아빠는 “예”라며 능숙하게 대응하며 놀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어 남성도 즐겁게 육아와 요리, 가정 일에도 능숙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프렌들리 대디(friendly daddy)’라는 용어에 적합한 사례로 일하는 엄마를 대신하여 가정

에서 능숙하게 육아와 살림을 담당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미디어를 통한 양성 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3) 성역할 고정관념 극복

〈천상의 약속〉(KBS2, 5월 11일, 71회)에서 상견례 후, 집에 돌아와 50대 중반 남편인 장경원(이종원)이 아내 박유경(김혜리)에게 “피곤하나, 물 받아줄까?”라고 묻는 장면은 드라마 안에서 주로 남편이 아내에게 “물 받아놔” 했던 장면과 대비되며 신선함을 주었으며 관념적이고 사회통념상 형성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장면이었다.

〈마녀의 성〉(SBS, 5월 13일, 103회)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의 저녁 준비 모습에서 남편인 신강현(서지석)이 먼저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을 통해 남녀가 함께 하는 공동가사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4) 대안적 묘사

〈내 사위의 여자〉(SBS, 5월 17일, 97회)에서 백진주(한영)와 강부장(정경호)의 대화 중에 강부장이 “평생 커피 타 줄지도 모른다”라며 진주에게 이야기하자 진주가 “여자만 커피 타란 법 있나?” 라는 대사를 던졌는데 성 평등에 입각한 발언으로 주목할 만 하였다.

또한, 〈천상의 약속〉(KBS2, 5월 12일, 72회)에서는 박휘경(송중호)이 백도희(이유리)를 배웅하면서 “다시 한 번 안아 봐도 돼요?”라고 묻는 장면은 남성의 의도만으로 여성을 껴안거나 키스하는 등의 기존 설정과 달리 스킨십에서 여성의 의사를 배려하는 대안적 연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2) 성 차별적 내용

모니터링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여성에게만 전담시키거나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인식하는 등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조하는 모습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여성은 유약하거나 남성에게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 강력하게 묘사하거나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장면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으며, 여성에게만 유독 외모를 비하하거나 외모 지상주의를 강조하는 드라마들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성차별적 대사나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면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性)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해 보였다.

(1) 가정 내 성역할 고정관념 : 가사와 육아는 여성 혼자 몫?

〈별난가족〉(KBS1, 5월 11일, 8회)에서는 손도순(김예령)이 서방님인 구경철(이주현)의 전처가 가출한 후 신장병이 생긴 구경철의 딸 구공주(한서진)의 육아를 자연스럽게 맡고 있는 장면이 그려졌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공주가 신장병이 있는 걸 모르고 운동(에어로빅)을 시켜 구공주가 쓰

러지자 손도순의 남편인 구경만(강인덕)이 손도순에게 "너는 선생님에게 중요한 것도 얘기 안 하고 뭘했노"라고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 부분은 육아는 여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별난가족(KBS1)〉

〈별난가족〉(KBS1, 5월 12일, 9회)에서는 아들 구윤재(김진우)에게 화가 나 있는 손도순(김예령)은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 주방으로 들어가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러 들어오자 손도순이 “갑자기 너 부엌에 들어오고 그래? 장가가서 니 마누라에게 잘 보이려고 여행연습 하는 거니?”라고 발언하였다. 주방의 일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든지 필요에 따라 해야 하는 일임에도 여성만이 담당해야하는 역할임을 심어줄 수 있어 아쉬움으로 남았다.

(2)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 재생산

〈마녀의 성〉(SBS, 5월 12일, 102회)에서는 서로 맞벌이 하는 부부이지만 아침에 깨워달라고 부탁하는 남편 문상국(최일화)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아내의 모습에서 아내도 일을 하지만 남편을 챙기는 내조도 함께 해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그대로 드러나 아쉬웠다.

〈내 사위의 여자〉(SBS, 5월 16일, 96회)는 박수철(설정환)이 오영심(이재은)과 육아문제 얘기도중 “애기는 무조건 3살까지 엄마가 키워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맞벌이가 많은 상황에서 육아를 꼭 엄마가 해결해야 한다는 성차별적이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 있었다.

특히, 〈워킹 맘 육아 대디〉(MBC, 5월 12일, 14회) 방송분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문제적 드라마로 인식되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 이해순(길해연)에게 아들 김재민(박건형)이 아내인 이미소(홍은희)가 임신하여 병간호가 어렵다고 하자 이해순은 “사내 새끼가 무슨 병간호를 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수발하는 건 당연한데”라고 하였으며 이어서 며느리인 이미소가 병원을 방문하고 어머니에게 김재민이 “또 오겠다”라고 하

자 “오지마라. 다 귀찮다”라며 아들에게는 수고로움을 주지 않으려는 장면이 그려졌는데 이는 여성이 임신과 육아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역할에 덧붙여 시부모 수발까지도 남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과 함께 며느리의 어려움을 고려해주지 않는 시어머니의 전형성을 고정화시킬 수 있었다.

사회적 산물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생물학적인 것으로 고정하여 강화·재생산하는 시도도 문제일 뿐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여성의 관계를 항상 반복하고 갈등하는 관계로 그리고 있는 점이 아쉬웠다.

(3)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인식

〈워킹 맘 육아 대디〉(MBC, 5월 13일, 5회)에서 병원에 입원한 시어머니 이해순(길해연)에게 며느리 미소(홍은희)가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 며칠 가서 계세요. 어머니 식사도 챙겨드려야 하고”라고 말하자 이해순은 미소에게 “입덧은 어떻노. 이번에는 아들 꼭 낳아라. 집안 대는 이어야지”하며 결혼한 여성을 집안에 대를 잇는 출산의 도구로 생각하고 아들선호사상을 드러내는 발언을 그대로 드러내 다소 아쉬웠다.



〈워킹 맘 육아 대디(MBC)〉

〈워킹 맘 육아 대디〉(MBC, 5월 16일, 6회)에서는 출산 후 병원에서 돌아온 이미소와 아기를 보며 이해순(길해연)은 “어데 보자. 금쪽 같은 내 손주, 얼굴이 왜 이리 파리하냐. 젖은 제대로 주고 있나. 저 들통에 미역국 한 통 끓여놨다. 그래야 젖이 쑥쑥 돌지, 우리집 종손 왔나”하며 손자의 얼굴과 건강만을 챙기며 며느리에게는 미역국 많이 먹고 모유수유를 잘하라며 며느리인 이미소를 아기의 모유 수유의 도구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천상의 약속〉(KBS2, 5월 11일, 71회)에서 오만정이 아들의 처가에 방문한 장면에서, 안사돈에게 “이제 세진이(며느리)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만 낳아주면 만사 오케바리네요”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위험성이 있었고 남아선호의 구태를 여전히 보여주어 개선이 요청되었다.

(4)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에 대한 의존성 강조

〈굿바이 미스터 블랙〉(MBC, 5월 11일, 17회)은 남자 주인공의 여동생 역할의 차지수(임세미)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이끈 당사자 백은도(전국환)의 딸이 김스완(문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들인 차지원(이진욱)은 주체적으로 복수를 하는 모습에 반해 딸인 차지수는 늘 오빠 뒤에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여성을 나약하게 그리고 있었다.

〈굿바이 미스터 블랙〉(MBC, 5월 12일(18회)에서 오빠 뒤에서 두려움에 숨어만 있던 차지수의 증언으로 백은도가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에서는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차지수 옆에는 어김없이 든든한 보호막인 김대표(김태우)가 함께 하고 있었다. 차지수는 여전히 김대표에게 의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여성은 유약하거나 남성에게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만 그려내고 있었다.



〈굿바이 미스터 블랙(MBC)〉

〈워킹 맘 육아 대디〉(MBC, 5월 11일, 3회)에서 박혁기(공정환)는 머리가 아파 쉬러 왔다가 외출하고 온 윤정현(신은정)에게 점심도시락 문제를 언급하며 “내 말 안 끝났어, 남편 비위하나 딱딱 못 맞추나. 남들은 무능한 남편 만나 맞벌이두 해. 거기에 비하면 당신은 파라다이스지. 나 만나 호의호식하는 줄 알아”하며 “밥치려” 라고 하였다. 남편은 다리를 꼬고 상석에 앉아 호령하고 윤정현은 서서 혼나는 모습으로 ‘네’를 연발하고 있는데, 의사라는 남편의 직업을 내세우며 가부장적 권위와 남편에게 순응하도록 내조를 강요받는 나약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어 여성의 존재를 무시하고 남성에게 의존이 필요한 존재로 전락시켰으며 대사 중에 성차별 언어도 그대로 표출되어 규제가 필요해 보였다.



〈워킹 맘 육아 대디(MBC)〉

〈워킹 맘 육아 대디〉(MBC, 5월 12일, 4회)에서 이미소(홍은희)가 시어머니의 입원으로 회식 참석을 미루자 김흥복 차장(김용운)은 “너 이런 식으로 공사 구분이 안돼?”하고 말하고, 직후 김 차장이 본인의 전화가 오자 “아, 오늘요”하며 “나 약속 생겼다”하며 회식을 포기하고 바로 퇴근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김 차장의 모습은 사회적 권력을 가진 남성의 이기적이고 부정적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 아쉬웠는데 부하직원에게는 회식을 강요하고 본인의 약속은 바로 지키려는 이중적인 잣대는 여성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면서 여성의 주체성 무시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5) 외모 지상주의 조장, 외모 비하

〈내 사위의 여자〉(SBS, 5월 18일, 98회)에서 백진주(한영)와 강실장(정경호)이 치킨을 먹으며 대화하는 도중에 강 실장이 “못 생긴 여자가 복스럽게 먹는 건 별론데, 이쁜 여자가 복스럽게 먹는 건 너무 좋아요” 라는 대사를 하였는데. 못 생긴 여자와 예쁜 여자를 대조적으로 비유하여 여성의 외모 지상주의를 강화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또한 〈또 오해영〉(tvN, 5월 16일, 5회)에서 주인공 오해영(서현진)이 다니는 회사에 고교동창인 같은 이름의 오해영(전혜빈)이 입사하게 된다. 팀장으로 스카우트된 오해영(전혜빈)은 맡은 일에 대한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남자 직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는 출중한 얼굴과 몸매, 애교, 입담이 실력이나 능력, 인품, 경우보다 앞섬을 보여주는 것으로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있어 아쉬움으로 남았다.

(6) 성차별적 대사 및 인권감수성 부족

〈워킹 맘 육아 대디〉(MBC, 5월 13일, 5회)에서 임신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던 이미소(홍은희)가 김차장에게 “차장님. 저 육아 휴직하겠습니다.”라고 하자 김흥복 차장(김용운)은 “출산 휴가만 쓰다더니. 무슨 육아휴직 타령이야. 그냥 사표 내. 민폐 끼치지 말고”하자 미소는 “저도 육아휴직 싫어요. 아이 맡길 곳이 없어요. 맞벌이 안하면 아이 둘 못 키워요.”하였다. 이에 김 차장이 “어디서 징징거리. 내가 네 오빠야? 아빠야?”라며 반말과 폭언을 사용하였다. 정당한 권리인 육아휴직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상사의 모습을 보여주어 여성의 정당한 권리도 무시하는 사회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같은 날 방송에서 김차장이 “기획서 언제 낼거야”하자 이미소는 “기획서 머리 쥐어 짜내고 있다”라며 “외부 출장 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장면에서 김 차장은 “남산만한 배 내밀고 다니는 거 보기 싫어 죽겠구만, 이게 배부른 김에 배째라야” 라며 미소에게 강한 굴욕감을 주었다. 이는 임신한 여성을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대상으로 여기며 언어적 폭력을 구사하여 인권감수성을 무시한 언어폭력의 사례로 꼽혔다.



〈좋은사람(MBC)〉

〈좋은사람〉(MBC, 5월 11일, 8회)에서는 성차별적 단어 사용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홍문호(변호사)가 차만구(남경읍)에게 “찾으셨다는 그분이 장모님 핏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집사람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서요”에서 ‘집사람’이라는 단어와 홍수혁(장재호)이 사촌누나 차경주(강성미)에게 “귀도 밝네, 저럴 때 보면 마녀다 마녀”에서 남자에게 ‘마법사’가 여자에게는 ‘마녀’로 사용되는 단어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성차별적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또한 윤정원(우희진)이 석지완(현우성)을 바라보며 “살마 저 사람 또 제비 영업하는 건가?”라고 하였는데 ‘제비’는 남자 바람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여성을 칭하는 ‘꽃뱀’과 더불어 남성을 비하하는 성차별적 단어로 주의가 필요해 보였다.



〈내 마음의 꽃비(KBS1)〉

〈내 마음의 꽃비〉(KBS1, 5월 16일, 56회)에서는 ‘날건달’, ‘강패놈’, ‘양아치’, ‘제비새끼’, ‘기생오라비’와 같은 남성 비하적 단어와 ‘도둑년의 애미’, ‘거지같은 기집애’, ‘여편내’, ‘불여사’, ‘기집질’과 같은 여성 비하적 표현이 수시로 나왔다. 또한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정기순)는 먹을 것만 좋아하고 외모는 형편없다는 외모 비하로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며 예쁜 여자는 당연히 대우 받아도 마땅하다는 식의 대사가 방송 전반에 이어졌다.

이 날 방송에서는 외모 비하 및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발언들이 많이 등장하였는데 상대의 뚱뚱한 몸을 가리키며 “고모는 앞길을 막는 사람도 없는데 왜 혼자지?” 혹은 대화를 그만두고 식사를 시작하지는 말에 놀리듯 “먹는 거에 한참 예민해 갖고”라는 대사는 여성의 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였다.

IV. 나가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방송된 20개 프로그램, 64편의 드라마에서는 가정 내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여성성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장면, 성차별적인 대사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드라마를 통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학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나 교양 프로그램보다 시청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드라마의 변화가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보다 시급해 보인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입각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방식을 극복하고 양성 평등에 입각한 대안적 묘사를 통해 건강하고 평등한 관계를 드라마 속에 담아내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모니터링 기간 중,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상이 등장하거나 공동육아·공동가사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워킹 맘 육아 대디>는 대한민국에서 맞벌이를 하며 자녀를 키우는 부부의 현실을 그려낸 드라마다. 일과 육아의 책임을 안고 억척스레 살아가는 여성의 현실과, 육아휴직을 통해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에 도전한 남성의 이야기를 대비하여 극적으로 연출한 탓에 성차별적인 내용으로 여러 차례 언급되기는 했으나, 워킹 맘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과 남성의 육아휴직과 공동육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아직도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재생산하고 가부장적 사고를 나타내는 발언이 그대로 방송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방송사와 드라마 제작진은 성 평등 의식과 성 인지적 관점을 지니고 방송을 기획하고 제작하기를 기대해본다.

V. 모니터링 내용


1. 성 평등적 내용¹⁾

1) 주체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TV소설 내 마음의 꽃비	5월 16일 (56회)	 <p>1960년대를 배경으로 연출한 극에서 남녀구별 없이 같은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심지어 딸인 꽃님(나해령)이 닭다리를 먹는 모습은 기존의 성차별적 요소가 짙은 시대극의 연출과 차별화 됨.</p>
MBC	굿바이 미스터 블랙	5월 11일 (17회)	<p>아버지 백은도(전국환)의 부정을 알게 된 뒤, 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설득하는 여주인공 김스원(문채원)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에서 아버지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딸의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변화시키려는 주체적인 여성을 표현.</p>

- 1)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옥중화	5월 14일 (5회)	 <p>어머니 죽음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어려운 무술 시험을 통과하고 고문을 이겨내며 당당히 체담인이 되는 옥녀(진세연)의 모습은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목표를 이루어내는 여성의 강인함을 표현.</p>
MBC	가화만사성	5월 14일 (23회)	사고로 자식을 잃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가정을 전부로 여기며 참고만 살던 여주인공 봉해령(김소연)은 가정을 벗어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삶의 주체로서 행복을 찾아가감.
MBC	가화만사성	5월 15일 (24회)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를 3개월 안에 가화만사성보다 더 유명한 식당으로 키워 딸들을 찾아가겠노라 다짐하는 한미순(김지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취적으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주체적인 여성을 표현.
MBC	워킹 맘 육아 대디	5월 11일 (3회)	임신소식을 알린 이미소(홍은희)에게 “팀에 민폐 끼칠 생각하지 말고 집구석에 들어 앉아 애나 봐”라고 말하는 김흥복차장(김용운). 퇴사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미소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라고 말하며 곳곳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려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줌.
MBC	몬스터	5월 16일 (15회)	주인공 오수연(성유리)이 자사의 제품이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에 대해 내부고발자로 법정에 나섬으로써 사장 도광우(진태현)가 6년간 복역하게 하는 핵심 역할을 함.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과 소신을 지키는 여성의 모습을 표현.
SBS	내 사위의 여자	5월 11일 (93회)	방여사(서우림)가 아범이 쓰러지고 집안의 우환이 겹치는 원인이 며느리 이진숙(박순천)에게 있다며 폭언을 함. 이는 가정 문제의 원인을 근거 없이 여성에게 돌리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드러냄. 이진숙이 방여사로부터 질책 당하는 장면에서 손녀 박수경(양진성)이 “할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미안하단 말은 못하셔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는 대사를 하며 늘 일방적으로 당하는 존재로 그려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지는 머리를 대변하여 권위자에게 도전하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줌.
SBS	그래, 그런거야	5월 14일 (27회)	 <p>사돈총각인 유세준(정해인)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이나영(남규리)과 유민호(노주현)를 짝사랑해 그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자청하는 강수미(김정난)의 모습은 사랑과 연애에서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지는 여성을 사랑을 쟁취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표현.</p>
tvN	또 오해영	5월 16일 (5회)	오해영[홍](서현진)은 결혼을 결심한 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딛고 직장생활을 하며 독립적인 여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




2) 현실반영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동네변호사 조들호	5월 16일 (15회)	여주인공들이 변호사로 활약하는 모습은 여성들이 변호사라는 전문직으로서 남성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현실을 드러냄
MBC	워킹 맘 육아 대디	5월 11일 (3회)	태어날 아기를 맡길 곳이 없는 이미소(홍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도우미 이모님을 찾느라 애쓰는 장면. 국공립 어린이집 순번 대기 2년이나 기다려야하는 상황 설정과 “육아 휴직, 아이돌보미 서비스제도는 있는데 이렇게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라는 대사는 육아 제도는 있으나 워킹맘의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인 현실적 문제를 표현함. 남편과 동일하게 직장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등원과 육아도우미 찾기, 숙제지도 등을 워킹맘인 엄마가 혼자 담당하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육아의 책임을 전담하는 워킹맘의 현실을 그려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워킹 맘 육아 대디	5월 13일 (5회)	 <p>시어머니인 이혜순(길해연)이 입원한 병실에서도 이미소(홍은희)가 일거리를 손에서 놓지 않자 시어머니는 “회사 일을 여기까지 가져 오냐”며 핀잔을 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소는 “저 일 대충하면 큰일 나요 어머니. 둘째 출산 휴가 쓰려면 미리미리 잘 해야죠”라고 말함.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역할과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워킹 맘의 상황을 잘 그려냄.</p>
MBC	워킹 맘 육아 대디	5월 16일 (6회)	 <p>이미소(홍은희)는 제왕절개로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줌마렐라 콜라보’ 기획안을 제출함.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기간에도 회사 일에 매진하며 출산으로 인한 공백을 채우려는 모습은 출산과 직장생활을 힘겹게 병행하는 여성 직장인의 현실을 드러냄.</p>

3) 다양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천상의 약속	5월 11일 (71회)	<p>상견례 후 집에 돌아온 남편 장경완(이종원)이 피곤해 하는 아내 박유경(김혜리)에게 “물 받아줄까?”라고 물음. 드라마 안에서 아내가 남편의 신상을 돌보는 일반적인 장면과 대비되며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탈피함.</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워킹 맘 육아 대디	5월 11일 (3회)	 <p>집안일을 능숙하게 처리하고, 요리를 하며 아이를 돌보는 차일목(한지상)은 '프렌들리 대디(friendly daddy)'를 표현하며 남성도 육아와 가사에 능숙할 수 있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줌.</p>
MBC	워킹 맘 육아 대디	5월 12일 (4회)	 <p>워킹 맘인 주예은(오정연) 대신 직접 장을 보고 배추를 씻으며 밝게 웃는 아빠 차일목(한지상)의 모습은 가사는 여성, 사회일은 남성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탈피함.</p>
MBC	좋은 사람	5월 11일 (8회)	 <p>석지완(현우성)이 어머니 강진숙(이화영)과 함께 다정하게 쇼핑을 하며 차를 마시는 장면은 성 평등적인 가족문화를 표현함.</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SBS	마녀의 성	5월 13일 (103회)	 <p>남편 신강현(서지석)이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은 식사준비 등의 가사활동이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함.</p>
SBS	딴따라	5월 11일 (7회)	<p>여주인공 그린(헤리)이 매니저에서 엔터테인먼트사 사장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매니저나 엔터테인먼트 사장은 남성의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p>
SBS	그래, 그런거야	5월 15일 (28회)	 <p>한혜경(김해숙)의 남편 유재호(홍요섭)는 손님맞이 청소(걸레질)과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시어른들과 같이 살고 있음에도 아내를 도와 청소하는 모습은 성 평등한 부부 관계를 나타냄.</p>
SBS	내 사위의 여자	5월11일 (93회)	<p>방여사(서우림)와 정미자(이상아)의 방에서 박수철(설정환)과 오영심(이재은)이 대화를 끝내고 밥상을 치우는 장면에서 오영심이 나가자마자 박수철이 밥상을 본인이 직접 들고 나감. 시댁 식구인 방여사와 정미자의 상을 며느리인 오영심이 들지 않고 아들인 박수철이 당연스레 들고 나가는 장면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묘사임</p>

2. 성 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1	별난가족	5월 11일 (8회)	 <p>정주란(김경숙)이 퇴근하는 남편 설민석(선우재덕)의 옷을 챙겨줌. 여성이 남성의 옷가지를 챙겨주는 전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남.</p>
KBS1	별난가족	5월 11일 (8회)	<p>손도순(김예령)이 전처 가출 후 신장병이 생긴 구경철(이주현)의 딸 구공주(한서진)의 육아를 맡게 된 상황. 유치원 선생님들이 구공주가 신장병이 있는 걸 모르고 운동(에어로빅)을 시켜 구공주가 쓰러지고, 손도순의 남편인 구경만(강인덕)은 손도순(김예령)에게 "니는 선생님에게 중요한 것도 얘기 안 하고 뭐했노"라며 일방적으로 화를 냄. 친모가 가출한 경우 친부가 아닌 다른 여성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당연하게 그리고, 육아의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지움. 이어 구경만(강인덕)은 "이래서 아 한테는 엄마가 있어야 하는 거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것도 얘기 못하고 어린 게 얼마나 서러웠겠노"라고 말하고, 손도순(김예령)도 동의하며 "그러게 말이에요. 같은 여자지만 참 독해 그 사람"이라고 말함. 아이의 육아는 엄마(여성)가 책임져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나타남.</p>
KBS1	별난가족	5월 12일 (9회)	<p>어머니 손도순(김예령)에게 사과하러 주방에 따라 들어온 구윤재(김진우)에게 손도순은 "갑자기 너 부엌에 들어오고 그래? 장가가서 니 마누라에게 잘 보이려고 예행연습 하는 거니?"라고 말함. 주방의 일이 여성만의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주방에 들어오는 것이 특별한 일인 것처럼 표현함. 또한 며느리 될 사람을 질투하는 손도순(김예령)의 모습도 여성을 편협한 존재로 표현함.</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1	별난가족	5월 12일 (9회)	 <p>구경철(이주현)의 딸 구공주(한서진)가 큰엄마 손도순(김예령)에게 아빤 머릴 잘 못 묶어 준다며 머리를 묶어 달라고 함. 그러자 손도순이 “아빤 남자라서 못 묶는 거야”라고 말하며 머리를 묶어줌. “이래서 딸한테 엄마가 있어야 하는 건데... 서방님도 빨리 새 출발 하셔야지 공주 저거 불쌍해서 어떡해”라는 대사는 육아의 주체로서 남성의 능력을 제한하고, 아이의 육아는 엄마가 책임져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냄.</p>
MBC	굿바이 미스터 블랙	5월 11일 (17회)	 <p>차지원(이진욱)이 옷가게로 김스완(문채원)을 불러내어 블랙원피스를 선물하는 장면은 남성을 구매자로, 여성을 수혜자로 표현.</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굿바이 미스터 블랙	5월 12일 (18회)	 <p>김스완(문채원)이 “나는 왜 블랙이 내가 부탁하면 다 들어줄 것 같지?”라고 말하자 차지원(이진욱)이 “말해봐 다 들어줄게”라 대답함. “놀라지 마~ 우리 집이 갖고 싶어”라는 김스완의 대답에 차지원이 멋진 전원주택을 마련해 열쇠를 보여주고 이에 김스완이 기뻐하는 모습이 그려짐.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는 고가의 집도 맘만 먹으면 선물해 줄 수 있는 남자의 경제력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은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하고 능력 있는 남자만이 사랑하는 여자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우려가 있으며, 여성을 요구하고 받는 수혜자로 인식하는 성 고정관념을 드러냄.</p>
MBC	워킹 맘 육아 대디	5월 12일 (4회)	 <p>시모 이해순(길해연)이 수술 후 입원하자 김재민(박건형)은 이미소(홍은희)가 임신하여 병간호가 어렵다고 말함. 이해순은 “사내새끼가 무슨 병간호를 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수발하는 건 당연한데”라고 말함. 며느리 이미소가 온 후, 김재민이 병실을 나서며 “또 오겠다”라고 말하자 이해순은 “오지마라. 다 귀찮다”라며 아들에게 수고로움을 끼치지 않으려 함. 가족을 돌보는 일은 남성의 역할이 아니라는 고정관념과, 며느리는 임신과 육아,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을지라도 가족을 돌보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고정관념을 표현함.</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워킹 맘 육아 대디	5월 16일 (6회)	이미소(홍은희)가 아들을 출산하자 김차장(김용운)은 “굶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건 잘했네. 그래도 아들은 하나 있어야지.”라며 남아선호사상이 담긴 표현을 함.
MBC	최고의 연인	5월 13일 (111회)	 <p>한아정(조안)은 이혼전문변호사인 남편 박병기(이현욱)의 외도와 이혼 요구에도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으나, 결국 이혼을 하게 됨. 박병기(이현욱)는 내연녀인 드림그룹 딸 백강미로부터 버림을 받고, 전처 한아정(조안)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자 딸의 양육권을 주장함. 본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됐음에도 전처의 재혼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새롬(이고은)이 내 딸이다”라고 말하며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박병기의 모습은 여성을 남성의 소유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표현.</p>
MBC	좋은사람	5월 11일 (8회)	 <p>이영훈(서우진)의 어머니 박미선(박정수)이 아들의 직장상사 차경주(강성미)의 꾀에 빠져 차경주가 원하는 대로 아들과 며느리를 갈라놓고 차경주와 아들을 엮으려 하는 과정에서 “미쳤다 생각하고 저질러 보는 거야”, “내 아들을 위해서인데 원들 못 하겠어, 내가”라고 함. 이는 며느리를 버릴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는 비윤리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 왜곡된 모성을 표현.</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좋은 사람	5월 11일 (8회)	홍문호(독고영재)가 차만구(남경읍)에게 “지금은 집사람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서요.”라며 자신의 아내를 집사람이라고 지칭함. ‘집사람’은 여성을 집이라는 영역에 한정되어 가사를 전담하는 존재로서의 고정관념을 담은 표현임.
MBC	가화만사성	5월 14일 (23회)	 <p>할머니 제사 음식 장만하러 시장에 가냐고 묻는 며느리 주세리(윤진이)에게 시어머니 배숙녀(원미경)는 “무슨 걱정이니 니가 있는데. 나는 모임이 있어서 나간다”라고 말하며 며느리 혼자 제사상 준비를 하게 함. 봉만호(장인섭)의 내연녀 주세리(윤진이)는 본부인을 몰아내고 봉만호를 차지한 상황에서 비난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그려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배숙녀(원미경)로부터 제사를 혼자 준비하라는 주문을 받고, 주세리가 시댁에서 인정받기 위해 제사를 혼자 준비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설정은 여성에 대한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장면임.</p>
SBS	딴따라	5월 12일 (8회)	서재훈(엘조) 엄마는 아들을 위해 12억을 투자하면서까지 아들에게 집중하는 캐릭터로 그려짐. 8회 방송에서 3회 등장하는데 등장할 때마다 재훈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아들~ 아들~ 아들~ 아들~” 하며 4번 이상 부르고 난 후에 다른 말을 이어감. 아들에 대한 선호가 드러남.
SBS	내 사위의 여자	5월 16일 (96회)	박수철(설정환)은 오영심(이재은)과 육아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애기는 무조건 3살까지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말함.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남.
SBS	내 사위의 여자	5월 17일 (97회)	백진주(한영)와 강부장(정경호)의 대화중 강부장이 진주에게 “평생 커피 타 줄지도 모른다”라는 대사를 하였음. 이를 통해 남자상사와 여자부하직원의 관계에서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여자가 남자에게 커피를 타 준다는 성 차별적이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암시되는 장면으로 간주되었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SBS	마녀의 성	5월 12일 (102회)	 <p>서로 맞벌이 하는 부부 이지만 아침에 깨워달라고 부탁하는 남편 문상국(최일화)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아내의 모습에서 아내도 일을 하지만 남편을 챙기는 내조도 함께 해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보였음.</p>

2) 출산의 도구로서의 여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천상의 약속	5월 11일 (71회)	오만정(오영실)이 아들의 처가에 방문하는 장면에서, 안사돈에게 “이제 세진이(박하나)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만 낳아주면 만사 오케바리 바리네요”라고 말함.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표현이며 남아선호의 구태도 여전함.
KBS2	천상의 약속	5월 17일 (75회)	장세진이 남편인 강태준에게 인공수정을 하자고 제안하는 장면에서, 강태준이 그 제안을 반기지 않자, “아이 없이 살다가 나랑 헤어지기로 하겠다는 거야?”라며 반발함.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남편에게 언제든지 손쉽게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임.
MBC	워킹 맘 육아 대디	5월 13일 (5회)	시어머니 이해순(길해연)은 며느리 이미소(홍은희)에게 “입덧은 어떻노. 이번에는 아들 꼭 낳아라. 집안 대는 이어야지”하며 말함. 여성을 집안의 대를 잇는 출산의 도구로 여기며 아들선호사상도 내포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워킹 맘 육아 대디	5월 16일 (6회)	 <p>출산 후 병원에서 돌아온 이미소(홍은희)와 아기. 시어머니 이해순(길해연)은 아기를 안으며 “어데 보자. 금쪽같은 내 손주. 얼굴이 왜 이리 파리하나. 젖은 제대로 주고 있냐. 저 들통에 미역국 한 통 끓여 놔다. 그래야 젖이 쓱쓱 돌지”하며 손자의 얼굴과 건강만을 챙김. 며느리에게는 미역국 많이 먹고 모유수유를 잘하라고 하며 며느리인 미소를 아기의 모유 수유의 도구인 것처럼 대함.</p>
MBC	가화만사성	5월 15일 (24회)	 <p>여주인공 봉혜령(김소연)은 사랑하는 아들을 사고로 잃고도 아픔을 가슴에 묻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 가정을 가꾸고 지켰으나 불임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의 모략으로 이혼하게 됨. 사회적으로 자상한 시어머니의 표상으로 포장되어 있는 저명인사 시어머니가 기자와의 인터뷰 중 “불임으로 맘고생이 심하던 며느리에게 딸처럼 대해준 것이 더 큰 짐이 되었다는 걸 몰랐어요. 더 이상 붙잡는 건 이기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라며 며느리의 불임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대화하는 장면에서 기자가 당연하다는 듯 수긍하는 모습을 보임. 드라마 전반에 자식이 없는 가정은 불완전한 가정으로 그려지고,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는 식의 표현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내용임.</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JTBC	마녀보감	5월 13일 (1회)	 <p>무녀의 몸에 잉태된 아이를 꺼내서 중전 심씨(장희진)의 몸으로 옮겨 넣는 흑주술 장면. 대를 이을 아들을 원하는 시어머니 대비 윤씨(김영애)의 압박을 견디며 흑주술을 통해 자신과 씨받이무녀에게 행해지는 무지하고 폭력적인 일들을 감수하는 연출은 여성이 폭력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p>

3)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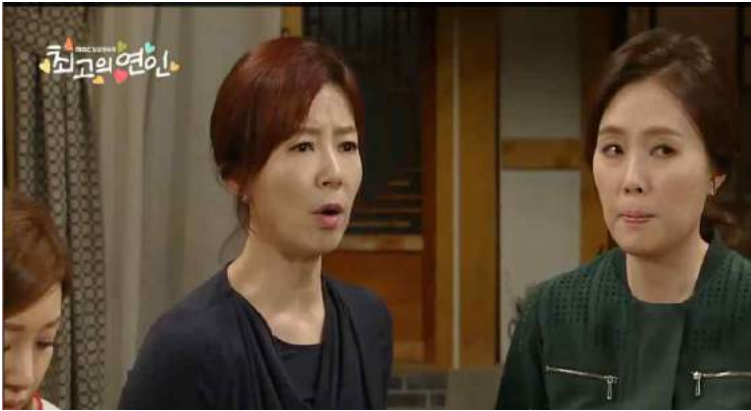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1	별난가족	5월 13일 (10회)	회사의 부당한 상품계약 해지에 1인 시위를 진행한 강단이(이시아)의 모습을 본 회사직원들은 “근데 정말 아까 그 아가씨. 정말 용감하지 않아요? 어떻게 혼자 피켓까지 들고 혼자 시위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게 남자인 나도 저러기 쉽지 않은데…” 등 여성이 주체성이 없고 소극적이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는 대사를 함.
KBS1	별난가족	5월 13일 (10회)	손도순(김예령)은 쇼핑몰 상품계약해지 문제해결 과정에서 철저히 자기 아들 입장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강단이(이시아)를 재단함. 손도순(김예령)은 “단이 지가 무슨 수로 그걸 해결해요? 분명히 윤재한테 도와달라고 들들 볶을 텐데…”라며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
KBS1	별난가족	5월 17일 (12회)	강단이(이시아)가 오디 계약문제 해결을 위해 1인 시위 한 것을 가지고 남자친구인 구윤재(김진우) 엄마인 손도순(김예령)이 강단이(이시아)한테 “아무리 오디가 중요해도 윤재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혹시 우리 윤재 믿고 그런 거니? 윤재한테 우리 오디 문제 해결해 달라고 보란 듯이 시위한 거냐고!”라고 함. 남성(아들)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여성은 남성에 맞춰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 비주체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있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TV소설 내 마음의 꽃비	5월 12일 (54회)	 <p>꽃님을 바라보고 있는 박선호(기은성)와 마주친 이강욱은 “꽃님은 내가 지킨다.”라고 말하며 선호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여자친구를 지키지 못함을 꾸짖음. 여성을 남성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의존적이고 나약한 존재로 표현함.</p>
KBS2	천상의 약속	5월 11일 (71회)	<p>백도희(이유리)는 강태준(서준영)에게 장세진(박하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냐며 몰아붙임. 여성의 의사와 무관하게 남성이 여성을 선택하고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음.</p>
KBS2	천상의 약속	5월 13일 (73회)	<p>안성주(김보미)가 백동진(박찬환)에게 백도희(이유리)가 친딸이 아님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아이를 유산했을 때 남편이 자신을 떠날 것만 같아서 남편 몰래 입양까지 감행하며 남편 곁에 남으려 했다고 밝힘. 자기정체성이 부재하고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서 의미를 갖는 여성으로 그려짐.</p>
KBS2	아이가 다섯	5월 16일 (27회)	 <p>이호태(심형탁)와 모순영(심이영)은 한 때 연인이었지만 이호태는 결혼할 자신이 없다며 모순영을 떠남. 다시 재회한 후 옛 감정이 싹트며 아이가 생기자 이호태는 모순영에게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함. 아이를 가진 모순영은 이호태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울면서 애원함. 아이가 생겼음에도 남성은 상황을 외면하며 책임지지 않을 수 있고, 여성에게는 책임을 져야만 하는 고정관념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음.</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가화만사성	5월 15일 (24회)	 <p>한미순(김지호)이 어떻게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는 대화 속에서 한미순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오감. 여성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가게를 오픈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으며 이는 여성의 능력을 평가절하 하는 표현임.</p>
MBC	굿바이 미스터 블랙	5월 11일 (17회)	<p>민선재(김강우)가 자신을 속여 결혼을 했고 차회장(정동환) 살인에 차지수(임세미)를 유괴 감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냉랭하게 대하는 며느리 윤마리(유인영)에게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던지며 소리를 지름. “아무리 선재가 잘못했기로서니 니 남편이야. 나는 니 시애비고. 무슨 짓을 했건, 그 놈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냐? 너도 그 덕에 잘 살았잖아”라는 발언으로 여성을 남편의 경제력에 편승해 살아가는 존재로 그리고, 시댁식구의 죄에 대해서도 저항 없이 용납해야한다는 메시지를 전함.</p>
MBC	몬스터	5월 17일 (16회)	 <p>도충(박영규)의 혼외 자식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도충은 부인 황귀자(김보연)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와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아무런 언질도 없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만으로 밀어 붙임. 부인은 남편의 혼외자식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의 설정으로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함.</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워킹 맘 육아 대디	5월 11일 (3회)	<p>결혼 전 애인사이였던 김재민(박건형)과 윤정현(신은정). 윤정현이 김재민에게 “오빠가 없는 집 아들이란 거”라고 말하자 김재민은 “나 직장 구했잖아”라고 답하고 윤정현이 “그래도 월급쟁이야. 잘나가는 의사집안, 먹고 살 걱정 없잖아. 나 결혼해. 그동안 고마웠어”라며 이별을 통보함. 여성이 남성의 집안, 직업, 경제력으로 결혼을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부유한 남성에게 대한 의존성향과 여성의 결혼관을 편협하게 표현함.</p>
MBC	워킹 맘 육아 대디	5월 11일 (3회)	 <p>머리가 아파 집에 들린 박혁기(공정환)는 외출하고 온 윤정현(신은정)에게 점심도시락 문제를 언급하며 “내 말 안 끝났어, 남편 비위 하나 딱딱 못 맞추나. 남들은 무능한 남편 만나 맞벌이두 해. 거기에 비하면 당신은 파라다이스지. 나 만나 호의호식하는 줄 알아.”하며 “밥 차려” 라고 말함. 다리를 꼬고 상석에 앉아 호령하는 박혁기와 서서 혼나는 모습으로 ‘네’를 연발하는 윤정현의 모습에서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남편에게 순응하도록 내조를 강요당하는 나약한 여성의 모습이 그려짐.</p>
MBC	워킹 맘 육아 대디	5월 12일 (4회)	<p>감성마케팅으로 승진의 기회가 있었던 이미소(홍은희)는 임신으로 승진의 기회를 놓침.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드러냄. 김차장은 “뭘 그렇게 봐. 이런 것도 예상 못하고 임신했어. 안 그럼 짐 싸고”라며 말하며 여성의 출산이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표현을 함.</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워킹 맘 육아 대디	5월 13일 (5회)	 <p>임신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던 이미소(홍은희)가 김차장에게 “차장님. 저 육아 휴직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김차장은 “출산 휴가만 쓴다더니. 무슨 육아휴직 타령이야. 그냥 사표 내. 민폐 끼치지 말고”라고 함. 이미소는 “저도 육아휴직 싫어요. 아이 맡길 곳이 없어요. 맞벌이 안하면 아이 둘 못 키워요” 하자 “어디서 징징 거려. 내가 네 오빠야? 아빠야?”라며 반말과 폭언을 사용함. “그럼에도 어떻게든 버텨봐야지”하며 자조하는 미소의 모습에서 처절한 육아 맘의 모습을 보여줌. 육아휴직이라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회상을 표현.</p>
MBC	워킹 맘 육아 대디	5월 16일 (6회)	 <p>방글이는 울먹이며 엄마에게 다가와 “할머니가 자꾸 동생만 이쁘대. 나는 커서 시집가니까 그만이구. 동생은 아들이니까 무조건 동생 맘대로 해줘야한대”라고 함. 시어머니의 남아선호사상이 짙게 드러남.</p>
MBC	최고의 연인	5월 11일 (109회)	<p>구혜선(김영란)의 회사이지만 남편인 회장 백만석(정찬헌)이 운영하고 있는 드림그룹의 자금을 횡령한 양아들 백강호(곽희성). 구혜선이 양아들을 구속당하게 한 남편 백만석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그 동안 입에 담기도 창피한 밥집 아줌마들과 놀아난 것 모르는 척 해줬다. 깜냥도 안 되는 입에 올리기도 창피한 여자들”이라고 말하자 백만석이 “그 여자들하고 당신하고 비교나 돼! 그야말로 심심풀이</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땅콩이야"라며 부인을 만류함. 이는 특정 직업과 그 직업의 종사자들을 비하한 발언임.
MBC	최고의 연인	5월 16일 (112회)	 <p>이혼한 전처 피말숙(김서라)이 재혼한 아내 나보배(하희라)가 있는 집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연출됨. 시누이가 전 올케를 '헌 언니'로 부름으로써 사람을 헌 것으로 사물화 하여 표현함. 재혼한 배우자에게 미련을 갖고 계속 찾아오는 장면을 통해 여성을 개념없고 남성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그림.</p>
SBS	내 사위의 여자	5월 17일 (97회)	<p>팔봉(이강욱)과 장미(이세영)의 대사 중에 장미가 "단물 다 빼먹고 버리겠다는데~~" 라는 대사를 하였음. 이 부분은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지 않으며, 여성이 남성에게 버려짐을 당하는 존재로 묘사되어 주체성의 결여와 남성의 부속품으로 이미지화 되어 남성 의존성을 강조하는 장면이었음.</p>

4)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TV소설 내 마음의 꽃비	5월 12일 (54회)	 <p>만취해 들어온 민혜주(정이연)를 보며 5촌 아저씨 이수창(정희태)은</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부인 천일란(임지은)에게 “앤 왜 이렇게 술을 마신거야? 여자애가 위험하게”라고 표현함. 다음 날 민혜주가 만취한 자신을 데려다준 이강욱(이창욱)에게 찾아가 고맙다 말하자 이강욱은 “조심해 여자가 술 먹고 뺨어 있으면 곱게 데려다 줄 남자 없어”라고 말함. 여성은 만취해서는 안 되고, 만취했을 때 남성이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며, 그 원인은 여성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우려가 있음.
MBC	워킹 맘 육아 대디	5월 13일 (5회)	김흥복 차장(김용운)이 “기획서 언제 낼 거야”라고 하자 이미소는 “기획서 머리 쥐어 짜내고 있다”라며 “외부 출장 좀 다녀 오겠습니다”라고 말함. 김차장은 “남산만한 배 내밀고 다니는 거 보기 싫어 죽겠구만. 이게 배부른 김에 배 짜라야”라며 미소에게 강한 굴욕감을 줌. 임신한 여성을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대상으로 여기며 언어적 폭력을 구사함.
MBC	좋은사람	5월 13일 (10회)	오과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윤정원(우희진)은 차경주(강성미)의 계약에 의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됨. 윤정원(우희진)의 사장은 성추행을 당하고도 고소를 당한 윤정원에게 “윤정원 씨가 성추행을 당했네 어쩌네 그딴 헛소리를 하니까 대영 오과장이 결국 못 참고 고소까지 하게 된 것 아닙니까?”라고 질책하며 “당장 대영 오과장한테 가서 빌든 어떻게 하든 간에 무조건 고소취하하게 하세요, 알겠어요?”라고 말함.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득실을 따지며 성추행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해버리는 상황임.
MBC	좋은사람	5월 17일 (12회)	 <p>차경주(강성미)는 윤정원(우희진)의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 악의적으로 합의를 권유하는 자리에 변호사까지 동석(계획적으로)하고 합의를 종용함. 변호사가 “지금처럼 성추행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면 저쪽 주장대로 윤정원씨 고소내용이 다 인정될 확률이 높아요”라고 말하고, 윤정원은 “무슨 법이 그래요, 당한 것도 억울한데”라고 울분을 토함. 차경주는 “이러다 일이 더 커지면 언니뿐</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만 아니라 언니가족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더군다나 그 고소한 사람 형부랑 같은 회사 다닌다며"라고 말하며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고 함.
SBS	내 사위의 여자	5월 16일 (96회)	팔봉이(이강욱)는 자신을 찾아온 옛 애인 장미(이세영)에게 "술집 나가는 너랑 내가 어울릴 것 같아", "기생"이라고 표현함. '술집 나가는 여성'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장면.
JTBC	마녀보감	5월 14일 (2회)	 <p>술자리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중 화가 난 남자가 "소리를 좀 낮춰야 될 거 아니야. 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안 들리잖아!"라며 연주하고 있는 기녀에게 술잔을 던져 분풀이를 함.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여자에게 자신의 분노를 폭력으로 풀어내는 묘사는 바람직하지 않음.</p>

5) 외모지상주의 조장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TV소설 내 마음의 꽃비	5월 13일 (55회)	 <p>날씬하고 이쁜 여성 캐릭터 써니홍(안연홍)은 뚱뚱하고 못생긴 여성 캐릭터인 정기순(김도연)에게 "뺑순이 모든 사람이 양으로 승부하는</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건 아니야”라고 말하고, 자신은 양이 적은 수표를 택할 것이지만 기순은 양이 많은 빵을 주면 결혼할거라 얘기하며 무시함.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생각도 우월하다는 인식이 깔려있음.</p>
KBS2	TV소설 내 마음의 꽃비	5월 16일 (56회)	 <p>대화만 하고 식사는 뒷전인 분위기에서 “이야기 그만하고 빨리 먹자”는 정기순(김도연)에게 올케 오춘심(백현주)이 “먹는 거에 예민해가지고”라며 뚱뚱한 사람은 먹는 것만 좋아한다는 식의 비하적 표현을 함.</p>
KBS2	TV소설 내 마음의 꽃비	5월 16일 (56회)	 <p>정꽃님(나혜영)과 이강욱(이창욱)의 다정한 모습에 시비를 거는 정도철(이범규)에게 고모 정기순(김도연)이 평생 데리고 살 것 아님 앞길 막지 말라고 하자 고모의 몸을 가리키며 “고모는 앞길을 막는 사람도 없는데 왜 혼자지?”라고 말하며 뚱뚱한 여성을 비하하고, 뚱뚱한 여성은 결혼하기 힘들다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함.</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좋은사람	5월 11일 (08회)	 <p>석지원(현우성)이 맞선을 보는 자리에서 상대 여성의 성형한 얼굴을 꼬집으며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을 함. 여성이 "맞선이 그렇게 싫으면 나오지를 말았어야지. 좀 너무 한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자 석지원은 "그런데 그쪽도 너무했잖아요. 나는 그래도 본인이 직접 나와 앉아 있기라도 한데 그쪽은 대신 나온 거 아닙니까?"라고 답함. "대신이라뇨?"라고 되묻는 여성에게 "아 이거 봐요(휴대폰 사진 보여주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게 뭐야. 진짜 시간 없어 죽겠는데. 기대 진짜 많이 하고 나왔는데"라며 계속해서 성형한 외모를 비하함. 여성의 성품이나 내면을 파악하기도 전에 외모만으로 무시하고 초면에 무례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장면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p>
SBS	내 사위의 여자	5월 18일 (98회)	<p>백진주(한영)와 강실장(정경호)이 치킨을 먹으며 대화하는 장면에서 강실장이 "못 생긴 여자가 복스럽게 먹는 건 별론데, 이쁜 여자가 복스럽게 먹는 건 너무 좋아요"라는 대사를 함. 못 생긴 여자와 예쁜 여자를 대조적으로 비유하여 여성의 외모 지상주의를 강화하는 장면임.</p>
SBS	딴따라	5월 11일 (7회)	 <p>여민주(채정안)가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신석호(지성)가 여민</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주에게 “눈부시게 예쁘게 생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라고 말하고, 여민주는 이 말을 듣고 화내던 것을 멈추며 신석호가 제시한 일을 허락해 줌. 여성을 외모에 대해 칭찬을 받으면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가벼운 존재로 그리고, 남성이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싶은 여성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묘사는 부적절해 보임.
tvN	또 오해영	5월 16일 (5회)	주인공 오해영(서현진)이 다니는 회사에 고교동창 오해영(전혜빈)이 팀장으로 입사함. 오해영(전혜빈)은 신입 팀장으로서 아직 구체적인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회사 남자직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음. 출중한 외모와 몸매, 애교, 입담이 실력이나 능력, 인품보다 중요하다는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장면임.

6) 여성의 성적대상화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SBS	내 사위의 여자	5월 17일 (97회)	팔봉(이강욱)과 장미(이세영)의 대사 중에 장미가 “단물 다 빼먹고 버리겠다는데” 라는 대사를 하였음. 장미가 술집에 다니는 여성임이 밝혀진 상황에서 성적대상으로서의 술집 여성의 이미지를 강화한 표현.
JTBC	마녀보감	5월 14일 (2회)	 <p>얼굴은 예쁜데 남자들의 눈길을 못 받는다 고민하는 시녀에게 “사내들은 여인의 얼굴보다는 여기(가슴)에 관심이 많아. 여기가 화가 나면 사내들은 자꾸 무릎 꿇게 되어 있단 말이야~”하며 약을 권한다. 약만 마시면 “애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빵!”, “이 약 말고는 방도가 없다”는 표현은 여성의 신체를 성적인 도구로 전락시키는 선정적인 표현.</p>

7)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옥중화	5월 14일 (5회)	 <p>윤원형(정준호)이 자신이 닭의 고환을 좋아하며 정력에 좋다고 소개함. 닭의 고환과 정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함.</p>

8) 선정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TV소설 내 마음의 꽃비	5월 11일 ~5월17일	드라마 전반에 걸쳐 남성에게는 “날건달, 강패놈, 양아치, 제비새끼, 기생오라비”, 여성에게는 “도둑년의 애미, 거지같은 기집애, 여편내, 불여시, 기집질”등의 성비하적이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표현이 많이 나옴.
SBS	내 사위의 여자	5월 16일 (96회)	방여사가 자신들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진숙에게 “네 면상 쥐어뜯어도 시원치 않아” 라는 대사를 함. 이는 명백한 폭언으로 드라마 흐름상 분노를 표현한 것을 감안해도 불편함을 끼치는 언어폭력임.
SBS	내 사위의 여자	5월 18일 (98회)	팔봉(이강욱)이 송 원장을 해치려고 병원에서 베개를 이용해 범 죄를 저지르는 장면. 도구를 사용하여 살인을 저지르려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한 것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선정적이고 부적절한 장면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SBS	땀따라	5월 11일 (7회)	 <p>김주한(허준석) 매니저가 아이돌가수 민호를 소속사에 잡아두기 위해 음모를 꾸밈. 민호를 술에 취하게 하여 소속사 여자 아이돌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찍은 동영상으로 지속적으로 민호를 괴롭힘. 민호는 동영상으로 발목이 잡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 설정에서, 성폭행 영상을 8회분에서만 2회에 걸쳐 각 3초 이상 보여줌. 청소년들이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에서 연출되는 내용으로 부적절 함.</p>

드라마 모니터링 보고서(6월)

I. 들어가며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드라마 속 성 평등적, 성 차별적 사례를 찾아 내어 분석하기 위해 2016년 6월 1일부터 7일까지 지상파 3사(KBS1, KBS2, MBC, SBS), 종합 편성채널(JTBC)과 케이블(tvN)의 드라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총 22개 프로그램이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고, 1주일간 총 68편을 모니터링 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제안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드라마
- 모니터링 기간 : 2016년 6월 1일~7일(7일간)
- 모니터링 매체 : TV(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 대상 방송사 : KBS1, KBS2, MBC, SBS, JTBC, tvN
- 프로그램 수 : 22개 프로그램, 68편
- 모니터인원 : 13명

[표1]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

No	제목	방송사	방영일시	모니터링 방송 수
1	별난가족	KBS1	월~금 오후 8:25	5
2	TV소설 내 마음의 꽃비		월~금 오전 9:00	5
3	백희가 돌아왔다	KBS2	월, 화 오후 10:00	2
4	마스터 국수의 신		수, 목 오후 10:00	2
5	아이가 다섯		토, 일 오후 7:55	2
6	천상의 약속		월~금 오후 7:50	5
7	몬스터	MBC	월, 화 오후 10:00	2
8	운빨로맨스		수, 목 오후 10:00	2
9	가화만사성		토, 일 오후 8:45	2
10	옥중화		토, 일 오후 10:00	2
11	좋은 사람		월~금 오전 7:50	5
12	다시 시작해		월~금 오후 7:50	5
13	워킹 맘 육아 대디		월~금 오후 8:55	5

14	대박	SBS	월, 화 오후 10:00	2
15	딴따라		수, 목 오후 10:00	2
16	그래, 그런거야		토, 일 오후 8:45	2
17	미녀 공심이		토, 일 오후 9:55	2
18	내 사위의 여자		월~금 오전 8:30	5
19	마녀의 성		월~금 오후 7:20	5
20	마녀보감	JTBC	금, 토 오후 8:00	2
21	또 오해영	tvN	월, 화 오후 11:00	2
22	디어마이프렌즈		금, 토 오후 8:30	2

Ⅲ. 결과분석

1. 양적분석

드라마모니터링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비

등장인물의 성비는 여성이 49.1%, 남성이 50.9%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제작자의 비율은 남성이 66.5%, 작가의 비율은 여성이 67.5%로 성별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1] 드라마 관련자 성비 (단위 : 명)

구분	등장인물		제작자		작가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전체인원	318	100.0	484	100.0	40	100.0
여성	156	49.1	162	33.5	27	67.5
남성	162	50.9	322	66.5	13	32.5

2) 주연(주인공) 연령대

주연배우의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2] 주연배우(주인공) 연령대 (단위 : 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모름	합계
전체인원	2	12	28			2			44
여자주연	1	7	14						22
남자주연	1	5	14			2			22

3) 조연 연령대

각 드라마에서 역할의 비중이 높은 조연배우 2인씩을 뽑아 분석한 결과, 조연배우의 연령대는 주연배우보다 더 넓은 연령대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조연배우와 마찬가지로 30대 배우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 인원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3] 조연배우 연령대

(단위 : 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모름	합계
전체인원	2	6	20	1	8	5	2		44
여자조연	1	2	8		6	2	1		20
남자조연	1	4	12	1	2	3	1		24

4) 직업군

22개 드라마의 주연과 조연의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24개의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 중 사장을 비롯한 회사원이 44명(48.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리 이상의 중간관리자와 대표 중 남성은 19명, 여성은 9명으로 남성이 훨씬 많았다. 그 밖에도 여성은 판매사원, 아르바이트, 주부, 공장노동자 등의 비전문직으로 그려지고, 남성은 자영업자, 의사, 장관, 국회의원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전문직으로 묘사되었다.

[표4] 주요 등장인물의 직업군

(단위 : 명)

직업번호	1	2	3	4	5	7	8	9	10	11	20	22	23	24	25	30	32	34	35	41	43	45	46	99	계	
여주인공		2	2	4	2	1	1		1		1	1	4			1				1				3		22
남주인공	5	5	1	3				1		1			1		1				1						3	22
여자조연		3	2	5				1					5		3	1										20
남자조연	1	7		4				1	1					1	1	2	1	1			1	1			2	24
계	6	17	5	16	2	1	1	3	2	1	1	1	10	1	5	4	1	1	1	1	1	1	1	3	5	90

※직업분류번호
 ① 사장/대표 ② 회사원(팀장/실장/국장/본부장급) ③ 회사원(대리, 과장급) ④ 회사원(평직원) ⑤ 판매사원 ⑥ 안내원 ⑦ 아르바이트 ⑧ 서빙(접객서비스) ⑨ 자영업자 ⑩ 요리사 ⑪ 의사 ⑫ 변호사 ⑬ 검사 ⑭ 판사 ⑮ 경찰(팀장급 이상) ⑯ 경찰(경장/경위) ⑰ 형사 ⑱ 공무원 ⑲ 기자 ⑳ 작가 ㉑ 교수 ㉒ 교사 ㉓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㉔ 무직 ㉕ 주부 ㉖ 연예인/방송인 ㉗ PD ㉘ 스텐디스/스튜어드 ㉙ 무속인 ㉚ 학생 ㉛ 간호사 ㉜ 농부/어부 ㉝ 해녀/해남 ㉞ 국회의원 ㉟ 장관 ㊱ 비서/수행비서 ㊲ 매니저/로드매니저 ㊳ 회장사모님 ㊴ 범죄자(살인/납치/강도) ㊵ 경비원 ㊶ 공장노동자 ㊷ 고시생/재수생/취준생 ㊸ 운동선수/감독 ㊹ 의료인 ㊺ 백수 ㊻ 모름 (99) 기타

5) 주요갈등유발자 및 해결자

주요갈등유발자는 여성이 27명(56.3%), 남성이 21명(43.8%)으로 드라마에서 여성이 갈등유발자로 등장하는 비율이 높았고, 반면 갈등 해결자는 여성이 17명(41.5%), 남성이 24명(58.5%)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표5] 갈등유발자, 갈등해결자 성비

	갈등유발자		갈등해결자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전체인원	48	100.0	41	100.0
여성	27	56.3	17	41.5
남성	21	43.8	24	58.5

6) 성 평등/성 차별적 내용

모니터링 결과 성 평등적 내용은 20건, 성 차별적 내용은 49건으로 성 차별적 내용이 성 평등적 내용보다 2배 이상 많이 발견되었다. 성 차별적 내용 중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남성 의존성향을 강조하는 내용이 20건(44.4%),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이 14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표6]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9	성차별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14	
	현실반영성	7		여성의 주체성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20	
	다양성/대안성	4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4	
				외모지상주의 조장	3	
				여성의 성적대상화	1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1
					선정성	2
합계	20건	합계	45건			

2. 질적분석(내용분석)

1) 성 평등적 내용

여전히 드라마에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여성 캐릭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주체적인 선택을 하는 여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워킹맘 육아대디>(MBC)의 경우 사회적으로 능력 있고 주체적인 아내를 지원하기 위해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남성이 전업주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내 사위의 여자>(SBS)에서는 성 평등적인 혼전계약서 작성을 통해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디어 마이 프렌즈>(tvN)의 주인공들은 70대의 황혼의 여성들이지만 ‘황혼의 걸 크러쉬(Girl crush)’라고 불릴 만큼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받았다.

(1) 주체성

<워킹맘 육아대디>(MBC, 6월 3일, 20회) 방송에서 정현(신은정)이 미소의 편집팀과 줌마렐라 레시피 요리 화보를 촬영하는 도중 남편 혁기(공정환)가 오피스텔을 찾아와 혁기가 “당신이 ‘줌마렐라’라는 건가”라고 하자 정현은 “네. 제가 ‘줌마렐라’예요. 당신과 은솔이 앞에서 당당하게 하려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자신감도 찾았구요. 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일을 통해 주체성을 찾으려 하였다. 또한 앞으로 남편과도 계속 투쟁해나가며 일과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며 살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하여 주체성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줬다.

<디어 마이 프렌즈>(tvN, 6월 3일, 7회)에서 문정아(나문희)와 친구 부부 사이의 입양한 딸이 교수인 남편에게 갖은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하고나서 “나는 이혼한 것이 아니라 해방된 것.”이라는 대사에서도 주변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체성을 찾는 모습과 함께 이혼에 대해 행복을 위한 또 다른 선택임을 표현하였다.

(2) 현실반영성

<내 사위의 여자>(SBS, 6월 1일, 108회)에서 차 부장(박재민)이 진주(한영)와의 ‘혼전계약서’를 쓰는 장면에서 직장 동료들이 보면서 “진주씨랑 이런 것도 써요?”라고 묻자 차 부장이 “그러게나 말입니다. 진주씨가 쓰라고 해서”라며 말한다. 남녀의 결혼에 있어서 ‘혼전계약서’를 통해 서로에 대한 약속과 동의를 확인하는 장면으로 요즘 세대의 현실반영성을 나타내는 장면과 결혼이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양성평등적인 장면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차 부장(박재민)과 진주(한영)가 서로의 혼전 계약서를 읽고 바꿔보며 내용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소통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결혼 전에 각자의 생각과 요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보여졌고, 양성평등적인 요소가 반영되었다.

(3) 다양성/대안성

〈워킹맘 육아대디〉(MBC, 6월 2일, 19회)에서 일목(한지상)은 아내 예은(오정연)에게 구박을 받고 낙담해서 장모 수란(이경진)을 찾아가는데 수란은 그럼에도 사위에게 “식당일은 그만둬, 차 서방. 사위도 내 새끼야. 자네가 버는 만큼 내가 벌어들여 줄게. 맘 편히 가져” 라며 위로하였다. 재혼한 가정의 딸인 예은에게 구박을 받는 입장이지만 딸과 사위를 품에 안으려는 어머니의 모성애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보여주었다.

〈다시 시작해〉(MBC, 6월 2일, 9회)에서 처가살이 하는 사위에게 장인이 “자네 우리한테 얹혀 산적 없어! 우리하고 같이 산거지!”, “부모에게 얹혀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거다.” 라는 표현에서 처가살이, 시집살이가 아닌 함께 사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은 부모님과 함께 살며 신세지는 것을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게 하여 대안적 묘사로 평가되었다.

〈디어 마이 프렌즈〉(tvN, 6월 3일, 7회)에서 문정아(나문희)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윤여정(오충남)의 주관 하에 여성들이 장례를 치른다. 장례는 남성이 주도하는 현실에서 여성들도 장례를 치를 수 있음을 보여 주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2) 성 차별적 내용

모니터링 기간 중에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거나,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남성 의존 성향을 부각시키는 장면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 〈몬스터〉(MBC)에서는 여성이 능력이 아닌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장면을 그려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고 〈가화만사성〉(MBC)에는 가정문제에 대한 결정권이 여자는 수동적이고 남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식의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면이 있었다. 그 외에도 유독 여성에게 외모 지상주의를 강요하였으며, 성차별적·여성 비하적 언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몬스터〉(MBC, 6월 6일, 21회)에서 100억이 넘는 신약의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개발자에게 도도그룹을 소개하고 계약을 맺고자 찾아가 자리에서 대기업 총수의 딸인 도신영(조보아)이 술을 권하거나 윙크를 하며 미인계를 써서 개발자의 눈길과 호감을 사려고 하는 장면이 있었다. 여자들이 사업할 때 미인계를 쓴다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보였다.



▲ 〈몬스터〉(MBC) 6월 6일(21회)

〈다시 시작해〉(MBC, 6월 6일, 11회)에서는 이예린(고우리)이 엄마(박준금)가 아빠에게 맞은 얼굴을 보며 오빠에게 “오빠는 남자가 돼 가지고 엄마가 맞도록 가만히 있었어?”라고 하였다. 폭력을 저지른 아버지를 탓하기 보다는 아버지의 편애로 마음의 상처가 깊은 오빠에게 남자의 성역할을 강조하기만 하였다. 또한 같은 회에서 아버지(전노민)이 아내(박준금)에게 폭력을 행사 하며 “내 집에서 소리 지르지 말고”, “나가”, “더 맞고 싶지! 덜 맞았어!”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내 집’이라는 말은 부부가 함께 사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마치 남편의 집에 얹혀사는 것처럼 표현되었고, 여성이 남성에게 소속된 사람 이라는 고정관념을 나타내었다.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가화만사성〉(MBC, 6월 4일, 29회)에서 어머니인 배숙녀(원미경)가 하룻밤 실수로 혼전 임신을 하게 된 딸의 상대(이강민)에게 “너 내 딸(봉해원)한테 무슨 짓을 한거야? 이제 금방 배불러지면 내 딸 어떻게 할 거냐고?”라며 음식에 머리를 처박으며 때리고 화풀이를 하는 장면이 있었다. 결혼 전 딸의 임신에 대해 성인 남녀의 합의에 의한 결과인데 일방적으로 남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서 성결정권에 있어 여자는 수동적으로 남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식의 착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면이었다.



▲ 〈가화만사성〉(MBC) 6월 4일(29회)

(3) 외모 지상주의

〈운빨 로맨스〉(MBC, 6월 2일, 4회)에서 갑자기 제제 팩토리(회사명)에 나타난 한설희(이청아)와 제수호(류준열)의 관계를 궁금해 하는 직원들의 대화중 외모에만 관심을 갖는 남자 직원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여자의 업무적 능력이나 성격 등의 다른 요소가 아닌 외모가 예쁘면 모든 것이 다 좋다는 식의 남자들의 태도와 ‘여신’이라는 외모만을 부각시키는 성차별적인 언어를 써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었다.

(4) 성차별적 대사

〈워킹 맘 육아대디〉(MBC, 6월 20일, 20회)에서 정현(신은정)이 미소의 편집팀과 줌마렐라 화보를 촬영하는 도중 남편 혁기(공정환)가 오피스텔을 찾아와 “네가 감히 내 얼굴에 먹칠을 해. 네가 감히 날 마누라를 바깥으로 내돌리는 한심한 놈으로 만들어” 하면서 화를 버럭 내고 차린

음식을 던져버린 장면에서 “네가 감히”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하며 여성비하와 남성우월을 강화하는 대사를 사용하였다.

〈그래, 그런 거야〉(SBS, 6월 5일, 34회)에서 대가족의 최고연장자 유종철(이순재)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첫째아들 유민호(노주현)에게 ‘여자는 그저 예쁘다, 예쁘다 해야 좋아해’ 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성차별적 대사였다.

IV. 나가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방송된 22개 프로그램, 68편의 드라마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거나,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남성 의존 성향을 부각시키는 장면들을 종종 있었다. 그 외에도 유독 여성에게 외모 지상주의를 강요하거나, 성차별적·여성 비하적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여성 캐릭터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주체적인 선택을 하는 여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에 대한 대안적 묘사를 통해 건강하고 평등한 관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드라마도 찾아볼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의 제작진에게 성평등 의식을 담아내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제작진이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책임의식을 가지기를 기대해본다.

V. 모니터링 내용

1. 성 평등적 내용²⁾

1) 주체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6월 1일 (68회)	 <p>박민규(김명수)는 미성제과를 소유하려는 야망으로 아들 박선호(지은성)를 미성제과의 손녀 민혜주(정이연)와 결혼 시키려 함. 이에 부인 이영임(최완정)은 아들이 하기 싫은 결혼은 시키지 말자고 엄마로서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함.</p>
KBS2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6월 2일 (69회)	 <p>김계옥(이주실)은 자신의 손녀 민혜주(정이연)가 포함된 경합에서 둘 중 하나의 거짓말로 인해 당락을 판가름할 수 없게 되자 동반탈락을 결정하며 공정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 CEO의 모습을 보여줌.</p>


- 2)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옥중화	6월 4일 (11회)	 <p>극중 기녀 이소정(윤주희)은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윤태원(고수)에게 표현함. 사극임에도 여성은 남성에게 청혼을 받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장면은 독립적인 여성상을 보여줌.</p>
MBC	워킹맘 육아대디	6월 3일 (20회)	<p>정현(신은정)이 줌마렐라 레시피 요리 화보를 촬영하는 도중 남편 혁기(공정환)가 오피스텔을 찾아옴. 혁기가 아내에게 비이냥거리며 믿어 주지 않자 정현은 남편과 아이에게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남편과도 계속 투쟁해나가며 일과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며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며 여자로서의 독립된 주체성을 표현함.</p>
MBC	워킹맘 육아대디	6월 7일 (22회)	 <p>부부 동반 모임에서 정현(신은정)은 남편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에 대해 당당하게 소개하며 자신이 일하는 것에 대한 워킹맘으로서의 자부심을 표현함.</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SBS	미녀 공심이	6월 4일 (7회)	염태희(견미리)는 공심(민아)이 자신의 아들 석준수(온주완)를 유혹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해고함. 공심은 해고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애간장이 잘려 나가는 것’에 비유하면서 쉽게 사람을 자르지 말라고 염태희(견미리)에게 당당히 말함.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도 자신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곳곳하게 자신의 의견을 여성의 피력하는 모습을 보여줌.
SBS	그래, 그런 거야	6월 4일 (33회)	 결혼식 겸 시댁가족과의 식사자리에서 신부 강수미(김정난)가 “저 계속 일할거예요, 해야 해요, 저 한참 일할 수 있어요, 아들이 유학을 가겠다는데 그건 제가 준비 해야죠” 라고 말함. 결혼 이후에도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삶을 꾸려나가려는 여성의 주체성을 보여줌.
tvn	디어 마이 프렌즈	6월 3일 (7회)	 문정아(나문희), 김석균(신구)의 입양한 딸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하고난 후 “이혼한 것이 아니라 해방된 것.” 이라고 표현함. 이혼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또 다른 선택이며 부정적인 인식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임.
tvn	디어 마이 프렌즈	6월 4일 (8회)	“나도 오빠 좋아해, 그러니까 조희자(김혜자)와 여행 가지마”,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라며 이성재(주현)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오충남(윤여정)의 모습에서 사랑의 주체가 되려는 당당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 그려짐.



2) 현실반영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SBS	내 사위의 여자	6월 1일 (108회)	 <p>차 부장(박재민)이 진주(한영)와의 '혼전계약서'를 쓰는 장면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남녀가 결혼생활을 꾸려가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현실을 반영한 장면임.</p>
SBS	내 사위의 여자	6월 2일 (109회)	<p>차 부장(박재민)이 전처에게 진주(한영)의 존재를 알림. “딸에게 내가 만나는 여자 소개시켜줄게, 되게 이빠”라고 말하며 이혼한 전처와 딸, 새롭게 시작하려는 재혼녀를 앞에 두고 거리낌 없이 소개하는 장면은 이혼과 재혼의 양립적인 분위기를 다양한 측면으로 표현함.</p>
SBS	내 사위의 여자	6월 6일 (111회)	 <p>차 부장(박재민)이 진주(한영)을 기다리며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를 하는 모습과, 술에 취한 진주(한영)의 시중을 들고 물을 떠다주려는 모습이 묘사되었음. 양성평등한 남녀의 균형적인 현실을 반영함.</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SBS	내 사위의 여자	6월 7일 (112회)	 <p>영심(이재은)이 시아버지(길용우)의 생일상을 차려 드린다는 말에 식구들이 별로 반기지 않자, 수철(설정환)이 아내의 편을 들며, “머느리가 생일상 차린다고 하면 기특하다, 고맙다, 이래야 하는 거 아냐?” 라며 식구들에게 정색을 하며 이야기 함. 시댁 식구 앞에서 아내가 곤란해 하자, 남편이 아내의 편을 들어 현실적인 상황을 인지시키는 장면임.</p>

3) 다양성/대안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내 마음의 꽃비	6월 2일 (69회)	 <p>이수창(이창우)은 자신이 좋아하는 빵을 개발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입사경합을 치루고 있는 꽃님(나해령)에게 이름을 새긴 계량스푼을 선물함. 맛있는 빵을 먹어봐야 좋은 빵을 만든다며 여러 유명한 빵을 선물하고 응원함. 여성의 도전을 위해 남성이 응원하는 모습을 표현함.</p>
SBS	그래, 그런 거야	6월 5일 (34회)	<p>재혼한 유인호(노주현)와 강수미(김정난)가 신혼여행에서 서로에게 “부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누는 장면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시작하려는 모습이 그려짐.</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워킹맘 육아대디	6월 1일 (18회)	 <p>방글이 집에 놀러온 은솔이는 방글이 아빠(박건형)가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왜 아저씨가 요리해요?”라고 묻고, 방글이는 “우리 집은 아빠랑 엄마랑 요리해”라고 말함. 육아와 요리를 부부가 함께 참여 하는 모습을 표현함.</p>
MBC	워킹맘 육아대디	6월 2일 (19회)	<p>아내 예은(오정연)에게 구박을 받고 낙담한 일목(한지상)은 장모 수란(이경진)을 찾아감. 수란은 사위에게 “식당일은 그만둬. 차서방. 사위도 내 새끼야. 자네가 버는 만큼 내가 벌어들 줄게. 맘 편히 가져” 라며 위로함. 딸과 사위를 품에 안으려는 어머니의 모성애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보여주었음.</p>
MBC	워킹맘 육아대디	6월 3일 (20회)	<p>일목(한지상)은 밤새 아픈 딸을 안고 응급실을 전전한 재민(박건형)의 전화를 받고 재민을 찾아감. “가람이 상태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많이 다녀서 아는데요.” 하면서 야간진료 동네 소아과 병원소개와 함께 산모수첩 준비, 중이염 증상과 치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육아하는 아버지로서의 면모를 나타냄. 남성도 요리 뿐만 아니라 육아를 잘해낼 수 있음을 보여줌.</p>
MBC	워킹맘 육아대디	6월 7일 (22회)	 <p>재민(박건형)과 일목(한지상)은 전업주부로서 녹색어머니 역할을 하며 아이 양육에 심혈을 기울임. 재민은 일목에게 “육아는 돕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걸 온몸으로 실천하시잖아요.”라고 말하며 서로의 육아를 격려하는 장면임.</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tvn	디어 마이 프렌즈	6월 3일 (7회)	문정아(나문희)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오충남(윤여정)의 주도로 여성들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은 장례는 남성이 주도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함.

2. 성 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운빨로맨스	6월 1일 (3회)	제수호(류준열)는 부적을 갖고 회사를 찾아온 엄마에게 “회사로 오지 마세요. 이걸로 엄마가 하고 싶은 쇼핑이나 하고 가세요~”라고 불손하게 말하고, 엄마는 “너 뽀족한 거 하루 이틀이니? 돈 있는 곳에 마음 있다 그랬어. 엄마 니 마음 갖고 간다”며 돈을 받아들고 즐거워 함. 여성을 비인격적인 대우에도 돈만 쥐어주면 좋아하는 모습으로 왜곡함.
MBC	가화 만사성	6월 4일 (29회)	남편 봉삼봉(김영철)은 아내 배숙녀(원미경)의 행동 하나하나 모두 간섭하고 아내를 ‘망구’라고 부르는 등 막말을 하는 모습이 빈번히 등장함. 가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아버지 봉삼봉(김영철)이 하고 아내 배숙녀(원미경)는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식의 설정이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있음.
MBC	가화 만사성	6월 5일 (30회)	배숙녀(원미경)와 봉삼봉(김영철)은 자식의 결혼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봉삼봉은 배숙녀에게 “아~ 답다는 소리 안들려?”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더우니까 시원한 것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름. 자식의 결혼문제를 자신이 결정했으니 그대로 따르라는 봉삼봉의 독선적인 태도와 가사 노동은 당연히 여성의 것으로 여기며 아내를 욕박지르는 가부장적 모습이 그려짐.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좋은 사람	6월 1일 (23회)	 <p>박미선(박정수)이 이영훈(서우진)을 짝사랑하는 차경주(강성미)가 꾸며낸 계략에 따라 아들부부를 이혼시키기 위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불륜 증거를 잡는다며 아들 몰래 스마트폰으로 며느리의 위치 추적을 하는 장면과 대사는 지나친 횡포로 며느리의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일 뿐 아니라 권위적인 시어머니상의 고정관념을 강화함.</p>
MBC	좋은 사람	6월 2일 (24회)	 <p>박미선(박정수)은 아들을 붙들고 “영훈(서우진)아 이 불쌍한 놈, 이 착해빠진 놈,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여자를 만나갖고 아휴 금쪽같은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 나쁜 년 뭐하러 봐? 어? 너 두고 딴 놈하고 눈이 맞아갖고 바람피고 돌아다니는 나쁜 년을”, “막말로 그 애 네 애인지 어떻게 아는데?”라며 며느리(우희진)의 해명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다고 몰아세움. 권위적이며 상식 이하인 시어머니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며느리의 무조건적인 복종과 수동적인 자세를 강요하는 장면임.</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좋은 사람	6월 3일 (25회)	 <p>주인공 윤정원(우희진)이 집에서 앞치마 입은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가사 노동은 마치 며느리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을 조장함.</p>
MBC	다시 시작해	6월 1일 (8회)	<p>나영진(정수영)이 분가를 위해 모은 돈을 남편 박세윤(장서원)이 상의도 없이 자신의 친가에 보낸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을 전해들은 나영진의 친정아버지 나봉일(강신일)은 “그럼 장남 노릇해야지”라고 사위의 편을 들며 장남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드러냄.</p>
MBC	다시 시작해	6월 7일 (12회)	<p>이태성(전노민)이 아내 정미란(박준금)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정신차려, 이 여편네야! 애미라는게 집을 나가네 어찌네 딸래미 간수하나 못해 놓고 어디서 큰소리야!” 라고 함. 부인을 여편네, 개, 애미라는 표현으로 하대하고 딸래미 간수하나 못한 엄마로 표현하며 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엄마의 책임으로 표현함.</p>
MBC	워킹맘 육아대디	6월 1일 (18회)	 <p>은솔(고나희)이가 방글(구건민)이 집에 놀러왔는데 방글(구건민)이 할머니 이혜순(길해연)이 들어오며 “아부터 보내라. 며느리한테 한소리 하러 왔는데 가시나들 떠들면 정신 사나웁다. 얼른 내보내라.”하며 놀러온 은솔(고나희)이를 쫓아냄. 여자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시선과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임. “가시나, 사나웁다”라며 성차별적 언어와 태도, 고정관념을 나타냄.</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워킹맘 육아대디	6월 2일 (19회)	 <p>아이 양육문제로 해순(길해연)이 아들내외에게 나무라는 장면임. 미소(홍은희)가 시어머니에게 거짓말로 육아휴직을 한다고 말하자 시어머니 해순(길해연)은 “아는 엄마가 키워야지. 어디 하늘같은 남편한테 아를 맡기냐”라며 말해 양육은 엄마의 몫임을 강조하였고, 남녀의 수직적 관계를 표현함.</p>
MBC	워킹맘 육아대디	6월 3일 (20회)	 <p>화보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정현(신은정)이 기다리고 있던 남편 혁기(공정환)를 보고 “언제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밥 차릴게요”라고 말함. 하루 종일 일하고 늦게 퇴근했음에도 당연하게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에서 식사준비는 여성의 몫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남.</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몬스터	6월 6일 (21회)	 <p>100억이 넘는 신약의 개발권을 따내기 위한 자리에서 대기업 총수의 딸인 도신영(조보아)은 술을 권하거나 왕크를 하며 미인계를 써서 개발자의 눈길과 호감을 사려고 함. 여자들은 사업할 때 능력이 아닌 미인계를 쓴다는 모습을 여전히 그리고 있음.</p>
SBS	마녀의 성	6월 2일 (117회)	<p>시어머니 서밀래(김선경)는 자신의 아들과 이혼하려는 임신한 며느리 오단별(최정원)에게 “너 우리 강현이랑 이혼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쩔건데?”,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면 우리 핏줄을 어떻게 할 건지 애길 해야 할 것 아니예요?”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친권을 요구함. 아버지가 친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고정관념이 드러남.</p>
Jtbc	마녀보감	6월 4일 (7회)	 <p>허준(윤시윤)을 죽이려 시도한 허옥(조달환)이 허준의 시체를 못 찾아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며, 허옥의 어머니 손씨부인(전미선)이 “(범인을) 못 찾으면 만들면 되지 않느냐?”며 애꿎은 사람을 죽여 범인이라 하라고 권하고 있음. 아들에게 양심을 지키기보다는 남을 해하고 밟아도 된다는 비도덕적인 가치관과 행동을 가르치는 이기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그림</p>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1	별난 가족	6월 1일 (23회)	 <p>동네 이장이 심순애(전미선)에게 관심을 보이자 시어머니인 박복해(반효정)가 “이장이 우리 집 문지방 안 밟게 하려면 얼른 재가해”라고 말함. 다른 남성으로부터의 원치 않는 관심을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독립적 존재로 보지 않고 남성 의존적 존재로 표현하는 것임.</p>
KBS1	별난 가족	6월 1일 (23회)	 <p>설공주(서유정)가 조카 설동탁(신지훈)에게 가슴 뛰는 남자가 생겼다고 하자 고모 나한테 검증받는 거 잊지 마“라고 말함. 여성이 스스로 남자친구를 판단하고 연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남성인 자기한테 검증받으라고 한 것은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한 표현임.</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1	별난 가족	6월 2일 (24회)	 <p>강삼월(김은혜)이 구충재(강서준)가 봉쥬르쇼핑몰 고위직 직원인 줄 알고 그 남자를 통해 쇼호스트가 되려 함. 여성이 자신의 실력보다는 남자의 지위를 이용해 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 것으로 그림으로써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함.</p>
KBS1	천상의 약속	6월 3일 (87회)	<p>강태준(서준영)이 박유경(김혜리)을 도와주는 대가로 장세진(박하나)과의 이혼을 요구함. 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혼을 계획하는 것은 부부관계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짐.</p>
MBC	몬스터	6월 7일 (22회)	 <p>강기탄(강지환)을 좋아하는 오수연(성유리)은 강기탄을 도우려고 하나, 오히려 그녀의 신변을 걱정하는 강기탄(강지환)과 변호사에 의해 보호를 받고 그녀의 노력은 오히려 무력하고 헛수고인 모습으로 그려짐.</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좋은사람	6월 2일 (24회)	 <p>시어머니에게 떠밀려 넘어지고 심한 막말을 들은 윤정원(우희진)과 그 장면을 목격한 윤정원의 언니는 현장을 벗어나 억울함을 토해냄. 시어머니의 잘못을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언니에게 부탁하며 혼자 삭히려 하고, 함께 울기만 하며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그림.</p>
MBC	운빨 로맨스	6월 1일 (3회)	<p>“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종족 번식을 목적으로 한 암컷 수컷의 역할로 인식하는 거 이건 동물 세계의 발정이라고 하죠. 인간은 진화라는 걸 했죠. 이성이란 걸 탑재했죠. 그쪽(심보늬)과는 달리~” 미신을 추종해 호랑이때 남성과 잠자리를 하려는 여자를 발정 난 동물로 비하하고 있음.</p>
MBC	가화 만사성	6월 4일 (29회)	<p>“너 너 내 딸(봉해원-최윤소)한테 무슨 짓을 한거야? 이제 금방 배 불러지면 내 딸 어떡할 거냐고?” 하룻밤 실수로 임신을 하게 된 딸의 상대 이강민(이민우)에게 소리 지르고 때리며 화풀이를 하는 장면으로 성인 남녀의 합의에 의한 결과에 대해 남성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여성의 성결정권을 배제한 반응임.</p>
MBC	워킹맘 육아대디	6월 3일 (20회)	 <p>정현(신은정)이 미소의 편집팀과 줌마렐라 화보를 촬영하는 도중 남편 혁기(공정환)가 오피스텔을 찾아옴. 혁기가 “미친 짓 아니야”라고 하자 정현은 “미친 짓 아니에요. 당신과 은솔이 앞에서 당당하</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감도 찾았구요.”라고 하자 “네가 감히 내 얼굴에 먹칠을 해. 네가 감히 날 마누라를 바깥으로 내돌리는 한심한 놈으로 만들어” 하면서 화를 버럭 내고 차린 음식을 던져버림. “네가 감히”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하며 여성비하와 남성 우월을 강화하는 대사를 사용하였음.
MBC	워킹맘 육아대디	6월 6일 (21회)	남편 일목(한지상)이 재민(박건형)의 아이인 방글(구건민)이의 응급실에 달려가며 챙기는 모습에 화가 난 예은(오정연)은 밤새 야간근무를 하다 아이응급실을 다녀온 방글이 엄마 이미소(홍은희)에게 “내 남편이 베이비시터야? 애 말길 데 없으면 회사 그만둬”라고 퇴사를 종용함. 같은 여성으로서 육아의 어려움을 충분히 앞에도 남편으로 인한 질투로 배려심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편협하게 그림.
MBC	워킹맘 육아대디	6월 7일 (22회)	예은(오정연)은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고서도 가족들에게 “대책을 내놓으라구!” 라고 말하며 문제의 해결을 가족들에게 떠넘김. 자신의 문제를 부모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이 몸에 밴 듯한 여성의 모습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MBC	워킹맘 육아대디	6월 7일 (22회)	 <p>정현(신은정)이 당당히 자신의 일을 피력하자 혁기(공정환)는 “아니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해”하며 인터넷을 뒤짐. 인터넷에 ‘줌마렐라 레시피 베스트셀러 1위’ 라는 기사를 보고 “그 시답잖은 게 베스트셀러라고..나 참~” 하며 혀를 참. 여성의 능력을 의심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었음.</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SBS	그래, 그런 거야	6월 5일 (34회)	 <p>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시부모에게 허락을 구하는 며느리 한혜경(김혜숙)에 대해 시어머니 김숙자(강부자)와 큰 아들 유세현(조한선)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반대함. 여성을 운전조차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로 대할 뿐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자기 의사결정권 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p>
SBS	그래, 그런 거야	6월 5일 (34회)	<p>대가족의 최고연장자 유종철(이순재)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첫째아들 유민호(노주현)에게 '여자는 그저 예쁘다, 예쁘다 해야 좋아해' 라고 얘기함. 여성은 예쁘다고만 하면 다 괜찮다고 여기는 존재로 표현한 여성비하 발언임.</p>
SBS	그래, 그런 거야	6월 5일 (34회)	 <p>이태희(임예진)가 딸의 연애 상대 유세준(정해인)에게 “나한테 나영이(남규리)는 꿈이고 희망이고 내 인생 전부야” 라며 조건 안 맞는 남자랑 교제를 인정 못한다고 함. 빛나간 모성애를 보여주며 성인이 된 딸을 정신적으로 독립 시키지 못하는 유아적 사고와 자녀를 소유물과 대리만족 대상으로 묘사함.</p>
SBS	내 사위의 여자	6월 3일 (110회)	<p>박회장(길용우)이 현태(서하준)와 수경(양진성)을 프랑스로 보낸다는 상황에서 진숙(박순천)이 “현태가 프랑스로 가면, 수경이는 남편 따라 가면 되는거구”, “남편이 가는데 같이 가야지, 무슨 소리야” 전</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문직인 수경의 직업과 능력을 무시하고 남편을 따라야만 하는 남성의 보조적 역할과 성차별, 주체성이 결여된 여성으로 묘사한 장면임.
tvn	디어 마이 프렌즈	6월 3일 (7회)	문정아(나문희), 김석균(신구)의 입양한 딸이 교수인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는 장면에서 여전히 아내를 때리는 현상이 여성의 비하, 무시하는 장면임.
tvn	디어 마이 프렌즈	6월 4일 (8회)	딸이 사위인 교수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안 아버지 김석균(신구)은 법조인인 이성재(주현)와 함께 해결하고 딸에게 손해 배상금을 전달함.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나, 여성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인 남성이 문제해결자로 등장함.
tvn	디어 마이 프렌즈	6월 4일 (8회)	“넌 날 무시해도”, “넌 고맙지 않나?”, “콩치, 밥, 물...” 김석균(신구)이 딸에게 폭력을 하고 이혼한 교수에게 배상금을 받아 딸에게 보내 주고 아내 문정아(나문희)에게 그 사항을 이야기 하며 ‘먹여달라’ 요구하는 내용, 몇 십 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너’라고 표현한 말에서 여성 비하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내가 하녀처럼 밥을 먹여주고 반찬을 먹여주고 물을 먹여주는 것을 바라는 남성 우월적 표현을 하고 있음.


3)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좋은 사람	6월 2일 (24회)	 <p>시어머니의 부당한 구박에 며느리 윤정원(우희진)은 그저 울면서 당하고만 있음. 임신 중인 며느리를 밀쳐서 넘어지게 하고, 이를 목격하고 대응하는 윤정원의 언니 윤정화(명지연)를 말리며 “어머님이 오해가 좀 있었어”라며 오히려 시어머니를 두둔함.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대해 무조건 참고 복종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며느리에 대한 부당한 언어폭력 및 신체 폭력을 정당화하는 장면임.</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좋은 사람	6월 6일 (26회)	 <p>이영훈(서우진)이 장모님에게 신장 이식을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아내 윤정원(우희진)과 나누는 장면에서 시어머니 박미선(박정수)이 나타나서 폭언과 함께 며느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혼절하는 장면은 마치 시어머니가 피해자의 모습처럼 그려짐. 윤정원(우희진)이 시어머니를 걱정하며 남편에게 “난 정말 나쁜 며느리인 것 같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난 독하고 나쁜 년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절대적인 복종을 강화시키며, 수동적 자세로 시어머니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음.</p>
MBC	다시 시작해	6월 6일 (11회)	<p>이에린(고우리)은 엄마 정미란(박준금)가 아빠 이태성(전노민)에게 맞은 얼굴을 보며 “오빠(이선호-윤종훈)는 남자가 돼 가지고 엄마가 맞도록 가만히 있었어?” 라고 말함. 폭력의 가해자인 아버지를 탓하기 보다는 아버지의 편애로 마음의 상처가 깊은 오빠에게 남자의 성역할을 이야기 하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음.</p>
MBC	다시 시작해	6월 6일 (11회)	<p>이태성(전노민)은 아내 정미란(박준금)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내 집에서 소리 지르지 말고 나가!” 라고 말함. 집은 부부가 함께 사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마치 남편의 집에 얹혀사는 것처럼 표현 되었고, 남성에게 소속된 사람이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나타냄. 또한 ‘덜 맞았다’는 표현은 여성이 남성에게 폭력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임.</p>

4) 외모지상주의 조장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운빨 로맨스	6월 2일 (4회)	<p>“그래서 생긴건? 예뻐요?”, “어~완전 여신!”, “진짜?” 한설희(이청아)와 제수호(류준열)의 관계를 궁금해 하는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과거 둘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상관없이</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외모에만 관심을 갖는 남자 직원들의 모습이 그려짐. 여자의 외모가 예쁘면 모든 것이 다 좋다는 식의 남자들의 태도와 '여신'이라는 외모만을 부각시키는 성차별적인 언어를 써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KBS1	별난 가족	6월 6일 (26회)	 <p>도순(김예령)이 설공주(서유정)에게 "이렇게 이쁘고 참한데 왜 아직 결혼도 안 하셨대?"라고 말함. 결혼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이쁘고 참해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여성에게 아름다움을 요구하는 외모지상주의를 나타냄.</p>
SBS	백희가 돌아왔다	6월 7일 (2회)	홍두식(인교진)이 부인을 욕박지르며 "너 지금 나보다 풍채가 더 좋아. 아주 먹는 것만 보면 미친 사람 같어"라고 똥똥한 외모를 비하함. 외모로 여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대사로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길 수 있음.

5) 여성의 성적대상화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SBS	백희가 돌아왔다	6월 7일 (2회)	차중명(최대철)은 자신과 사귀던 양백희(강예원)가 우범룡(김성오)과 사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시비를 걸면서 "우리 범룡이는 비위도 참 좋아. 나는 신발도 말여 남이 신던 거 짹짹해서 신기도 싫던데 말여" 라고 말함. 여성을 신던 신발에 빗대어 표현하고, 특히 양백희가 섬마을의 3명의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 것으로 유추되는 극의 설정상 성경험을 가진 여성에 대한 가치절하의 표현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음.

6)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SBS	백희가 돌아왔다	6월 7일 (2회)	 <p>홍두식(인교진)은 학교 선생님에게 복분자를 선물하며 “우리 집은 이게(복분자) 사시사철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가정의 화목이 유지가 되고”라고 말하고, 카메라 앵글이 남성의 생식기 부분을 비추며 “스쳐도 한 방으로다가.. 보름이 밀으로 형제자매 세 놈이 더 있는 디”라며 복분자의 정력 강화 효능을 설명함. 대사와 영상을 통해 성적이미지를 지나치게 강조함.</p>

7) 선정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좋은 사람	6월 2일 (24회)	차경주(강성미)가 혼자서 와인을 따르는 장면에서 내용전개와는 무관하게 여성의 신체부위(가슴)를 강조하여 보여줌.
SBS	백희가 돌아왔다	6월 6일 (1회)	 <p>중년여성 승객이 여객선 운행을 마친 우범룡(김성오)의 엉덩이를 잡으며 “오빠 수고했다”라고 말함. 불쾌해하는 우범룡의 특정 부분을 노골적으로 내려다보며 “나 오빠 팬이잖아”라고 말하는 부분은 대사와 시선처리 모두 선정적임.</p>

예능·오락 모니터링보고서(8월)

I. 들어가며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예능·오락 프로그램 속 성 평등적, 성 차별적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2016년 8월 1일부터 7일까지 지상파 3사(KBS1, KBS2, MBC, SBS), 종합편성채널(JTBC, 채널A, MBN)과 케이블(tvN)의 30개 예능·오락 프로그램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대상은 각 방송사별 시청률 상위프로그램을 3개씩 선정하였고, 타 방송사에 비해 예능·오락프로그램 개수가 많은 KBS2의 경우 7개를 선정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16년 3월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자문결과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예능·오락
- 모니터링 기간 : 2016년 8월 1일~7일(7일간)
- 모니터링 매체 : TV(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 대상 방송사 : KBS1, KBS2, MBC, SBS, JTBC, 채널A, MBN, tvN
- 프로그램 수 : 30개 프로그램
- 모니터인원 : 9명

[표1]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

no	프로그램명	방송사	요일/시간
1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	KBS2	일 16:50
2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일 16:50
3	개그콘서트		일 21:15
4	언니들의 슬램덩크		금 23:00
5	영화가 좋다		토 10:20
6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월 23:10
7	해피투게더3		목 23:10
8	전국노래자랑	KBS1	일 12:10
9	가요무대		월 22:00
10	열린음악회		일 18:00
11	무한도전	MBC	토 18:20
12	일밤(복면가왕)		일 16:50
13	일밤(진짜사나이2)		일 16:50
14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수 23:10

15	정글의법칙 in 뉴칼레도니아	SBS	금 22:00
16	자기야 - 백년손님		목 23:10
17	토요일이 좋다(3대천왕)		토 16:50
18	토요일이 좋다(오 마이 베이비)		토 16:50
19	이제 만나러 갑니다	채널A	일 23:00
20	나는 몸신이다		수 23:00
21	아빠본색		수 21:30
22	속풀이쇼 동치미	MBN	토 23:00
23	고수의 비법 황금알		월 23:00
24	엄지의 제왕		화 23:00
25	냉장고를 부탁해	JTBC	월 21:30
26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사랑		화 21:30
27	비정상회담		월 22:50
28	삼시세끼(고창편)	tvN	금 21:45
29	집밥 백선생2		화 21:40
30	코미디 빅리그		일 19:40

Ⅲ. 결과분석

1. 양적분석

예능오락프로그램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출연자 성비

출연자의 성비는 여성이 39.3%, 남성이 60.7%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출연자 성비

no	프로그램명	여성(명)	남성(명)
1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	8	7
2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13	11
3	개그콘서트	14	42
4	언니들의 슬램덩크	7	1
5	영화가 좋다	3	4
6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7	11
7	해피투게더3	2	8
8	전국노래자랑	21	16
9	가요무대	9	6
10	열린음악회	4	4

11	무한도전	-	6
12	일밤(복면가왕)	6	11
13	일밤(진짜사나이2)	-	11
14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2	6
15	정글의법칙 in 뉴칼레도니아	2	5
16	자기야 - 백년손님	13	8
17	토요일이 좋다(3대천왕)	6	6
18	토요일이 좋다(오 마이 베이비)	7	9
19	이제 만나러 갑니다	15	9
20	나는 몸신이다	4	5
21	아빠본색	4	5
22	속풀이쇼 동치미	7	7
23	고수의 비법 황금알	8	14
24	엄지의 제왕	4	8
25	냉장고를 부탁해	1	11
26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사랑	2	6
27	비정상회담	-	15
28	삼시세끼(고창편)	-	4
29	집밥 백선생2	-	6
30	코미디 빅리그	12	18
합 계		181명(39.3%)	280명(60.7%)

2) 출연자 성별 연령대

출연자 연령대는 40대가 33.8%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4.9%로 그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전체 추이와 같이 4-50대의 비율이 65.4%로 높았으나, 여성은 3-40대의 비율이 59.7%로 높게 나타났다. (표3 참조)

[표3] 출연자 성별 연령대

(단위 : 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합계
전체인원	18	37	91	156	115	35	9	461
여성	9	20	50	58	30	12	2	181
남성	9	17	41	98	85	23	7	280

3) 성별 역할

주진행자의 경우 남성이 27명, 여성이 11명으로 주로 남성이 예능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4 참조)

[표4] 성별 역할

(단위 : 명)

	주진행자	보조진행자	출연자/초대손님	리포터	기타	합계
전체인원	38	50	355	12	6	461
여성	11	20	139	7	4	181
남성	27	30	216	5	2	280

4) 성별 직업군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22개의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었다. 전문 개그맨/코미디언의 비중이 131명(28.4%)으로 가장 높았고, 가수가 87명(18.8%), 배우가 25명(5.4%), 전문방송인/진행자가 31명(6.7%)로 전문 방송인이 출연하는 비중이 높았다.(표5 참조)

[표5] 출연자의 직업군

(단위 : 명)

직업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8	19	20	21	22	23	99	계
여성	34	23	49	6	12	1	4		2	7			1	5	4		11		7		7	8	181
남성	97	25	38	2	19	3	13	1		7	2	1	3	12	4	1		1	9	3	15	24	280
계	131	48	87	8	31	4	17	1	2	14	2	1	4	17	8	1	11	1	16	3	22	32	461

※직업분류번호

① 개그맨/코미디언 ② 배우 ③ 가수

④ 모델 ⑤ 방송인/전문진행자 ⑥ 변호사 ⑦ 의사 ⑧ 비평가/평론가 ⑨ 언론인(기자 등) ⑩ 요리사/요리연구가 ⑪ 작가 ⑫ 상담사 ⑬ 교수 ⑭ 교육 전문가(교사 등) ⑮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⑯ 학생 ⑰ 일반시청자 ⑱ 회사원 ⑲ 주부 ⑳ 자영업자 ㉑ 운동선수 ㉒ 무직 ㉓ 모름 (99) 기타

5)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성 평등적 내용은 9건, 성 차별적 내용은 14건으로 나타났다. 성 평등적 내용에서는 기존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한 다양성을 표현한 내용이 4건(44.4%)으로 가장 많았다. 성 차별적 내용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거나(5건, 35.7%)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4건, 28.6%)이 많았다. (표6 참조)

[표6] 성 평등/성 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 적 내용	주체성	2	성차별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4
	현실반영성	1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1
	다양성	4		외모지상주의 조장	5
	대안성	2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3
				선정성	1
합 계		9	합 계		14

6)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 내용 수

매체별로는 JTBC의 프로그램에 성평등적 내용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4건, 44.4%), KBS2에 성차별적 내용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4건, 28.6%). KBS2가 다른 방송사에 비해 더 많은 예능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고, 본 모니터링에서도 타 방송사 대비 2배의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한 상황을 감안할 때 KBS2와 tvN, 채널A 등의 방송사와 성차별 내용이 비슷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7 참조)

[표7]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No	방송사 명	성평등	성차별
1	KBS2	2	4
2	KBS1	-	2
3	MBC	-	-
4	SBS	2	1
소계(지상파)		4	7
5	채널A	-	2
6	MBN	-	2
7	JTBC	4	-
8	tvN	1	3
소계(중편,케이블)		5	7
합계		9	14

2. 내용분석

예능오락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적 내용

(1) 주체성

〈정글의 법칙〉(SBS, 8월 5일)에서 최여진은 뉴칼레도니아 자연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도끼로 나무를 직접 자르고 물가에서 직접 신발을 벗고 새우를 잡으러 들어가는 행동과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모델 겸 배우로서 여성미를 극대화했던 평소의 이미지를 벗고 정글에서 먹이를 찾아 숲속을 찾아다니고 거친 일에도 능동적인 모습으로 참여하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글의 법칙〉(SBS, 8월 5일)

〈영화가 좋다〉(KBS2, 8월 6일)에서는 영화 최종분석 코너에서 맥스무비(영화매거진)의 박혜은 편집장이 최근 사극물의 성격의 변화를 분석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기존의 남성 영화평론가 주를 이루던 모습에서 벗어나 해당 분야에 대해 조리 있게 설명하는 장면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화가 좋다〉(KBS2, 8월 6일)

(2) 현실반영성

가상 결혼생활을 콘셉트로 하는 〈님과 함께2 - 최고의 사랑〉(Jtbc, 8월 2일)에서는 가상 아내 김숙이 가상 남편 윤정수의 실제 파산한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며 기를 살려주는 모습이 연출된다. 해외여행을 그리워하나 파산 상황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가상의 남편에게 미니 어처 세계여행을 보내주며 격려하는 모습이 방송되었다. 최근 가장의 실직과 경제적 파산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실의에 빠진 남편에게 힘을 주고 관계를 리드하는 모습은 힘든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나게 하는 여성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님과 함께2 - 최고의 사랑〉(JTBC, 8월 2일)

(3) 다양성

〈자기야-백년손님〉(SBS, 8월 4일)에서는 유혜정 아나운서의 아버지 송영빈이 사위와 함께 아내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아내를 위해 어색함을 감추고 선물을 골라 전하는 모습은 기성세대 남성은 감정과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통념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님과 함께2 - 최고의 사랑〉(Jtbc, 8월 2일)의 가상부부인 김숙·윤정수 커플의 방영분에서는 여행지식이 더 풍부한 아내 김숙이 여행을 기획하며 리드하고, 남편 윤정수는 이러한 아내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남녀의 가상 결혼 생활을 콘셉트로 하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남녀관계를 남성이 주도하는 구도가 공식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성별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어떤 일이든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집밥 백선생2〉(tvN, 8월 2일)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생활 밀착프로그램으로 요식업계의 유명 셰프인 백종원이 혼자 사는 남성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 주는 프로그램으로 요리프로그램에 남성들을 등장시켜 주방이 더 이상 여성의 전유공간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야-백년손님〉(SBS, 8월 4일)



〈집밥 백선생2〉(tvN, 8월 2일)

(4) 대안성

〈비정상회담〉(Jtbc, 8월 1일)에서는 파키스탄 여성의 인권과 관련하여 ‘친족 명예살인’에 관한 대담이 이뤄졌다. 인도 대표 럭키는 파키스탄과 인도의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협적인 문화와 전통을 이야기하며 ‘여성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파키스탄의 ‘말랄라’라는 여성이 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탈레반 총은 맞았지만 제 꿈은 죽일 수 없다’는 외침을 하며 세계적인 여성 인권가로서의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과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여 성 평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감동을 주었다.

또한 캐나다의 양성평등 수준이 높아져 남성들이 역차별을 호소한다는 말에 프랑스 대표 오렐리언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오히려 역차별 해야 돼요. 20~30년 동안 역차별을 통해 평등을 이뤄 나가야합니다”라며 성 평등사회의 정착을 위한 깨어 있는 시각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비정상회담〉(JTBC, 8월 1일)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개그콘서트[배박캔트]〉(KBS2, 8월 7일)에서는 미용실에 간 커플을 등장시키고, 여성이 남성의 말 끝마다 꼬투리를 잡으며 남성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화를 내는 여성에 대한 과장된 모습을 연출했다. 본 코너는 전반적으로 여자를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존재로 그리며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였다.



〈개그콘서트[빼박캔트]〉(KBS2, 8월 7일)

〈삼시세끼〉(tvN, 8월 5일)에서는 요리하는 남성(차승원)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긍정적이거나, 노련한 요리솜씨를 발휘하는 차승원에 대해 자막 등을 통해 ‘엄마’라는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여전히 요리나 가사를 여성의 역할로 규정 짓는 표현이었다.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개그콘서트[남량특집]〉(KBS2, 8월 7일)에서는 남녀가 함께 여행을 하는 상황설정에서 남자는 1박을 하자고 하고 여자는 취소하고 돌아가자 요청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성에 대한 욕구를 바탕으로 남자가 1박을 요구하는 설정에서 여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는 상황은 여성의 거절은 진정한 거절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이 표현한 의사와 상관없이 남성의 뜻을 관철시켜도 된다는 통념이 드러나는 장면으로 문제가 있어보였다.



〈개그콘서트[남량특집]〉(KBS2, 8월 7일)

(3) 외모지상주의 조장

〈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A, 8월 7일)에서는 진행자 남희석이 탈북 탁구선수 정춘희를 소개하며 ‘너무 예뻐서 동네에서 인기 많았을 것’이라며 예쁘다는 감탄사를 연발하였고, ‘예쁜 얼굴’과 ‘고운목소리’ 등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의 자막을 삽입하였다.

〈고수의 비법 황금알〉(MBN, 8월 1일)에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현아가 음식량을 극도로 제한하여 굶는 다이어트를 반복하면 냉한 체질로 바뀌어 신진대사가 저하되면서 많이 먹지 않아도 지방이 축적되는 상태가 되며, 이와 같이 배고프고 추운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 상태를 성냥팔이 증후군이라고 설명함. 후에 최은정 과학교육학 박사가 발언하는 시점에 조형기가 최은정 박사를 ‘성냥팔이 소녀’라고 불렀는데, 이는 최은정 박사의 외모에 대한 평가와 여성의 몸매를 희화화한 한 발언으로 부적절하였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수의 비법 황금알〉(MBN, 8월 1일)

〈코미디 빅리그 [2016 하절]〉(tvN, 8월 7일)에서는 사모님 역할을 맡은 김나희가 뒷편에 나타난 남편 이용진을 거울로 보며 “오빠 왔어?”, “나 뒤통수에 눈이 달려서 오빠 오는 거 다 보이지”라고 말하고, 이용진이 “뒤에서 다 보일만도 하지. 리프팅으로 이마를 뒷목까지 댕겨놨으니”라고 대꾸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김나희의 눈가를 만지는 이용진에게 김나희가 “이거 애교 살이야”라고 하자 “너 좌약이라도 놓은 줄 알았지. 너 계속 실리콘 집어넣다가 죽어서 장기 기증할 때 실리콘 기증해야 돼”하며 성형한 여성의 외모를 과도하게 희화화하고 폄하하였다.

(4)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한 사용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KBS2, 8월 1일)에서는 진행자 신동엽이 ‘다음 생애는 잘생긴 초대 손님 중 한 명으로 태어났으면 한다’, “누구로 할지는 사우나를 같이 갔다가”라고 말하는데, 이후 초대 손님(최태준)과 손 크기를 대어보며 “손 크면 다 크잖아요, 발도 크고”라고 말한 후 “난 다음 생애 너로 정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남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은연중에 연상시키는 멘트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KBS2, 8월 1일)

〈코미디빅리그[할머니]〉(tvN, 8월 7일)에서는 내레이터 모델로 나선 박나래가 선정적 옷차림으로 춤을 추며 ‘할머니 쭈쭈꾸미’라는 대사와 함께 가슴부위를 강조하였다. 가게 사장인 할머니 황제성이 박나래의 뒷태를 보며 “엉덩이가 몇 개예요. 쭈꾸미 홍보해 달라고 했더니 진짜 빨간 쭈꾸미를 보내왔어”라며 말하며 여성출연자의 외모와 성적이미지를 희화화하여 개그소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코미디빅리그[할머니]〉(tvN, 8월 7일)

(5) 선정성

〈가요무대〉(KBS1, 8월 1일)에서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가수(조정민)이 노래하는 장면을 비추며 속옷이 노출될 수 있음에도 아래에서 위로 촬영하였는데, 남자가수에게 활용하지 않는 촬영 기법을 사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요무대〉(KBS1, 8월 1일)

IV. 나가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방송된 30편의 예능오락프로그램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진 시선으로 남성과 여성을 표현하는 등의 성차별적인 내용이 눈에 띄었다. ‘예쁘다’, “여성스러워졌다” 등의 표현을 남발하며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였고, 남녀노소가 함께 보는 프로그램에서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한 사용을 하거나 선정적인 카메라 촬영 등의 문제도 여전했다.

반면 여성들이 남성 의존적인 모습에서 탈피한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모습과, 남성들의 입으로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프로그램도 눈에 띄었다. 대중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예능오락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남녀 성 차별 조장하는데 발휘되기보다 양성 평등한 시민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의식 있는 태도와 실천이 요구된다.

V. 모니터링 내용

1. 성 평등적 내용³⁾

1) 주체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영화가 좋다	8월 6일 (토)	 <p>영화 최종분석 코너에서 맥스무비(영화매거진)의 박혜은 편집장이 최근 사극물의 성격의 변화를 분석하여 조리 있게 설명하는 장면은 기존의 남성 평론가가 주를 이루던 모습에서 벗어나 전문가로서의 여성의 모습을 나타냄.</p>
SBS	정글의 법칙	8월 5일 (금)	 <p>최여진은 뉴칼레도니아 자연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도끼로 나무를 직접 자르고 물가에서 직접 신발을 벗고 새우를 잡으러 들어가는 행동과 여성의 모습을 보여줌. 모델 겸 배우로서 여성미를 극대화했던 평소의 이미지를 벗고 정글에서 먹이를 찾아 숲속을 찾아다니고 거친 일에도 능동적인 모습으로 참여하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줌.</p>

- 3)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2) 현실반영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JTBC	님과 함께2 최고의 사랑	8월 2일 (화)	아내(김숙)는 방송 회차마다 파산한 남편(윤정수)의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며 기를 살려주고, 파산 후 해외여행을 그리워하는 남편(윤정수)에게 미니어처 세계여행을 보내주며 다양한 방식으로 격려함. 최근 가정의 파산과 실직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실의에 빠진 남편에게 힘을 주고 관계를 리드하는 모습은 힘든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나게 하는 여성의 힘을 보여줌.

3) 다양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8월 7일 (일)	 <p>수아(여아)는 민트색 자동차, 대박이(남아)는 핑크색 자동차를 이용하는 모습은 남아는 파란색, 여아는 핑크색만을 선호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기존 장면과 대비하여 다양성을 나타냄.</p>
SBS	자기야 백년손님	8월 4일 (목)	 <p>유혜정 아나운서의 아버지 송영빈은 사위와 함께 아내의 생일 선물을 준비함. 사위를 볼 나이의 어른신으로서 선물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위해 어색함을 감추고 선물을 골라주는 모습은 기성세대 남성은 감정과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통념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보여주는 장면임.</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JTBC	님과 함께2 최고의 사랑	8월 2일 (화)	 <p>만혼 남녀의 가상 결혼 생활을 콘셉트로 하는 기존 프로그램에서는 남성이 주도하는 남녀관계 구도가 공식화 되어 있음. 반면 김숙·윤정수 커플은 여행지식이 더 풍부한 아내(김숙)가 여행을 기획하며 리드하고, 남편(윤정수)은 이러한 아내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줌. 성별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어떤 일이든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관계를 표현함.</p>
tvN	집밥 백선생2	8월 2일 (화)	 <p>요리프로그램에 남성들을 등장시켜 요리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님을 실제적으로 보여줌.</p>

4) 대안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JTBC	비정상회담	8월 1일 (월)	<p>파키스탄 여성의 인권과 관련하여 '친족 명예살인'에 관한 대담이 이뤄짐. 인도 대표 럭키는 파키스탄과 인도의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협적인 문화와 전통을 이야기하며 '여성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노벨 평화상을 받은 파키스탄의 '말랄라'라는 여성이 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탈레반 총은 맞았지만 제 꿈은 죽일 수 없다'는 외침을 하며 세계적인 여성 인권가로서의 주체적인</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삶을 사는 것과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여 성 평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p> 
JTBC	비정상회담	8월 1일 (월)	 <p>각국의 여성인권에 관한 대담 중 캐나다의 양성평등 수준이 높아져 남성들이 역차별을 호소한다는 말에 프랑스 대표 오렐리언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오히려 역차별 해야 돼요. 20~30년 동안 역차별을 통해 평등을 이뤄 나가야합니다”라며 양성평등한 사회의 정착을 위한 깨어 있는 시각과 의지를 보여줌.</p>

2. 성 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 조장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개그콘서트 [빼박캔트]	8월 7일 (일)	 <p>한 커플이 미용실에 간 상황설정에서, 여성이 “오빠 나 앞머리가 있는게 나아 없는게 나아?”라고 물음. 남성은 ‘정신 바짝 차리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들들 볶인다고 혼잣말을 한 후 여성이 만족할 말을 이어가지만 여성은 남성의 말 끝마다 꼬투리를 잡고, 남성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도 화를 내는 여성에 대한 과장된 연출이 이어짐. 갈대 같은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 남자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을 콘셉트로 하는 본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여자를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존재로 그리며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음.</p>
KBS2	해피투게더	8월 4일 (목)	 <p>MC들과 초대손님(김흥국)이 아재들의 행동유형을 소개하며 아재들의 야하고 추잡한 행동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여 희화함. “아재들을 희화화하는 것 아님”이라고 자막처리 하였으나, ‘아재’에 대해 편견을 갖게 만드는 장면 연출을 통해 나이든 남성에게 대한 편견을 조장함.</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SBS	자기야 - 백년손님	8월 4일 (목)	 <p>사위 박형일은 자신의 생일을 장모(박순자)가 기억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섭섭함을 숨기지 못함. 장모는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늦은 저녁상을 차리고 사위를 다독이며 '생일을 몰라줘서 삐쳤나'고 묻고 사위는 '남자가 그런거 가지고 삐칩니까?' 라며 멋쩍게 대답함. 서운함을 느꼈음에도 남자는 생일을 기억해주지 않는 일로는 삐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반영한 표현을 함.</p>
tvN	삼시세끼	8월 5일 (금)	<p>프로그램을 통해 요리하는 남성(차승원)의 모습을 비춰주며 요리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긍정적이나, 노련한 요리솜씨를 발휘하는 차승원에 대해 자막 등을 통해 '엄마'라는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여전히 요리나 가사를 여성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음.</p>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개그콘서트 [남량특집]	8월 7일 (일)	 <p>사귀지 100일이 된 남녀가 함께 여행을 온 상황설정에서 남자는 여자를 펜션으로 이끌고 오고 이에 놀라는 여자에게 “승혜야 우리 오늘 100일이니까 하루만 놀고 가면 안돼?”라며 1박을 요구함. 안</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된다고 말하는 여자에게 “우리 100일이니까 하루만 놀고 가자”고 재차 요구하고, 이어 숙박하게 된 상황에서 남자는 100일 선물로 여자에게 술을 권하고, 이불이 하나밖에 없어서 같이 덮고 자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전개됨. 여자의 숙박 거부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설정은 여성의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남성이 계속 요구하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통념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여성의 주체성이 무시된 장면임. 더불어 여성에게 술을 권하고 한 이불을 덮고 자자고 종용하는 것도 섹스를 목적으로 하는 상황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음.(‘남(男)량특집’은 공포스러운 민박집에서 연인과의 로맨틱한 추억을 기대하는 남자의 심리가 웃음을 자아내는 코너 - 개그콘서트 홈페이지 방송설명 중)</p>

3) 외모지상주의 조장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8월 7일 (월)	 <p>장미란이 영상편지를 보내는 장면. 장미란선수에 대해 현정화는 ‘많이 여성스러워졌다’고 말하고, 이만기는 ‘살이 많이 빠졌다’고 함과 동시에 남희석도 ‘살이 많이 빠졌다’고 말하고 자막으로 ‘한층 여성스러워진 장미란선수’라고 처리함. 영상편지 종료 후에도 올림픽을 땀 흘려 준비하는 남북한의 국가대표를 응원하는 영상편지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여성스러워졌다’, ‘살이 빠졌다’는 장미란선수에 대한 외모평가만 이어졌음. 또한 살이 빠진 상태가 아름다운 상태라는 암묵적인 고정관념을 깔고 있음.</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8월 7일 (일)	 <p>탈북 탁구선수 정춘희가 출연하자 게스트들이 “와 예쁘세요”, “와 너무 미인이시다” 라는 멘트를 연발하고, 남희석(MC)은 “너무 예뻐서 동네에서 인기 많았을 것 같다”, 박은혜(MC)도 “목소리도 되게 예뻐요”라고 하며 ‘예쁜 얼굴’과 ‘고운목소리’ 등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자막 처리됨. 출연자를 외모로 평가는 발언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외모지상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에서의 지나친 외모언급은 지양되어야 함.</p>
MBN	고수의 비법 항금알	8월 1일 (월)	 <p>가정의학과 전문의 박현아가 음식량을 극도로 제한하여 굶는 다이어트를 반복하면 냉한 체질로 바뀌어 신진대사가 저하되면서 많이 먹지 않아도 지방이 축적되는 상태가 되며, 이와 같이 배고프고 추운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 상태를 성냥팔이 증후군이라고 설명함. 후에 최은정 과학교육학 박사가 발언하는 시점에 조형기가 최은정 박사를 ‘성냥팔이 소녀’라고 불렀는데, 이는 최은정 박사의 외모에 대한 평가와 여성의 몸매를 희화화한 한 발언으로 부적절함.</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N	속풀이쇼 동치미	8월 6일 (토)	<p>골프선수인 최홍림에게 어떤 예쁜 여성이 다가와 “최홍림씨에게 골프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라고 묻고, 본인이 아닌 ‘남편이 배우려고 한다’고 답하는 여성에게 최홍림이 “저는 남자는 안가르칩니다”, “저는 이혼녀만 가르칩니다”라고 답했다는 일화를 이야기함. 비록 농담조의 발언이었지만, ‘남자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골프강습 이면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고, 특히 이혼녀만 가르친다는 것은 이혼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존재로 폄하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표현임. 또한 최홍림이 이야기하는 중 “예쁜 여자가 두 명이 앉아 있는거야”, “예쁘니까 보게되잖아요”, “예쁘니까 갔어” 등</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여성의 외모에 대한 발언을 4차례 연이어 했고, '예쁜여자'라는 단어는 무려 14회에 걸쳐 자막처리하며 여성의 외모를 강조함.
tvN	코미디 빅리그 [2016 하네]	8월 7일 (일)	사모님 역할의 김나희가 뒷 편에 나타난 남편 이용진을 거울로 보며 "오빠 왔어?", "나 뒤통수에 눈이 달려서 오빠 오는 거 다 보이지"라고 말하자 이용진이 "뒤에서 다 보일만도 하지. 리프팅으로 이마를 뒷목까지 땡겨놨으니"라고 함. 김나희의 눈가를 만지는 이용진에게 김나희가 "이거 애교살이야"라고 하자 "너 좌약이라도 놓은 줄 알았지. 너 계속 실리콘 집어넣다가 죽어서 장기 기증할 때 실리콘 기증해야 돼"하며 성형한 여성의 외모를 과도하게 희화화하고 폄하함.

4)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1	전국 노래자랑	8월 7일 (일)	  <p>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린이로 분장하여 연극을 하는 중에 “섹시한 율청이 춤을 춰 보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부비부비춤을 춤. 성인이 어린이 분장으로 선정적인 동작의 섹시댄스를 추는 것은 아동과 성적이미지를 결부시키는 점에서 부적절함.</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8월 1일 (월)	  <p>신동엽이 다음 생에는 잘생긴 초대 손님 중 한 명으로 태어났으면 한다고 말하면서 “누구로 할지는 사우나를 같이 갔다가”라고 함. 이후 초대 손님(최태준)과 손 크기를 대어보며 “손 크면 다 크잖아요, 발도 크고”라고 말한 후 “난 다음 생애 너로 정했다”라고 함.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안녕하세요’에서, 남성의 성기를 은연중에 연상시키는 멘트는 부적절함.</p>
tvN	코미디 빅리그 [헬머니]	8월 7일 (일)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 data-bbox="627 745 1382 1014">욕쟁이 할머니 쭈꾸미 식당의 내레이터 모델로 나선 박나래가 선정적 옷차림으로 춤을 추고, ‘할머니 쭈꾸미’라는 대사의 ‘쭈쭈’ 부분에 가슴부위를 강조하는 동작을 하고, 가게 사장인 할머니 황제성이 박나래의 엉덩이 아랫부분의 노출된 허벅지살을 보며 “엉덩이가 몇 개예요”라고 말하는 등 외모와 성적이미지를 자극적으로 표현함.</p>

5) 선정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1	가요무대	8월 1일 (월)	 <p data-bbox="671 1662 1430 1729">가수(조정민)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아래에서 위로 촬영하였고, 이에 속옷이 노출되기도 함.</p>

예능오락 모니터링보고서(9월)

I. 들어가며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예능오락 프로그램 속 성 평등적, 성 차별적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2016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지상파(KBS, MBC, SBS), 종합편성채널(JTBC, 채널A, MBN, TV조선)과 케이블(tvN)의 32개 예능오락 프로그램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대상은 각 방송사별 시청률 상위프로그램을 3개씩 선정하였고 타 방송사에 비해 예능오락 프로그램 개수가 많은 KBS2의 경우 8개를 선정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2016년 3월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자문결과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예능오락
- 모니터링 기간: 2016년 9월 1~7일(7일간)
- 모니터링 매체: TV(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 대상 방송사: KBS1, KBS2, MBC, SBS, JTBC, 채널A, MBN, TV조선, tvN
- 프로그램 수: 32개 프로그램
- 모니터인원: 12명

[표1]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

연번	프로그램명	방송사	요일/시간
1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	KBS2	일 16:50
2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일 16:50
3	개그콘서트		일 21:15
4	연예가중계		토 21:15
5	언니들의 슬램덩크		금 23:00
6	영화가 좋다		토 10:20
7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월 23:10
8	해피투게더3		목 23:10
9	전국노래자랑	KBS1	일 12:10
10	가요무대		월 22:00
11	열린음악회		일 18:00

12	무한도전	MBC	토 18:20
13	일밤(복면가왕)		일 16:50
14	일밤(진짜사나이2)		일 16:50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수 23:10
16	정글의법칙 in 몽골	SBS	금 22:00
17	자기야 - 백년손님		목 23:10
18	토요일이 좋다(3대천왕)		토 16:50
19	이제 만나러 갑니다	채널A	일 23:00
20	나는 몸신이다		수 23:00
21	아빠본색		수 21:30
22	속풀이쇼 동치미	MBN	토 23:00
23	고수의 비법 황금알		월 23:00
24	엄지의 제왕		화 23:00
25	냉장고를 부탁해	JTBC	월 21:30
26	비정상회담		월 22:50
27	삼시세끼(고창편)	tvN	금 21:45
28	집밥 백선생2		화 21:40
29	코미디 빅리그		일 19:40
30	강적들	TV조선	수 23:00
31	궁금한 스타쇼 호박씨		화 23:00
32	애정통일 남남북녀2		금 23:00

Ⅲ. 결과분석

1. 양적분석

예능오락프로그램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출연자 성비

출연자의 성비는 여성이 33.7%, 남성이 66.3%로 남성이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출연자 성비

프로그램명	여성	남성	프로그램명	여성	남성
1박2일 시즌3	-	9	자기야 - 백년손님	9	11
슈퍼맨이 돌아왔다	11	13	토요일이 좋다(3대천왕)	7	5
개그콘서트	11	44	이제 만나러 갑니다	12	10

연예가중계	3	4	나는 몸신이다	4	8
언니들의 슬램덩크	7	1	아빠본색	4	5
영화가 좋다	2	5	속풀이쇼 동치미	8	7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	5	고수의 비법 황금알	6	13
해피투게더3	2	8	엄지의 제왕	6	5
전국노래자랑	2	7	냉장고를 부탁해	1	11
가요무대	9	9	비정상회담	1	14
열린음악회	8	11	삼시세끼(고창편)	-	4
무한도전	1	8	집밥 백선생2	-	5
일밤(복면가왕)	5	12	코미디 빅리그	12	24
일밤(진짜사나이2)	4	8	강적들	1	6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	8	궁금한 스타쇼 호박씨	5	3
정글의법칙 in 몽골	2	5	애정통일 남남북녀2	3	3
합 계				148명 (33.7%)	291명 (66.3%)

2) 출연자 성별 연령대

출연자 연령대는 30대가 30.5%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24.8%로 그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전체 추이와 같이 30대의 비율이 33.7%로 높았으며, 여성은 20대와 30대의 비율이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3] 출연자 성별 연령대

(단위: 명)

구분	10대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전체	12 (2.7%)	12 (2.7%)	81 (18.5%)	134 (30.5%)	109 (24.8%)	57 (13.0%)	17 (3.9%)	17 (3.9%)	439 (100%)
여성	7 (4.7%)	8 (5.4%)	36 (24.3%)	36 (24.3%)	28 (18.9%)	18 (12.2%)	6 (4.1%)	9 (6.1%)	148 (100%)
남성	5 (1.7%)	4 (1.4%)	45 (15.5%)	98 (33.7%)	81 (27.8%)	39 (13.4%)	11 (3.8%)	8 (2.7%)	291 (100%)

3) 성별 역할

주진행자의 경우 남성이 40명, 여성이 21명으로 남성이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로 남성이 예능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4] 성별 역할

(단위: 명)

구분	주진행자	보조진행자	출연자/초대손님	리포터	기타	합계
전체	61	39	328	5	6	439
여성	21	14	109	2	2	148
남성	40	25	219	3	4	291

4) 성별 직업군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21개의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었다. 전문 개그맨·코미디언의 비중이 137명(31.2%)으로 가장 높았고, 가수가 76명(17.3%), 배우가 48명(10.9%), 전문방송인·진행자가 36명(8.2%)로 전문 방송인의 출연비중이 높았다. 성별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 개그맨·코미디언, 가수, 배우 순으로 출연비중이 높았다.

[표5] 출연자의 직업군

(단위: 명)

분류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3	15	16	18	19	20	21	22	23	99	합계
여성	33	19	27	3	12	-	2	-	4	7	-	2	7	4	-	9	-	1	-	10	8	148
남성	104	29	49	2	24	2	14	4	-	9	2	5	16	2	2	-	1	3	1	9	13	291
계	137	48	76	5	36	2	16	4	4	16	2	7	23	6	2	9	1	4	1	19	21	439

※ 직업분류번호

- ① 개그맨/코미디언 ② 배우 ③ 가수 ④ 모델 ⑤ 방송인/전문진행자 ⑥ 변호사 ⑦ 의사 ⑧ 비평가/평론가
 ⑨ 언론인(기자 등) ⑩ 요리사/요리연구가 ⑪ 작가 ⑫ 상담사 ⑬ 교수 ⑭ 교육 전문가(교사 등)
 ⑮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⑯ 학생 ⑰ 일반시청자 ⑱ 회사원 ⑲ 주부 ⑳ 자영업자 ㉑ 운동선수
 ㉒ 무직 ㉓ 모름 (99) 기타_____

5) 성평등 / 성차별적 내용

성평등적 내용은 4건, 성차별적 내용은 8건으로 분석됐다. 성평등적 내용에서는 여성의 주체성을 표현한 내용이 3건(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차별적 내용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내용(4건, 50%)이 가장 많았다.

[표6] 성평등 / 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3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
	현실반영성	1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2
			외모지상주의 조장	4
	다양성	-	여성의 성적대상화	-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2
대안성	-	선정성	-	
		기타	-	
합계		4	합계	8

6) 방송사별 성평등 / 성차별적 내용 수

성평등적 내용은 KBS, MBC, JTBC, TV조선에서 각 1건씩으로 나타났고 성차별적 내용은 KBS가 3건(37.5%)으로 가장 많았다. KBS가 다른 방송사에 비해 더 많은 예능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고, 본 모니터링에서도 타 방송사 대비 2배의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한 상황을 감안할 때 tvN, TV조선도 성차별 내용(각 2건, 25.0%)이 많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7]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건)

연번	방송사	성평등	성차별
1	KBS	1	3
2	MBC	1	-
3	SBS	-	-
소계(지상파)		2	3
4	채널A	-	-
5	MBN	-	1
6	JTBC	1	-
7	tvN	-	2
8	TV조선	1	2
소계(중편,케이블)		2	5
합계		4	8

2. 질적분석

예능오락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적 내용

(1) 주체성

〈진짜 사나이(해군부서관 특집)〉(MBC, 9월 4일)에는 진짜 사나이 해군부서관 특집에 출연한 여성 출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타 방송에서의 나약하거나, 남성에게 의존적으로 표현되던 여성의 모습이 아닌 ‘구보를 즐기는 건강한 여성’의 모습을 표현해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정상회담〉(JTBC, 9월 5일)에서는 범죄심리학 교수이자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가 출연했다. 이수정 교수는 범죄심리라는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안건으로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2) 현실반영성

〈슈퍼맨이 돌아왔다〉(KBS2, 9월 4일)에는 공동육아구역 세 친구네에 출연하고 있는 양동근, 오지호, 인교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당일에는 세 아빠의 아버지가 출연해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이 방영되어 평소 과묵하고 근엄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그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줘 변화된 아버지 상을 잘 그려내고 있다.

2) 성차별적 내용

(1)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애정통일 남남북녀 시즌2〉(TV조선, 9월 2일)에서는 가상 커플인 김은아·양준혁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김은아 아버지의 일을 돕는 장면에서 ‘부글’이라는 자막과 함께 양준혁이 밖에서 쉬고 있는 김은아의 머리를 쥐어박고, 말실수를 한 김은아에게 “너 미친거 아니야?” 라고 질책하거나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김은아에게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이는 모션을 취하고 다리로 차려는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등 가상 커플의 콘셉트에서의 애정표현으로 보기에 언어, 행동 면에서 여성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모습이 다수 연출되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2) 외모지상주의 조장

〈1박 2일〉(KBS2, 9월 4일)에서는 게스트로 나온 박보검과 1박 2일 멤버들을 비교하며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반인을 상대로 용돈을 버는 게임에서 손바닥 마주치기 게임을 하는데, 데프콘이 마주 서자 얼굴로 선제공격을 한다며 못생긴 얼굴을 무기로 표현한 데 비해 게임 중 여성이 뒤로 밀려 박보검이 잡아주자 꽃잎을 CG로 넣고, 배경음악까지 넣어 비교했다. 또한 ‘못생김 주의’, ‘얼굴 금수저’, ‘돼지’ 등의 자막을 사용해 외모를 비교, 비하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그콘서트 [가족같은]〉(KBS2, 9월 4일)에서는 김준호가 교통사고가 난 딸 이수지에게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냐고 화가 나서 물어보는 상황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인 안젤리나(예쁜 여자)가 들어오자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상황이 그려졌다. 이는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는 여성의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예가중계〉(KBS2, 9월 3일) 김태진 리포터가 애니메이션 〈달빛궁궐〉 목소리를 연기한 이하늬, 권율, 김슬기의 이미토크를 진행하면서 학창시절에 가장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 사람을 질문했다. 대답을 하는데 그 답의 이유가 “실물이 진짜 예뻐요”, “어쩔 저렇게 피부가 예쁜지 남자들이 엄청 많이 대시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잘 생겼으니까” 등으로 인기의 이유를 ‘외모’로 뽑았다. 인기가 많은 기준을 오로지 외모로 꼽으면서 사회적 기준의 미에 충족한 사람이 인기가 있을 것이라는 표현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3)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속풀이쇼 동치미〉(MBN, 9월 3일)에서는 최은경이 남편이랑 이견 참 잘 맞는다 하는 게 있느냐고 질문하자 옆자리에 앉은 유인경이 “불만 끄면 다 잘 맞아”라고 대응한다. 이어서 김지선이 “우리는 환한 데서는 안 맞아”, “불 끄고 안보여야 이렇게 (더듬더듬) 해야 맞아”라고 한 것은 노골적으로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또한 정주리와 최은경의 부적을 소재로 대화하던 중에 아이가 없는 정주리에게 시어머니로 분한 최은경이 “이것들이 뭘 하나 싶어 귀를 대봐도 소식 없고”라고 한 부분은 부부가 한방에 있을 때 뭔가 성적인 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들려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였다.

IV. 나가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방송된 32편의 예능오락프로그램에서는 남성, 여성 구분 없이 ‘돼지’, ‘못생김 주의’, ‘얼굴 금수저’, ‘얼굴이 예쁘면 다 용서된다’ 등 외모에 대한 지적과 발언으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표현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다.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발언과 여성의 외모와 신체에 대해 이야기하며 희화화하고 개그의 소재로 삼는 문제들도 여전했다.

반면 나약한 여성의 모습이 아닌 건강한 여성의 모습을 비추고, 여성으로서의 주체적인 모습과, 전문가로서 지식과 전문성을 드러내는 여성의 모습은 양성평등에 있어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과묵하고 근엄한 아버지에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모습을 보며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화된 아버지상을 보여주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모습 등 현실을 잘 반영해 보여주기도 했다.

예능오락 프로그램 특성상 재미만을 추구하여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그대로 방영하는 경우가 많다. 예능오락 프로그램은 대중에 많은 관심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자와 출연자들은 양성평등한 대중문화 형성에 있어 책임감을 갖고 양성평등 의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


V. 모니터링 내용

1. 성 평등적 내용⁴⁾

1) 주체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진짜 사나이 (해군 부사관 특집)	9월 4일 (일)	 <p>해군 부사관들과 여성출연자들이 구보를 하는 모습을 통해 나약한 여성이 아닌 의욕적이고 활기찬 여성의 모습을 그림</p>
JTBC	비정상 회담	9월 5일 (월)	 <p>범죄심리학 교수이자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가 출연하여 범죄심리학은 독특한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안건으로 다룸.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례들에 폭넓은 지식과 해박함을 갖춘 논리로 접근하는 모습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여성의 모습을 보여줌.</p>

- 4)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TV 조선	궁금한 스타쇼 호박씨	9월 6일 (화)	 <p>사미자는 현재 3대가 같이 살고 있다는 자신의 가족상황을 이야기 하며 “나는 가장이다.”, “오늘도 할 일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 엄마, 할머니로 살고 있다고 말함. 가장은 남성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줌.</p>


2) 현실반영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9월 4일 (일)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출연자(양동근, 오지호 등)들의 아버지가 방송을 통해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이 방송됨. 과묵하고 근엄했던 아버지들이 자녀에 대한 속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출연자들은 이를 보며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모습이 방영됨. 남성육아를 통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출연지들과 과묵하고 애정표현을 절제해 왔던 아버지들의 모습이 대비되며 변화된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냄.


2. 성 차별적 내용



1)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tvN	코미디 빅리그 [love is 원들]	9월 4일 (일)	 <p>남녀가 처음 만난 소개팅장면에서 양세찬이 다리를 드러낸 짧은 바지를 입은 장도연의 다리를 쳐다보며 “도연씨 미인입니다. 피부도 고우시구 ‘다리도 매끈거리니 아주 좋습니다”라는 성희롱적 발언을 함. 또한 장도연의 등장 시 “모델 뺨치는 기력지에 8등신 미녀”라며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는 발언을 함.</p>
TV 조선	애정통일 남남북녀 시즌2	9월 2일 (금)	김은아·양준혁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김은아 아버지의 일을 돕는 장면에서 ‘부글’이라는 자막과 함께 양준혁이 밖에서 쉬고 있는 김은아의 머리를 쥐어박고, 말실수를 한 김은아에게 “너 미친거 아니야?” 라고 질책함. 양준혁은 김은아가 자신의 말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잘 듣지 않는다며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이는 모션을 취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자막(자막에 하트를 그려 넣음)을 띄우기도 함. 노래방에서 몸으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장면에서는 양준혁을 똑같이 따라하는 김은아를 다리로 차려는 폭력적 행동을 보이기도 함. 가상 커플의 콘셉트에서의 애정표현으로 보기에 언어, 행동 면에서 여성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모습이 다수 연출됨.</p> 

2) 외모지상주의 조장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1박2일	9월 4일 (일)	 <p>일반인을 상대로 용돈을 버는 게임에서 손바닥 마주치기 게임을 하는데 데프콘이 마주 서자 얼굴로 선제공격을 한다며 못생긴 얼굴을 무기로 표현함. 김종민이 미스트를 뿌리는 장면에서도 '못 생김주의'라는 자막을 사용했고, 데프콘과 김준현은 뚱뚱한 체형을 빗대 '돼지'로 표현하는 등 외모에 대한 비하표현을 사용함.</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이에 반해 박보검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박보검을 보고 좋아하는 장면이나, '얼굴 금 수저로 태어나'라는 자막을 사용하며 출연자들의 외모를 과하게 비교하여 연출함. 또한 출연자들이 일반인과 함께 손바닥 마주치기 게임을 하는 장면에서 '이 소녀는 앞으로 당분간 괜한 남자들이 오징어로 보입니다'라는 자막으로 훌륭한 외모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오징어'라는 단어로 폄하함. 이는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외모지상주의의 조장 표현임.</p>
KBS2	개그 콘서트 [가족같은]	9월 4일 (일)	 <p>김준호가 교통사고를 당한 딸에게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냐고 화가 나서 물어보고, 교통사고를 낸 사람인 '예쁜 여자'가 등장하자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모습이 연출됨. 예쁘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는 외모지상주의를 강화하는 장면임.</p>
KBS2	연예가 중계	9월 3일 (토)	<p>이하늬, 권율, 김슬기와의 이미지토크에서 학창시절에 가장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일 것 같냐는 질문에 세 명이 각각 답함. 각 응답의 이유로 "실물이 진짜 예뵤요", "어쩜 저렇게 피부가 예쁜지 남자들이 엄청 많이 대시했을 것 같아요",</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누가 봐도 잘 생겼으니까” 등 인기의 이유를 ‘외모’로 뽑음. 인기의 이유를 ‘외모’로만 언급하며 사회적 미의 기준을 충족할 때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고착화 된 외모지상주의 관념을 드러냄.</p> 
tvn	코미디 빅리그 [엑스트라]	9월 4일 (일)	<p>김완배가 이한별에게 연예인 한예슬을 닮은 것 같다고 하자 이세영이 “저는요”라고 물어봄. “개그우먼. 이세영”이라는 김완배의 대답에 이세영이 “요즘 가장 잘나가는 핫셀럽요. 머리도 좋고 몸매도 좋고 엉덩이가 작고 예쁘다는 그 여자요”라고 하자 김완배가 “이세영 못생겼잖아요” 라고 말함. 그러자 이세영이 “이세영이 어때. 이 새끼야”하며 이완배의 뺨을 때림.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고 예쁜 여자와 못생긴 여자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구도의 개그가 이어져 아쉬움. 남자로부터 예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애쓰는 여성과, 기대했던 평가를 받지 못했을 때 분노하는 여성의 모습도 예쁜 외모를 강요당하는 외모지상주의적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음.</p>

3)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N	속풀이쇼 동치미	9월 3일 (토)	<p>‘남편이랑 이걸 참 잘 맞는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느냐’는 MC의 질문에 유인경이 “불만 끄면 다 잘 맞아”라고 대응하고 김지선이 이어서 “우리는 환한 데서는 안 맞아” “불 끄고 안보여야 이렇게 (더듬더듬) 해야 맞아”라고 말해 성적이미지를 노골적으로 연상시킴. 최은경이 아이가 없는 며느리 정주리의 시어머니를 가상으로 연기하며 “이것들이 뭘 하나 싶어 귀를 대봐도 소식</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없고”라고 표현하며 부부관계 시 내는 소리를 연상케 하거나, 오경수가 “우리도 불 끄면 괜찮아요” 라고 하는 등 선정적인 발언들이 이어짐.</p> 
TV 조선	궁금한 스타쇼 호박씨	9월 6일 (화)	<p>윤영미는 집으로 귀가하자마자 탈의 후 속옷만 입고 욕실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남편이 위아래로 본다고 말하고, 또한 사미자가 젊었을 때 남편이 욕실 문을 열고 씻으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을 자막으로 처리하는 등 부부사이의 성적인 모습을 표현함.</p> 

인터넷기사 모니터링보고서(6월)

I. 들어가며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인터넷 언론 속 성 평등적, 성 불평등적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2016년 6월 1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일간지와 인터넷신문사 등 35개 매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포털사이트 내 언론기사
- 모니터링 기간 : 2016년 6월 1일~7일(7일간)
- 모니터링 매체 : 네이버 뉴스스탠드 내 35개 매체
- 모니터인원 : 13명

[표1]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

No	매체명	No	매체명
1	KBS	19	뉴시스
2	MBC	20	이데일리
3	SBS	21	노컷뉴스
4	서울신문	22	오마이뉴스
5	경향신문	23	프레시안
6	국민일보	24	MBN
7	동아일보	25	뉴데일리
8	한국일보	26	미디어오늘
9	중앙일보	27	스포츠동아
10	세계일보	28	스포츠조선
11	파이낸셜뉴스	29	일간스포츠
12	매일경제	30	SPOTAL KOREA
13	헤럴드경제	31	ZDNET KOREA
14	아시아경제	32	디지털타임스
15	머니투데이	33	OSEN
16	코리아타임스	34	전자신문
17	코리아헤럴드	35	아이뉴스24
18	YTN	합계	총 35개

Ⅲ. 결과분석

1. 양적분석

포털사이트 내 언론기사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성 평등적 내용은 24건으로 성 차별적 내용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적 내용에서는 주로 성폭력에 관대한 처벌현황과 남녀 불평등의 현실 등에 대해 다루거나 공론화하는 현실반영성 기사의 비중이 10건(41.7%)으로 가장 높았다. 성 차별적 내용은 여성을 성적대상화 하거나(22건, 39.3%) 선정적인 내용(18건, 32.1%)이 주를 이루었다.

[표2]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3	성차별 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1
	현실반영성	10		여성의 주체성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1
	다양성	2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1
				외모지상주의 조장	3
				여성의 성적대상화	22
	대안성	9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8
				선정성	18
			기타	2	
합계	24건	합계	56건		

2) 매체별 성평등/성차별 기사 수

매체별로는 경향신문이 성 평등적 기사를 가장 많이 다루었고(10건, 41.7%), 헤럴드경제에 성차별적 기사가 가장 많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12건, 21.4%). 코리아타임스(7건), 헤럴드코리아(6건), 중앙일보(5건) 등 스포츠신문 뿐만 아니라 일반신문의 성차별적 기사게재 현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No	매체명	성평등	성차별	No	매체명	성평등	성차별
1	KBS			19	뉴스스	1	1
2	MBC	1	1	20	이데일리	2	2
3	SBS		1	21	노컷뉴스		
4	서울신문			22	오마이뉴스	1	
5	경향신문	10	1	23	프레시안		
6	국민일보	2	2	24	MBN		1
7	동아일보	1	1	25	뉴데일리		
8	한국일보	1		26	미디어오늘		
9	중앙일보		5	27	스포츠동아		
10	세계일보	1	4	28	스포츠조선		2
11	파이낸셜뉴스	1		29	일간스포츠		5
12	매일경제			30	SPOTAL KOREA		
13	헤럴드경제		12	31	ZDNET KOREA		
14	아시아경제		1	32	디지털타임스		
15	머니투데이	3		33	OSEN		4
16	코리아타임스		7	34	전자신문		
17	코리아헤럴드		6	35	아이뉴스24		
18	YTN			합계		24건	56건

2. 질적분석(내용분석)

1) 성평등적 내용

(1) 주체성

〈'올해 만 80세' 세계 최고령 승무원〉(MBC, 6월 5일) 에서는 보통 항공사 승무원이라고 하면 젊은 여성을 떠올리는데 현재 만80세로 승무원으로 근무한 지 59년이 된 '베티 내쉬'를 소개하였다. 처음 승무원 생활을 시작한 게 1957년으로 승무원들의 복장과 기내 풍경이 세월과 함께 바뀌었지만 할머니는 늘 제자리에서 묵묵히 일해 왔음을 강조하여 자신의 일에 충실한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 <'올해 만 80세' 세계 최고령 승무원>



▲ <한국군 女중위, 남자도 찢찢매는 한·미 '최정예 전투원' 됐다>

<한국군 女중위, 남자도 찢찢매는 한·미 '최정예 전투원' 됐다>(동아일보, 6월 6일)에서는 한국군과 미군의 '최정예 전투원' 자격을 모두 취득한 30사단 예하 기계화보병대대 소대장 정지은 중위(26)를 소개하였다. 체력검정, 사격, 편제화기 및 장비운용, 개인 전투기술, 전투지휘, 급속 행군 등의 평가과목이 있는 테스트에서 85명중 4명의 합격자인 정 중위는 "한국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힘들 때마다 사단의 구호인 'I can do!'를 되뇌며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소감을 말하였는데 '여군'이 아닌 '군인'의 당당함과 주체성을 부각시킨 기사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해외 음악인들, '여혐'에 맞서다>(한국일보, 6월 6일)는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비윤세의 '레모네이드' 65분 영상 상영회에서 비윤세의 음악팬들이 영상 속 비윤세가 던진 여성의 인권과 연대에 주목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 뉴스는 '강남역 묻지마 살인'을 계기로 여성혐오가 국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여성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거리를 던진 의미가 있었다. 영상 속에는 여러 흑인 여성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성의 연대를 통해 그들에 가해지는 세상의 보이지 않는 폭력을 극복하자는 은유로 보이며 "레모네이드" 영상

을 보면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 등 흑인 여성 스타들이 카메오로 나오고, 남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나온다"며 "이는 여성들이 스스로 주체임을 인식하고, 연대를 통해 여성의 힘을 키워 위기를 헤쳐나가는 상징"이라는 흑인음악평론가 박준우씨의 코멘트도 덧붙여 여성의 주체성 주장과 함께 여성 이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2) 현실반영성

〈"못사는 나라 출신처럼 무시" 자존감 상처입은 탈북女 아내들〉(머니투데이, 6월 6일)에서 올바른 남북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지혜를 발휘해 보고자 기획한 기사였다. 북한 이탈주민인 40대 여성 김지영 씨가 수년 전 가정을 꾸렸으나 "남편이 나를 마치 같은 한국 사람이 아닌 '못사는 나라' 사람처럼 무시해요. 말끝마다 북한 출신 운운하며 무시하는 건 다반사고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꾸준한 탈북자 유입으로 '남남북녀' 결혼 사례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의식수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면밀히 지적하며 분단사회인 대한민국에서 탈북민 여성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고자 노력한 기획기사로 탈북 여성에 대한 현실반영성이 두드러졌다.

또한 〈'집안 망한다'던 시댁 "편견이었다" 北〉에서 온 다둥이 엄마〉(머니투데이, 6월 7일)는 북에서 두만강을 건너온 다둥이 엄마 이해정 씨를 소개하였는데 그녀는 남편의 집안에서 "탈북자가 들어오다니, 집안이 망했다"며 결혼을 뜯어 말렸고 결국 혼인신고만 한 채 곧바로 신혼살림을 꾸려야 했는데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시어머니는 "차라리 동남아 여성이 낫다"며 반대했고, 남편의 형은 찾김에 "이혼하지 않으면 신혼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까지 하여 견디지 못하고 이씨는 합의 이혼(서류상 이혼)을 하였으나 "이를 악물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라고 하며 힘겨운 일상을 조금이라도 잊어 보려고 각종 자격증을 닦치는 대로 공부하고 세무 관련 자격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까지 한꺼번에 따내어 일을 병행하며 아이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있었다. "남편이 저와 함께 여기까지 잘 걸어와 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편견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날만 남은 아내로서, 엄마로서 사회인으로서 소박한 바람을 말하는 혜정씨의 사례를 다룬 기사는 사회적 편견을 깨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이슈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긍정적 기사였다.

(3) 다양성

〈페이스북·트위터 등 EU 혐오발언 금지협약에 "좋아요"...한국은?〉(경향신문, 6월 4일)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대기업들이 유럽연합(EU)과 손잡고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를 부추기는 혐오발언(헤이트 스피치) 축출에 나선 것을 소개하면서 페이스북 코리아가 '여혐(여성혐오)'엔 관대한 반면 페미니즘적인 콘텐츠와 이를 게시하는 사용자는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 해외와 우리나라의 대응방법을 비교하였다.

〈'극과 극' 한국여성 지위 글로벌 통계, 어떻게 봐야 할까〉(경향신문, 6월 4일)에서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통해 수많은 여성들이 불안을 느끼며 사회적 현상 또는 집단행동으로 발전한 이유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인간개발의 측면에서는 성불평등이 개선됐지만 남녀 간 격차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특히 타국의 개선상황에 비해 한국은 남녀 간 격차가 더 크다는 것을 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와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의 통계를 들어 보여주었다. 더불어 수치 개선보다는 실질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여성 이슈에 대한 대안성을 보여주었다.



▲ 〈"서비스 소장에 컨설팅팀" 주유소 기름만 파는 곳 아녜요〉

〈"서비스 소장에 컨설팅팀" 주유소 기름만 파는 곳 아녜요〉(머니투데이, 6월 5일)는 현대 오일뱅크가 4월 CS 분야 여성 경력자 6명을 영입해 서울, 인천, 등 6개 직영주유소에 소장으로 배치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여성 소장들은 작업용 점퍼와 같은 기존 유니폼 대신 호텔이나 항공사에서 볼 수 있는 정장 유니폼을 착용하고 일을 하는데 여성 주유원을 새로 뽑은 신사 현대 오일뱅크 소장은 "여성 주유원들의 친절한 말 한마디에도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면서 "앞으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정유업계라는 영역에 여성소장과 직원이 투입되고 서비스라는 측면이 부각된 점, 정유라는 업종에 여성과 남성의 영역이 파괴된 다양성이 돋보여 다양성과 대안성을 함께 볼 수 있는 성 평등적 기사였다.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스물아홉 즈음에〉(MBC, 6월 1일)는 젊은 세대들의 고민에 대한 인터뷰를 포함한 기사에서 남성들의 대답은 '일'이나 '미래', '비전' 같은 거시적인 고민 위주인 것에 반해, 여성들의 대답은 '결혼'이나 '가정' 같은 미시적인 고민 위주로 작성된 기사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 〈스물아홉 즈음에〉

〈교육부 "신규 여교사 도서벽지 발령 자제 검토"〉(MBC, 6월 5일)는 최근 전남 신안의 한 섬에서 여교사가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오는 7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기사로 교육부는 도서 벽지에 근무하는 여교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 조사하는 한편, 여교사들을 도서 벽지에 가급적 신규 발령하지 않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인사권은 교육청에 있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여교사의 신규 발령은 지양하도록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 여성은 약하고 남성은 강해야 함을 부추기고 남성은 낙후된 곳에 발령되어도 된다는 성차별적인 인식을 보이는 기사였다.

(2) 여성의 주체성 무시/남성 의존 성향 강조

〈당적 넘어 뭉친 '박근혜 대통령과 등진 남자들'〉(동아일보, 6월 6일)은 국회 연구단체 '어젠다 2050'를 한때 박근혜 대통령과 한배를 탔다가 지금은 뿔뿔이 흩어진 김종인, 김성식, 유승민, 김세연 의원이 다시 모여 만든다는 기사였다. 기사 제목에 '대통령의 남자들'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으로의 직분보다는 여성성을 부각하고 여성과 남성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의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3)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김현중 측, "폭로 없었으면 송중기 이상 벌 수 있었다"〉(헤럴드경제, 6월 3일)에서는 성폭력 피해 여성이 오히려 가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다. 성폭력을 정당화하고, 피해여성에게 책임을 넘기는 등 우리사회의 부족한 인권 감수성을 드러낸 기사였다.

(4) 외모지상주의 조장

〈'백년손님' 김원준 14세 연하 검사 아내 사진 공개 '미모가 눈부셔'〉(경향신문, 6월 4일) 기사의 아시아경제 메인화면 제목은 〈'14세 연하 검사' 김원준 아내 얼굴 사실...〉인데, 기사 제목은 〈'백년손님' 김원준 14세 연하 검사 아내 사진 공개 '미모가 눈부셔'〉로 실제 내용과 상반되는 것으로 제목을 뽑고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하였다. 더불어 외모는 사람마다 다를 뿐인데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예쁘다'의 기준에 맞춰 김원준 아내의 미모가 눈부시다고 말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외모를 하나의 실력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었다.

(5) 여성의 성적대상화

〈[영상] 국내 레이싱걸 인기순위 TOP 10〉(코리아타임즈, 6월 1일~6일)에서는 “자동차 박람회 꽃이라 불리는 레이싱걸들의 순위를 소개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많은 남성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는 기사 내용과 동영상이 게재되었는데 여성의 신체를 부각시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하며 남성적 시각에서 여성을 상품화하고 있었다.

(6)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NS 윤지, 남심 초토화시키는 '역대급 뒤탈'〉(일간스포츠, 6월 5일)에서는 NS윤지의 '환상적인 뒤탈'라는 선정적 타이틀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수영복 입은 뒷모습을 게재하여, 여성의 몸을 성적 이미지 대상화, 성상품화 하였다. 특히 '남심을 초토화'시킨다는 문장으로써 여성의 몸이 남성에게 이미지화되는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 〈NS 윤지, 남심 초토화시키는 '역대급 뒤탈'〉



▲ <전효성, 샤워가운 입고 침대에서... '남심 초토화'>

<모델 장아원, 압도적인 여신 포스에 '숨뿔'>, <전효성, 샤워가운 입고 침대에서... '남심 초토화'> (일간스포츠, 6월 1일) 기사에는 부산 국제 모터쇼의 모델 장아원을 소개하면서 성적 이미지의 사진만 게시하고 다른 경력이나 소개는 전혀 없었다. 또한 '여신'이라는 성차별적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실력이 아닌 외모로 모델의 이미지를 고착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사에서는 전효성이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을 소개하며 그녀의 근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적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사진과 제목의 글을 기사화하였다.

(7) 선정성



▲ <성관계 맺기 전에 하면 안되는 5가지>



▲ <누드 유출 파문 케리 브룩 컴백 "난 안 죽어">

<성관계 맺기 전에 하면 안 되는 5가지>(코리아타임즈, 6월 1일)는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인 "데일리스타"가 성관계 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를 보도했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선정적인 사진을 노골적으로 사용하였고 <누드 유출 파문 케리 브룩 컴백 "난 안 죽어">(헤럴드 경제, 6월 2일) 기사에서는 애플사의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인 '아이 클라우드'를 통해 영국의 모델이자

배우인 켈리브룩의 은밀한 사진이 대거 유포 되었다고 보도하면서 ‘가슴과 성기까지’라는 성적 표현으로 유명인의 사진 유출을 성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IV. 나가며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기사는 인쇄매체를 대신하여 다양한 기사를 빠르게 전달하고 있고, 사람들은 PC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방대한 기사 속에서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 내용이나 제목의 왜곡과 과장이 이루어지고 더욱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와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스포츠 관련 매체는 메인 화면 뿐만 아니라 세부 기사에서도 선정적인 사진을 전체적으로 배치하고 있었으며, 중앙일보, 헤럴드 경제, 코리아타임즈 역시 선정적인 이미지나 여성의 과도한 노출 사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강화된 모니터링과 규제방안이 시급히 요청된다.

V. 모니터링 내용

1. 성 평등적 내용⁵⁾

1) 주체성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5일 (일)	MBC	'올해 만 80세' 세계 최고령 승무원	<p>승무원으로 59년 째 근무하고 있는 80세 승무원을 소개하는 기사로, 항공사 승무원은 젊은 여성이라는 편견을 깨고 자신의 일에 충실한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줌.</p> 
6월 5일 (일)	머니 투데이	“서비스 소장에 컨설팅 팀” 주유소 기름만 파는 곳 아니예요.	<p>현대오일뱅크가 고객소통에 능통한 서비스 전문가들을 통해 주유소를 '서비스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전략하에 CS 분야 여성 경력자 6명을 영입해 서울, 인천, 등 6개 직영주유소에 소장으로 배치하는 기사. 정유업계라는 영역에 여성소장과 직원이 투입되고 고객소통의 역량을 강조한 점,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정유 업종에 여성이 진출한 점 등에서 의미 있음.</p>
6월 6일 (월)	동아 일보	한국군 女중위, 남자도 찔찔매는 한·미 '최정예 전투원' 됐다	<p>한국군과 미군의 '최정예 전투원' 자격을 모두 취득한 여군에 대한 기사로, 전투원 자격을 얻기 위한 테스트를 통과한 단 4명의 합격자 중 유일한 여군으로 소개되어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군 사회에 당당히 입성한 주체성을 가진 여성의 모습을 나타냄.</p>


5)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2) 현실반영성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1일 (수)	한국 일보	해외 음악인들, '여혐'에 맞서다	 <p>유명가수 비윤세의 새 앨범 '레모네이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 상영회에서 음악팬들이 영상 속 비윤세가 던진 여성의 인권과 연대에 주목했다는 기사. '강남역 문지마 살인'을 계기로 여성혐오가 국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영·미권에서 여성혐오를 꼬집는 앨범이 출시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며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환기시킴.</p>
6월 2일 (목)	경향 신문	'도서관 여중생 무차별 폭행사건' 처벌은 벌금 100만원... 네티즌 '부글부글'	<p>중학교 선배를 못 알아보고 인사를 안 한다며 여중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피해자 조사 없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의 향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기사. 여성폭력 처벌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드러냄.</p>
6월 4일 (수)	파이 낸셜 뉴스	디자인소 호, 사내 성추행 당한 신입사원 해고 논란	<p>편집디자인 전문업체 디자인소호가 사내 선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신입사원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 "회사 대표가 '회사 입장에서 사람들 일을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네가 술을 많이 먹고 자기관리 못해서 그렇지 않냐' 등의 발언을 하여 성폭력의 피해를 당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을 드러냄.</p>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6일 (월)	머니 투데이	"못사는 나라 출신처럼 무시" 자존감 상처 입은 탈북女 아내들	탈북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북한이탈여 성들의 사례를 다룬 기사. 탈북 여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루며 올바른 남북가족문화 정착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기 획 기사임.
6월 6일 (월)	국민 일보	'여교사 성폭행 사건' 주민 인터뷰 논란... 경찰, 계획범행 에 무게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 마을 주민이 "창피하다. 관광지 라서 이미지도 있고 다 가정 있고 자식들도 있는 남자들이잖느냐" 며 피해자의 인권과 상처보다는 피의자를 옹호하고 경제적인 피해 를 염려하는 인터뷰가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기사. 성폭행 사건에 관대한 태도를 비난하는 국민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보도함.
6월 7일 (화)	경향 신문	박 대통령 참석 프랑스 행사 알바 '예쁜 분' 모집... 내부 문건 물의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프랑스 한류 행사에 행사 진행자 등을 뽑 으면서 '예쁜 분' 등 성차별적 기준을 세운 사실을 보도함. 여전히 여성의 외모가 채용의 기준이 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모 습을 꼬집어 문제 제기함.
6월 7일 (화)	경향 신문	"백인 . 스탠퍼드 대학생 이라서" 성폭행범 에 고작 징역 6월 선고	지난해 1월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에 있는 스탠퍼드대 캠퍼스 안 에서 이 대학 학생이자 수영선수였던 브룩 터너가 주변에 사는 여 성 회사를 성폭행 했고,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 으나 지난 2일(현지시간) 샌타클라라 지방법원이 징역 6월과 보호 관찰 3년을 선고한 것을 보도하며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여 전히 관대함을 보여줌.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7일 (화)	경향 신문	신안군 주민,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젊은이들 이 그럴 수도 있지” 인터뷰 논란	 <p>전남 신안군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벌어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섬마을 주민이 “뭐 서울에서는 묻지마 해서 막 사람도 죽이고 토막 살인도 나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라고 말하며 피의자를 옹호하는 인터뷰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소식을 실음. 성폭행 사건에 관대한 태도에 대한 국민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도함.</p>
6월 7일 (화)	국민 일보	“젊은이들 이 그럴 수도 있지” 섬주민 발언 경악	성폭행 피의자를 두둔하는 듯한 주민의 인터뷰가 공분을 사고 있다는 내용으로 성폭행 사건의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현실을 드러냄.
6월 7일 (화)	머니 투데이	‘집안 망한다던 시댁, 편견이었 다’ 북에서 온 다둥이 엄마 이해정씨	한 탈북여성이 시댁으로부터 “탈북자가 들어오다니, 집안이 망했다”, “차라리 동남아 여성이 낫다”, “이혼하지 않으면 신혼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 탈북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폭언에 시달리다 서류상으로 합의 이혼을 한 후에도 곳곳하게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기사. 탈북여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을 드러내고 있으며, 편견을 깨고 진정한 행복을 쟁취하는 진취적인 여성의 모습을 나타냄.

3) 다양성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1일 (수)	이 데일리	美 속옷 브랜드, 판매량 20% 급증 비결은? '포토샵 보정 중단'	 <p>미국의 속옷 브랜드 회사가 보정하지 않은 사진으로 다양한 인종과 체구의 모델을 기용해 현실적인 화보를 만들고 있다는 기사.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해 여성에게 자신감을 주는 브랜드가 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혀 날씬하고 마른 몸매를 아름다움으로 여기는 현대인에게 시사점을 줌.</p>
6월 5일 (일)	이 데일리	136kg 女 선생님, 52kg 감량하며 '새 인생' 살게 된 계기는?	<p>몸무게가 136kg에 육박하던 여성이 오직 운동으로만 52kg을 감량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기사. “단지 이별 때문에 살을 뺐 것은 아니다. 선생님으로서 학생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았다”면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일종의 ‘책임감’도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는데 여성의 다이어트가 단순한 ‘보여주기’가 아니라 건강함과 자신감, 또한 교사로서의 책임감의 한 부분으로 작동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M-</p> <p>This teacher shared her incredible weight loss pics on Instagram... and everyone is calling them FAKE</p> 

4) 대안성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2일 (목)	경향 신문	수원화성 안내책자 에 '여성 신체 비하 표현' ... 민원 제기되자 회수	 <p>수원화성 안내책자에 "이른 아침부터 절벽소녀가 해대는 설명이 귀에 들어오겠나구"라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수원시가 책자를 회수하고 문제 부분을 수정해 다시 제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기사. 지자체의 홍보물에 여성비하 표현이 담기는 것에 대한 지자체의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기사.</p>
6월 4일 (토)	뉴시스	[르포] "일이 있어 행복해요".. .송파구 '뚜벅이 택배원' 박신덕 할머니	박신덕 할머니를 주인공으로 한 르포형식의 기사. 뚜벅이택배원 25명 중 대부분은 남성(19명)이지만 박 할머니와 같은 여성 택배원도 6명이나 활동함을 전하며 여성노인의 적극적인 노년기 활동상을 소개함.
6월 4일 (토)	경향 신문	페이스북 . 트위터 등 EU 혐오발언 금지협약 에 "좋아요"... 한국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대기업들이 유럽 연합(EU)과 손잡고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을 부추기는 혐오발언(헤이트 스피치) 축출에 나선 것을 소개함. 반면 '여혐(여성혐오)'엔 관대한 반면 페미니즘적인 콘텐츠와 이를 게시하는 사용자는 규제하고 있는 페이스북 코리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담음.
6월 4일 (토)	경향 신문	'극과 극' 한국여성 지위 글로벌 통계, 어떻게 봐야 할까	〈'극과 극' 한국여성 지위 글로벌 통계, 어떻게 봐야 할까〉에서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혐오에 대한 불안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상황을 다루며, 유엔의 성불평등지수와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의 통계를 들어 타국의 개선상황에 비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국의 남녀격차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함.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4일 (토)	경향 신문	일상의 성폭력... 여성들 '악어'에 맞서 연대 모색	여성이 일상적으로 겪는 성폭력과 성차별, 성추행, 데이트 폭력 등을 취재해 50여개의 에피소드로 그린 책 <악어 프로젝트>를 소개함.
6월 5일 (일)	오마이 뉴스	“내연녀 딸과 성관계 “일주일에 11번 틀어댄 종편	TV조선의 <이것은 실화다 COPS>와 MBN의 <기막힌 이야기 - 실제상황> 등 범죄 재연 프로그램에 대한 민언련 방송모니터위원회의 모니터 보고서를 토대로 선정적인 내용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종편 방송사를 지적함.
6월 5일 (토)	경향 신문	엑스맨, 여성폭력 홍보 이미지 논란	 <p><엑스맨: 아포칼립스>의 홍보 이미지가 여성폭력을 연상시켜 제작사인 20세기 폭스사가 이에 사과하며 홍보물을 교체했다는 기사로, 자주 접하는 영화홍보물에 대해 성 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여성 인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p>
6월 5일 (일)	세계 일보	홀로 남은 여교사 노리고... 그들은 학부모도 주민도 아니었다	성폭행 피해 여교사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윤간을 당했다'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남자친구가 “큰 일을 당하고도 담담하게 버티는 여자친구가 고맙다”고 말하며 곁을 지키고 있음을 전함. 성폭행 피해자와 남자친구(남성)가 성폭행 사건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다룸.

2. 성 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1일 (수)	MBC	스물아홉 즈음에	 <p>스물아홉 살 여덟 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스물아홉 즈음에 하는 고민을 영상으로 담음. 남성들은 주로 '미래', '비전'과 같은 일과 성취에 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여성들은 '결혼'이나 '가정' 등을 고민으로 꼽아, 우리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함.</p>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5일 (일)	국민 일보	무명의 반란...여 자골프 박성원, 또 하나의 신데렐라 스토리	프로골퍼 박성원이 사상 처음으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우승을 거머쥐며 또 하나의 신데렐라 스토리를 썼다는 기사.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남성에게 의탁하여 안정된 삶을 꾀하려는 여성의 심리상태를 일컫는 말로, 개인의 노력에 대한 성취를 '신데렐라 스토리'로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음.

3)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3일 (금)	헤럴드 경제	김현중 측, "폭로 없었으면 송중기 이상 별 수 있었다"	제목과 기사 내용은 성폭력 피해 여성이 오히려 가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 부적절함.

4) 외모지상주의 조장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2일 (목)	헤럴드 경제	'장범준 아내' 송지수, '스물넷' 걸그룹 외모	"스물 넷' 걸그룹 외모'라는 제목에서 젊다는 표현을 걸그룹에 표현했음. 걸 그룹은 여성이 모인 노래하는 그룹을 표현하는 단어지만 신문은 어린 여성을 지칭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음. 이것은 여성 걸 그룹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과 동시에 여성의 평가를 단지 외모에 두는 것처럼 조장하고 있는 기사임.
6월 4일 (토)	아시아 경제	'백년손님' 김원준 14세 연하 검사 아내 사진 공개 '미모가 눈부셔'	메인화면 제목은 <'14세 연하 검사' 김원준 아내 얼굴 사실...>인데, 기사제목은 <'백년손님' 김원준 14세 연하 검사 아내 사진 공개 '미모가 눈부셔'>로, 외모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함. '연하'라는 어린 나이와 아름다운 외모로 평가하는 것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 내용으로 부적절함.
6월 7일 (화)	코리아 헤럴드	술 구매 거부당하 는 동안미녀, 나이가?	채널A '몸신처럼 살아라'에 출연한 주부의 동안 비결을 공유하는 기사로, '동안미녀' 등의 단어를 통해 자신의 나이보다 어리게 보이는 것을 우월함을 갖는 권력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부적절함.


5) 여성의 성적대상화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1일 (수)	OSEN	컴백 EXID, 섹시 하니?	 <p>첫 정규 앨범을 낸 EXID의 소식을 전하면서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진을 사용하여 성적이미지를 강조함.</p>
6월 1일 (수)	OSEN	양정원, '밀착레깅 스에 드러난 완벽한 몸매'	 <p>밀착 레깅스를 입고 가슴과 엉덩이가 두드러지는 자세로 시구를 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공을 던지는 것보다는 여성의 몸매에 과도하게 초점을 둔 제목을 뽑는 등 성적대상화 함.</p>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1일 (수)	코리아 헤럴드	女 변호사, 120만명 홀린 '꿀 몸매'	 <p>변호사 출신의 모델이 가슴이 드러나는 사진과 이 사진을 본 남성들이 환호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여성을 성적대상화 함.</p>
6월 1일 (수)	코리아 헤럴드	속옷회사 무보정 모델로 '대박'	 <p>선정적인 포즈의 속옷 모델의 누드 사진을 연상시키는 기사와 사진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선정적인 모습을 표현하였음.</p>
6월 1일 (수)	코리아 헤럴드	이리나 샤크, 곰 인형 끌어안고 섹시 포즈	 <p>외국 모델이 곰 인형을 끌어안고 섹시한 포즈를 취하는 사진과 '섹시'라는 단어로 선정성과 여성을 성적대상화 하는 내용이었음.</p>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1일 (수)	코리아 헤럴드	유빈, 걸크러쉬 란이런 것... 탄탄 몸매는 덤	 <p>걸그룹 유빈의 가슴골이 드러나는 선정적 사진을 부각시키고 '탄탄 몸매', '덤'이란 단어를 조합하여 여성의 몸매가 성상품화 될 수 있다는 암시를 표현함.</p>
6월 1일 (수)	코리아 헤럴드	야노시호, 아찔한 명품몸매 자랑하며	 <p>야노시호의 가슴이 드러나는 사진과 '아찔', '명품몸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선정성과 여성의 몸매에 대한 성적이미지를 대상화하였음.</p>
6월 2일 (목)	이데일리	오인혜 "첫 수영복 화보, 썩스러웠 다"	 <p>남성지 맥심(MAXIM)에 실린 오인혜의 첫 수영복 화보에 대한 기사. '가슴을 훤히 드러낸', '글래머러스한 보디라인이 돋보이는' 원피스 등의 표현으로 여성의 신체를 성적이미지화하고, 화보가 담긴 남성지를 구매하도록 하여 여성의 몸을 상품화 함.</p>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2일 (목)	헤럴드 경제	금발 미녀의 뜬금없는 '섹시 봉춤'... 엄지척	 <p>중국 지하철에서 있었던 퍼포먼스를 기사화 하면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중심으로 한 사진을 보도함으로써 퍼포먼스가 중심이 아닌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였음.</p>
6월 2일 (목)	세계 일보	제주서 中 카지노 손님 러시아女 성매매 알선 3명 기소	 <p>중국인 카지노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카지노업체 직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기사. 성적 대상화된 여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킴.</p>
6월 2일 (목)	스포츠 조선	클라라, 고난도 요가 중...아름 다운 몸매 과시	 <p>클라라가 고난도 요가 동작을 선보였고, 완벽한 몸매가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내용으로 몸매를 부각함.</p>
6월 3일 (금)	세계 일보	제시, 래시가드 화보서 '범접불가 몸매' 자랑	 <p>"래시가드를 착용한 제시는 섹시한 실루엣과 구릿빛 피부의 탄탄한 복근을 드러내며 남심 저격에 나섰다"며 선정적인 기사의 제목과 내용으로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 했음.</p>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3일 (금)	OSEN	콜라병 몸매란 이런 것..제시, 섹시美 폭발 '래시가드 화보'	최근 화보를 찍은 가수에 대한 기사로, 콜라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가수의 몸매만을 부각시킴.
6월 3일 (금)	스포츠 조선	'동치미' 유하나 "밤에 야한 속옷 입고 남편 기다렸는 데 외면"	결혼 전 남편 집에서 하녀처럼 일하며 매력을 어필했고, 연애 당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요염한 자세로 섹시함을 어필하며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표현함.
6월 4일 (토)	중앙일보	심으뜸, 섹시한 스킨스쿠 버 화보..꿀벅 지 노출 '혁'	 <p>선정적인 단어 '꿀벅지'와 화보를 통해 여성의 몸을 성적이미지화하고, 선정성을 그대로 드러내었음.</p>
6월 1일 ~ 6월 6일	코리아 타임즈	국내 레이싱걸 인기순위 TOP 10	“자동차 박람회 꽃이라 불리는 레이싱걸들의 순위를 소개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많은 남성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는 기사내용과 동영상은 여성의 신체를 부각시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남성적 시각에서 여성을 상품화 하고 있음.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2일 ~ 6월 6일	코리아 타임즈	가장 섹시한 여자선수 5인 '와우'	 <p>네티즌이 선정한 가장 섹시한 여자운동선수 5인의 순위가 온라인에 게재돼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기사. "운동하는 여성은 더욱 섹시하다", "경기 중 찍힌 그녀들의 모습은 풀 메이크업을 한 화보촬영의 한 장면으로 착각될 만큼 매우 아름답다." 라는 기사내용과 영상을 통해 여성을 성적이미지로 부각시킴.</p>
6월 5일 (일)	일간 스포츠	모델 장아원, 압도적인 여신 포스에 '숨뱐'	부산국제모터쇼에서 모델 장아원을 소개하는 기사임에도 성적 이미지의 사진만 게시하고 다른 경력이나 소개는 전혀 없음. 여신이라는 성차별적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실력이 아닌 외모로 모델의 이미지를 고착화함.
6월 6일 (화)	세계 일보	"한뼘보다 짧아" 재이, 핫팬츠 각선미	 <p>걸그룹의 콘서트 소식을 전하는 기사임에도 여성의 신체를 강조하여 성적대상화 하는 제목과 이미지를 사용.</p>
6월 6일 (월)	OSEN	'또 오해영' 서현진, 레드립+망 사스타킹 ...'파격 비주얼'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파격 비주얼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성적으로 이미지화 하여 궁금증을 유발함.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6일 (월)	중앙 일보	NS 윤지, 남심 초토화시 키는 '역대급 뒤태'	 <p>NS윤지의 환상적인 뒷태 라는 선정적 타이틀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수영복 뒷 모습을 게재하여, 여성의 몸을 성적 이미지 대상화, 성 상품화 하였음.</p>
6월 7일 (수)	세계 일보	손예진 맞아?...가 슴골 파인 의상 입고 매혹적 미소	 <p>“가슴골이 깊게 파인 의상을 입고 볼륨감 넘치는 몸매를 드러낸 손예진은 기존 청순한 이미지와 상반되는 섹시한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내용으로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 함.</p>





6)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1일 (수)	헤럴드 경제	美 '육덕'모델 아찔 도발... “볼테면 봐”	 <p>노출이 심한 사진과 제목의 '육덕'이라는 단어, 기사 속 '젓소'라는 표현 등 매우 선정적인 단어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고 있음.</p>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1일 (수)	일간 스포츠	전효성, 샤워가운 입고 침대서... '남심 초토화'	 <p>전효성이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을 소개하며 그녀의 근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사진과 제목의 글을 기사화함.</p>
6월 2일 (목)	헤럴드 경제	여배우 오인혜.. “볼륨은 오인 안 해”	<p>“볼륨은 오인 안 해”의 제목에서 ‘볼륨’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몸에 대한 선정적 장면을 상상하도록 하였고, ‘터질 듯’ 아찔한 가슴골 등의 선정적 표현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였음.</p>
6월 4일 (토)	SBS	소진 통나무 다리 건너다 '아찔한 뒤태 공개'	 <p>고양이 자세로 나무를 건너는 뒷모습을 부각시키며 섹시한 모습으로 표현하여 성적이미지를 강조함.</p>
6월 4일 (토)	국민 일보	“이 만찐녀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애슐리 와그너 누구?	 <p>2016 세계피겨스케이팅 은메달리스트 애슐리 와그너가 한국에 왔다는 기사로 쟁쟁한 실력을 가진 우수한 선수임에도, 만화책을 찢고 나온 것처럼 뚜렷한 이목구비와 육감적인 몸매, ‘육감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성적 이미지만을 강조함.</p>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5일 (일)	이데일리	심으뜸, 이래서 '영신'이라 부르나봐 요.. 넘사벽 힙라인 드러내	 <p>청자켓과 짧은 하의를 입고 엎드린 채 카메라를 바라보는 화보를 공개했다는 기사. '영신', 잘록한 허리, 풍만한 엉덩이 라인 등의 선정적인 표현과 이미지를 통해 여성의 몸을 성적 이미지화 함.</p>
6월 5일 (일)	경향 신문	윤정수, 녹화 중 '홀링' "김숙, 알몸 보고 놀려"	<p>기사제목은 <'투자자들' 윤정수, 녹화 중 상반신 탈의 "김숙 위해 태닝">인데, 네이버 매일경제 메인화면에는 <윤정수, 녹화 중 '홀링' "김숙, 알몸 보고 놀려">라고 성적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있음.</p>
6월 6일 (월)	일간 스포츠	'유명 男 가수와 열애?' 피트니스 모델 아찔 스킨십 '화제'	<p>미국 마이애미의 한 해변에서 미국 유명 팝 가수 오스틴 마흔과 그의 새로운 여자 친구 피트니스 모델이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연예 전문매체에서 보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사진이 메인을 장식함.</p>

7) 선정성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1일 (수)	코리아 타임즈	성관계 맺기 전에 하면 안 되는 5가지	 <p>영국 태블로이드 신문인 데일리스타가 성관계 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를 보도했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선정적인 사진을 노골적으로 사용함.</p>
6월 1일 (수)	코리아 타임즈	일생동안 성관계에 드는 시간은?	 <p>국제 스포츠용품 브랜드 리복(Reebok)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사화 하며 성행위를 연상하는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함.</p>
6월2일 (목)	중앙 일보	머슬퀸 김혜나, 환상적인 뒤태에 '아찔'	 <p>머슬퀸의 '환상적인 뒤태'라는 선정적 단어와 사진으로 여성의 몸을 성 상품화하고 성적이미지화 하였음.</p>
6월 2일 (목)	코리아 타임즈	카일리 제너의 아름다운 가슴라인	 <p>“모델 카일리 제너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사진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이 선정적임.</p>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2일 (목)	헤럴드 경제	누드 유출 파문 켈리 브룩 컴백 “난 안 죽어”	 <p>애플사의 클라우드 저장시스템인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영국의 모델이자 배우인 켈리브룩의 은밀한 사진이 대거 유출되었다고 보도하면서 ‘가슴과 성기까지’라는 성적 표현으로 유명인의 사진 유출을 성적으로 표현하고 있음.</p>
6월 3일 (금)	헤럴드 경제	“소복한 털이 아름다워”.. · ‘겨털소녀’ 대륙 초토화	 <p>‘겨털은 여성에게는 ‘굴욕’이다’라는 기사 내용은 여성이 신체의 일부분인 털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느낌을 줌. ‘소복한 털이 아름다워’ 라고 표현과 함께 겨드랑이 털이 부각된 중국의 10대 소녀사진을 게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p>
6월 4일 (토)	헤럴드 경제	“화장실에 선 트럼프가 힐러리 이긴다?”	<p>미국의 두 대선 후보의 사진이 담긴 두루마리 휴지 판매량을 보도하면서 트럼프 사진이 넣어진 휴지의 판매량이 많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제목을 “화장실에선 트럼프가 힐러리 이긴다?” 라고 표현하여 두 후보에게 지지분하고 성적인 느낌을 주는 제목을 사용하였음.</p>
6월 4일 (토)	헤럴드 경제	日 섹시배우 ‘가학취향’ 사진 유출 파장	 <p>단순히 연출된 사진을 가지고 ‘가학취향’이라는 제목을 사용하여 마치 여배우가 가학적 취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유출의 염려를 한다는 내용까지 담아 신문이 유출을 부추기고 있음.</p>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5일 (일)	일간 스포츠	디카프리오와 열애설 난 17세 연하 모델은 '누구?'	 <p>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41)가 영국 모델 록시 호너(24)와 영국 데이트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열애설을 보도한 기사에서 록시 호너라는 모델의 몸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을 사용하여 선정성을 강조함.</p>
6월 5일 (일)	일간 스포츠	노골적 19금 마케팅?... EXID 뮤비 선정성 논란	 <p>EXID의 신곡 뮤비 장면이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뮤직비디오 감독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선정성 논란에 빠진 장면만 골라 게시하여 선정성을 부추김.</p>
6월 6일 (월)	MBN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수상쩍다 했더니...경 악!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계획적 범행'에 무게가 실렸다는 기사에 대하여 성폭행에 대한 선정적 제목으로 궁금증 유발함.
6월 6일 (월)	헤럴드 경제	'알몸' 레스토랑 오픈.. 관심폭주	외국 여성의 반 누드 사진을 게재하였고, '알몸' 이라는 선정적인 단어를 부각시켰음.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6일 (월)	헤럴드 경제	女 교사, 제자 유혹해 임신까지.. 학교 발각	 <p>외국 여성이 13세 제자를 유혹해 임신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여성의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하여 선정성을 부각시켰음.</p>
6월 6일 (월)	헤럴드 경제	‘오버사이 즈’ 모델...아찔	 <p>외국 여성의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진과 ‘오버사이즈’, ‘아찔’, ‘육감적인’이란 선정적 단어를 통해 여성의 몸을 성상품화, 성이미지화 하는 내용으로 표현되었음.</p>
6월 6일 (월)	중앙 일보	2시간 동안 160번의 오르가즘 을...특이한 증후군	시간과 횟수를 묘사하였고, ‘오르가즘’이라는 선정적 단어를 통해 특이한 증후군을 과도하게 설명하였음.
6월 7일 (화)	중앙 일보	유명 바이올리 니스트, 변태 성행위 요구로 전 여친에게 피소	기사 내용에서 변태 적인 성행위에 대해 묘사하여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었음.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7일 (화)	코리아 타임즈	G컵 소유자 슈퍼모델 의 '환상' 비키니 몸매	“그녀의 풍만한 볼륨감은 포토샵을 의심케 한다”는 원색적인 표현과 함께 매우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함. 
6월 7일 (화)	코리아 타임즈	신이 내린 몸매의 소유자, '황홀한 비키니 뒤태'	“신이 내린 몸매의 소유자라고 알려진 그녀는 비키니를 통해 군살 하나 없는 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탄탄한 엉덩이 라인이 눈길을 끈다”는 내용과 함께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함. 

8) 기타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6월 2일 (목)	뉴스스	초등학생 교실에 왕따 제도 도입한 여교사 기소	훈육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1일 왕따'를 강요해 논란이 된 모 초등 학교 여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기사. 제목에서 '여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기사 내용과 관련없이 불필요하게 성별을 강조함.
6월 6일 (월)	동아일보	당적 넘어 뭉친 '박근혜 대통령과 등진 남자들'	국회 연구단체 '어젠다 2050'를 만드는 김종인, 김성식, 유승민, 김세연 의원을 박근혜 대통령과 등진 '남자들'로 표현하여 불필요한 성별대립 구도를 형성함.

신문 모니터링보고서(9월)

I. 들어가며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에서는 주요 신문사의 성평등적, 성차별적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2016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5개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각 신문 별 5일 간, 총 25개 신문이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다.

II.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신문(일간지)
- 모니터링 기간 : 2016년 9월 1일~7일(7일간)
- 대상 신문사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 모니터인원 : 9명

III. 결과분석

1. 양적분석

각 언론사 신문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총 보도 수 대비 여성관련 보도 수

여성 관련 보도는 경향신문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총 보도 수 대비 여성 관련 보도비율 역시 경향신문이 4.7%로 타 신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1] 신문사 별 여성 관련 보도현황

(단위: 건)

구분	총 보도 수	여성 관련 보도 수(비율)
조선일보	651	13(2.0%)
중앙일보	607	16(2.6%)
동아일보	552	19(3.4%)
경향신문	472	22(4.7%)
한겨레	588	12(2.0%)
합계	2,870	82(2.9%)

2) 외부기고가 중 여성 기고가의 수

외부기고가 중 여성기고가의 비율은 동아일보가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향신문의 여성기고가 비율이 1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2] 신문사 별 외부기고가 현황

(단위: 명)

구분	총 인원	남성 수(비율)	여성 수(비율)
조선일보	58	43(74.1%)	15(25.9%)
중앙일보	48	40(83.3%)	8(16.7%)
동아일보	46	31(67.4%)	15(32.6%)
경향신문	55	47(85.5%)	8(14.5%)
한겨레	60	43(71.7%)	17(28.3%)
합계	267	204(76.4%)	63(23.6%)

3) 성평등 / 성차별적 내용

성평등적 내용은 5건, 성 차별적 내용은 6건으로, 성차별적 내용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4건)이 가장 많았다.

[표3] 성 평등/성 차별적 내용 수

(단위: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1	성차별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4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
	현실반영성	2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
	다양성	-		외모지상주의 조장	1
				여성의 성적대상화	-
대안성	2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		
		선정성	-		
		기타	1		
합계		5	합계		6

4) 언론사별 성평등 / 성차별 내용 수

중앙일보는 성평등적 내용(2건)과 성차별적 내용(3건) 부문 모두에서 해당 기사수가 많이 발견되었다. 경향신문에서는 해당기간에 성평등적·성차별적 기사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표4]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건)

연번	언론사	성평등	성차별
1	조선일보	1	2
2	중앙일보	2	3
3	동아일보	-	1
4	경향신문	-	-
5	한겨레	1	-
합계		5	6

2. 질적 분석

언론사별 주요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적 내용

(1) 주체성

〈암벽타기, 퍼즐 푸는 것처럼 멘탈 중요...가끔은 두렵다〉(중앙일보, 9월 3일)에서 일본 규슈의 최고난도 볼더링 코스인 호라이즌을 여성 최초로 정복한 클라이머인 '시라이시 아시마'의 클라이밍 입문기, 정복한 코스 등에 대해 소개하며,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인데 속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때 무언가 하나는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실으며 강하고 주체적인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2) 현실반영성

〈늑대인간 · 과학자 · 전략가, 꼭 남자일 필요 있나요?〉(조선일보, 9월 1일)에서는 “대중 문화 속 남녀 역할이 바뀌다”, “여성 파워 커진 대중문화 시장, 남성중심 환경에 반작용 나타나” 라는 기사를 통해 대중문화 속 남녀 역할 변화의 트렌드를 보여주었다. 대중문화 속 남녀 역할이 바뀌는 ‘젠더 스와프(Gender Swap)’가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과 여성의 파워가 커진 대중문화 시

장에 대한 현실을 기사화 하였다. <유령사냥꾼 성별 바꿨더니 '걸크러쉬'>(한겨레, 9월 1일)에서도 영화 '고스트버스터즈'의 주인공이 남성 캐릭터였지만, 8월 개봉한 '고스트버스터즈 2016'의 주인공 성별을 바꾸면서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되었다는 내용을 실었고, 영화를 관람한 여성 관객들은 여성이라는 고정된 성 역할에서 벗어난 여성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 영화 속 여성 캐릭터에 공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다루었다.

(3) 대안성

<옛날 옛적,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중앙일보, 9월 2일)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가 연 공청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어린이집이 5시에 문을 닫으면 직장도 그때 함께 끝나야 한다”, “육아휴직을 쓴 남성이 남의 웃음거리가 되거나 평가에서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 “비혼 인구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 등 현실적인 대안들을 소개한 것에 의미가 있었다.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추석엔 요정들을 만나러 갈까”>(조선일보, 9월 1일)에서는 손연재, 러시아의 차세대 체조 유망주인 알렉산드라 솔다토프 등 세계 최정상급 스타들의 리듬체조 갈라쇼 '리드믹 올스타즈 2016' 공연을 알리며 세계 최정상급 체조선수들을 '요정'으로 표현하였다. '요정'이라는 표현은 여성 선수들의 기량과는 무관한 여성성을 강조하는 별칭으로 체조 선수를 외모로만 부각시켰다.

<강남패치의 질투 심리>(동아일보, 9월 1일)에서는 1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이름과 신상을 공개하며 이들이 유흥업소 종사자나 성형중독자라고 폭로한 강남 패치와 한남 패치의 운영자가 20대 여성들로 밝혀졌으며, 강남패치 운영자의 범행 동기를 시샘이라고 기술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네 명 중 한 명꼴로 질투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통계가 있다. 특히 여자가 그렇다.”고 기술하며 여성을 질투가 많은 존재로 일반화하였다.

2) 외모지상주의 조장

<미들턴의 코, 졸리의 뺨,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얼굴>(중앙일보, 9월 6일)에서는 영국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여성 환자 1000명이 모델로 제시한 유명 인사들의 얼굴 부위를 조합해 '가장 완벽한 얼굴'로 제시하고 있다. 케이트 미들턴의 코와 키이라 나이틀리의 눈, 제니퍼 로페즈의 눈썹, 페넬로페 크루즈의 입술 등을 조합하여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얼굴 조합으로 사진을 실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얼굴'에 대해 영국에서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만 조사했거나 남성과 여성의 완벽한 얼굴이 제시되었으나 여성의 외모 부분만 중앙일보에서 보도했다면 이는 여성의 외모만을 강조한 내용으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3) 기타

〈“여자 주문할게 배달 좀...”연세대서도 단톡방 성희롱〉(중앙일보, 9월 3일)에서는 최근 일부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성 대학생들이 모바일 대화방에서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문제지적과 전문가들을 통한 원인분석 등은 좋았으나 기사의 제목이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다소 선정적으로 표현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IV. 나가며

신문 매체는 TV와 비교해 성차별적 내용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V에 비해 성차별적 내용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생·강화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내용은 여전히 눈에 띄었다. 언론사 관계자들이 단순 사건을 보도하고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해석하고 양성평등적 관점의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는 데 신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V. 모니터링 내용

1. 성 평등적 내용⁶⁾

1) 주체성

언론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내용 및 이유(해당 장면)
중앙일보	9월 3일	15면	암벽타기, 퍼즐 푸는 것처럼 멘탈 중요.. 가끔은 두렵다	 <p>일본 규슈의 최고난도 볼더링 코스인 호라이즌을 정복한 최연소, 여성 최초의 클라이머 시라이시 아시마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음. 여섯 살 때부터 클라이밍을 시작해 작년 최고난도의 스페인 암벽을 정복함.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인데 속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때 무언가 하나는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하며 강하고 주체적인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줌.</p>

2) 현실반영성

언론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내용 및 이유(해당 장면)
한겨레	9월 1일	문화 21면	유령사냥꾼 성별 바꿨더니 '걸크러쉬'	영화 '고스트버스터즈'의 주인공이 남성 캐릭터였던 것에서 8월 개봉한 '고스트버스터즈 2016'의 주인공 성별을 바꾸면서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임.

6)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언론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내용 및 이유(해당 장면)
조선 일보	9월 1일	문화 24면	늑대인간· 과학자· 전략가, 꼭 남자일 필요 있나요?	<p>“여성 파워 커진 대중문화 시장, 남성중심 환경에 반작용 나타나” 라는 기사를 통해 대중문화 속 남녀 역할 변화의 트렌드를 보여줌. 대중문화 속 남녀 역할이 바뀌는 ‘젠더 스와프’가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과 여성의 파워가 커진 대중문화 시장에 대한 현실을 기사화 함.</p>

3) 대안성

언론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내용 및 이유(해당 장면)
중앙 일보	9월 2일	35면	옛날 옛적,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p>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기술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가 연 공청회에서 제안된 “어린이집이 5시에 문을 닫으면 직장도 그때 함께 끝나야 한다”, “육아휴직을 쓴 남성이 남의 웃음거리가 되거나 평가에서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 “비혼 인구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 등의 의미 있는 대안들을 소개함.</p>
중앙 일보	9월 2일	12면	“셋째 아이 병역 면제, 주택 무상제공.. 획기적 정책 내놔야“	<p>다자녀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다름. 1남 2녀를 둔 다둥이 아버지 이완영 의원은 워킹맘들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육아 과정이 힘들었던 지난 일을 회고하며 “워킹맘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이를 셋 낳으면 국가가 짓는 주택을 무상 제공한다거나, 셋째 아이는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이다.”며 아이디어를 내놓음.</p>

2. 성 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 조장

언론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내용 및 이유(해당 장면)
조선 일보	9월 1일	A28면	“추석엔 요정들을 만나러 갈까”	 <p>손연재, 러시아의 차세대 체조 유망주인 알렉산드라 솔다토바 등 세계 최정상급 스타들의 리듬체조 갈라쇼 ‘리드믹 올스타즈 2016’ 공연을 알리는 기사임. 세계 최정상급 체조선수들을 ‘요정’으로 표현하고 있음. 요정은 여성 선수들의 기량과는 무관한 여성성을 강조하는 별칭임.</p>
동아 일보	9월 1일	A39면	강남패치의 질투 심리	1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이름과 신상을 공개하며 이들이 유흥업소 종사자나 성형중독자라고 폭로한 강남 패치와 한남 패치의 운영자가 20대 여성들로 밝혀짐. 강남패치 운영자의 범행 동기를 사샘이라고 기술함.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네 명 중 한 명꼴로 질투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통계가 있다. 특히 여자가 그렇다.”고 기술하며 여성을 질투가 많은 존재로 일반화함.
조선 일보	9월 7일	A29면	마운드에 선 요정	잠실구장에서 열린 넥센-LG전에서 시구하고 있는 체조선수 손연재를 ‘체조 요정’, ‘마운드에 선 요정’으로 표현하고 있음. 세계적인 체조 선수를 외모로만 부각시킨 표현이라 아쉬움이 있음.
중앙 일보	9월 7일	A29면	야구장에 뜬 체조요정 손연재	잠실구장에서 열린 넥센-LG전에서 시구하고 있는 체조선수 손연재를 ‘체조 요정’, ‘마운드에 선 요정’으로 표현하고 있음. 세계적인 체조 선수를 외모로만 부각시킨 표현이라 아쉬움이 있음.

2) 외모지상주의 조장

언론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내용 및 이유(해당 장면)
중앙일보	9월 6일	16면	미들턴의 코, 줄리의 뺨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얼굴	<p>영국 성형외과 전문의가 여성 환자 1000명이 모델로 제시한 유명 인사들의 얼굴 부위를 조합해 '가장 완벽한 얼굴'을 사진으로 제시함. 케이트 미들턴의 코와 키이라 나이틀리의 눈, 제니퍼 로페즈의 눈썹, 페넬로페 크루즈의 입술 등을 조합하여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얼굴 조합으로 사진을 실었는데, 단순히 아름다운 얼굴을 가장 완벽한 얼굴이라고 칭하는 것은 여성의 외모만을 강조한 내용으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p> 

3) 기타

언론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내용 및 이유(해당 장면)
중앙일보	9월 3일	8면	“여자 주문 할게 배달 좀..“ 연세대서도 단톡방 성희롱	<p>최근 남성 대학생들이 모바일 대화방에서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기사에 대한 취지와 목적은 좋으나 기사의 제목이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다소 선정적으로 표현된 점은 아쉬움.</p>

잡지 모니터링보고서 (10월)

I. 들어가며

잡지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매체이다. 특정 성별, 특정 연령대를 겨냥한 감각적 이미지의 화보와 콘텐츠는 고유한 독자층을 형성하여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며 구독률이 급감하였으나, 태블릿PC의 모바일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잡지 발행으로 잡지에 대한 접근성은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처럼 꾸준히 독자층을 유지하고 있는 잡지 속 콘텐츠에 대한 우려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선정적인 이미지로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이어져왔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한 남성지에서 발목이 묶인 여성을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담배를 피우는 남자배우를 표지에 실어 성폭력 미화 논란을 빚는 등 잡지의 표현수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잡지 콘텐츠를 분석하고자 여성지, 남성지 판매순위별 각 3종을 선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코스모폴리탄(한국판), 여성중앙, 보그(한국판), 에스콰이어(한국판), 지큐코리아(GQ), 맥심코리아 총 6개 잡지의 10월호를 대상으로 했고,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링 매체 : 잡지
- 모니터링 기간 : 2016년 10월 1일~7일(7일간)
- 선정기준 : 판매순위별 여성지, 남성지 각 3종 선정(총 6종)
- 발행월 : 2016년 10월
- 모니터인원 : 12명

[표1] 모니터링 현황

연번	잡지명	잡지성격	구분
1	코스모폴리탄(한국판)	패션지	여성지
2	여성중앙	문화생활지	
3	보그(한국판)	패션지	
4	에스콰이어(한국판)	문화생활지	남성지
5	지큐코리아(GQ)	문화생활지	
6	맥심코리아	문화생활지	

Ⅲ. 결과 분석

잡지 매체에 대한 내용분석은 성비, 성평등/성차별 건수 등의 양적분석과, 표지분석, 주요 성평등/성차별 사례 등의 질적분석을 병행하였다. 모니터링 지표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정기협의체’ 운영을 통해 전문가 지문을 받아 완성하였다.

1. 양적 분석

1) 편집장 성비

각 잡지의 편집장은 여성이 3명, 남성이 3명으로 성비는 같다. 대체로 여성지의 경우 여성이, 남성지의 경우 남성이 편집장인 경향을 보였다.

[표2] 편집장 성비

(단위 : 명)

연번	잡지명	여성	남성
1	코스모폴리탄(한국판)	1	-
2	여성중앙	1	-
3	보그(한국판)	-	1
4	에스콰이어(한국판)	-	1
5	지큐코리아(GQ)	-	1
6	맥심코리아	1	-
합 계		3명	3명

2)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성평등적 내용은 6건, 성차별적 내용은 9건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적 내용은 여성의 주체성, 현실반영성, 다양성을 표현한 내용이 각 2건이고, 성차별적 내용은 성역할 고정관념 조장, 여성의 성적대상화가 각 3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표3]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2	성차별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3
	현실반영성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1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
	다양성	2		외모지상주의 조장	-
	대안성	-		여성의 성적대상화	3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
			선정성	2	
합계		6건	합계	9건	

3) 잡지별 성평등/성차별 내용

잡지별로 살펴보면 성평등적 내용은 보그(한국판)와 맥심코리아를 제외한 타 잡지에서 비교적 고르게 발견되었으며, 성차별적 내용은 맥심코리아가 6건(66.7%)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표4]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건수

(단위 : 건)

연번	잡지명	성평등	성차별
1	코스모폴리탄(한국판)	1	-
2	여성중앙	2	1
3	보그(한국판)	-	-
4	에스콰이어(한국판)	1	-
5	지큐코리아(GQ)	2	2
6	맥심코리아	-	6
합계		6건	9건

4) 성차별적 콘텐츠 비율 및 유형

잡지별 성차별적 콘텐츠 분석은 광고를 제외한, 목차에 명시된 콘텐츠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총 콘텐츠 중 성차별적 콘텐츠 비율은 맥심코리아가 13.6%로 가장 높았다. 성차별적 이미지 역시 총 이미지 중 성차별 이미지 비율이 맥심코리아가 4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5] 성차별적 콘텐츠 비율 및 유형

(단위 : 건, ()는 %)

연번	잡지명	총 콘텐츠 수	성차별적 콘텐츠 수	총 이미지 수	성차별적 이미지 수
1	코스모폴리탄(한국판)	57	-	370	3(0.8)
2	여성중앙	62	1(1.6)	301	1(0.3)
3	보그(한국판)	13	-	111	-
4	에스콰이어(한국판)	64	-	216	1(0.5)
5	지큐코리아(GQ)	28	2(7.1)	185	4(2.2)
6	맥심코리아	44	6(13.6)	164	74(45.1)
합계		268건	9건(3.4%)	1,347건	83건(6.2%)

* 콘텐츠 수 : 목차에 명시된 기사 중심 표기

* 이미지 수 : 기사 내용에 포함되는 사진, 삽화 등 건수

2. 질적 분석

1) 표지 분석

○ 코스모폴리탄(여성지)



코스모폴리탄 10월호는 뮤지션 및 배우인 리타 오라를 표지 모델로 하여 금발의 건강한 여성이미지를 강조하였다. “THE MOST SEXIEST STORY”라는 제목을 부각시키며 소설가 백가흠, 황현진, 전아리와 시인 이이체의 에로스 단편소설 콘텐츠를 명시하였다.

코스모폴리탄 페이스북에서는 코스모폴리탄 10월호의 커버걸 리타 오라의 인터뷰 영상을 게재하였다. 샤워할 때 부르는 노래, 가장 좋아하는 장소, 그녀를 섹시하게 만드는 것 등에 대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 여성중앙(여성지)



여성중앙은 손태영을 표지 모델로 하였고, ‘손태영의 속도’라는 제목의 콘텐츠 제목을 게시하였다. ‘허경환은 촌데레일까’, ‘요리를 영상으로 배웠어요’ 등의 제목을 게시하였다.

‘손태영의 속도’에는 손태영이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배우로서의 자신의 영역에서 속도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그렸다.

○ 보그코리아(여성지)



보그코리아는 2016 올림픽 스타 5인과 <보그>의 맞대결, 더는 없을 우성인자 정우성, 전혀 막돼먹지 않은 김현숙 등의 콘텐츠 제목을 표지에 실었다.

○ 에스콰이어(남성지)



에스콰이어는 영국의 배우 칼럼 터너를 표지 모델로 하였다. 올 가을 남자의 필수 패션 아이템 101가지, THE21(남자가 반드시 봐야 할 영화, 남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남자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음반, 남자가 반드시 가봐야 할 여행지, 남자가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게임) 등 남성 독자를 겨냥한 콘텐츠를 게시하였다.

○ GQ코리아(남성지)



GQ코리아는 샤이니 멤버 5명이 모두 실린 버전과 각 멤버가 개별적으로 실린 표지 버전 5종을 합쳐 총 6종으로 발간하여 독자들이 원하는 표지의 잡지를 선택하여 구매하도록 하였다.

'동 시대의 질주 한 번도 주눅 든 적이 없는 파워, 갈 데까지 가 본 청춘의 역사 K의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도록 새로운 이름 샤이니', '연인보다 빛나는 불멸의 골드워치 12', '남자를 위한 본격 털 관리 비법' 등의 콘텐츠 제목을 표지에 실었다.

○ 맥심코리아(남성지)



맥심코리아는 국군의 날 특집호로 미스맥심 콘테스트의 우승자 이시한을 표지 모델로 하였다. 군복색깔의 가슴이 드러나는 옷을 입은 채 총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미지는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성적이미지를 연상케 한다.

전쟁사에 길이 남을 불멸의 개삽질, 'WHO'S THAT GIRL 지금 남자들의 톱이슈 최절화(머슬매니아)' 등의 콘텐츠를 표지에 실었다.

2) 성평등적 내용

(1) 주체성

〈김서형 도시여자의 얼굴〉(에스콰이어)에서 드라마 굿 와이프에 출연한 김서형의 인터뷰 내용을 다루었다. 김서형이 배역에 대해 고민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안 해 본 상태에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저 스스로는 의심하지 않거든요”라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실었는데, 자기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활동하는 주체성 있는 여성의 모습을 드러내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2) 현실반영성

〈예민함에 배타적인 도시〉(지큐코리아)에서는 ‘최근 들어서는 미디어들이 ‘아재’의 오역을 전도하는데 일제히 열을 올리고 있다’며 아재라는 단어가 매력적인 중년 남성의 의미와는 다르게 오용돼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내용이 실렸다. 〈코멘트 여성 시대〉(지큐코리아)에서는 “여성혐오가 여성들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다. 사회적 강요를 여자들이 거부한다”라는 내용이 실렸는데 이는 여성혐오 이슈가 부각되며 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자각하게 된 작금의 현실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3) 다양성

〈editors' BODY challenge〉(코스모폴리탄)에서는 ‘여성의 몸만들기’ 코너를 통해 여성근육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표현한 이미지 컷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을 섹시함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과 강인함의 시각에서 표현했다는 점에서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FAMILY LIFE〉(여성중앙)에서는 “아빠와 함께여서 좋다. 소통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세 가족의 이야기”에서는 아이와 함께 여행을 하고 사진을 찍고 친구가 되어 놀아주며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 가족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육아에서 아빠의 역할과 영향력을 일깨워 줌으로써 부부육아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이토 준지의 그녀들〉(맥심코리아)에서는 기사 초반에 ‘신밧감으로 손색없는 이토 준지 만화 속 미녀들을 만나보자’라고 언급하고 있고, 그 중 〈현모양처〉를 다루는 내용에서는 ‘현모양처의 기본 소양인 바느질, 제일 어렵다는 가죽소재를 능숙하게 다룬다. 심지어 살아서 팔딱이는 걸 자르고 껌매니 그 정숙함이 더할 나위 없음이다’라고 언급한다. 여성캐릭터에 대해 미녀, 현모양처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외모 및 여성에게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보여주고 있었다. 〈윤지혜는 좀 묘하다〉(여성중앙)에서는 영화 ‘예의 없는 것들’의 간담회에서 에디터가 윤지혜에게 쓰기 위해 노출 연기를 했느냐고 질문하고 윤지혜는 “나만 벗었다, 신하균도 벗었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실렸다. 유독 여성배우에게만 노출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여성배우는 노출을 해야 뜰 수 있다는 통념이 반영된 질문으로 성차별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이토 준지의 그녀들〉(맥심코리아)에서는 이토 준지 만화인 〈절대 순종 부잣집 아가씨〉를 다루며 ‘금은보화로 치장한 아가씨가 꼬박꼬박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돈 많은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적으로 대하는 것을 최고로 보면서 순종적인 모습을 강요받고, 여성의 주체성이 무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3) 여성의 성적대상화

〈이토 준지의 그녀들〉(맥심코리아)에서는 〈노출녀〉를 다루며 ‘겨우 가슴골 내보이는 정도로 남자 애간장을 녹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한 전신 노출을 선보인다’라고 말하며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있었다.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눈꽃, 최설화〉(맥심코리아)는 2016 머슬마니아 비키니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한 최설화를 소개하는 인터뷰를 담고 있다. Q&A로 진행한 인터뷰 중에 에디터가 “아까부터 대화하는데 눈빛에 뭔가가 있다. 혹시 나 좋아하나?”라고 묻고, 최설화가 11월 라스베이거스 세계대회 출전 계획이 있다고 하자 “그 때 나도 데려가라”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여성을 성적대상화 하는 언급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4) 선정성

〈다이아몬드는 영원히〉(지큐코리아)에서는 러시아 출신의 모델인 이리나 샤크의 인터뷰와 화보를 실었는데, 노출이 심한 드레스와 속옷을 입은 이미지 뿐 만 아니라 여성의 전라모습까지 화보에 담았다. 〈국군의 날 특집 밀리터리 스페셜 화보〉(맥심코리아)는 신체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이 가슴과 엉덩이를 강조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선정적인 사진이 사용되었다.

IV. 나가며


잡지 매체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여성을 성적대상화 하는 내용 등으로 성차별적인 부분을 볼 수 있었다. 바느질을 여성이 당연히 가져야할 기본 소양으로 표현하며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냈으며, 특히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되고 강조되는 이미지와 선정적인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다.

반면 여성의 주체적인 모습을 담은 내용, 섹시함 등 성차별적 이미지를 강조하던 기존 방식에서 여성의 건강함과 강인함을 보여주는 기사의 내용은 긍정적으로 보였다. 또한 아이와 아빠가 함께 하는 모습을 다룬 기사 내용에서는 육아를 더 이상 여성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아빠의 역할과 영향력을 보여줘 '부부육아'라는 양성평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잡지는 콘텐츠, 이미지, 내성 구성에 있어 꾸준히 양성평등적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한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V. 모니터링 내용

1. 성 평등적 내용⁷⁾

1) 주체성

잡지명	기사 제목	페이지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에스콰이어	김서형 도시 여자의 얼굴	p.190	드라마 <굿 와이프>에 출연한 김서형의 인터뷰 내용을 다룸. 배역에 대해 고민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안 해 본 상태에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저 스스로는 의심하지 않거든요”라며 자신감을 드러냄. 자기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활동하는 주체성 있는 여성의 모습을 드러냄.
여성중앙	오! 싱어즈, 제주 해녀를 예찬 하다	p.404	 <p>'제주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를 기원하는 특별 공연이 열렸다는 내용으로, 제주해녀들이 바다생태환경에 적응하여 물질기술과 해양지식을 축적·계승하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주체적 여성으로 재조명함.</p>

7)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2) 현실반영성


잡지명	기사 제목	페이지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지큐 코리아	예민함에 배타적인 도시	p.174	‘최근 들어서는 미디어들이 ‘아재’의 오역을 전도하는데 일제히 열을 올리고 있다’며 아재라는 단어가 매력적인 중년 남성의 의미와는 다르게 오용돼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함.
지큐 코리아	코멘츠 여성 시대	p.66	독자들의 코멘츠에서 한 독자가 2016년 상반기를 가장 뜨겁게 달군 건 ‘페미니즘’이지만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 언급함. 하지만 “여성혐오가 여성들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다. 사회적 강요를 여자들이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여성혐오 이슈가 부각되며 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게 된 작금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3) 다양성

잡지명	기사 제목	페이지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코스모 폴리탄	editors' BODY challenge	p.242	 <p>‘여성의 몸만들기’ 코너에서 여성근육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이미지는 여성을 섹시함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과 강인함의 시각에서 표현했다는 점에서 다양성을 보여줌.</p>
여성 중앙	FAMILY LIFE 아빠와 나	Book in Book 2p.18	 <p>“아빠와 함께여서 좋다. 소통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세 가족의 이야기”에서는 아이와 함께 여행을 하고 사진을 찍고 친구가 되어 놀아주며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 가족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함. 이를 통해 육아에서 아빠의 역할과 영향력을 일깨워 줌으로써 부육아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줌.</p>

2. 성 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 조장

잡지명	기사 제목	페이지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여성 중앙	윤지혜는 좀 묘하다	p.366	영화 '예의 없는 것들'의 간담회에서 에디터가 윤지혜에게 쓰기 위해 노출 연기를 했느냐고 질문하고 윤지혜는 "나만 벗었다, 신하균도 벗었다."라고 대답함. 여성배우는 노출을 해야 뜰 수 있다는 통념이 반영된 질문이며, 유독 여성배우에게만 노출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성차별적임.
지큐 코리아	코멘트 유연한 남자	p.70	요가를 시작할까 싶어 동행을 구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남자가 무슨 요가야. PT나 받아" 뿐이었다는 내용. 이 같은 내용은 여성운동, 남성운동을 구분하며 운동에 성별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음을 드러냄.
맥심 코리아	이토 준지의 그녀들	p.32	 <p>기사 목적에 '신분감으로 손색없는 이토 준지 만화 속 미녀들을 만나보자'고 언급하며 <현모양처>를 다룸. '현모양처의 기본 소양인 바느질, 제일 어렵다는 가죽소재를 능숙하게 다룬다. 심지어 살아서 팔딱이는 걸 자르고 꿰매니 그 정숙함이 더할 나위 없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보여주고 있음.</p>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잡지명	기사 제목	페이지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맥심 코리아	이토 준지의 그녀들	p.32	기사 목적에 '신분감으로 손색없는 이토 준지 만화 속 미녀들을 만나보자'고 언급하면서 <절대 순종 부잣집 아가씨>를 다룸. '금은보화로 치장한 아가씨가 꼬박꼬박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모습과 돈 많은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적인 것을 최고로 보는 부분에서 순종적인 모습을 강요받고, 여성의 주체성이 무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3) 여성의 성적대상화

잡지명	기사 제목	페이지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맥심 코리아	이토 준지의 그녀들	p.32	기사 목적에 '신붓감으로 손색없는 이토 준지 만화 속 미녀들을 만나 보자'고 언급하면서 <노출녀>를 다룸. '겨우 가슴골 내보이는 정도로 남자 애간장을 녹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한 전신 노출을 선보인다' 라고 말하며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있음.
맥심 코리아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눈꽃, 최설화	p.102	2016 머슬마니아 비키니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한 최설화를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 Q&A로 진행한 인터뷰 중, 에디터가 "아까부터 대화하는데 눈빛에 뭔가가 있다. 혹시 나 좋아하나?"라고 묻는다든가 최설화가 11월 라스베이거스 세계대회 출전 계획이 있다고 하니, "그때 나도 데려가라"는 등의 표현은 여성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발언으로 부적절함.
맥심 코리아	숨 막히는 뒤탈	p.178	 <p>일본 미연시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투하트2>의 메인캐릭터가 선정적 포즈를 취하고 있는 피규어 이미지를 소개함. '허리를 잔뜩 구부려 엉덩이 라인을 돋보이게', '가슴골 사이의 섬세한 도색은 중력을 거스르지 못한 바스트의 쏠림을 실감나게 보여 준다', '최고의 관전 포인트, 짝 끼는 얇은 의상을 입었을 때 엉덩이 골 부분' 등의 선정적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신체를 심각한 수준으로 대상화 함.</p>

(4) 선정성

잡지명	기사 제목	페이지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지큐 코리아	다이아 몬드는 영원히	p.256	러시아 출신의 모델인 이리나 샤크의 인터뷰와 화보가 함께 실렸음, 여성의 유륵까지 드러난 전라모습의 이미지를 비롯하여, 드레스와 속옷을 입은 이미지 역시 신체 부위가 많이 노출되어 있음.

잡지명	기사 제목	페이지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맥심 코리아</p>	<p>국군의 날 특집 밀리터 리 스페셜 화보</p>	<p>p.7</p>	<p>신체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이 가슴과 엉덩이를 강조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선정적인 사진이 사용됨.</p> 

성폭력 모니터링을 통해 본 뉴스미디어와 성폭력

I. 들어가며

2016년 5월 17일, 서초구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6월 4일에는 전라남도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교사가 학부형 3명에게 집단 성폭행 당한 사건이 사건발생 2주 만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다. 6월 14일에는 유명 연예인 박유천이 총 4명의 여성에게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스캔들이, 같은 달 28일에는 22명의 고등학생이 중학생 2명을 집단으로 성폭행 한 사건이 5년 만에 밝혀지는 등, 연일 이어지는 성폭력사건들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인한 대규모의 추모행렬을 시작으로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사회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학생, 학부형, 연예인 등이 연루된 여성폭력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많은 언론이 이를 다뤘다. 언론이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방식을 대하며 진실을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여론을 조성하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미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서울YWCA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회에서는 여성폭력사건 보도 모니터링을 통해 대한민국의 뉴스 미디어가 여성폭력을 다루는 방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방송된 지상파와 종편의 종합뉴스, 온라인 일간지, 인터넷 신문 중 18개 언론매체의 5~6월 이슈가 된 대표적인 4가지 성폭력 사건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II. 모니터링 개요

1. 주제

: 뉴스 미디어와 여성폭력

2. 목적

: 성폭력사건 모니터링을 통해 대한민국의 뉴스 미디어가 성폭력을 다루는 방식을 분석

3. 모니터링 대상

1) 대상사건

: 강남역 살인사건,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박유천 성폭행 의혹사건

2) 사건선정 : '16. 5~6월중 성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대표적 사례 4건

3) 대상매체

: TV 종합뉴스(지상파, 중편) 7개, 일간지 온라인판 6개, 인터넷신문사 5개 (총 18개)

4) 대상내용

① TV 종합뉴스 : 보도내용, 영상

② 일간지 온라인판/인터넷신문사 뉴스 : 기사제목, 내용, 이미지, 영상

구분	매체명	구분	매체명	구분	매체명
TV	KBS	일간지 온라인판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사	노컷뉴스
	MBC		중앙일보		데일리안
	SBS		동아일보		오마이뉴스
	MBN 뉴스8		한겨레		미디어오늘
	TV조선 뉴스 7		경향신문		프레시안
	JTBC 뉴스룸		국민일보		
	채널A 종합뉴스				

4. 진행일정

1) 모니터링 해당 기간

- 2016년 5월 17일(화)~7월 7일(목)

	사 건 명	모니터링 해당기간
1	강남역 살인사건	5월 17일~26일
2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6월 4일~13일
3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6월 28일~7월 7일
4	박유천 성폭행 의혹 사건	6월 13일~22일

*각 사건별로 첫 보도일 기점으로 10일간의 기사/보도내용을 모니터링

2) 이슈모니터링 진행일정

내 용	진행일정
전문가 자문(이슈모니터링 진행방법 논의)	6월 28일
모니터 요원 모니터링 방법 교육	7월 1일
모니터링	7월 2~8일
보고서 분석/초안완성	7월 13일~18일
전문가협의회 검토 및 의견수렴	7월 26일
보고서 발행	8월 10일

5. 분석방법

보도에 대한 내용분석은 주로 미디어가 이 사건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양적분석과, 범행의 성격, 여성폭력의 책임, 선정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분석을 병행하였다. 모니터링 지표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표준화 도구에서 본 분석에 활용될 지표를 추출하였고, 사전 파일럿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수연 박사에게 감수를 받아 완성하였다. 해당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은 서울YWCA 미디어모니터회 회원 14명이 담당하였다.

1) 모니터링 지표

- (1) 범행의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
- (2)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및 가족)에게 돌리고 있는가?
- (3) 성폭력의 과정을 필요이상 상세하게 보도했는가?
- (4) 성폭력을 선정적으로 표현했는가? (기사, 영상, 이미지 등)
- (5) 사건의 원인, 현황, 대책을 보도하는 비중은 어떠한가?
- (6) 성차별적 표현은 없는가?

2) 분석지표 및 방법

(1) 양적분석 : 미디어가 이 사건에 부여하는 중요성

- ① 성폭력사건 발생일로부터 매체별 보도횟수
- ② 사건 별 보도횟수 ③ 보도 길이 ④ 보도 순서(앞에서 몇 번째)

(2) 질적분석 : 범행의 성격, 성폭력의 책임, 성폭력의 과정, 선정성, 대책보도비중, 성차별적 표현에 대한 내용분석

- ① 사건의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
 - 가. 여성혐오 나. 여성에 대한 폭력 다. 우발적 범죄 라. 남녀 애정 문제
 - 마. 정신질환 바. 기타 (서술) 사. 드러나지 않음
- ② 사건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 가. 가해자 나. 피해자 다. 사회상황 라. 기타(서술)
- ③ 보도의 초점
 - 가. 가해자의 상황 나. 피해자의 상황 다. 구조적 원인 라. 대책
 - 마. 기타(서술)
- ④ 성폭력을 선정적으로 표현했는가? (기사, 영상, 이미지 등)
 - 가. 그렇다(서술) 나. 아니다
- ⑤ 성폭력의 과정을 필요 이상 상세하게 보도했는가?
 - 가. 그렇다(서술) 나. 아니다
- ⑥ 사건의 원인, 현황, 대책을 보도하는 비중은 각각 얼마인가?
 - 원인(%) 현황(%) 대책 (%)
- ⑦ 성차별적 표현은 없는가?
 - 가. 있다 / 있다면 (1) 언어(서술) (2) 영상/이미지(서술)
 - 나. 없다

Ⅲ. 결과분석

미디어가 각 사건에 부여하는 중요성과 보도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V프로그램(지상파, 종합편성채널) 관련보도에 대하여 '성폭력사건 발생일로부터 매체별 보도횟수', '보도 길이', '보도 순서(앞에서 몇 번째)'를 모니터링 하였고, 온라인 일간지와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는 보도횟수를 파악하였다. 박유천 성폭행 의혹 사건은 혐의가 공식 입증되지 않은 바 별도로 분석하였으며, 편의상 각 표에 사건명을 축약하여 표기하였다.

	사 건 명	축약표기
1	강남역 살인사건	강남역
2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섬마을
3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집단성폭행
4	박유천 성폭행 의혹 사건	성폭행의혹

1. 보도추이 분석을 위한 양적분석

1) TV 종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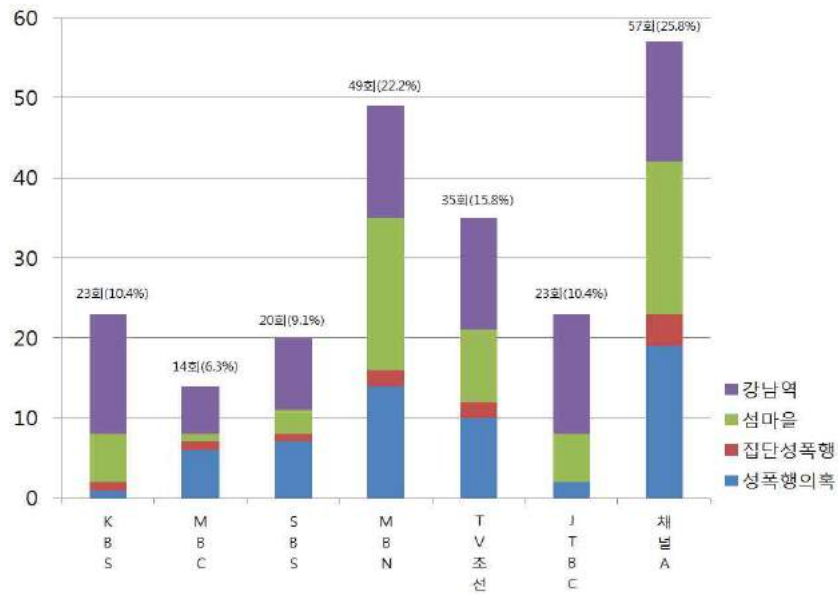
(1) 방송사 별 보도횟수 및 시간

TV프로그램(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종합뉴스의 관련보도 횟수를 분석한 결과 해당기간 중 관련 보도는 총 221회였고 주로 MBN과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위주로 다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채널A는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과 박유천 성폭행 의혹 사건을 각 19회씩 보도하여 매체 중 보도횟수가 가장 많았고, MBC의 보도횟수가 가장 적었다. KBS는 해당기간 중 박유천 성폭행 의혹 사건을 단 1회 보도하였다.(그림1 참조)

관련기사의 평균 보도시간은 기사 1건 당 1분 30초 정도로 언론사별로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JTBC의 평균보도시간이 비교적 길었는데, 사건발생 후 8시간 행적(03:57)과 산간지역 학교들의 안전실태에 대한 밀착보도(04:34)가 이루어졌으며 보도 내용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 (표1-1 참조) 채널A의 보도시간이 가장 길었고, 특히 박유천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31분 35초간 보도하였고, 가장 적게 보도한 JTBC와 30여분이나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박유천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평균보도시간은 MBN이 3분 가량으로

가장 길었다. 본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과 달리 피의자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도를 자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총 59회(1시간 7분 분량) 방송되었다.(표1-2 참조)

[그림1] 방송사별 보도횟수



[표1-1] 방송사별 보도횟수

구분	방송사	사건명	보도횟수		보도시간	
			횟수	소계	평균보도시간 (기사1건 기준)	소계
TV (지상파)	KBS	강남역	15	22	01:55	39:57
		섬마을	6		01:33	
		집단성폭행	1		01:45	
	MBC	강남역	6	8	01:32	12:24
		섬마을	1		01:26	
		집단성폭행	1		01:45	
	SBS	강남역	9	13	01:50	30:30
		섬마을	3		01:48	
		집단성폭행	1		01:41	
TV (중편)	MBN	강남역	14	35	01:38	67:46
		섬마을	19		01:31	
		집단성폭행	2		01:26	
	TV조선	강남역	14	25	01:48	42:22
		섬마을	9		01:33	
		집단성폭행	2		01:33	
	JTBC	강남역	15	21	01:25	36:10
		섬마을	6		02:27	
		집단성폭행	0		-	
	채널A	강남역	15	38	01:48	69:21
		섬마을	19		01:51	
		집단성폭행	4		01:43	
합 계			162회		4:58:30	

[표1-2] 방송사별 보도횟수 및 시간2

구분	방송사	사건명	보도횟수	평균보도시간 (기사1건 기준)
TV(지상파)	KBS	성폭행의혹	1	01:45
	MBC		6	08:36
	SBS		7	01:42
TV(중편)	MBN		14	05:57
	TV조선		10	16:08
	JTBC		2	01:39
	채널A		19	31:35
합 계			59회	1:0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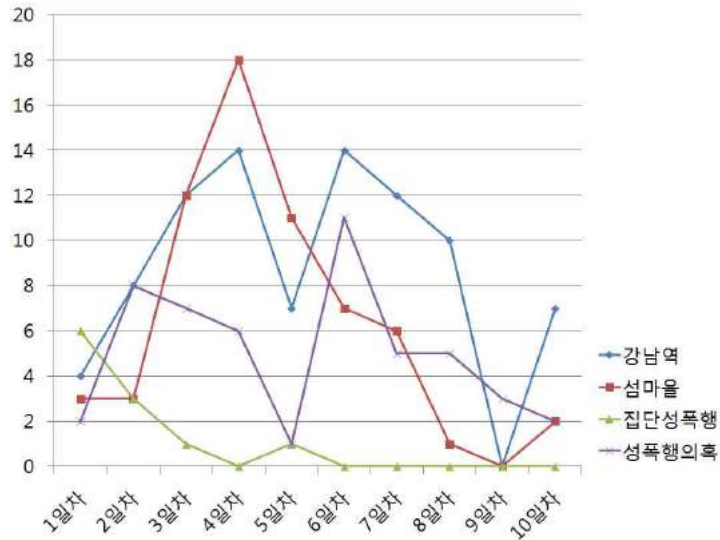
(2) 사건 별 보도횟수

사건 별 보도횟수 분석 결과 강남역 살인사건이 88건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보도량이 가장 적었다. 박유천 성폭행 의혹 사건은 59회 다루어졌으나 주로 종편 위주로 보도되었다. 강남역 살인사건과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은 9일차에 보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략 8-9일차를 즈음하여 보도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표2 참조)

[표2] 사건별 보도횟수

사건명	방송사	당일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합계	
강남역	KBS		1	2	3	1	1	4	1		2	15	
	MBC			1	1	1	1	1	1			6	
	SBS		1	2	1			3	1	1		9	
	MBN	1	1	1	3	1	3			3	1	14	
	TV조선	1	4	1		2	2	2	1		1	14	
	JTBC	1	1	3	1	1	2	2	2			2	15
	채널A	1		2	5	1	2	2	1			1	15
	소계(건)	4	8	12	14	7	14	12	10	0	7	88	
섬마을	KBS	1			2	1	1	1				6	
	MBC				1							1	
	SBS				2			1				3	
	MBN	2	2	5	4	3	2	1				19	
	TV조선		1	2	1	2	1	1	1			9	
	JTBC			1	2		1				2	6	
	채널A			4	6	5	2	2				19	
	소계(건)	3	3	12	18	11	7	6	1	0	2	63	
집단 성폭행	KBS	1										1	
	MBC	1										1	
	SBS	1										1	
	MBN	1				1						2	
	TV조선	1	1									2	
	JTBC											0	
	채널A	1	2	1								4	
	소계(건)	6	3	1	0	1	0	0	0	0	0	11	
성폭행 의혹	KBS						1					1	
	MBC		1	1	1	1	1				1	6	
	SBS			1	1	1	1	1	1	1		7	
	MBN		3			4	2	2	2		1	14	
	TV조선	1	1	1	1	1	2	1	1	1		10	
	JTBC	1		1								2	
	채널A		3	3	3	3	4	1	1	1		19	
	소계(건)	2	8	7	6	10	11	5	5	3	2	59	
합계(건)	15	22	32	38	29	32	23	16	4	11	221		

[그림2] 사건별 보도 추이



사건 별 보도횟수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 사건에 대한 첫 보도 4일차와 6일차에 보도량이 가장 많았다. 4일차에는 많은 여성들이 강남역 살인사건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며 공포를 느끼고 있고, SNS를 통해 추모열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전하였다. 6일차에는 경찰이 본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닌 ‘정신분열증에 의한 문지마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여성 혐오 범죄’의 여부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는 여성 혐오 논쟁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림2 참조)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은 4일차에 보도량이 가장 많았다. DNA 검사 결과 성 폭행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가 9년 전 일어난 다른 성폭행 사건의 범인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DNA 검출 결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는 뉴스와, 성폭행 피의자를 두둔하는 인터뷰로 인한 여론의 비난에 섬마을 주민들이 고심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림2 참조)

박유천 성폭행 의혹 사건은 고소장이 2건 접수된 상황에서 당일 2건이 더 접수되며 총 4건의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보도된 5, 6일차에 보도량이 늘었다.

(3) 방송사 별 보도순서

보도순서를 앞부분부터 다섯 개씩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 주로 종편에서 주요 기사로 다루었음을 확인하였다. 종편 중에서도 채널A는 관련보도 57회 중 1-5번째의 주요사건으로 보도된 횟수가 25회로 관련보도 중 절반가량(43.9%)을 앞부분에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표3] 방송사별 보도순서

구분	방송사	보도순서	보도횟수 (건)	구분	방송사	보도순서	보도횟수 (건)
TV (지상파)	KBS	1-5번째		TV (종편)	MBN	1-5번째	9
		6-10번째	7			6-10번째	13
		11-15번째	10			11-15번째	18
		16-20번째	5			16-20번째	8
		21번째 이후	1			21번째 이후	1
	MBC	1-5번째	2		TV 조선	1-5번째	1
		6-10번째	3			6-10번째	16
		11-15번째	9			11-15번째	15
		16-20번째				16-20번째	3
		21번째 이후			JTBC	1-5번째	3
	SBS	1-5번째	4			6-10번째	8
		6-10번째	5			11-15번째	9
		11-15번째	10		16-20번째		
		16-20번째	1		21번째 이후	3	
		21번째 이후			채널A	1-5번째	25
		6-10번째	12				
		11-15번째	11				
		16-20번째	7				
			21번째 이후	2			

2) 인터넷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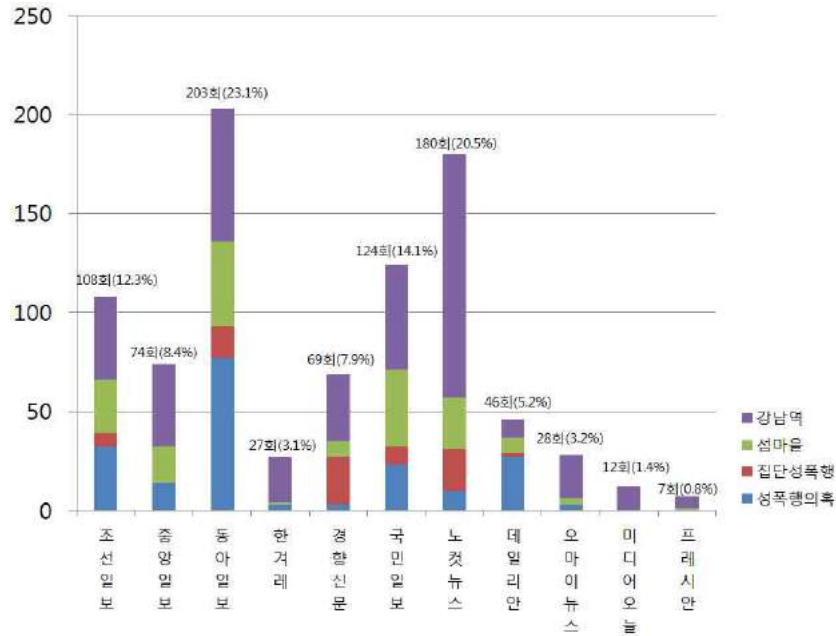
(1) 언론사 별 보도횟수

언론사 별 보도횟수 분석 결과 관련보도는 총 878회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일간지에서는 동아 일보가 203회, 인터넷 신문사 중에서는 노컷뉴스가 180회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신문사 중 미디어오늘과 프레시안은 관련보도 비율이 다른 언론사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표4, 그림3 참조)

[표4] 언론사별 보도횟수

구분	방송사	사건명	소계	합계	구분	방송사	사건명	소계	합계
일간지 온라인 판	조선일보	강남역	42	108	인터넷 신문사	노컷뉴스	강남역	123	180
		섬마을	27				섬마을	26	
		집단성폭행	7				집단성폭행	21	
		성폭행의혹	32				성폭행의혹	10	
	중앙일보	강남역	42	74		데일리안	강남역	9	46
		섬마을	18				섬마을	8	
		집단성폭행	0				집단성폭행	2	
		성폭행의혹	14				성폭행의혹	27	
	동아일보	강남역	67	203		오마이 뉴스	강남역	22	28
		섬마을	43				섬마을	3	
		집단성폭행	16				집단성폭행	0	
		성폭행의혹	77				성폭행의혹	3	
	한겨레	강남역	23	27		미디어 오늘	강남역	12	12
		섬마을	1				섬마을	0	
		집단성폭행	0				집단성폭행	0	
		성폭행의혹	3				성폭행의혹	0	
	경향신문	강남역	34	69		프레시안	강남역	6	7
		섬마을	8				섬마을	1	
		집단성폭행	24				집단성폭행	0	
		성폭행의혹	3				성폭행의혹	0	
국민일보	강남역	53	124	합 계		878회			
	섬마을	39							
	집단성폭행	9							
	성폭행의혹	23							

[그림3] 언론사별 보도횟수



(2) 사건 별 보도횟수

사건 별 보도횟수 분석 결과 강남역 살인사건이 433건으로 가장 많이 다뤄졌고,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79건으로 보도량이 가장 적었다. 인터넷 기사 역시 TV종합뉴스와 마찬가지로 대략 8-9일차를 즈음하여 보도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표5 참조)

사건 별 보도횟수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강남역 살인사건의 TV 보도량이 4-5일차에 늘어난 데 비해 인터넷 기사는 하루 앞서 보도량이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과 박유천 성폭행 의혹 사건은 보도량 증가 시점이 TV보도와 동일했다.(그림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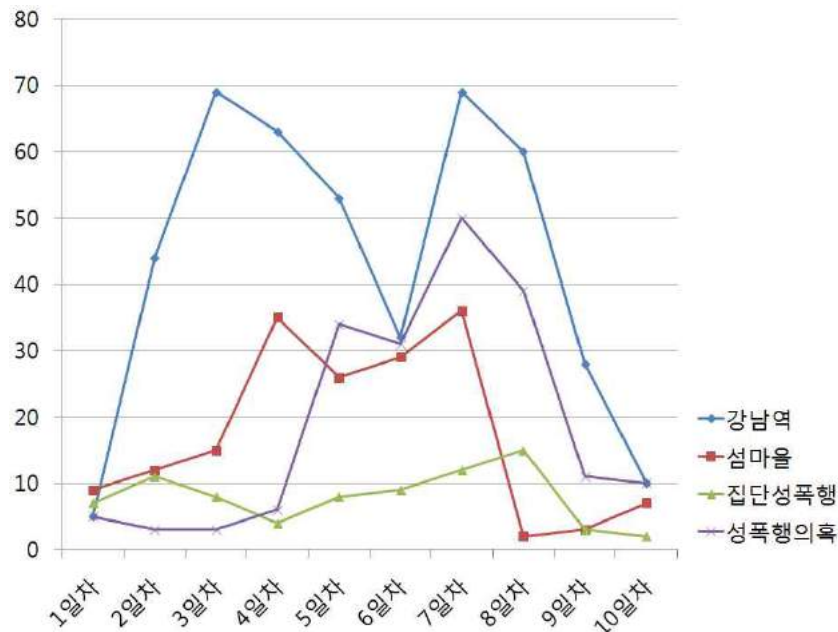
강남역 살인사건은 노컷뉴스가 123회 보도하였고,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은 동아일보가 43회,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경향신문이 24회, 박유천 성폭행 의혹 사건은 동아일보가 77회로 가장 많이 다루었다.

[표5] 사건 별 보도횟수

사건번호	소계	당일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합계
강남역	조선일보		8	12	7	2	3	3	4	1	2	42
	중앙일보			6	5	2	4	12	6	7		42
	동아일보	2	10	18	14	2	4	6	8	1	2	67
	한겨레		1	3	4	3	6	2	2	1	1	23
	경향신문	2	3	5	5		3	7	7	2		34
	국민일보		5	3	8	7	9	8	8	1	4	53
	노컷뉴스	1	15	13	6	35		23	17	13		123
	데일리안		1	2	3			1	1		1	9
	오마이뉴스		1	5	4	2	2	4	3	1		22
	미디어오늘				6		1	1	3	1		12
	프레시안			2	1			2	1			6
소계	5	44	69	63	53	32	69	60	28	10	433	
섬마을	조선일보	2	1	1	6	6	2	7	1		1	27
	중앙일보			2	5	5	3	3				18
	동아일보	3	1	4	7	3	9	14			2	43
	한겨레					1						1
	경향신문		3	2	3							8
	국민일보	2	4	3	1	7	9	7	1	3	2	39
	노컷뉴스	1	2	3	9	4	3	3			1	26
	데일리안	1	1		2		2	2				8
	오마이뉴스				1		1				1	3
	미디어오늘											0
	프레시안				1							1
소계	9	12	15	35	26	29	36	2	3	7	174	
집단 성폭행	조선일보	1	4	2								7
	중앙일보											0
	동아일보	2	6	3	2	2		1				16
	한겨레											0
	경향신문					1	6	4	9	2	2	24
	국민일보	3	1	2	1	1	1					9
	노컷뉴스				1	4	2	7	6	1		21
	데일리안	1		1								2
	오마이뉴스											0
	미디어오늘											0
	프레시안											0
소계	7	11	8	4	8	9	12	15	3	2	79	
성폭행 의혹	조선일보				3	8	5	4	7	2	3	32
	중앙일보				1	3	2	2	4	1	1	14
	동아일보					13	15	31	11	4	3	77
	한겨레							1	2			3
	경향신문	2						1				3

국민일보				1	3	3	4	8	1	3	23
노컷뉴스	3	3	3				1				10
데일리안				1	7	5	5	7	2		27
오마이뉴스						1	1		1		3
미디어오늘											0
프레시안											0
소계	5	3	3	6	34	31	50	39	11	10	192
합계	26	70	95	108	121	101	167	116	45	29	878

[그림4] 사건별 보도 추이(인터넷기사)



2. 보도성격 파악을 위한 양적분석

미디어가 각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TV종합뉴스와 온라인 일간지, 인터넷 기사 중 유의미한 기사 178개를 표본으로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범행의 성격, 성폭력의 책임, 성폭력의 과정, 선정성, 대책보도비중, 성차별적 표현에 대한 내용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1)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및 가족)에게 돌리고 있는가?

사건발생의 책임을 대체로 가해자에게 돌리고 있었으나(97건, 54.5%), 일부 기사(16건, 9.0%)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표6 참조)

[표6] 성폭력의 책임

폭력의 책임 \ 사건명	강남역	섬마을	집단성폭행	성폭행의혹	소계	비율
① 가해자	48	31	9	9	97	54.5
② 피해자	4	5	5	2	16	9.0
③ 사회상황	21	6		1	28	15.7
④ 기타	14	5	5	13	37	20.8
소계	87	47	19	25	178	100.0

2) 성폭력을 선정적으로 표현했는가?

성폭력을 선정적으로 표현한 보도는 27건(15.2%)로 분석되었다. 특히 TV(중편)의 선정성 비율이 23.9%로 높았고, 일간지 온라인판의 선정적인 보도건수도 12건(18.8%)으로 나타났다.(표7-1 참조)

[표7-1] 성폭력표현의 선정성(매체별)

선정적 표현 여부	매체구분	TV	TV	일간지	인터넷	소계
		(지상파)	(중편)	온라인판	신문사	
① 그렇다	빈도(건)	1	11	12	3	27
	비율(%)	1.9	23.9	18.7	21.4	15.2
② 그렇지않다	빈도(건)	53	35	52	11	151
	비율(%)	98.1	76.1	81.3	78.6	84.8

언론사별로는 TV(중편) 중에서도 TV조선에 선정적 보도가 많았고(6건), 일간지 온라인판에서는 국민일보의 선정보도 건수가 8건으로 많았다.(표7-2 참조)

[표7-2] 성폭력표현의 선정성(언론사별)

선정적 표현여부	매체구분	TV (지상파)		TV (중편)			일간지 온라인판					인터넷 신문사				소계			
		빈도	언론사	MB N	TV 조선	JTB C	채널 A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국민일보	노컷뉴스	데일리안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프레시안
①그렇다	빈도(건)	1		6	3	2	2				2	8	2	1				27	
	비율(%)	1.9		23.9			18.7				21.4							15.2	
②그렇지않다	빈도(건)	23	12	18	21	4	4	5	3	8	28	4	2	7	2		2	7	151
	비율(%)	98.1		76.1			81.9				78.6							84.8	

3) 성폭력의 과정을 필요이상 상세하게 보도했는가?

분석결과 TV(중편)와 일간지 온라인판에서 여성폭력의 과정을 필요이상 상세하게 보도한 내용이 각 7건씩 발견되었다.(표8-1 참조)

[표8-1] 폭력묘사의 상세여부(매체별)

상세보도 여부		매체구분	TV (지상파)	TV (종편)	일간지 온라인판	인터넷 신문사	소계
		① 그렇다	빈도(건)	1	7	7	
	비율(%)	1.9	15.2	10.9		8.4	
② 그렇지 않다	빈도(건)	53	39	57	14	163	
	비율(%)	98.1	84.8	89.1	100.0	91.6	

언론사별로는 MBN과 TV조선, 동아일보와 국민일보에서 각 3건씩 상세보도 내용을 발견하였다.

(표8-2 참조)

[표8-2] 폭력묘사의 상세여부(언론사별)

상세보도 여부	매체구분 언론사 빈도	TV (지상파)			TV (종편)			일간지 온라인판				인터넷 신문사				소계				
		KBS	MBC	SBS	MBN	TV조선	JTB채널C	A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국민일보	노컷뉴스		데일리안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프레시안
①그렇다	빈도(건)	1			3	3		1	1	3			3							15
	비율(%)	1.9			15.2			10.9								8.4				
②그렇지 않다	빈도(건)	22	13	18	25	4	4	6	4	8	25	4	4	12	4	1	2	7		163
	비율(%)	98.1			84.8			89.1				100.0				91.6				

5) 기타

가. 범행의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

사건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는 보도가 80건(44.9%)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는 보도 이외에, 사건 초기에 여성혐오범죄 여론에 따라 언론에서도 여성혐오를 중심으로 보도하다가 경찰이 '정신분열증(조현병)에 의한 문지마 범죄'로 가닥을 잡자 가해자의 정신질환을 사건의 원인으로 보도하는 추이를 보였다. 박유천 성폭행 의혹 사건을 성매매 사건으로 표현하는 보도는 6건으로 나타났다.(표10 참조)

[표10] 범행의 성격 규정

범행의 성격규정 \ 사건명	강남역	섬마을	집단성폭행	성폭행의혹	소계	비율
① 여성혐오	29	1	1	1	32	18.0
② 여성에 대한 폭력	34	28	16	2	80	44.9
③ 우발적 범죄	3	8			11	6.2
④ 남녀애정문제	1	1	1		3	1.7
⑤ 정신질환	15				15	8.4
⑥ 성매매				6	6	3.4
⑦ 기타	2	5		7	14	7.8
⑧ 드러나지않음	3	4	1	9	17	9.6
소계	87	47	19	25	178	100.0

나. 보도의 초점은 무엇인가?

관련보도 중 57건(32.0%)는 가해자의 신상, 범죄동기와 과정, 신변처리상황 등 가해자의 상황에 초점을 두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보도는 17건(9.6%)로 가장 낮았다. 구조적인 원인(남녀공용화장실, 도서벽지 관사 안전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성찰)에 대한 보도는 41건(23.0%)이었고, 대책(조현병 환자의 강제입원 방침, 학교관사 CCTV 설치, 성차별 문화개선을 위한 학부모교사 교육 등)에 대한 보도는 10.7%에 그쳤다. 기타 내용으로는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추모행렬, 남녀 대립구도 형성, 여성혐오 논란 등)과 2차 피해 관련 보도(섬마을 주민들의 발언, 여중생 학부모의 책임 회피 발언에 대한 여론 등)가 있었다.(표11-1 참조)

[표11-1] 보도의 초점(사건별)

보도의 초점 \ 사건명	강남역	섬마을	집단성폭행	성폭행의혹	소계	비율(%)
① 가해자의 상황	20	19	9	9	57	32.0
② 피해자의 상황	3	6	3	5	17	9.6
③ 구조적 원인	34	6		1	41	23.0
④ 대책	8	6		5	19	10.7
⑤ 기타	22	10	7	5	44	24.7
소계	87	47	19	25	178	100.0

각 매체별로는 전반적으로 가해자의 상황에 초점을 두어 보도했고, 인터넷신문사의 경우 구조적 원인을 다룬 보도의 비중(57.1%)이 다른 매체에 비해 높았다. 종편의 경우 대책보도 건수가 3건(6.5%)으로 대책보도 비중이 타 매체보다 낮게 나타났다.(표11-2 참조)

[표11-2] 보도의 초점(매체별)

보도의 초점	매체구분	TV	TV	일간지	인터넷	소계
		(지상파)	(종편)	온라인 판	신문사	
① 가해자의 상황	빈도(건)	20	17	16	4	57
	비율(%)	37.0	37.0	25.0	28.6	32.0
② 피해자의 상황	빈도(건)	3	7	7		17
	비율(%)	5.6	15.2	10.9		9.6
③ 구조적 원인	빈도(건)	8	9	16	8	41
	비율(%)	14.8	19.6	25.0	57.1	23.0
④ 대책	빈도(건)	8	3	6	2	19
	비율(%)	14.8	6.5	9.4	14.3	10.7
⑤ 기타	빈도(건)	15	10	19		44
	비율(%)	27.8	21.7	29.7		24.7

다. 사건의 원인, 현황, 대책을 보도하는 비중은 어떠한가?

사건의 원인, 현황, 대책을 보도하는 비중은 TV(종편)은 원인과 대책에 대한 보도 보다는 현황에 대한 보도의 비중이 75.4%로 다른 매체에 비해 높았고, 대책보도의 비중은 인터넷신문사가 21.4%로 다른 매체보다 높았다.(표12 참조)

[표12] 원인, 현황, 대책 보도비중

매체	구분	원인(%)	현황(%)	대책(%)	소계(%)
		TV(지상파)	39.6	50.2	10.2
TV(종편)	14.3	75.4	10.3	100.0	
일간지온라인판	31.2	54.8	14.0	100.0	
인터넷신문사	37.9	40.7	21.4	100.0	


IV. 내용분석

1. 성폭력 보도의 선정성

지나치게 선정적인 언론보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고 치유와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쉴 새 없이 터지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경쟁으로 인한 무분별한 선정보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 살인사건 관련 CCTV 장면의 노출



강남역 살인사건을 다룬 대부분의 방송에서 사건 당시의 CCTV를 반복적으로 노출시켰다. 범죄의 정황을 전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면을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해당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흥미위주의 선정적 범죄화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피해자의 신상과 관련된 장면의 반복적인 노출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절 소재 및 표현 기법 제38조 1항에 “관련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가해자,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고 가해자가 범행 후 빠져나오는 모습, 피해자가 구급대원에게 실려 나가고 이를 본 피해자의 남자친구(실제 대학선배)가 오열하는 모습까지 방영하는 것은 피해자와 피해관련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매체구분	언론사	보도일	제목	해당 장면 분석
일간지 온라인판	조선 일보	5/18	'강남역 문지마' 살인, CCTV 영상 공개...피해여 성 남자친구 오열하다 휘청	 <p>강남역 문지마 살인 사건' CCTV에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당시 현장에서 오열하며 쓰러지는 모습이 방영됨. 영상에는 화장실에서 발견된 A 씨가 구조대원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 계단을 내려가고, 이를 뒤따르던 A 씨의 남자친구가 이내 휘청거리다 발버둥치고 오열하는 모습까지 담김. 다양하고 상세한 보도와 경쟁적인 보도 열기를 엿 볼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 및 피해 관련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영상임. A씨가 흥기로 왼쪽 가슴 부위를 2~4차례 찢린 채 변기 옆에 쓰러져 있었</p>

매체구분	언론사	보도일	제목	해당 장면 분석
				다는 상세한 내용과 피의자의 동선 등이 자세히 보도 됨. 잔혹한 사건정황이 너무 상세히 그려졌고, 모방범죄를 유도할 우려도 있음.

2)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선정적인 삽화로 범죄를 재연



강남역 살인사건이 CCTV를 무분별하게 노출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박유천 성폭행 의혹 사건은 실제 사건 장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언론사별로 일러스트 삽화를 만들어 활용하였다.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선정성을 띤 내용이 많았다.

매체구분	언론사	보도일	제목	해당 장면 분석
TV (중편)	MBN	6/6	성폭행 악몽에도 침착했던 20대 여교사	 <p>8 악몽에도 침착했던 20대 여교사</p> <p>20대 여교사가 성폭행을 당하고도 침착하게 행동하여 파렴치한 범인들의 범행을 입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보도. 집단 성폭행을 당한 여교사가 새벽 2시쯤 정신을 차린 후 이상을 감지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고 몸도 씻지 않고, 경찰과 함께 첫 배로 바로 육지의 병원으로 가 체내 DNA 채취에 협조했다는 내용. 장면을 연상시키는 몸도 씻지 않았다는 표현과 피해여성이 누워있는 일러스트 모두 선정적임.</p>
TV (중편)	MBN	6/28	고교생 22명이 여중생 성폭행...5년 만에 드러나	 <p>3 성폭행에 22명이 가담</p>

매체구분	언론사	보도일	제목	해당 장면 분석
				 <p>지난 2011년 여중생 2명을 산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거나 범행을 도운 남자 고등학생 22명이 붙잡혔으며, 이들은 현재 대학생활을 하거나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범행이 드러나기까지 무려 5년의 시간이 걸렸음을 보도. 자료화면으로 가해 남학생들이 집단으로 성폭행하기 위해 줄지어 서있는 삽화가 사용되었으며, 심지어 성폭행을 저지른 후 바지의 지퍼를 올리고 있는 듯한 뒷모습은 도를 지나친 표현임.</p>
TV (중편)	TV조선	6/13	유명 아이돌, 유흥업소 증업원 성폭행 피소	 <p>“A씨가 술을 마신 이곳은 일명 ‘텐카페’라고 불리는 유흥업소로, 손님 한명 당 50만원 내외의 술값을 지불해야 하는 곳입니다”, “(업소 관계자) 어느 가게든 연예인 많이 와요, 어느 가게든”, “업소엔 방이 10여개 있고, 그 안엔 작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등 성폭행이 일어난 유흥업소를 묘사하는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음. 성폭행 장소(화장실)에서의 성폭행을 재연하는 삽화를 사용함.</p>

3) 흥미유발을 위한 선정적인 기사제목과 구체적인 범행묘사에 치중하고 있음

「인권보도준칙 제2장 2조 라항」에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는다’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구체적 정황묘사, 사건의 내용전달 보다는 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장면만을 강조하는 경향 등 성폭력 범행과정의 선정적인 내용을 부각시켜 보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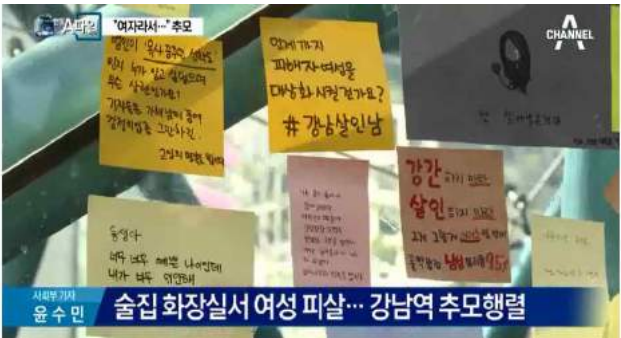
매체구분	언론사	보도일	제목	해당 장면 분석
일간지 온라인판	국민 일보	6/29	“박유천 배설기관된 듯” 성폭행 진술… 5번째 여성까지	 <p>MBC PD수첩의 방송내용을 토대로 성폭행 당시 상황을 묘사함. 피해여성이 생리중이었다는 것과, 키스하면서 치마를 들추고 바지를 푸는 등 성행위를 시도하는 장면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음. 타 방송프로그램의 인용보도일지라도 필요이상의 기술을 지양해야 함. 인용된 삽화 역시 자극적임.</p>
TV (지상파)	SBS	6/28	5년 만에 드러난 여중생 집단 성폭행의 전모	 <p>2011년 9월, 여중생 두 명이 골목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고등학생 무리가 여중생의 휴대번호를 받아내고, 오후 9시 전화를 걸어 술 마신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며 야산으로 불러 강제로 술을 먹임. 정신을 잃은 여중생 2명을 4명이 성폭행 했으며, 이후 같은 장소에 다시 불러 나온 여중생 2명은 22명에 둘러싸여 성폭행 당한 사실을 보도함. 피해정황을 매우 자세히 보도하고 있음.</p>

매체구분	언론사	보도일	제목	해당 장면 분석
일간지 온라인판	국민 일보	6/30	'더 할 사람 와라' 22명 성폭행 사건 기막힌 학생 진술	김장수 경위와의 인터뷰 기사임.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불감증을 알리려 했던 경위의 인터뷰가 사건의 경위를 캐묻는 과정을 통해 일반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가십거리로 전락해버림. '더 할 사람 와라'는 기사제목 또한 지나치게 선정적임.


2.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1) 성폭행 피해 당사자에 대한 피해

성폭행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의 내용에 따라 사건과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다. 범죄가 늦은 밤 술집화장실에서 이루어졌다거나 피해 중학생들이 술을 마셨다거나, 피해여성이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피해자가 성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무분별하게 묘사하였다. 또한 피해여성이 종사하는 업소직원의 인터뷰를 들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다'라는 도식을 담은 보도나 해당사건과 무관한 사건과 비교하여 보도하는 것은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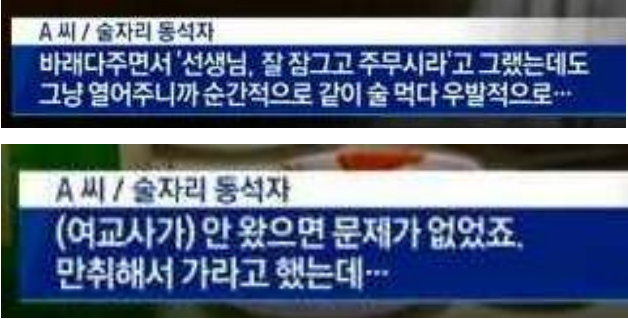
매체구분	언론사	보도일	제목	해당 장면 분석
TV (중편)	채널A	5/23	술집화장실에서 여성피살... 강남역 추모행렬	 <p>새벽1시경 술집 화장실이라는 표현은 피해의 원인을 피해여성에게 돌릴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p>
TV (중편)	채널A	6/8	부끄러움 이긴 여교사의 '용기'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을 의연하게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보도일지라도 성폭행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과 충격 등의 감정을 '부끄러움'으로 표현한 것은 부적절함.

매체구분	언론사	보도일	제목	해당 장면 분석
TV (중편)	TV 조선	6/28	5년 만에 드러난 집단 성폭행...고 교생 22명이 여중생 2명을	<p>“호기심에 술 마시던 여중생들 협박한 고등학생들”이란 자막을 통해 가해자(고등학생)들이 피해자(여중생)들의 음주 행위가 성폭행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뉴앙스를 풍김. 사건의 경과를 필요이상 상세히 보도하고 있으며, 맥주 캔을 들고 있는 피해자를 ‘학교에 얘기 하겠다’라고 가해자들이 위협하는 장면과, 주변에는 술병이 텅굴고 있고 주저앉은 2명의 피해자들을 가해자들이 둘러싼 성폭행 현장 장면을 재연하는 내용의 삽화를 자극적으로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음.</p>
TV (지상파)	MBC	6/14	한류스타 박유천 '성폭행 피소'...“허위 다”	<p>〈한류스타 박유천 ‘성폭행 피소’...“허위다”〉의 제목에서 〈박유천, 유흥업소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피소 “땡땡하다”〉는 제목으로 변경하고, “여기 비싸요, 연예인들 많이 오니까. 한 상에 2~3백(만 원) 한다고...”라는 인근</p>

매체구분	언론사	보도일	제목	해당 장면 분석
				업소 직원의 인터뷰를 게재하며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사자임을 강조함.
TV (중편)	채널A	6/14	박유천 주장 “성관계 뒤 돈 줬다”	 <p>박유천 씨가 찾았던 강남의 한 유흥업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술집이고 박 씨 측에서 박씨가 지갑에 있는 60여만 원을 여성에게 건네줘 강제성이 없었으며, 여성측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과 고소인 이씨가 사건 발생 이후 태연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술집 CCTV에 촬영되었음을 보도하여 성폭행을 정당화하는 뉘앙스로 보도함.</p>
일간지 온라인판	조선 일보	6/17	박유천 피소, 업소 직원 “나몰라라 갔다... 2차를 안가고”	피해여성이 증사하는 업소 직원이 인터뷰에서 “성폭행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소리만 질러도 저희가 화장실을 다 들어가 보기 때문에. 소리 지르면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말과 “2차를 가면 2차 비용을 내야 하는데 박씨는 그냥 나몰라라 갔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인 고소인이 박씨가 2차 비용을 내지 않아 성폭행으로 신고한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말을 기사화함.
일간지 온라인판	경향 신문	6/15	박유천 성폭행 수사...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박유천 사건이 피해여성의 고소 취하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는 보도 중 지난해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골프장 캐디를 하는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이를 고소한 여성 등이 무고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을 들어 일각에서 ㄱ씨의 무고죄 혐의 적용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는 보도. 사건과 상관없는 검찰총장 캐디 성추행 무고죄에 대해 다루어 마치 이번 고소 여성도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도함.

2) 사건 비당사자에 대한 2차 피해

성폭행 사건에 대한 언론의 무분별한 취재와 보도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가족, 지역주민 등에 대한 2차 가해를 발생시켰다. 조현병 환자를 강력 범죄와 연결시킴으로 모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인 강력 범죄의 가해자로 만들고, 섬마을 지역주민의 인터뷰 내용을 비난조로 보도하거나 이미 지난 사건들을 재조명하여 지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며, 가해 부모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 공분을 사게 하는 등 사건의 핵심에서 벗어난 보도에 집중함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다.

매체구분	언론사	보도일	제목	해당 장면 분석
TV (지상파)	KBS	5/23	“범죄 우려 정신질환자, '행정 입원' 추진”	 <p>조현병 환자를 강력 범죄와 연결시키는 보도로 모든 조현병 환자에게 강력 범죄에 위험이 있는 듯 보도함. 이는 심각한 왜곡이자 조현병 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혐오조장에 가까움.</p>
TV (종편)	채널A	6/7	여교사 '꼬리 쳤다' 황당한 감싸기	<p>기사가 거의 주민들의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혹으로 이루어진 일'이며 '남자들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일부 주민의 인터뷰를 가감없이 그대로 방영하고, 심지어 '황당한 감싸기'라는 제목으로 비난여론을 형성함으로써 2차 피해를 양산함. 또한 인터뷰 중 주민의 말 일지라도 '꼬리 친다'는 여성비하 발언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시정되어야 함.</p>
일간지 온라인판	국민 일보	6/8	“여교사가 꼬리쳐서...” 섬마을 주민 인터뷰 모아보니	

매체구분	언론사	보도일	제목	해당 장면 분석
				<p>섬마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Jtbc, MBN, 채널A 등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한 주민 인터뷰를 모아 방송함. 시민들의 공분을 강화하고 사건 당사자 주변인에 대한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기사임.</p>



매체구분	언론사	보도일	제목	해당 장면 분석
일간지 온라인판	국민 일보	6/5	“예전부터 수상했다” 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 후폭풍...	<p>도와주세요 여자친구가 윤간을 당했습니다. (수시로 수정할게 확립나 다) 2016.05.25 1</p> <p>말기지가 않네요.. 제가 이윤일을 당했다는게... 제복그래도 여자친구가 윤간을 당했습니다</p> <p>신상을 격절해 강력하게 찍었습니다.</p> <p>여자친구는 겁사입니다. 학부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학부원이 조카와 다른 모르는 사람을 여럿이서 술과 식사를 하였고 이 사람들이 술을 먹기보다는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술을 권하여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여자친구를 학부원과 그 조카 그리고 다른사람(정확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만위한상태에서 잡까지 데려다 온 뒤 여자친 급에서 서로 돌아가며 윤간을 받습니다</p> <p>정신아픈 여자친구는 일어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형편이 속옷 이불 등을 낚아서 증거로 가져간 상황입니다. 여자친구는 뽕을 짓지 않았을 다음날 장석과 채우 등 DNA 채취를 완료하였고 재판관 그자리에 통영하였습니다. (실직하게 잘 대응한게 있어서 정말 고맙다고요... 경찰들도 놀라고 예상상당했던 직장들도 놀랐습니다.)</p> <p>사건발생한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증거는 넘쳐나는 상황이고 용의자도 특정지어졌으며 수사가 진행되고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병가중이나 곧 휴직으로 변경을 듯 합니다.</p>  <p>여교사 남자친구가 카페에 올린 글, 네티즌의 신상 털 기, 주민의 인터뷰 장면, MBC와 SBS의 TV뉴스를 여 기저기서 굶어모아 하나씩 골고루 실으며 신안여교사사 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생산함. 더불어 신안 섬에서 발생했던 염전노예사건 등 다른 사건들의 사진 5개를 연결해 게재함으로 그 지역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고착시키고 지역감정을 조장함. 여교사를 타하는 섬 주 민들, 신상을 털며 흥미진진해 하는 네티즌들, 자극적인 기사를 양산해내는 언론들로 인한 2차 정신적 피해를 양산할 수 있음.</p>
일간지 온라인판	동아 일보	6/29	‘22명이 여중생 2명 집단 성폭행’ 피의자 부모 “5년이나 지난 일인데 이제와서...” 피해자 탓	 <p>지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거짓 증언을 하려는 피의자들과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나는 피의자 부 모의 말을 보도하며 성폭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 려는 태도를 보도.</p>

3. 성차별적 보도 지양

대부분의 보도가 사건의 제목에 '여중생', '여중업원', '여교사' 등 여성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특히 '~녀'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사건과 관련된 여성을 일컬을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임에도 피해자인 고소인을 고소녀로 표현하며 희화하는 보도가 있었다. 또한 인터뷰 시 여성의 신상은 노출하고, 남성의 신상은 감추어 남녀의 신상을 달리 다루는 경우도 있었다.


매체구분	언론사	보도일	제목	해당 장면 분석
TV (종편)	TV조선	6/20	[이슈본색] 박유천, 자신 고소한 여성 맞고소...왜?	 <p>일러스트 이미지를 통해 화장실 내에서의 성폭력장면을 이미지화 하도록 함. 첫 번째 고소여성을 '1번 고소녀'로 표현. 특정 부류, 특히 부정적인 의미의 여성을 묘사할 때 접미사 처럼 쓰는 단어로 사용을 지양해야 함에도 불필요하게 사용함.</p>
TV (종편)	TV조선	5/19	“묻지마 살인” 촛불문화제... 남녀의 갈등도	  <p>일부에선 여성이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남성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가선 안된다는 객관적 시선을 취재하는 데서 촛불문화제 참석 여성은 개인정보와 더불어 얼굴노출, 남성은 신분노출 없이 '남성추모객'으로 처리하여 오히려 또 다른 폭력(개인적 비방이나 욕설, 폭행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p>

V. 좋은 보도 사례

매체구분	언론사	보도일	제목	해당 장면 분석
TV (지상파)	SBS	5/19	3곳 중 1곳 '공용화장실' ...女 '불안' 男 '불만'	 <p>상가 화장실 20개 중 남녀 공용화장실은 모두 7곳으로, 남성용 공간과 여성용 화장실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실제 이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 일어날 경우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보도하여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 함.</p>
TV (지상파)	SBS	5/22	추모열기 확산 왜?...'여성들 의 비명' 귀기울여야	 <p>여성혐오 범죄나 아니냐를 떠나, 무엇보다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는 일상행위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는 현실에 충격이 컸고 그 충격은 지금까지 추모의 발걸음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도. 강남역에서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추모 열기는 약자인 여성들의 비명소리이며 이 비명 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함을 보도.</p>

매체구분	언론사	보도일	제목	해당 장면 분석
일간지 온라인판	중앙 일보	5/23	2030 여성들 “나도 당할 수 있다...어떻게 여성혐오 아니냐”	<p>인터넷이나 SNS에서 여성 혐오 표현 경험한 적 있나 단위:%, ()안은 명 ● 있다 ● 없다</p> <p>여성 (300명) 17.0 83.0</p> <p>남성 (1200명)</p> <p>청소년 (184) 15.2 84.8 대학생 (403) 10.7 89.3 취업준비생 (146) 21.9 78.1 직장인 (467) 19.3 80.7</p> <p>※여성 설문자(300명)는 청소년 30명·대학생 72명·취업준비생 39명 직장인 159명 ※여성 혐오 표현은 김지너·권장너·김여사·성괴(성형여자)·삼일환(3일에 한 번씩 때려야) 등</p> <p>현재 한국의 성별혐오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혐오는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p>
일간지 온라인판	동아 일보	5/21	“여자가 날 무시해?” ... 강남역 사건으로 돌아본 ‘여성혐오 범죄’	<p>여성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와 현재 사회상황을 함께 기사화 함. 여성혐오 범죄의 예시와 여성혐오 범죄가 생기는 원인, 대책마련 등의 내용이 적혀있음. 어떤 성향의 사람이 혐오범죄를 하게 되는지, 왜 혐오 범죄가 생기게 되는지 등 앞으로 어떤 식의 처벌과 교육을 하여야 혐오범죄를 줄일 수 있는 지 등을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보고, 원인과 대책마련 등의 내용이 적절히 기술 됨.</p>
일간지 온라인판	한겨레	5/22	“나도 잠재적 가해자입니 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남성들	<p>나는 '잠재적 가해자다'...남성들의 고백</p> <p>“남자 집단에서 여성혐오가 만연했을 때 배제 두려워 침묵...모든 남성은 지금 일에 책임이 있어”</p> <p>‘여성 폭력 중단을 위한 필리버스터’ 도중 남성 신필규씨</p> <p>“남성들은 자신을 변호하기를 멈추고 도대체 왜 수천명의 여성들이 강남역 10번 출구에 포스트잇을 붙이는지 궁금증을 가져야 한다”</p> <p>취업준비생 장정호씨 <한겨레> 통화 내용</p> <p>남자들 자신들도 알게 모르게 언어나 행동으로 여성들을</p>

매체구분	언론사	보도일	제목	해당 장면 분석
				폭행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기사.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남성들의 자성의 목소리와 수천 명의 여성들의 공감기 일어나고 있음을 보도.
인터넷 신문사	미디어 오늘	5/25	여혐 비판하면 남혐인가? 언론의 2차 가해	당시 보도되었던 매체들의 문제점에 대해 여성편하나 비하 또는 성차별적인 단어를 모아 비교하고, 문제점을 피력하고 있음. 가해자가 남성임에도 피해자인 여성의 성별을 강조하는 보도, 가해자를 변호하는 듯 한 보도, '묻지마 살인' 프레임의 강조하는 보도, '여성혐오' 사회를 지적하는 주장을 '남혐'으로 몰아가는 보도를 지적함.
인터넷 신문사	프레 시안	5/23	강남역 살인 사건, '남성 혐오' 걱정 말라!	<p>'여성 혐오 vs 남성 혐오'의 구도를 만들어내며 남성혐오를 걱정하는 언론에 대한 비판보도.</p>
TV (지상파)	KBS	6/4	관사서 성폭행... 섬 근무 여교사 '위험'	<p>섬 지역 상당수 학교 관사 시설이 보안에 취약한 상황, 그러나 섬이 많고, 승진 가산점도 무시할 수 없어 여교사들도 낙도와 오지 근무를 피하기가 어렵다는 보도로 여교사들의 오지 근무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함을 역설</p>

매체구분	언론사	보도일	제목	해당 장면 분석
TV (지상파)	SBS	6/7	오지근무 여교사만 3천 명...CCTV 가 해결책?	 <p>교직원 교육, 학부모 교육을 아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섬이나 오지에서 홀로 생활하는 교사들이 신변 위험에 노출돼 있으나 이들이 사는 관사에 대한 안전점검은 거의 없는 현실을 보도함. 교육부가 발표한 CCTV, 비상벨 설치 같은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실음.</p>

VI. 결론 및 제언

본 보고서는 최근 발생한 4가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열흘간의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해 대한민국의 뉴스 미디어가 여성폭력을 다루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지상파와 종편의 종합뉴스, 온라인 일간지, 인터넷 신문 중 18개 언론매체의 보도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보도의 선정성이다.

성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선정적인 표현과 흥미유발에 치중한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는 개선이 시급하다. 강남역 살인 사건 보도는 CCTV 녹화화면을 통해 범죄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였고, 중학생 성폭행 사건과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보도는 선정적인 삽화를 통해 성폭력을 성애화 하였다. 「인권보도준칙 제2장 2조 라항」에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는다’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구체적 정황묘사, 사건의 내용전달 보다는 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장면만을 강조하는 등 성폭력 범행 과정의 선정적인 내용을 부각시켜 보도하였다. 흥미유발을 위한 선정적인 기사제목과 구체적인 범행묘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상처를 덧입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자각과 몰지각한 언론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둘째,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이다.

성폭행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의 내용에 따라 사건과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보도가 있었다. 범위가 늦은 밤 술집회장에서 이루어졌다거나 피해 중학생들이 술을 마셨다거나, 피해여성이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등 피해자가 성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무분별한 보도나, 피해여성이 종사하는 업소직원의 인터뷰를 들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다’라는 도식을 담은 보도, 해당사건과 무관한 사건과 비교하여 보도하는 것은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상을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보도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언론의 무분별한 취재와 보도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가족, 지역주민 등에 대한 2차 가해를 발생시켰다. 조현병 환자를 강력 범죄와 연결시킴으로 모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인 강력 범죄의 가해자로 만들고, 섬마을 지역주민의 인터뷰 내용을 비난조로 보도하거나 이미 지난 사건들을 재조명하여 지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며, 가해 부모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 공분을 사게 하는 등 사건의 핵심에서 벗어난 보도에 집중함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다.

셋째, 성차별적인 보도 관행이다.

대부분의 보도가 사건의 제목에 ‘여중생’, ‘여종업원’, ‘여교사’ 등 여성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해자의 성별을 부각하는 보도 형태는 가해자를 은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 특히 ‘~녀’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사건과 관련된 여성을 일컬을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임에도 피해자인 고소인을 고소녀로 표현하며 희화하는 보도가 있었다. 또한 인터뷰 시 여성의 신상은 노출하고, 남성의 신상은 감추어 남녀의 신상을 달리 다루는 경위도 있었다.

이에 대중매체 상의 양성평등한 보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방송(보도)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동 제정한 「인권보도준칙」 제2장 인격권의 2에서는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지켜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밝히지 말아야 한다(나항)’,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아야 한다(라항)’,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아야 한다(바항)’ 등 구체적인 준칙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강제성 없이 권고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실제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성폭력 사건 보도 실태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여성폭력·성폭력 관련 보도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고, 언론에 성범죄와 관련된 보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각 언론사가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기준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차별적 보도방식 근절을 위한 언론사의 자정 노력

언론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예방과 사회 정책적 대책 마련 등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본연의 임무이지만 범죄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 훼손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이 무시되기도 하고,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기도 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언론은 피해자의 성별을 부각하거나 선정적이고 구체적인 보도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보도행태를 근절해야한다. 특히 성폭력 관련 보도의 경우 성인지적 관점의 자체 검열체계를 마련하는 등 언론관계자들의 자각과 의지가 필요하다. 이미 보도된 문제성 있는 보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사과하고 자정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의 책임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2016 리우올림픽 중계방송의 성차별성 모니터링

I. 들어가며

한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준 2016 리우 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8월 22일 폐막한 리우올림픽은 양성평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올림픽으로 기록될 것이다. IOC에 따르면 리우올림픽은 전 종목에 여성이 참가하고, 모든 참가국 선수 명단에 여성이 포함된 첫 올림픽으로 참가 선수 1만1444명 중 여성은 5175명(약 45%)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여자 선수들의 활약도 눈부셨다. 리우올림픽 한국 선수단 204명 중 여성은 절반가량인 101명이며, 메달 21개 중 9개는 여성이 획득했다⁸⁾. 그러나 대한민국의 올림픽 중계는 연일 무수한 성차별적 발언들을 쏟아내며 양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세계적인 흐름을 거슬렀다. 여자선수를 외모로 평가하거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중계진의 발언이 연일 SNS에 회자되었고, 성차별 발언 아카이빙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는 등 성차별 이슈에 불을 지폈다.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올림픽 중계방송에서의 성차별적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6 리우올림픽 중계방송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2016년 8월 6일부터 22일까지 지상파 3사(KBS, MBC, SBS)에서 중계된 577개의 경기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성차별적 사례는 중계된 방송 중 여자선수가 출전한 255개의 경기에 한하여 분석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여성신문, 8월 22일자

II.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2016 리우올림픽 중계방송
- 모니터링 기간 : 2016년 8월 6일~22일(17일간)
- 모니터링 매체 : TV(지상파)
- 대상 방송사 : KBS, MBC, SBS
- 방송 수 : 577개(내용분석은 여자선수가 출전한 255개 방송을 대상으로 함)
- 모니터인원 : 11명

III. 결과분석

1. 양적분석

2016 리우올림픽 중계방송 모니터링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캐스터, 해설자 성비

전체 중계진 1,200명 중 여성은 214명(17.8%), 남성은 986명(82.2%)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캐스터의 수는 여성이 16명(1.3%), 남성이 198명(16.5%)으로 분석되었고 해설자의 수 역시 여성이 198명(16.5%), 남성이 423명(35.3%)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송사별로는 MBC의 여성 해설위원 수가 92명으로 가장 많았고, KBS의 여성해설 위원수가 38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1 참조)

[표1] 방송사 별 캐스터, 해설자 성비 (단위 : 명)

방송사	여성		남성		합계
	캐스터	해설위원	캐스터	해설위원	
KBS	8	38	179	137	362
MBC	4	92	180	101	377
SBS	4	68	204	185	461
합계	16 (1.3%)	198 (16.5%)	563 (46.9%)	423 (35.3%)	1,200 (100%)

2) 캐스터, 해설자 성별 연령대

중계진의 연령대는 남성과 여성 모두 40대에 집중되어 있었고(797명, 66.4%),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50~60대의 중계진이 없는 것이 눈에 띄었다. (표2 참조)

[표2] 출연자 성별 연령대

(단위 : 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전체인원		23 (1.9%)	212 (17.7%)	797 (66.4%)	151 (12.6%)	17 (1.4%)	1,200 (100%)
여성	캐스터		6	10			16
	해설위원	4	65	129			198
남성	캐스터	8	90	387	76	2	563
	해설위원	11	51	271	75	15	423

3) 방송사별 성차별 발언 수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성차별적 발언 26개 중 KBS는 13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SBS가 7건(26.9%), MBC가 6건(23.1%)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3 참조)

[표3] 방송사별 성차별 발언 수 (단위 : 건)

No	방송사	성차별발언 수
1	KBS	13 (50.0%)
2	MBC	6 (23.1%)
3	SBS	7 (26.9%)
합 계		26 (100%)

4) 성차별적 중계 방송 및 발언자

방송사 별 성차별 중계방송 및 발언자는 아래와 같다. 총 30명의 발언자 중 남성은 25명(83.3%), 여성은 5명(16.7%)이었다. (표4 참조)

[표4] 성차별적 중계방송 및 발언자

방송사	경기명(출전선수)	발언자(성별)
KBS	여자 예선 A조 1경기(대한민국)	배우 OO(남), 가수 OOO(남), OOO캐스터(여)
	여자 -48kg급 16강 2경기(정보경)	OOO캐스터(남)

방송사	경기명(출전선수)	발언자(성별)
	여자 펜싱 에페 8강(최인정)	000캐스터(남)
	여자 개인 사브르 32강 13경기(김지연)	000캐스터(남)
	여자 200m 개인혼영 예선 1조(남유선)	000해설위원(남)
	여자 예선 A조 5경기(대한민국)	000캐스터(남)
	여자 싱글스컬 8강 1(김예지)	00해설위원(남)
	여자 -63kg급 32강 12경기(박지윤)	000해설위원(남)
	여자 개인 64강 32경기(장혜진)	000해설위원(남)
	여자 8강 2경기	000캐스터(남), 가수 000(남), 00(남)
	여자 개인 2라운드 (김세영, 박인비, 양희영, 전인지)	000해설위원(여)
	여자 개인 3라운드 (김세영, 박인비, 양희영, 전인지)	000해설위원(여)
	여자 개인 3라운드 (김세영, 박인비, 양희영, 전인지)	000캐스터(남)
MBC	여자 53kg급 A조	000해설위원(남)
	여자 개인 64강 32경기(장혜진)	인터뷰, 자막
	여자 개인 16강 8경기(장혜진)	000해설위원(남)
	여자 단체 8강 2경기 (서효원, 양하은, 전지희)	000해설위원(여)
	여자 개인 3라운드 (김세영, 박인비, 양희영, 전인지)	000해설위원(여)
	여자 개인 4라운드 (김세영, 박인비, 양희영, 전인지)	000캐스터(남)
SBS	여자 -48kg급 16강 2경기(정보경)	000해설위원(남)
	여자 -48kg급 8강 1경기(정보경)	000캐스터(남)
	여자 -57kg급 16강 5경기(김잔디)	000캐스터(남)
	수영 여자 배영 100m 예선 1조 경기	000해설위원(남)
	여자 개인 사브르 16강 7경기(김지연)	000캐스터(남), 000해설위원(남)
	여자 200m 접영 예선 2조(안세현)	000해설위원(남)
	여자 개인 4라운드 (김세영, 박인비, 양희영, 전인지)	000캐스터(남)

2. 질적분석

모니터링 기간 중 선수의 능력과 기량보다 여성성을 강조하거나 성 역할 고정관념을 지닌 표현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섬세함’, ‘여성스러움’, ‘가녀린 소녀’, ‘눈물’ 등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선수 및 경기를 평가하는 사례가 발견되었고, 이는 체육적 기량을 가진 국가대표 선수를 ‘여성’으로 이미지화한다는 점에서 성 차별적인 발언으로 보았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성차별적인 발언 또한 도를 넘었다. ‘미녀검객’, ‘예쁘다’라는 표현은 예사일 뿐 아니라 ‘살결이 아들아들한테 상당히 경기를 억세게 치르는 선수’라는 표현이나, ‘체중이 48kg 이상급인가요 이하급인가요?’라며 몸무게를 화두로 삼는 표현, ‘스물여덟이라면 여자 나이론 많은 나이’라며 나이를 운운하는 표현 등,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며 여성 선수들을 여성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1)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담긴 발언

〈골프 여자 개인 4라운드(김세영, 박인비, 양희영, 전인지)〉(SBS)에서 OOO캐스터(남)는 “박인비 선수 안 우나요. 눈물을 안 보여주네요”라는 멘트를 반복하며 여성을 연약한 존재로 언급하였다. 〈유도 여자 -63kg급 32강 12경기(박지윤)〉(KBS)에서는 OOO해설위원(남)이 “여자 선수, 여자에게는 그날의 컨디션이 중요하거든요”라고 발언하였다.

2) 선수를 기량이 아닌 외모로 평가

〈유도 여자 -48kg급 16강 2경기(정보경)〉(KBS) 중계 도중 OOO캐스터(남)가 여성 캐스터에게 “체중이 48kg 이상급인가요 이하급인가요?”라는 성희롱적 질문을 던졌고, 이어 “(상대 캐스터가) 분명 48kg 이상일 텐데 정보경 선수는 48kg 이하급”이라며 “정보경 선수도 실제로 보면 굉장히 가녀린 소녀일 것 같다”라고 발언하였다. 〈여자 펜싱 에페 8강〉(KBS) 중계에서는 OOO캐스터(남)가 펜싱 국가대표 최인정 선수가 입장하는 모습을 중계하며 “무슨 미인 대회에 출전한 것처럼요(웃음) 계속해서 미소를 띠고 있는 최인정 선수입니다”, “여성 선수가 저렇게 쇠로 된 장비를 다루는 걸 보니 인상적이네요”라며 연달아 선수의 경기력과 무관하게 외모와 약력으로 품평하는 발언을 하였다. 〈수영 여자 배영 100m 예선 1조 경기〉(SBS)에서는 OOO해설위원(남)이 여자 수영 조 예선에서 1위를 한 13세 네팔 선수 가우리카 싱에게 “박수 받을 만하죠. 얼굴도 예쁘게 생겨가지고”라며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였다. 〈펜싱 여자 개인 사브르 32강 13경기(김지연)〉(KBS)에서는 김지연 선수를 “미녀 검객”으로 지칭하며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을 하였고, 〈골프 여자 개인 3라운드(김세영, 박인비, 양희영, 전인지)〉(KBS)에서는 OOO캐스터(남)가 중국 선수인 평산산에게 “저렇게 가까이 오면 얼굴 크게 나오죠”라며 외모 비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미녀, 요정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여성 선수들을 실력이 아닌 외모로 평가하는 발언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3) 성적대상화 발언

〈유도 여자 -48kg급 16강 2경기(정보경)〉(SBS) 중계에서는 000해설위원(남)이 한국 국가대표 정보경 선수의 상대인 베트남 반 응옥 투 선수를 소개하며 "나이가 물론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스물여덟이라면 여자 나이론 많은 나이거든요"라며 선수의 나이를 지적하였고, 〈유도 여자 -48kg급 8강 1경기(정보경)〉(SBS)에서는 000캐스터(남)가 경기에 첫 출전한 몽골의 우란체제크 문크바트 선수에 대해 설명하며 "살결이 아들이들한테 상당히 경기를 억세게 치르는 선수"라고 외모를 언급하는 발언을 하였다. 〈양궁 여자 개인 64강 32경기(장혜진)〉(MBC)의 국가대표셀프 카메라 코너에서는 장혜진 선수가 등장하였는데, "예쁘시네요"라는 외모평가발언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고, '다쳤어요옹~', '애교', '애교쟁이 만언니' 등의 자막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인터뷰를 '애교' 콘셉트로 구성하였다. 〈양궁 여자 개인 16강 8경기(장혜진)〉(MBC)에서 000해설위원(남)은 양궁선수의 화살을 큐피트의 화살로 비유하여 "장혜진 선수의 가슴에 누가 큐피트의 화살을 쏠지... 지금 남자친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며 경기와 무관한 여성으로서의 개인적인 신상을 언급하였다. 위의 발언들은 여성을 남성의 잠재적 파트너로 여기며 소비하는 표현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4) 경기와 무관한 사생활을 가십으로 삼는 중계

〈배구 여자 예선 A조 1경기(대한민국)〉(KBS)에서는 배구 선수 출신 배우 00(남)이 경기 출전 중인 선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려 "XX선수와 중학교 때 아는 사이였는데"라고 언급하자 가수 000(남)가 "사귀었어요?"라고 질문하고, 위의 대화 후 화제를 전환하려는 00에게 000캐스터(여)가 "XX선수가 첫사랑이었죠?" 등 경기 내용과 무관한 선수 사생활과 연애로 화제를 끌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배구 여자 8강 2경기〉(KBS)에서는 000캐스터(남)와 가수 000, 배우 00(남)이 해설위원으로 출연한 모델 엄상미를 소개하며 "맥심 표지 모델을 했다고. 군대에서는 맥심이 최고죠", "맥심을 많이 봤다. 엄상미 씨가 최근 표지를 한 맥심 7월호도 찾아보겠다"라고 발언하는 등 경기와 무관하게 모델 엄상미를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발언을 하여 문제로 보았다.


IV. 나가며

IOC 올림픽 헌장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국가·인종·종교·성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올림픽 정신이 무색하게도 2016 리우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의 개인 기량이나 경기와는 관계가 없는 외모 평가, 나이와 몸무게에 대한 언급과 성적대상화 등 다양한 성 차별적인 발언이 연일 쏟아져 나왔고, SNS에서의 성차별 논란으로 불거졌다. 무분별한 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불편함을 시작으로 성차별적 발언의 기저에 있는 성별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 체육계의 남성 중심 문화,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소비하는 것에 대한 언론 및 시민사회의 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캐스터, 해설위원을 포함한 중계방송 관련 종사자에 대한 양성평등의식 강화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 매년 중계되는 스포츠 경기에서 더 이상 참가선수 그 자체로서가 아닌 여자로 다뤄지거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평가되는 중계 행태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V. 모니터링 내용

방송사	종목	경기명(선수명)	경기일	문제성발언(발언자)
KBS	배구	여자 예선 A조 1경기(대한민국)	8월 6일	배구 선수 출신 배우 OO(남)이 경기 출전 중인 선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려 "XX선수와 중학교 때 아는 사이였는데"라고 언급하자 OOO(남)가 "사귀었어요?"라고 질문함. 위의 대화 후 화제를 전환하려는 OO에게 정인영 캐스터(여)가 "XX선수가 첫사랑이었죠?" 등 경기 내용과 무관한 선수 사생활과 연애로 화제를 끌어감.
KBS	유도	여자 -48kg급 16강 2경기(정보경)	8월 6일	중계 도중 OOO캐스터(남)가 여성 캐스터에게 "체중이 48kg 이상급인가요 이하급인가요?"라는 성희롱적 질문을 던졌고, 이어 "(상대 캐스터가) 분명 48kg 이상일 텐데 정보경 선수는 48kg 이하급"이라며 "정보경 선수도 실제로 보면 굉장히 가녀린 소녀일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함.
KBS	펜싱	여자 펜싱 에페 8강 (최인정)	8월 6일	OOO캐스터(남)는 펜싱 국가대표 최인정 선수가 입장하는 모습을 중계하며 "무슨 미인 대회에 출전한 것처럼요(웃음) 계속해서 미소를 띠고 있는 최인정 선수입니다", "여성 선수가 저렇게 쇠로 된 장비를 다루는 걸 보니 인상적이네요"라며 연달아 선수의 경기력과 무관하게 외모와 약력으로 폄평하는 발언을 함.
SBS	유도	여자 -48kg급 16강 2경기(정보경)	8월 6일	OOO해설위원(남)이 한국 국가대표 정보경 선수의 상대인 베트남 반 응옥 투 선수를 소개하며 "나이가 물론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스물여덟이라면 여자 나이론 많은 나이거든요"라며 선수의 나이를 지적함.
SBS	유도	여자 -48kg급 8강 1경기(정보경)	8월 6일	OOO캐스터(남)는 경기에 첫 출전한 몽골의 우란체 제크 문크바트 선수에 대해 설명하며 "살결이 야들야들한데 상당히 경기를 억세게 치르는 선수"라고 외모를 언급하는 발언을 함.
SBS	유도	여자 -57kg급 16강 5경기(김잔디)	8월 8일	OOO캐스터(남)는 선수에 대해 설명하며 "김잔디 선수 이름이 예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예쁜 만큼 실력도 좋습니다"라고 발언함.

방송사	종목	경기명(선수명)	경기일	문제성발언(발언자)
SBS	수영	수영 여자 배영 100m 예선 1조 경기	8월 8일	OOO해설위원(남)은 여자 수영 조 예선에서 1위를 한 13세 네팔 선수 가우리카 싱에게 "박수 받을 만 하죠. 얼굴도 예쁘게 생겨가지고"라며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함.
SBS	펜싱	여자 개인 사브르 16강 7경기(김지연)	8월 8일	경기를 치르는 펜싱선수에 대해 OOO캐스터(남)는 "싸움닭"으로 표현하고, OOO해설위원(남)은 "단단한 허벅지"라는 신체적인 특징을 언급함.
MBC	역도	여자 53kg급 A조	8월 8일	경기 중 대만 선수가 100kg 역도를 드는 것에 성공하자 OOO해설위원(남)은 "남자선수도 아니고 여자선수가 이렇게 한다는 건 대단합니다"라며 남성과 빗대어 여성을 평가하는 발언을 함.
KBS	펜싱	여자 개인 사브르 32강 13경기(김지연)	8월 8일	펜싱 국가대표 김지연 선수를 "미녀 검객"으로 지칭하며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을 함.
KBS	수영	여자 200m 개인혼영 예선 1조(남유선)	8월 9일	OOO해설위원(남)은 남유선 선수에 대해 "서른을 훌쩍 넘긴 선수"라며 나이를 언급하여 표현함. 또한 김서영을 이끌어주는 "맘언니"로 표현하며 여성으로서의 성별을 강조함.
KBS	배구	여자 예선 A조 5경기(대한민국)	8월 9일	OOO캐스터(남)가 박정아 선수를 소개하면서 "꽃사슴"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KBS	조정	여자 싱글스컬 8강 1 (김예지)	8월 9일	OO해설위원(남)은 김예지선수를 "조정의 여왕"으로 소개하며 선수의 성별을 강조함.
KBS	유도	여자 -63kg급 32강 12경기(박지윤)	8월 9일	OOO해설위원(남)은 "여자 선수, 여자에게는 그날의 컨디션이 중요하거든요"라고 발언함.
SBS	수영	여자 200m 접영 예선 2조(안세현)	8월 10일	OOO해설위원(남)은 "안세현 선수가 얼굴도 예쁘지만 얼굴이 예쁜 만큼 내면의 (근성이 있는 선수)"라고 외모를 언급하여 설명함.

방송사	종목	경기명(선수명)	경기일	문제성발언(발언자)
MBC	양궁	여자 개인 64강 32경기(장혜진)	8월 10일	 <p>양궁 중계프로그램 사이에 양궁 국가대표셀프 카메라라는 코너에 장혜진 선수가 등장함. "예쁘시네요"라는 외모평가발언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고, '다쳤어요옹~', '애교', '애교쟁이 만언니' 등의 자막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인터뷰를 '애교' 콘셉트로 구성함.</p>
KBS	양궁	여자 개인 64강 32경기(장혜진)	8월 10일	<p>OOO해설위원(남)은 "장혜진 선수가 키가 작는데 활을 잘 쏘아요"라며 신체적 특징을 평가하는 발언을 함.</p>
MBC	양궁	여자 개인 16강 8경기(장혜진)	8월 11일	<p>OOO해설위원(남)은 양궁선수의 화살을 큐피트의 화살로 비유하여 "장혜진 선수의 가슴에 누가 큐피트의 화살을 쏘지... 지금 남자친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며 경기와 무관한 여성으로서의 개인적인 신상을 언급함.</p>
MBC	탁구	여자 단체 8강 2경기 (서효원, 양하은, 전지희)	8월 13일	<p>OOO해설위원(여)이 경기에 집중하는 전지희 선수의 표정에 대해 원래 포커 페이스 스타일이라고 설명하며 "원랜 잘 웃습니다. 애교도 많아요"라고 언급함.</p>

방송사	종목	경기명(선수명)	경기일	문제성발언(발언자)
KBS	배구	여자 8강 2경기	8월 16일	OOO캐스터(남)와 가수 OOO, 배우 OO(남)은 해설위원으로 출연한 모델 엄상미를 소개하며 “맥심 표지 모델을 했다고. 군대에서는 맥심이 최고죠”, “맥심을 많이 봤다. 엄상미씨가 최근 표지를 한 맥심 7월호도 찾아보겠다”라고 발언하는 등 경기와 무관하게 모델 엄상미를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발언을 함. 또한 비록 일반인의 시각으로 배구 해설을 함께 한다는 콘셉트였을지라도 “선수들이 키가 크네요”, “무서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등의 발언을 하며 배구에 대해 무지한 여성의 모습을 드러냄.
KBS	골프	여자 개인 2라운드 (김세영, 박인비, 양희영, 전인지)	8월 18일	OOO해설위원(여)은 브라질의 빅토리아 러브레이디 선수 플레이를 보며 “선수들 중 가장 '여성스럽게' 샷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발언함. 테레사루를 “8월에 결혼한 새색시, 새신부”로 소개하고, 박인비를 “여왕의 귀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개함.
MBC	골프	여자 개인 3라운드 (김세영, 박인비, 양희영, 전인지)	8월 19일	OOO해설위원(여)은 3라운드 출전을 준비하는 박인비 선수가 남편과 서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박인비 선수가 말이 없어 보이죠. 남편한테 애교가 많아요”라고 말함.
KBS	골프	여자 개인 3라운드 (김세영, 박인비, 양희영, 전인지)	8월 19일	OOO해설위원(여)은 “남자 선수도 저렇게 치는 선수가 많지 않은데”라는 표현으로 여자선수를 남성과 비교하여 평가함.
KBS	골프	여자 개인 3라운드 (김세영, 박인비, 양희영, 전인지)	8월 21일	OOO캐스터(남)는 중계 중 “박인비선수가 징징거리는 거 남편이 받아 줬을 것”이라며 경기와 무관한 내용의 발언을 함. 또한 중국 선수인 평산산에게 “저렇게 가까이 오면 얼굴 크게 나오죠”라며 외모 비하 발언을 하기도 함.
MBC	골프	여자 개인 4라운드 (김세영, 박인비, 양희영, 전인지)	8월 21일	OOO캐스터(남)는 금메달 시상대에 있는 박인비 선수에게 “남편한테만 보여주는 애교를 국민 여러분한테도 보여주면 좋을 텐데요”라는 발언을 함.
SBS	골프	여자 개인 4라운드 (김세영, 박인비, 양희영, 전인지)	8월 21일	OOO캐스터(남)는 “박인비 선수 안 우나요. 눈물을 안 보여주네요”라는 멘트를 반복하며 여성을 연약한 존재처럼 언급함.

온라인 속 성차별적 사례

I. 들어가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서울YWCA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회에서는 2016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혐오, 비난, 비하 등 온라인 속 성차별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모니터링 개요

1. 주제: 온라인 속 성차별적 사례
2. 목적: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차별 사례 중심으로 분석
3. 모니터링 대상
 - 대상매체: 온라인 커뮤니티
 - 대상내용: 게시글 및 댓글
 - 모니터링 내용: '혐오/폭력', '비난/비하' 글 중심으로 모니터링
4. 진행일정
 - 전문가자문: 11월 1일(화)
 - 모니터원 교육: 11월 22일(화)
 - 모니터링 기간: 11월 24일(목)~30일(수), 7일 간

5. 분석방법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은 서울YWCA 미디어모니터회 회원 13명이 담당하였고, 총 7일 간 모니터링 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 차별유형 및 그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양적분석과 혐오성 게시글과 댓글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분석을 병행하였다. 모니터링 지표는 「온라인 성차별성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도구 개발연구」(이수연·정수연·김수아·나운주(20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였다.

Ⅲ. 결과분석

1. 게시글/댓글의 성차별 유형

온라인 상의 성차별 게시글/댓글 수를 분석한 결과, 모니터링 기간 중 총 11건의 성차별적 게시글과 48건의 댓글이 발견되었다. 성차별적인 게시글과 댓글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혐오/비난’이 36건(61.0%), ‘폭력/성적대상화’가 23건(39.0%)으로 나타났다.

유형	게시글	댓글	합계
혐오/비난	9	27	36건
폭력/성적대상화	2	21	23건
합계	11건	48건	59건

2. 커뮤니티별 성차별 게시글/댓글 수

온라인 커뮤니티별로 성차별적인 게시글과 댓글 수를 분석한 결과 일간베스트에서 성차별적 게시글/댓글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23건, 39.0%) 그 다음으로는 네이트판(10건, 15.3%), 워마드(7건, 11.9%), 메갈리아(6건, 10.2%), 유튜브(6건, 10.2%)순으로 이어졌다.

(가나다순)

연번	커뮤니티명	성차별적 게시글 수		성차별적 댓글 수		합계
		혐오/비난	폭력/성적대상화	혐오/비난	폭력/성적대상화	
1	82쿡	-	-	1	-	1
2	네이트판	2	-	7	-	9
3	다음아고라	-	-	1	-	1
4	디시인사이드	1	-	1	2	4
5	메갈리아	4	-	1	1	6
6	베스티즈	-	-	1	-	1
7	오늘의유머	-	-	1	-	1
8	워마드	1	1	-	5	7
9	유튜브	-	-	2	4	6
10	일간베스트	1	1	12	9	23
소계		9건	2건	27건	21건	59건

IV. 내용분석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온라인 속 성차별적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분석을 위해 '혐오/비난'과 '폭력/성적대상화'의 2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두 가지의 성차별적 속성이 함께 드러난 사례는 주요하게 드러난 속성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해당내용은 맞춤법과 띄어쓰기, 은어를 포함한 원문 그대로를 실었다.

1. 혐오/비난



한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적 표현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개념 없다고 생각되는 한국여성을 지칭하는 비하적 의미의 '김치녀'와 한국 남성을 벌레에 비유해 부르는 낱말인 '한남충'이 대표적이다. 또한, 특정 성을 경멸적인 속성으로 환원하고 유형화하여 무차별적인 혐오를 드러내며, 근거 없는 비합리적인 고정관념을 표출하고 있었다.

1) 게시글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해당 글/분석)
네이트판	한남충 인성쓰레기 찌질한게 세계 최정상급 ㅋㅋ	10/23	<p>특목 > 남자들끼리만 > 채널보기 목록 < 이전글 다음글 ></p> <p>한남충 인성쓰레기 찌질한게 세계 최정상급ㅋㅋ</p> <p>○○ (관) 2016.10.23 03:17 조회 804</p> <p>한남충들 찌질함ㅋㅋ 오늘 열받는일이 있고 해서 편의점으로 뭐사러 갔는데 내가 찻는 과자도 안보여서 뭐 있냐면서 물어봤는데 내말은 안듣고 물건정리나 하고있음 마침 스트레스풀겸 가서 저기요 제가 한말 만들리세요 뭐라했는데 갑자기 막말하는거임 만들렀다 크게 쳐말해라 일하는거안보이나 가까이말해라 일하는거 안보이나 눈갈 장식으로도다냐 꼬우면 꺼져 이러는거임ㅋㅋ 역시 한남충 인성수준ㅋㅋ 아무리 진상미래도 손님인데ㅋ</p> <p>한남충들 열폭할거면 해보세요^^</p> <p>한국 남성을 낮추어 벌레에 비유하며 비난함</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해당 글/분석)
네이트판	한국여자 진짜 못생겼다	11/26	<p>한국여자 진짜 못생겼다. <small>여자는적 (관) · 2016.11.26 01:57</small></p> <p>한국산 김치녀들은 그냥 열등종자들이라 빵은 와우에 성격은 지랄맞고 쓸데없이 예민하고 그러면서 대우받기만 원하고 의무는 나물라라하는 무책임에 그냥 쓰레기같은 존재인거 같아요. 우리가 여자들보다 힘도 세고 저 누같은것들 다 응징할 수 있는데 왜 법이 그걸 막고있죠? ㅠㅜ</p> <p>한국 여성 전체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이유없는 혐오를 드러 냄</p>
위마드	이게 바로 한남 특유 피해의식 가득한 사고의 메커니즘	11/29	<p>이게 바로 한남 특유 피해의식 가득한 사고의 메커니즘 <small>위념글</small></p> <p><small>조회 1518 추천 1 2016.11.29 14:52 http://cafe.daum.net</small></p> <p><자주쓰이는 호칭의 변화> 1. 마주머니와 이재씨 -예초여 마주머니의 마음은 마주 종관다=마주마니 -마주머니는 예사로 쓰일 수 있지만 마주머니는 예사로 쓰이지 않는다, 사견찾아보면 마주머니는 가족내 호칭용어 한정임.</p> <p>2. 마줌마와 이재씨 -시간에 따라 마주머니가 마줌마로 격하됨</p> <p>3. 마줌마와 이재 한남들: 뭐? 이재씨 낫잖아! 이재라고? 그럼 마줌마도 낫잖아!! 뱀에어역!!!!</p> <p>이렇게 대중 한남 사고방식이다. 여성혐오가 담긴 뜻으로 호칭을 지어놓고, 그나마도 낫춰볼려고, 미쳐 저들이 보기엔 마줌마랑 이재씨는 동등하(반면하(것지) 동등한 뱀(마주)들) 쓰이는 것 같은데, 이재에 걸맞게 마줌마도 더더더 더 낫춰보라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p> <p>한남의 역차별 피해의식이 마약 이런 호칭들을 따라가는듯.</p> <p>한국남자의 역차별 피해의식의 흐름을 주장하며 한국 남 성에 대해 비난함</p>
메갈리아	무리에서 서열 낮은 남자 만나지 말라는 말 있잖아	8/8	<p>서열 낮은 남자는 남성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비록 키도 쫓만하고 파 오후지만 여성과는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여성을 말이트 주먹으로든 팬다. 내가 이정도야! 나도 남자맞아! 한국남자들이 그렇다 키도 작고(외국여자들보다도) 쫓도 작고 성격도 이상해서 외국나가면 남자 들이 무리에 안끼워준다 서열이 존나 낮다 열등감 자격지심으로 돌돌뭉쳤다 이런 남자 만나면 안된 다 한국 남자 만나면 안된다</p> <p>한</p> <p><small>스크랩 원문: 위마드 임시대피소</small></p> <p>국사회에서 서열 낮은 남자는 자기가 당한 것을 여성에게 풀기 때문에 사귀는 여자도 성희롱과 폭력의 대상이 된다고 말함.</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해당 글/분석)
메갈리아	보지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단 한 가지 생각	8/15	<p>'보지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단 한가지 생각'</p> <p>익명 ○ 2016.08.15 · 👤 1843</p> <hr/> <p>이 남자는 다를거야 이 남자는 괜찮겠지</p> <p>이 좋은 맛있을 거야... 이번 좋은 맛있겠지....</p> <p>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겠지ㅋㅋㅋ</p> <p>근데 시간 지나면서 다 알게되지 ㅋㅋ 이새끼도 똑같은 새끼였구나.</p> <p>이세상에 자지는 다 똑같이 병신임..</p> <p>남자는 그냥 믿으면 안된다</p> <p>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니며 그리고 다른놈은 교육도 안돼</p> <p>남자는 다 병신이라서 못 바꿈</p> <p>자매들 너가 괜찮은 사람이 되면 괜찮은 남자를 만날거야</p> <p>나 반만 되는 새끼라도 있으면ㅋㅋㅋㅋ</p> <p>곶팍 수준이 안 맞는다 이기야</p> <p>기본만 지킬줄 아는 사람새끼가 없노</p> <p>ㅋㅋㅋㅋㅋㅋㅋ 헤어져보면 안다</p> <p>내친구야.. 보고있냐? 제발 보라</p> <p>출처 : https://youtu.be/NQqXk3ROXMg</p> <p>사람을 성기로 지칭하거나 남성을 별레로 표현하는 등 혐오적 표현을 사용하며 모든 남성을 열등한 존재로 주장함</p>
	한남충들이 피미즘이 나 여자들의 사투를 보면서 부들부들 하는 이유	9/16	<p>각국 한남충들이 피미즘이나 여자들의 사투를 보면서 부들부들 하는 이유 2016-09-16 16:58:42 글쓴이 60 조회 588 댓글 0 223.33**</p> <p>6.9달된 소주러서 자기 할 말 당당하게 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 행동하는 여자들을 보면 미더덕이 쪼그라들기 때문임. 6.9들은 야거리 파이더라서 만날 인터넷에서나 군대 문제 회야해역~에 하는 군무사들이지, 실제로 군대갔다온 군배리들이 군인 다수 개선해달라고 시위헌적이 있긴하나?</p> <p>한국 남성의 성기를 빗댄 '6.9' 표현을 사용하며 구체적인 이유 없이 무차별적인 혐오를 드러내고 있음</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해당 글/분석)
메갈리아	사상검증 의 시간이 돌아왔노	11/25	<p style="text-align: center;">페미나치 선언문</p>  <p style="text-align: center;">진정한 페미나치 사이트로 거듭나 열등 씹치 좇불말을 뜯어내 폭파시켜 버리고 자종 흥자의 에어쥬과 뒤통수치는 품꼬충의 함문을 찾아발기고 진정한 페미나치 정권을 세워 취향 맞춤 생체애완딜도를 모든 보지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펄-력</p> <p>진정한 페미니스트 카페로 거듭나기 위해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페미나치 선언문'을 게시함</p>
디시인 사이드	한국남자 만나면 안 되는 딱 세 가지	11/9	<p>제목: 한국남자 만나면 안되는 이유 딱세가지 글쓴이: 한남69 조회: 406 댓글: 14</p>  <p>1. 와꾸가 찢고 키가 작다 2. 뺨이 찢고 앞고 갈색이다 3. 스타벅스할 매출리할 존없어서 모가는 좇겨지다</p> <p>한국 남성의 외모, 키, 성기, 경제적 능력 등에 대해 비하하는 은어를 사용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 일반화시켜 일방적이고 원색적이며 근거 없는 비난과 혐오를 하고 있음</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해당 글/분석)
일간 베스트	개씹돼지 페미년이 트럼프 아들에게 자폐아라고했다가 사과함	11/28	<p>일배 - 일간베스트 ☆ </p> <p>개씹돼지 페미년이 트럼프 아들에게 자폐아라고했다가 사과함 https://www.ibs.com/108774796 [복사하기]</p>  <p>로지 오도발이라고 쫓겨지길은 원려리 지지자가 있는데, 미국 방송언급 배우일. 이남은 레즈비언+쫓돼지+페미+힐러리 지지자라는 4관왕 타이틀을 보유하고있는 대단한 대지일. 근데 이 미친년이 뜬금없이 트럼프 막내아들이 분가 자폐아스런다는 주장을하고 통역상 몰랐다가 뺨비난받고 급속해버림. 이년이 사과하면서 한말이 더 거만이다. '혹시 자폐아일지도 모르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페미돼지 미친년들은 트럼프가 인튜애가 없다는들 개소리같은 비난을 늘어놓는데, 증착 지름이 하는 막장짓거리는 전혀 신경을 안쓴다. 1등 요약 - 페미나스들은 모두 정신병자다.</p> <p>페미니스트를 모두 정신병자로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비난함</p>

2) 댓글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일	댓글 내용
디시인사이드	한국남자 만나면 안되는 딱새끼 이유	4/1	<p>쫓에이 1.외국은 한녀홍도 할말이 없고 남녀 키차이가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큰 편에 속한다.</p> <p>쫓에이 2.외외로 한국남자랑 서양남자의 발기시 길이는 큰차이가 없다 오히려 서양녀와 한국녀의 겹의 차이가 더 크다.</p> <p>쫓에이 3.왜 여성비 하티치 상풍매 돈을 쓰니? 한국남자들의 평균 소득은 여전히 한국여자를 보다 좋다.</p>
메갈리아	성매매 합법에 대해..불쌍한 한국여자들..	8/4	<p>관음자지들 보거나 불법인데도 하는 새끼들이 49퍼인데 합법대면 불만하겠노 씨발 미개한 곳의 속주 한남홍새끼들</p>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일	댓글 내용
베스티즈	내가 시위에 가지 않은 이유를 읽은 95학번 선배의 답글"	11/24	미타라이유나 여자도 알고보면 남자 성추행 잘만 하던데? 나 지난번 집회 나갔을때 내 뒤에 있던 어떤 좃같은 못생긴 여자가 내 가발프고 색시한 엉덩이 뒤에서 두번 솔쩍 쓰다듬었슴~ 그래놓고 뒤에가선 존나 지가 피해자인척 여자라서 손해보는척 연기하는 인간 쓰레기년을 요즘 한국에 너무 많음 ㄹ
82국	나이드니 김희선 정말 예쁘네요 !!	11/29	00 링크없음 뜯금없이 보시는구나 ^^;; 전 연예인 무관심해서 첨쓰는 글이라 몰랐네요~ 그나저나 이 시국에 화를아하러오는 마친년 대갈뿔은 주멍이년을 댔네 ㄹ
일간 베스트	요즘여자들 보면 드는생각	11/25	1 일주일에 두번자위 요즘 여자들 존나 뽕멍청이를 많아 물론 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고 애내들은 앵간한 남자보다 공부는 잘함 근데 특히 지잡대년들은 대가리에 취직, 드라마, 딜도, 섹스, 맛집 미생각밖에 없음
	팬티 특징.gif	11/26	5 튀김먹는고양이 성상품화의 진짜 수익자는 그 당사자인 여자인데 왜 그 이면의 천박함은 남자 탓으로 돌리냐? 진짜 불공평하다
	여혐극복하고 스시녀를 사귀게된 썰.SSUL (약스압)	4/15	개나소나무사랑 2016.04.15 14:19 팬필하는 스시녀들 기들이 한국남에 인기있는거 다이는 김치파치된 애들 뿐임. 기본 양다리 삼다리임. 스시녀들 원래 남자들한테 잘해줌 조심해라
	트럼프 여초카페 반응 .jpg	11/9	1 온나불쌍함 +1 단순히 여성 혐오발언이 아님데 ㅋㅋㅋ 미국여성을 명칭이행 ㅋㅋㅋ 재물수준이 딱 오늘 투표장에서 난동피우는 페미년들
	요즘여자들 보면 드는생각	11/25	9 9싶다 +2 응 꺼져 선김치를 나대는거 못봤나보네 예전에는 여자들이 남편한테 존나 쳐맞았으니까 본성을 못보여줬지 요즘 풀어주니 뽕글이 파마한 선김치년을 얼마나 나대나 봐라
	임산부석 앉았다	11/29	3 체셔스키 +5 전에 지하철에서 임신부에게 자리 양보 했는데 알고보니 걔 배때기 튀어 나온 년 씨발 개같은 년이 쪽팔린줄 모르고 한번 사양도 없이 널을 앉더만
	개억울.gif	11/26	2 웬디성소로제 보지년들 좃같은건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노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일	댓글 내용
	임산부석 앉았다	11/29	<p>9 싸이코임</p> <p>시발 근데 저걸로 지랄하는 보지년들 어이없는게 버스 노약자석보라 보지년들 다앉아있다</p>
	임산부석 앉았다	11/29	<p>3 탈자보스섹</p> <p>난 존나 열행이없는게</p> <p>임신하지도 않은 보지년이 마치 자기가 앉아야될 곳인 것마냥 군다는 거임</p>
	요즘 여자들 보면 드는 생각	11/25	<p>4 노무나루</p> <p>2016.11.25 09:43:27</p> <p>애니 모지라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러시아에서 지금까지 한 몇년 살고있는데 외국여자랑 한국여자랑 외모, 태도 삶을 비교하는 가치, 남 자에 대한 의존성, 경제적 독립도까지 보면 요즘 젊은 한국녀는 태반이 청녀보다 못해 그냥</p>
	생후 1년만에 아버지 키를 뛰어넘어버린 베이비	11/26	<p>1 민생은피곤해</p> <p>2016.11.27 01:56:01</p> <p>* 한국녀들은 귀찮고 지를 성체 안치면 새지 일정한 남자들도 혐오하고 거부하는데 닥부이치져 재량 일본에 오혀불만족 역산 높은 도대체 무슨 폐역이 있는거노? 단지 지적 매력만으로는 귀버하기 힘든 경계를 갖고 태어났는데도 신기해네</p>
	습가 작은 계집련들 특징:real fact	11/29	<p>4 유숫유</p> <p>반박한다 젓크기 상관없이 김치보지년들은 죄 좃같음</p>
오늘의 유머	"DJ.DOC 수취인분명 가사, 여혐이라 광화문에 못선다고? "	11/26	<p>★ 꼬북2 (2016-11-26 04:54:15) (가입:2013-11-18 방문:1128) 221.167.***.25 추천 13</p> <p>🏆</p> <p>으휴... 진짜 지긋지긋하다 여성단체의 탈출선 메갈 버러지들.. 솔직히 이젠 수백개의 여성 단체를 자체가 사회를 증먹는 존재라고 밖에 생각이 안들니다. 그들의 여혐여혐..하루종일 그것만 생각하는듯 .. ㅈㅈ</p>
다음 아고라	〈만세〉 여자에게 권력을 주면 안되는 이유	11/28	<p>국종과 자유주의는 독목물이다</p> <p>그건 인간이 원숭이에서 갈라져나왔기 때문. 영장류의 암컷은 강한 수컷에게 순종하며 새끼 기르는데 특화되어있음. 극복 불가능한 태생적 운명. 몇몇 극소수 예외가 있기는 한 모양이지만, 그런 돌연변이일 뿐. 16.11.28</p> <p>1</p>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일	댓글 내용
네이트판	한국여자 진짜 못생겼다(1)	11/26	<p>01 2016.11.26 12:22   </p> <p>▶ 그래도 다행인게 여기댓글은 맞아 여자들못생겼더라 이런말 안하네 남자들 못생겼다고하면 여자특유의공감심으로 개지랄했을텐데 맞아 남자들못생김 이라고 비스들ㅋ</p>
	요즘 남자애들 특징	11/29	<p>00 2016.11.29 11:58 </p> <p>한남중 극혐. ㄹㅇ 다문화 빨리 도입해서 외국 남자 수입해와야함</p>
			<p>00 2016.11.29 11:00 </p> <p>김치녀들 지들 하는 짓거리가 있으니까 혐오 당하지 지들 행동은 생각 안하고 또 남자탓</p>
			<p>ㅎㅎㄹ 2016.11.29 08:55 </p> <p>뇌에 우동사리긴 _의숙주 예비 창남,성매수남 한남유종 클래스 ㄷㄷㄷ</p>
			<p>남자s련 2016.11.29 03:05 </p> <p>일베한남중들의 미래가 이렇게 밝습니다. 모두들 외쳐요 한남중 씨.팔려들어!</p>
			<p>00 2016.11.29 14:20 </p> <p>난 조카 여혐결릴것같은 뺨은계1집들이 조카나대고 피해받는것도 없으면서 피해의식만 개쩔어T</p>
			<p>00 2016.11.29 16:40 </p> <p>사!발 생각해니까 남자사 ㄹ끼들 얼굴은 조카게 못생겼으면서 맨날 여자알평하고 섹드림패드립치고 ??조카 극혐이다...</p>
유튜브	"한국여자들의 황당한 결혼관// 국제결혼이 필수인 시대 "	11/21	<p> 윤용준 3주 전</p> <p>아 진짜 김치녀들 가극혐 나는 잘알지 그리고 20~30대 여자들 말고도 40~50~60대 못배워먹은 몰상식한 아줌마들 보봐라 정말 가관 무개념 진짜 많다</p> <p>답글 · 2  </p>
			<p> 이대량 3주 전</p> <p>물개!? 이 관중은 러시아 여자랑 잘 만나고 있는 1인이다! 여친한테 말했다. 집은 내가 살테니까 몸만 오라고! 여친을 내가 거지야! 집은 들어서 같이 사는거야! 한국의 기생충 년들과는 말이 틀리지! 쓰레기야!</p> <p>답글 ·  </p>

2. 폭력/성적대상화

이성의 성적 속성을 들어 폄하하거나 성적 매력의 결격사유를 지적하고 성적대상화하여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폭력적인 표현들이 사용됐다. 또한 성기로 특정 성을 지칭하는 혐오적 단어들을 사용하는 등 욕설과 폭력적인 표현들이 많았다.

1) 게시물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해당 글/분석)
일간 베스트	<p>여혐 극복하고 스시녀를 사귀게 된 썰. SSUL (약스압)</p>	4/15	<p>가안녕 게이들이 병신 여혐결린다가 스시녀로 극복한 일제야 여혐을 갖게된 계기가 김치년에게 통수를 맞은이후로 여성 아니 김치년 혐오증이 생겼거든 고1때 사귀고 고3때 다은 이현x 허벌창 같은년아 체녀라 하더니 씨발 박을편 허벌보지더라 처녀가 뭐? 내 생각 하면서 자위하다가 깨졌다고? 하 씨발 욕격속하다간 수박줄 넘을듯하니 그냥 지금 별문다 나는 고1때 친구소개로 알콜 x s e o 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여차저차 해서 서로 마음이 맞아서 사귀게 되는데 여친을 사귀기 시작한 순간부터 원하는거 다 들어주기 위해 핀돌이 피시방알바 전단지 맥날알바 등 안하는게 없었다 웃사고 싶다하면 100일 기념으로 사다줬고 커를링도 나돈으로 금반지 사다가 맞췄고 항상 내 폰으로 다른 여자와 연락하나 감시하는것은 물론 내 여동생이랑 연락도 못하게했다 그런데 불구하고 스린심은 100일지나고 팔짱끼는경도가 되었고 200일 기념으로 커를링 사가지고 卍호한거랑 1년 기념으로 아웃백가서 갖고싶다던 옷 사다주는 보물창으로 진짜 힘들게 키스까지 했다 고2때도 병신같이 알바해서 모은돈 갖다 받치면서 비굴하게 보낼까지 했는데도 안대주더라 자기를 끝까지 책임져줄수 있는 사람한테만 처음을 줄거라고 진짜 보낼 열심히해서 겨우겨우 졸업할때 모텔가서 했는데 니기미 씨발 ㅋㅋㅋ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그 씨발년은 한두번 해본 손씨도아니고 아주그냥 태평양 보지마냥 쑥쑥 들어가더라 별로 좋아하는 표정도 아니고 신음소리 내면서 느끼는척만 하고있었고 나만 혼자 병신마냥 좋아했으니 호구 아다 보낼 일제야 코트?? 여친이 어딜가든 핸드폰은 자기 가방이나 주머니에 챙겨서 다니는데 그 뻥친날 만큼은 피곤했는지 침대앞 책상에 핸드폰 두고 바로 씻으러 들어가더라 여태 물레 흘려본 패턴을 기억하고 몇번 시도하다 겨우 풀었는데 보니까 연락하는 남자 새끼들이 줄라게 많더라 다행히 나 친구들 이름은 없었을 있었으면 서로 피터지게 싸웠을듯 씻고 나오고 다뻥싸우고 헤어지진 않았지만 내가 계속 지랄하다보니 여자가 지쳐서 헤어지자 하더라 이때 씨발 배신감 올라오고 내가 해왔던것이 뭐가되나 싶더라 번지도 좇갈아서 돌려달래다 짜질이 새끼로 낙인찍힐거라 그냥줬다 호구 코트?? 씨발 그냥 반지 쳐받으길 직장 다니면서 일베를 보다가 이새끼들 여혐결린게 나랑 똑같네 싶어서 병신마냥 가담해서 열심히 여혐글 작성했다 구체적으로는 김치년 혐오글이지만 여기까지가 김치년 혐오증에 걸린 썰이고 어쩌다 보니 한국년들이랑 내랑 안맞는다는 심어서 핀팔 사이트에서 스시녀들이랑 연락하게 되는데 이제 그만 그만 스시녀들이랑 연락은 그만 거야지 대박야</p> <p>여성을 성기로 지칭하거나 경멸적 속성으로 유형화 하는 여성혐오 표현을 사용하며 여성을 비하함</p>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일	댓글 내용
위마드	남자는 극혐이지만, 오토바이타는 남자는 인정해주자 (피주의)	11/28	<p>161128 23:33 답글</p> <p>타는건 좋은 ㅇㅇ 근데 제발 보자한테 피해주지 말길 오토바이 한남총을 뇌물 혼자 뒤지라고 ㅇㅇ 지적하면서 다말이 뒤지거나</p>
		11/29	<p>161129 02:39 답글 신고</p> <p>헛나 한병애 길러봐도~~~ 한밤 6969명 차례대로 졸스게 하고 한명씩 한명씩 밀어넣어서 더용량 딸기 스무디 만들면서 일련했는데 69원어 팔고싶노~~ 가정비 써서 트로?</p>
	11/29	<p>161129 16:43 답글 신고</p> <p>대주머니=머대니 --> 마줌마=엄마 낮선 사람도 보지말렸으면 잠재적 애마로 분류하려는 범담총새끼들의 단애일뿐이다! 애련들아 대주머니가 높인거고 애줌마가 낮은거고 중요하게 이닝걸 왜모르노 아저 낮혼다고 애줌마같은 여혐단애랑 비교가 되겠노 한남총 새끼들 다 뒤졌으면</p>	
	11/30	<p>161130 17:35</p> <p>한남총은 부랄만 한바가지 짹추 실쫄이라 기 안세워주면 꼬무룩 디져뽀다 ㅋㅋㅋㅋ</p>	
메갈리아	한남총들이 머리속에는 여성관	10/13	<p>저런 심각한 범죄인데 저런 반일론적 범죄를 상상하고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은 정신병이라고 부어는 볼 수 없다. 한남들은 저렇게 정신 병자 많음?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쾌락의 원천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저런 놈들은 발가벗겨놓고 여자들이 들어가며 페니스를 지근지근 밟아줘야 정신차려.</p>
일간 베스트	요즘 여자들 보면 드는생각	11/25	<p>☞ 고노아비키</p> <p>여자는 배우면 배울수록 병신이될 그냥 집에서 짤싸당하고 두들겨 맞으며 사는게 잘맞는다</p>
	씹페미니스트에 대한 정신과적 분석	11/25	<p>☞ 고힑의각</p> <p>저런거 치료가능함</p> <p>창고에 가둬두고 보름정도 매일 20시간이상씩 오함마로 대가리를 쳐맞으면 치료 될</p>
	남자가 원하는 엉덩이가	11/28	<p>☞ 민중은개돼지</p> <p>진짜 개찰지게 빨고싶다 침질질출려서 다물혀놓고 그대로 액안나온 상태에서 쭈셔박고싶다</p>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일	댓글 내용
일간 베스트	임산부석 앉았다	11/29	<p>㉔ 개처럼뛰자 +2</p> <p>씨발년을 쳐다보면 이렇게 말해라 야이 씨발년아 뭘 쳐다보냐?</p> <p>나보니까 보지가발렁발렁거리냐 씨발년 합싸주파 ?</p>
	숨가 작은 계집련들 특징.real fact	11/29	<p>㉕ 로리보직군영</p> <p>한창 자랄때 많이 자면 젖탱미가 쑥쑥 자란다는 결과가 있다더라 머차피 보지는 얼굴미랑 젖탱미보고 시집가는거니까 대학간담시고 갑치지말고 잠이나 쳐자서 보지에 물을 머금고 젖탱이나 키워야한다</p>
	숨가 작은 계집련들 특징.real fact	11/29	<p>㉖ 검은두부외국인</p> <p>찌찌 작은년들은 방명이라도 키워라 저주받은 너희똥에게 그나마 희망임</p>
	숨가 작은 계집련들 특징.real fact	11/29	<p>㉗ 투기꾼</p> <p>가슴 크면 색기 풀리고 애미도 많이 따였지</p>
	남자가 원하는 엉덩이가	11/28	<p>㉘ 육봉확장</p> <p>좀 못생기고 몸매 비율 똥송해도 운동해서 탄탄하면 어느정도 카바가되는데 미친년들이 운동도안함</p>
	성소 허벅지 특징.jpg	11/28	<p>㉙ 노장과절독미</p> <p>전에 사귀던 누나 있었는데</p> <p>그 누나 상체는 존나 말랐는데(그래서 가슴도없음)</p> <p>하체는 개두꺼웠음</p> <p>근데 좇같았던게 허벅지만 굵어야하는데 다리도 좇굵뻥해서 몇번 먹고 버림 ㅋㅋ역시 여자는 다리가 예뻐야할 ㅎㅎ</p>
유튜브	"한국여자 들의 황당한 결혼관 // 국제결혼이 필수인 시대 "	10/28	<p>fggh fsfws 1개월 전</p> <p>구멍하나 더있다고 지랄하는 김치년들</p> <p>답글 · 16 16 16</p>
		11/14	<p>조국 1개월 전</p> <p>그런 여자들한테 역시 빠따가 약이야 아주 명약이지. 역시 빠따를 쳐야돼</p>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일	댓글 내용
유튜브		11/14	<p>Stive Lee 1개월 전</p> <p>나...!!돈많은데!!(이쁜)20대초반!!!어여와서 다리벌려!!!</p> <p>답글 · 1</p>
		11/21	<p>Jay Yoo 1개월 전</p> <p>'양갈보'의 전통이 어디 가겠냐?</p> <p>답글 · 2</p>

VI. 결론 및 제언

본 보고서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 실태를 분석하였다. 온라인 상의 게시글과 댓글을 중심으로 비난/비하, 혐오, 폭력성 내용을 모니터링 한 결과 10개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11개의 게시글과 49개의 댓글을 발췌하였고, 이를 2개의 속성으로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모니터링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여성과 한국남성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와 폭력을 드러내는 게시글과 댓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한국사회의 성 대결구도를 온라인상에서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여성혐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특정 집단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 없이 나타나는 무차별적인 혐오가 여전히 많은 부분 드러나고 있었다.

둘째, 성역할에 대한 비합리적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이성을 하나의 경멸적 속성으로 환원해 비난하거나 상대를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는 표현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셋째, 이성의 외모와 몸매를 폄하하거나 성기로 존재를 지칭하고, 성폭력 수준의 혐오를 드러내는 게시글 등 표현의 수위가 심각함을 확인하였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여성혐오 성향이 짙은 일부 커뮤니티와 여성혐오를 미러링하는 커뮤니티 간의 대결구도가 첨예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적, 역사적으로 합의된 혐오표현의 정의가 부재한 상황으로, 다양한 형태의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보호아래에 놓여있다⁹⁾. 익명성의 그늘 아래 온라인 커뮤니티의 폭력적인 혐오표현이 위험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 혐오표현에 대한 제제는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언어적 표현을 넘어 실제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은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TV, 신문 등의 매체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지만, 타 매체보다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은 훨씬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혐오 등의 표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상 속의 건강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의 활동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양성평등 교육이 성별 대립을 유발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남녀가 상호 존중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역시 성희롱 뿐 아니라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온라인 상의 혐오표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제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온라인 차별·비하 정보 심의 건수는 2012년부터 증가하여 2016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시정요구 건수 891건(2015년) -> 2,136건(2016년))¹⁰⁾. 온라인 상 혐오표현이 늘어나고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지속적인 심의와 제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모니터링 단체들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심의요청도 필요하다.

셋째, 혐오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폐해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지정노력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한 뿌리 깊은 성차별 관행들이 하나하나 개선되어 성 평등한 사회가 조성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9)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적 과제(조규범, 이슈와 논점)

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Ⅲ. 부록

1.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2. 양성평등기본법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개요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드라마)

1. 모니터요원 :

2. 방송사

- ① KBS1 ② KBS2 ③ MBC ④ SBS
⑤ JTBC ⑥ MBN ⑦ 채널A ⑧ TV조선 ⑨tvN

3. 프로그램 명 :

4. 방영일시 :

5. 방영시간대 :

- ① 06:00-08:00 ② 08:00-10:00 ③ 10:00-12:00 ④ 12:00-14:00
⑤ 16:00-18:00 ⑥ 18:00-20:00 ⑦ 20:00-22:00 ⑧ 22:00-24:00 ⑨ 24:00-06:00

6. 프로그램 기획의도/내용

7. 등장인물 성비 분석(단위 : 명)

구 분	인원수	이 름
7-1. 전체		
7-2. 여성		
7-3. 남성		

8. 제작자 성비 분석(단위 : 명)

구 분	인원수	이 름
8-1. 전체		
8-2. 여성		
8-3. 남성		

9. 작가 성비 분석(단위 : 명)

구 분	인원수	이 름
9-1. 전체		
9-2. 여성		
9-3. 남성		

10. 등장인물 분석(주연 및 조연)

10-1. 이름	
10-2.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10-3. 연령	① 10대 이하 ② 10대 ③ 20대 ④ 30대 ⑤ 40대 ⑥ 50대 ⑦ 60대 ⑧ 70대 이상 ⑨ 모름
10-4. 직업	① 사장/대표 ② 회사원(팀장/실장/국장/본부장급) ③ 회사원(대리, 과장급) ④ 회사원(평직원) ⑤ 판매사원 ⑥ 안내원 ⑦ 아르바이트 ⑧ 서빙(접객 서비스) ⑨ 자영업자 ⑩ 요리사 ⑪ 의사 ⑫ 변호사 ⑬ 검사 ⑭ 판사 ⑮ 경찰(팀장급 이상) ⑯ 경찰(경장/경위) ⑰ 형사 ⑱ 공무원 ⑲ 기자 ⑳ 작가 ㉑ 교수 ㉒ 교사 ㉓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㉔ 무직 ㉕ 주부 ㉖ 연예인/방송인 ㉗ PD ㉘ 스텐더디스/스튜어드 ㉙ 무속인 ㉚ 학생 ㉛ 간호사 ㉜ 농부/어부 ㉝ 해녀/해남 ㉞ 국회의원 ㉟ 장관 ㊱ 비서/수행비서 ㊲ 매니저/로드매니저 ㊳ 회장사모님 ㊴ 범죄자(살인/납치/강도) ㊵ 경비원 ㊶ 공장노동자 ㊷ 고시생/재수생/취준생 ㊸ 운동선수/감독 ㊹ 의료인 ㊺ 백수 ㊻ 모름 (99) 기타_____
10-5. 역할비중	① 주연 ② 조연

11. 주요 갈등유발자

11-1. 인물명	
11-2. 성별	①여성 ②남성
11-3. 역할	

12. 주요 갈등해결자

12-1. 인물명	
12-2. 성별	①여성 ②남성
12-3. 역할	

13. 내용분석

13-1.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

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주체성				
현실반영성				
다양성				
대안성				

- 기타 :

13-2. 성차별적 내용

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여성의 주체성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외모지상주의 조장				
여성의 성적대상화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선정성				

- 기타 :

14. 종합의견

--

■ 성차별적내용

- ① 방송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을 다루는가
가. 남존여비, 남아선호, 여성비하, 가부장제를 강화시키는 내용
나. 순결의 주체를 여성으로만 국한시키는 내용
다. 가사노동을 평가절하하거나 전업주부를 과소평가하는 내용
라. 사회적 직업을 가진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
마. 사회적 직업과 권력을 가지지 못한 남성을 무시하거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
바. 여성을 남성의 단순보조나 부속물로 취급하는 내용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내용
- ② 방송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부각시키는가
- ③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미화시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가
- ④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조롱,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가
- ⑤ 방송은 여성에 대한 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 ⑥ 방송은 프로그램 내에서 출연자 및 방청객을 성희롱하는 행위 및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 ⑦ 방송은 독신, 한부모,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정적으로 그리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⑧ 방송은 부부간의 관계를 묘사할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 쪽에게 복종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가
- ⑨ 방송은 미망인, 미스, 올드미스, 여사, 과부, 여류, 출가외인 등 가부장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단어(혹은 어휘, 혹은 표현)를 사용하는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예능)

1. 모니터요원 :

2. 방송사

- ① KBS1 ② KBS2 ③ MBC ④ SBS
⑤ JTBC ⑥ MBN ⑦ 채널A ⑧ TV조선 ⑨tvN

3. 프로그램 명(꼭지명) :

4. 방영일시 :

5. 방영시간대 :

- ① 06:00-08:00 ② 08:00-10:00 ③ 10:00-12:00 ④ 12:00-14:00
⑤ 16:00-18:00 ⑥ 18:00-20:00 ⑦ 20:00-22:00 ⑧ 22:00-24:00 ⑨ 24:00-06:00

6. 프로그램 기획의도/내용

7. 출연자 성비 분석(단위 : 명)

구 분	인원수
7-1. 전체	
7-2. 여성	
7-3. 남성	

8. 출연자 분석

8-1. 이름	
8-2.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8-3. 연령	① 10대 이하(아기) ② 10대 ③ 20대 ④ 30대 ⑤ 40대 ⑥ 50대 ⑦ 60대 ⑧ 70대 이상 ⑨ 모름
8-4. 직업	① 개그맨/코미디언 ② 배우 ③ 가수 ④ 모델 ⑤ 방송인/전문진행자 ⑥ 변호사 ⑦ 의사 ⑧ 비평가/평론가 ⑨ 언론인(기자 등) ⑩ 요리사/요리연구가 ⑪ 작가 ⑫ 상담사 ⑬ 교수 ⑭ 교육 전문가(교사 등) ⑮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⑯ 학생 ⑰ 일반시청자 ⑱ 회사원 ⑲ 주부 ⑳ 자영업자 ㉑ 운동선수 ㉒ 무직 ㉓ 모름 (99) 기타_____
8-5. 역할	① 주진행자 ② 보조진행자 ③ 출연자/초대손님 ④ 리포터 ⑤ 기타

9. 내용분석

9-1.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

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주체성				
현실반영성				
다양성				
대안성				

- 기타 :

9-2. 성차별적 내용

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여성의 주체성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외모지상주의 조장				
여성의 성적대상화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선정성				

- 기타 :

10. 종합의견

■ 성차별적내용

- ① 방송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을 다루는가
가. 남존여비, 남아선호, 여성비하, 가부장제를 강화시키는 내용
나. 순결의 주체를 여성으로만 국한시키는 내용
다. 가사노동을 평가절하하거나 전업주부를 과소평가하는 내용
라. 사회적 직업을 가진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
마. 사회적 직업과 권력을 가지지 못한 남성을 무시하거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
바. 여성을 남성의 단순보조나 부속물로 취급하는 내용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내용
- ② 방송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부각시키는가
- ③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미화시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가
- ④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조롱,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가
- ⑤ 방송은 여성에 대한 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 ⑥ 방송은 프로그램 내에서 출연자 및 방청객을 성희롱하는 행위 및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 ⑦ 방송은 독신, 한부모,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정적으로 그리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⑧ 방송은 부부간의 관계를 묘사할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 쪽에게 복종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가
- ⑨ 방송은 미망인, 미스, 올드미스, 여사, 과부, 여류, 출가외인 등 가부장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단어(혹은 어휘, 혹은 표현)를 사용하는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인터넷기사)

1. 모니터 요원 :

2. 언론사 :

3. 매체명 :

4. 모니터링 기간 :

5. 내용분석

5-1. 성평등적 내용

구분	날짜	언론사	기사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주체성				
현실반영성				
다양성				
대안성				

- 기타 :

5-2. 성차별적 내용

구분	날짜	언론사	기사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여성의 주체성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외모지상주의 조장				
여성의 성적대상화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선정성				

6. 종합의견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신문)

1. 모니터요원 :

2. 신문사

① 조선일보 ② 중앙일보 ③ 동아일보 ④ 경향신문 ⑤ 한겨레

3. 발행일 : 2016년 월 일()

4. 외부기고가 양적분석

총 인원	남성	여성
명	명	명

5. 전체 신문 중 여성관련 보도 비율 및 유형

총 보도 수	건	여성관련 보도 수	건
여성관련보도	단순보도		건
형태별 분류	기획/정책이슈 보도		건

6. 내용분석

6-1.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

구분	언론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주체성					
현실반영성					
다양성					
대안성					

- 기타 :

6-2. 성차별적 내용

구분	언론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여성의 주체성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외모지상주의 조장					
여성의 성적대상화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선정성					

- 기타 :

7. 종합의견

<p>■ 성평등적 내용</p> <p>① 성평등 문제의식 환기</p> <p>② 여성이슈 소개</p> <p>③ 남성 육아 정보 게재</p> <p>④ 기타</p>	<p>■ 성차별적 내용</p> <p>① 사회구조적문제를 배제하고 개인적 노력만 강조</p> <p>② 선정적 기사 제목</p> <p>③ 성차별적 용어</p> <p>④ 외모지상주의</p> <p>⑤ 기타</p>
---	--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잡지)

1. 모니터요원 :

2. 잡지명

- ① 코스모폴리탄(한국판) ② 여성중앙 ③ 보그(한국판)
 ④ 에스콰이어(한국판) ⑤ 지큐코리아(GQ) ⑥ 맥심코리아

*월간지 중 여성지, 남성지 판매순위별 각 3개씩 선정

3. 발행월 : 2016년 월

4. 모니터링 기간 : 2016년 월 일() ~ 일()

5. 제작자 양적분석

구 분	편집장	에디터
5-1. 전체		
5-2. 여성		
5-3. 남성		

6. 성차별적 콘텐츠 비율 및 유형

총 콘텐츠 수	건	성차별적 콘텐츠 수	건
총 이미지 수	건	성차별적 이미지 수	건

7. 내용분석

7-1. 표지분석 : 표지 이미지 / 메인기사제목

7-2.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

구분	기사제목	페이지	내용 및 이유
주체성			
현실반영성			
다양성			
대안성			

- 기타 :

• 성차별적 내용

구분	기사제목	페이지	내용 및 이유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여성의 주체성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외모지상주의 조장			
여성의 성적대상화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선정성			

- 기타 :

*보도횟수 : 해당사건이 몇 회 보도되었는가?

*보도길이 : 해당일에 관련보도가 2건인 경우 합산하여 기재(분:초)

*보도순서 : 해당보도가 몇 번째로 보도되었는가?

※ 사건번호

- ① 강남역 살인사건 ②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③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④ 박유천 성폭행 의혹 사건

2) 인터넷 기사

매체	언론사	사건번호	당일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①										
		②										
		③										
		④										

*해당기사 수 기입

*기사의 출처 확인(해당 언론사가 직접 작성한 기사만 해당)

6. 내용분석

언론사 (프로그램)	사건 번호	기사 제목	보 도 일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 사건의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 ? (중복체크)	2. 여성폭력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3. 보도의 초점은 무엇인가?	4. 여성폭력을 선정적으로 표현했는가 ? (기사, 영상, 이미지 등)	5. 여성폭력의 과정을 필요 이상 상세하게 보도했는가 ?	6. 사건의 원인, 현황, 대책을 보도하는 비중은 각각 얼마인가?	7. 성차별적 표현은 없는가?
				①여성혐오 ②여성에 대한 폭력 ③우발적 범죄 ④남녀 애정문 제 ⑤정신질환 ⑥기타 () ⑦드러나지 않음	①가해자 ②피해자 ③사회상황 ④기타 ()	①가해자의 상황 ②피해자의 상황 ③구조적 원인 ④대책 ⑤기타 ()	①그렇다(서술) ②그렇지 않다	①그렇다(서술) ②그렇지않다	원인:현황:대책 (100%기준)	①있다(서술) ②없다
				*해당장면 및 분석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리우올림픽 중계방송)

1. 모니터요원 :

2. 방송사 : ① KBS1 ② KBS2 ③ MBC ④ SBS

3. 방영일시 :

4. 종목 :

5. 경기명 :

6. 출전선수명 :

7. 해설진 성비 분석(단위 : 명)

구 분	인원수	연령대
7-1. 여성캐스터		
7-2. 여성해설위원		
7-3. 남성캐스터		
7-4. 남성해설위원		

8. 내용분석

8-1.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

구분	방송사	종목	경기명(선수명)	경기일	성평등적 내용(발언자)
주체성					
현실반영성					
다양성					
대안성					

- 기타 :

8-2. 성차별적 내용

구분	방송사	종목	경기명(선수명)	경기일	문제성발언(발언자)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여성의 주체성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외모지상주의 조장					
여성의 성적대상화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선정성					

- 기타 :

■ 성차별적내용

- ① 방송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을 다루는가
 - 가. 남존여비, 남아선호, 여성비하, 가부장제를 강화시키는 내용
 - 나. 순결의 주체를 여성으로만 국한시키는 내용
 - 다. 가사노동을 평가절하하거나 전업주부를 과소평가하는 내용
 - 라. 사회적 직업을 가진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
 - 마. 사회적 직업과 권력을 가지지 못한 남성을 무시하거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
 - 바. 여성을 남성의 단순보조나 부속물로 취급하는 내용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내용
- ② 방송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부각시키는가
- ③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미화시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가
- ④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조롱,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가
- ⑤ 방송은 여성에 대한 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 ⑥ 방송은 프로그램 내에서 출연자 및 방청객을 성희롱하는 행위 및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 ⑦ 방송은 독신, 한부모,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정적으로 그리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⑧ 방송은 부부간의 관계를 묘사할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 쪽에게 복종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가
- ⑨ 방송은 미망인, 미스, 올드미스, 여사, 과부, 여류, 출가외인 등 가부장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단어(혹은 어휘, 혹은 표현)를 사용하는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온라인커뮤니티)

1. 모니터요원 :

2. 모니터링 날짜 : 2016년 월 일()

3. 사이트명

4. 게시글분석

제목	URL	게시일자	주요내용 (해당내용캡처/분석)	차별유형	차별대상

5. 댓글분석

게시글제목	URL	게시일자	주요내용 (해당내용캡처/분석)	차별유형	차별대상

*차별유형 : 1. 의견/주장 2. 비하/비난 3. 혐오/폭력

*차별대상 : 1. 여성혐오 2. 남성혐오 3. 기타혐오(혐오대상기재)

양성평등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6.22.>
-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민이 양성평등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 5.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 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 ①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전문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제16조(성인지 예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22.>

제17조(성인지 통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성인지 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⑥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20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

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공직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정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 등에 있어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제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

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제26조(일·가정 양립지원)

-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이 조에서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제29조(성차별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복지증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건강증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양성평등 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일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평화·통일 과정 참여)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국가의 출연금
 -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3. 기금의 운용수익금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2.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 3.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44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자가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理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나.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

2.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나.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 ① 시·도지사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청문)

시·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과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
2.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가치에 대한 연구
3. 역사발전·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4. 여성문화·지역여성·여성운동·여성단체·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보존·연구·교육
5. 미술·음악·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6.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3조(국회 보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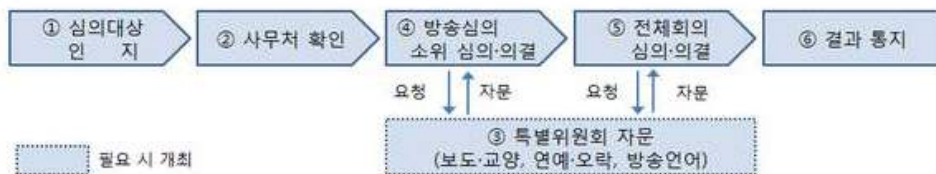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개요

- 목적 :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보장, 공적 책임 준수

- 근거
 - ① 방송법[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제33조(심의규정), 제100조(제재조치등)]
 -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 ③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심위 행정규칙)

- 기능 :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심의,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 (심의대상) 지상파(TV, 라디오),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등), 보도전문채널(YTN, 연합뉴스 등), 일반등록채널(TvN, Mnet 등), 위성방송, IPTV 등
 - (심의내용) 양성평등, 광고효과, 협찬고지, 윤리성, 폭력묘사, 방송언어, 사생활 보호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심의기준 위반 여부
 - (제재조치) 과징금(1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법정제재(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
 - * 과징금 및 법정제재는 방통위에 처분 요청, 행정지도는 방심위 직접 수행

- 절차 : 심의대상 인지(사무처) → 방송심의 소위원회(5명) 심의·의결(행정지도)
 - 전체회의(9명) 심의·의결(행정지도, 법정제재, 과징금) → 결과 처리
 -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개최 전 필요 시 특별위원회(9명)에 자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2.>
- ③ 방송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2016.12.22.>
- ④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2.>
- ⑤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2.>